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연구용역과제 결과보고서

고문헌자료실 소장 근대 문헌 해제

Analytic and Bibliographic Study of Modern Literature in Rare Book Collections

본 보고서를 고문헌자료실 소장 근대문헌 해제 연구용역(과제번호: 200-20230067)의 작업 결과물로 제출합니다.

2024. 1. 29.

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김종학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장 귀하

□ 연구수행자 명단

구분	성명	소속기관	직급	담당 분야
연구책임자	김종학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부교수	한국 근대사/ 한일관계사
공동연구원	김봉준	인천대 중국학술원	상임연구원	동아시아 국제법/외교사
	배민재	가톨릭대학교	연구교원	서구 한국학
	소진형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정치학
	정준영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부교수	사회학
연구보조원	김민수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대학원생	

1. 개요

○ 본 연구용역의 목적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에 수장된 근대 문헌 가운데 그 학술적・사료적 가치가 탁월한 서적을 선별하여 그 해제를 작성함으로써 해당 자료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있다. 고문헌자료실에 보존된 장서는 대부분 1920년대 경성제대 시절에 수집된 것으로, 약 40만 권의 방대한 분량에 달한다. 본 용역은 향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해제 작업을 위한 시범 사업으로서, 근대 한국사/한일관계사・동아시아 국제법/외교사・서구 한국학・정치학・사회학 등 5개 분야의 중요 자료에 대한 해제 작업을 진행했다.

○ 해제는 문헌의 개략적 내용, 저자 소개, 집필(편찬) 경위, 구성, 서지적 특성, 유일본 및 선본 여부 등의 사항을 포함한다. 또한 열람자의 편의를 위해 해제 원고마다 상단에 서명・편저자・발간 연도・발행 사항・청구기호・비고 등의 사항을 정리한 표를 첨부했다. 그 중 「비고」에서는 해제 작업 중 발견한 현행 분류 체계 및 서울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서지사항의 오류 등을 적시하는 한편, 유일본이나 선본 등 희귀한 문헌의 경우 디지털콘텐츠 촬영 의견을 제시했다. 각 해제는 200자 원고지 기준 5~10매 분량으로 작성했으며, 해제 원고의 전체 분량은 1,185장이다.

○ 본 결과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 「분야별 총평」은 각 분야의 작업 성과를 간략히 정리한 것으로, 문헌 선정 기준, 특별한 가치를 갖는 문헌의 보충 설명, 현행 문헌 분류 체계 및 서지사항의 문제점 등을 서술했다. 제3장 「해제」는 본 보고서의 핵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근대 한국사/한일관계사(40건)・동아시아 국제법/외교사(40건)・서구 한국학(40건)・정치학(40건)・사회학(26건) 등 총 186건의 해제를 수록했다. 사회학 분야의 해제 문건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소한 이유에 관해선 「분야별 총평」에서 설명했다. 제4장 「목록」은 본 연구용역에서 다룬 모든 문헌의 서명・편저자・발간 연도・발행 사항・청구기호・비고 등의 사항을 포함한 일람표(一覽表)로 구성했다.

2. 분야별 총평

⑴ 한국 근대사/ 한일관계사

메이지 시기부터 쇼와 초기까지 발간 또는 집필된 문헌 가운데 연구사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으나 오늘날 국내 학계에서 잘 활용되지 않는 것들을 위주로 해제 대상 문헌을 선정함으로써 연구자 또는 대학(원)생들의 자료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주안을 두었다.

그 가운데 유일본 또는 선본이라고 할 만한 것으로는 오쿠 기세이(奧義制)의 『조선교제시말(朝鮮交際始末)』, 무쓰 무네미쓰(陸奧宗光)의 『건건록(蹇蹇錄)』 초판(1895), 작자 미상의 『조선관계고증휘집(朝鮮關係考證彙)』(1930), 미야모토 세이치로(宮島誠一郎)의 『국헌편찬기원(國憲編纂起原)』(1905, 1907)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조선관계고증휘집』은 1876년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 체결 협상을 앞두고 일본 정부에서 조선에 관한 정보를 취합하여 편찬한 자료집으로서, 서울대 중앙도서관 유일본으로 보인다. 또한 시오카와 이치타로(鹽川一太郎)의 『조선통상사정(朝鮮通商事情)』(1895), 시노부 준페이(信夫淳平)의 『한반도(韓半島)』(1901), 제일은행 편 『한국에서의 제일은행(韓國ニ於ケル第一銀行)』(1908), 조선총독부 편 『동아경제조사국보고(東亞經濟調査局報告)』(1913)에는 구한말과 식민지 초기 한국의 경제사회사 연구에 필수적인 무역・경제・재정상의 통계가 포함돼 있다.

이 밖에 고문헌 자료실에는 일본 최초의 국제법 및 외교 전문지 『외교시보(外交時報)』(1898년 창간)와 『국제법외교잡지(國際法外交雜誌)』(1902년 창간)가 창간호부터 결본(缺本) 없이 소장돼 있다. 이들 저널은 근대 동아시아 국제법 및 외교사 연구에 필수적인 자료일 뿐 아니라, 일본 대학의 도서관에서도 완본(完本)은 쉽게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된다.

⑵ 동아시아 국제법/ 외교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에는 옛 경성제국대학에서 소장하던 국제법 및 국제관계 관련 서적이 다수 남아있다. 그중에는 일본에서 발행되거나 일본어로 된 자료뿐만 아니라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의 중국본 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한중 관계 및 청말민초 중국과 동아시아의 대외관계를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준다. 특히, 장쭝푸(張忠紱)의 중화민국외교사(中華民國外交史), 좡위메이(莊禹梅)

의 외교사통록(外交思痛錄), 메이꽁런(梅公任)의 만주우환사(滿洲憂患史) 와 같은 책은 당시 중화민국의 대외관계뿐만 아니라 민국시기 지식인의 대외 인식과 관련 주장까지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고유의 가치를 가지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청말민초 중국의 대외관계 자료집인 주판이무시말(籌辦夷務始末), 약장성안회람(約章成案匯覽), 통상각국조약(通商各國條約), 외교문독(外交文牘) 은 소장 판본의 희소성과 가치를 차치하더라도 자료의 내용과 구성에 있어 근대 동아시아 및 중국 외교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그밖에 일청수호통상조약초안(日淸修好通商條約草案) 은 「일청수호통상조약」 체결 이전의 조관을 그대로 수록하고 있어 성약 이후의 조약문과 면밀한 대조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료이다. 이 조약은 1882년의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과도 관련이 있다. 아울러 남만주철도주식회사 경제조사회(南滿洲鉄道株式会社 經濟調査会)의 기회균등주의관계자료(機會均等主義關係資料) 는 베르사유 체제 이후 일본의 대외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료로, 이 자료를 통해 일본 정부가 어떻게 임시 통치 및 신탁 사안에 대응하려고 했는지 파악할 수 있게 하는 희귀자료 중 하나이다.

⑶ 서구 한국학

본 해제 작업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장서 가운데 한국에 관한 서양서 단행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은 1934년에 편찬된 「서양서 분류표」(Keijo Imperial University Library Classification of European Books)에 따라 장서를 분류하였는데, 서양서분류표는 총 22개의 주제, 즉 대분류 항목에 따라 도서를 분류하였는데, 이는 총류, 철학, 종교, 교육, 예술, 문학, 언어, 역사 전기, 지리, 사법, 정치, 경제, 상업&통신, 금융, 사회학, 통계, 수학&자연과학, 의학, 공학&산업, 농업, 군사. 연속간행물(제본, 비제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서양서 분류표」는 각 주제 아래 언어별로는 구분에서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의 소분류가 이루어지거나, 국가별로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분류가 이루어지기는 하나, 한국 관련 도서에 대한 별도의 분류 항목이 매우 적다. 물론 해당 분류표가 작성되었던 1930년대에 ‘한국학’이라는 분류 항목이 존재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식민지 조선을 포함하는 동양학 연구의 측면에서도 일본학계는 19세기 후반부터 서구의 연구와는 분리된 독자적 영역을 확보하고 있었다. 따라서 수적으로도 많지 않았던 한국 관련 서양서가 도서관의 장서 구축이 및 분류에서 중요

하게 다루어질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일본학계의 ‘동양학’ 범주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이면서, 서양적 의미의 동양학에서는 타자화된 객체였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일본이 스스로를 ‘동양’과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타자화된 객체로서의 ‘동양’, 즉 서양이 바라보는 한국을 인식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서양과 동양이라는 비교 대상 사이에서 동양의 타자보다 일본이 우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설득해야 했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들은 식민지에 설립된 제국대학으로서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서양서가 보편적 교양주의를 전파하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된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식민지의 제국대학의 도서관이라는 점에서 나타나는 이질성이나 불균등성을 더 세심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그렇다면,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한국 관련 서양서의 장서는 보편적 교양주의와 스스로의 우월성을 측정하고자 하는 일본 동양학의 특성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수용과 균열을 보이는지 역시도 주목해볼 만한 분석 지점이라 하겠다.

서양서 분류표에서 한국 관련 도서를 위한 별도의 소분류 항목으로는 「총류(-국가서지)」·「언어(-아시아-한국어)」·「문학(-동양 문학-한국 문학)」·「지리(-아시아-한국)」·「역사(-아시아-한국)」의 4개 정도이며, 그 외에는 정치 분야 중 「각국의 정치 상황」·「식민」 항목에 한국에 관한 도서가 일부 섞여 있다. 비교적 장서 구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분야는 「언어」이며, 수적으로 많은 장서가 수집된 분야는 「지리」 항목이다. 해제 대상 역시 두 분야에서 주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언어」가 유럽 동양학계의 연구 경향과 재한 서양인의 유입으로 초창기 서구 한국학 관련 저술이 활발한 대표적인 분야였기 때문이며, 아울러 「지리」라는 명명된 도서 분류의 범주와 그 성격을 파악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언어」 분야의 장서는 사전류나 문법, 회화 학습서 등의 비중도 상당하나, 유럽 동양학계의 언어학 연구로서 중국 문명의 바빌론 기원설을 주장하는 알버트 라쿠페리에(Albert Terrien de Lacouperie)의 논문 “On the Corean, Aïno and Fusang writings”이나, 한국어와 우랄 알타이어의 유형적 유사성을 밝힌 구스타브 람스테트(Gustaf John Ramstedt)의 논문 “Remarks on the Korean language” 등을 책자 형태로 제본·소장한 점은 특징적이라 하겠다. 이들 연구는 18세기부터 유럽학계를 풍미했던 문명기원론에서 출발한 연구라는 점에서 서양의 근대학문을 기준점으로 한 보편적 교양주의의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지리」 항목의 경우 지리서나 항해 탐사기, 기행문뿐만 아니라, 한국에 관한

서양인의 수기나 민족지학적 연구, 지형분석 보고서, 외교적 제안이 담긴 도서와 식민통치기관의 홍보 사진집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중 대표적인 지일 인사로 알려진 조지 래드(George Trumbull Ladd)가 이토 히로부미의 요청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출간한 In Korea with Marquis Ito(1908)의 경우, 발간의 맥락이나 내용이 「정치」나 「종교」 항목에 더 가까운 측면이 있다. 또, 조선 정부의 세무 보좌관으로 일했던 체스니 던컨(Chesney Duncan)의 Corea and the powers 역시 지리서나 기행문이 아닌, 러시아의 팽창을 의식, 극동의 국제 정세를 다룬 책이다. 이들 도서 간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면, 일본과 비교하여 한국의 정치 · 경제 · 외교 · 사회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기존 연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서구가 동양을 타자화하는 전형적인 시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본을 그러한 '동양'과는 구분하려는 시도가 엿보이는 지점들이라 하겠다.

전술하였듯이, 경성제국대학교 부속도서관의 장서 구성에서 한국에 관한 서양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으며, 조선총독부도서관 화한서 분류의 「조선문(朝鮮門)」처럼 형태의 측면에서 특징적인 장서 구축의 면모를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일부 도서에 대한 해제작업의 결과 식민지에 설립된 제국대학의 부속도서관이라는 특징으로서, 19~20세기 서양이 동양 세계의 일원인 식민지 조선을 대상화하였을 때, 식민 모국이자 동양의 일원인 일본을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의 지점들이 드러나고 있었다. 물론 이는 후속 작업으로 더 다양한 도서에 대한 해제와 분석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⑷ 정치학

본 해제 작업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경성제국대학 장서 가운데 정치학 분야의 자료를 대상으로 작성되었다. 해제 대상 장서는 동양서의 경우 일본 메이지 시대 자유민권운동과 관련된 정치사상사 자료를 중심으로, 서양서는 19세기 초 영국의 정치평론 및 에세이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메이지 시대 자유민권운동의 경우 ①서양의 자유와 관련된 주요 서적의 번역과 ②자유민권운동에 참여한 정치가들의 저술을 해제했다.

①의 경우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의 번역인 『민약론복의(民約論覆義)』,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의 번역인 『자유지리(自由之理)』, 허버트 스펜서의 『대의정체론(代議政體論)』, 셸던 아모스와의 대화를 책으로 번역하여 낸 『영국정사개론(英國政事概論)』, 영국의 저널리스트인 알바니 폰블랑크의 영국정치제도를 소

개한 책인 『영정여하(英政如何)』 등이 있다.

②의 경우 후쿠자와 유키치, 오이 겐타로, 스기타 데이이치, 가토 히로유키, 니와 준이치로, 우에키 에모리 등의 자유민권과 관련된 저술에 중점을 두어 해제했다. 그 외에 서양정치제도를 소개하고 있는 책들도 목록에 넣었다. 서양서의 경우 정치평론을 중심으로 에세이, 전기, 연설문을 위주로 해제했다.

선정된 동양서의 경우 서양의 정치제도, 개념, 사상을 최초로 소개하는 글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메이지 초기의 번역본이나 저술들은 번역어의 선택, 그리고 서양의 정치제도의 수용이 모두 쉽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서양서의 경우 영국 내에서 국내외 정치적 결정에 대한 보수와 진보의 대립을 잘 보여주는 텍스트들을 선택하되, 당대의 정치평론가들이 정치를 비판하는 논리와 언어, 레토릭이 잘 드러나는 것을 위주로 해제를 진행했다. 해제의 대상인 동양서와 서양서 모두 19세기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그리고 이념적으로 확대되는 시점의 당대인의 문제의식을 잘 보여주는 자료들이다.

⑸ 사회학

본 해제작업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 가운데 사회학, 역사학 분야의 자료, 경성제대 법문학부 교원들의 논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당시 일본의 사회학으로 대상을 좁혀 보면, 제국대학이 사회학강좌를 설치하고 사회학전공과 학과를 모집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교적 학문의 제도화는 유럽에 비해서도 빨랐지만, 사회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근대사회의 등장’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이상, 최소한 일본인 사회학자의 입장에서 식민지사회의 구조와 변동을 ‘사회학’이라는 시각에서 포착하려는 시도는 드물었다. 식민자인 그들의 입장에서는 식민지사회란 아직 근대화되지 못한 사회이며—그렇기 때문에 식민화가 된 사회이기도 하며—, 따라서 식민지사회는 정체된 사회를 분석하는 학문들, 예컨대 인류학이나 민속학, 동양학, 식민정책학이 다룰 만한 분야이지 사회학의 대상이 될 수 없게 된다.

이렇기 때문에 경성제대 도서관이 소장했던 이른바 일본의 사회학 관련 논의들은 대체로 일본 자국사회에 대한 분석과 고찰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많았으며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제대상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렇다면 해제 작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학의 범위를 인류학, 민속학과 식민정책학으로 확장할 수 있겠지만, 관련 문헌에 대한 해제는 이미 기존의 중앙도서관 지원 사업을 통해 일정 정도 이루어진 바 있다.

그리고 학문적 논의를 벗어나 식민지에서 교육 및 학술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문헌들도 국립중앙도서관이 총독부도서관 장서들을 중심으로 다년간 해제 작업을 진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들이 적지 않아서 해제 작업을 했다가 폐기한 것도 적지 않았다.

이런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해제작업은 주로 경성제대의 학술 쪽에 주목해서 사회학 쪽 자료도 경성제대의 연구자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이 분명한 연구서 및 번역서를 추렸고, 식민지 고등교육 및 교육의 현실을 드러내는 연보, 총람 등 기초 자료에 대해선 최근 연구 및 자료상황을 반영해서 해제를 달았다. 그리고 경성제대 교수들의 연구 경향을 엿볼 수 있는 경성제대 법문학회—이후 법학회와 문학회로 갈라선다—의 논집들을 중심으로 당시 식민지의 일본인 연구자들의 학문적 관심을 일별해 보려고 했다. 일부 유력한 연구자들의 경우, 단행본 등도 해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대학의 존속기간이 20년 남짓한 상황에서 교수들의 주요 연구가 1945년 이후에 책으로 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해제대상이 될 만한 자료는 실제로는 많지 않았다.

3. 해제

(1) 근대 한국사/ 한일관계사

서명	朝鮮通交大紀
편 · 저자	松浦允任 (마쓰우라 마사타다)
발간 연도	1725년 서문
발행 사항	필사본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4280 16)
비고	저자 및 발간연도 누락

쓰시마 번의 유학자 마쓰우라 마사타다(松浦允任, 1676-1728)가 1368년부터 1716년까지 쓰시마와 조선 간 교섭의 내력을 양국 간 왕복한 문서를 중심으로 해설한 통사(通史)이다. 역대 대마도주의 통치 기간별로 중요한 외교 교섭을 설명하되, 그에 해당하는 주요 문서를 나열하고 그 일본어 번역문을 게재한 후, 편자의 의견이나 해설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서술했다. 원래 본서는 쓰시마 내부에서 조선과의 교섭을 위한 지침서로 만들어졌으며, 1719년 통신사의 방문에 맞춰 막부에 헌상된 것이다. 「범례」에 따르면, 본서의 편찬 목적은 첫째, 조선 측의 쓰시마에 대한 태도를 고찰하고, 둘째, 조선에 대한 대응 수단을 생각하며, 셋째, 막부에 조선과 쓰시마 간의 관계의 연혁을 이해시키는 데 있었다.

본서의 편자 마쓰우라 마사타다는 하리마(播磨: 오늘날 고베시 일대) 출신으로 자는 데이쿄(楨卿), 호는 가쇼(霞沼)를 썼고, 통칭 기우에몬(儀右衛門)이라고 했다. 1703년 쓰시마에 부임해서 조선 통교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편찬총재(編纂總裁) 직을 맡아 『조선통교대기』를 편찬하여 막부에 헌상했다. 1711년에는 기노시타 준안(木下順庵) 아래서 동문수학한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와 함께 조선통신사를 접대하기도 했다.

전 10권 10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1권부터 제8권까지는 각각 1368-1509년, 1510-1581년, 1588-1598년, 1599-1605년, 1606-1615년, 1615-1629년, 1631-1698년, 1693-1716년의 시기를 다루었다. 그 내용은 고려와 쓰시마 번 간의 교섭으로부터 계해약조(癸亥約條)에 따른 통교 체제, 삼포왜란과 임진왜란 이후 국교 정상화 교섭, 울릉도와 독도 문제, 부산 왜관에서의 잠상(밀무역) 단속, 표류민 송환, 가톨릭 금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제9권과 제10권은 학봉 김성일이 저술한 『해사록(海槎錄)』의 원문과 일본어 번역문, 그리고 편자의 견해이다. 제1권에는 1725년에 쓴 자서(自序)가 수록돼 있다. 14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반까지 한일관계의 전개 양상을 파악하고 이를 매개한 쓰시마 번의 입장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문헌이다.

서명	新論
편 · 저자	會澤安 (아이자와 야스시)
발간 연도	1857
발행 사항	京都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110 3)
비고	촬영 필요

본래 1825년 미토번(水戶藩)의 유학자 아이자와 야스시(會澤安, 1782-1863)가 미토번주 도쿠가와 나리노부(德川齊脩)에게 진상한 시무책(時務策)이다. 총 38,000여 자에 달하는 순한문 문헌으로, 그 과격한 언사와 내용으로 인해 공간(公刊)이 금지되어 1857년까지 저자 미상의 필사본과 목판본 형태로 유통되었다. 이 책은 막부 말기 이른바 존황양이(尊皇攘夷)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을 비롯하여 마키 이즈미(眞木和泉), 히라노 구니오미(平野國臣), 요코이 쇼난(橫井小楠) 등 이를 추종하는 지사(志士)들은 아이자와를 숭배해서 그를 찾아 미토번으로 순례를 올 정도였다.

저자 아이자와 야스시는 에도 후기의 미토번사(水戶藩士)로, 자는 하쿠민(伯民), 호는 세이시사이(正志齋) 외에도 긴쇼사이(欣賞齋), 게사이(憩齋) 등을 썼다. 그가 『신론』을 집필한 계기는 1824년 영국 포경선이 미토번의 동쪽 해안인 오츠(大津)에 상륙하여 식료품을 요구한 사건에 있었다. 번주의 명령으로 이들을 문정(問情)한 결과, 아이자와는 서양 세력의 침입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이며 본질적인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를 쓴 것이다.

『신론』은 「국체(國體)」(상·중·하)·「형세(形勢)」·「노정(虜情)」·「수어(守禦)」·「장계(長計)」의 5론(論) 7편(編)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일본 국체의 본질이 충효일본(忠孝一本)과 제정일치(祭政一致)에 있음을 정의한 후, 그에 기초해서 군사와 경제 제도의 개혁방안을 서술하고, 이어서 세계정세와 서양 오랑캐의 책략을 분석한 다음에 그 대응 방안을 단기적(전쟁), 장기적(제사) 차원에서 논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특히 「國體」만 상·중·하의 3편으로 나누어 치밀하게 서술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아이자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일본의 국가적 정체성의 본질을 규명하는 작업이었다. '만세일계의 천황이 영속적으로 군림하며 통치권을 총람(總攬)하는 만방무비(萬邦無比)의 국가'라는 근대 일본의 국가정체성, 또는 '고쿠타이(國體)' 개념은 이 책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다.

'고쿠타이'에 입각한 국가종교와 제례의 창설, 내정개혁 및 대외팽창 구상 등은 요시다 쇼인을 거쳐 메이지정부의 주역인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등에게 계승되어 메이지 정부의 국책으로 실현됐다. 이 책은 일본 근현대 내셔널리즘의 사상적 연원이자 원형으로서, 일본 근현대 정치사상사를 연구하는 데 핵심 문헌 중 하나이다.

서명	朝鮮聞見錄
편 · 저자	佐田白茅 (사다 하쿠보)
발간 연도	1875
발행 사항	東京
청구기호	단행본 자료실 (915.1 Sa15c)
비고	저자명이 '사다 시로메'로 잘못되어 있음.

일본 외교관으로는 최초로 조선에 입국한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1833-1907)가 부산 현지에서 입수한 정보에 기초하여 조선의 실상과 풍습을 일본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쓴 책이다. 1868년 메이지유신으로 수립된 일본의 신정부는, 처음에는 근세 이후 대조선외교를 관장하던 쓰시마 번을 통해 국교 재조정을 시도했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자 1869년 신설된 외무성(外務省)을 중심으로 이를 일원화하는 정책을 취했다. 이에 따라 1870년 사다 하쿠보를 비롯해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사이토 사카에(齊藤榮)가 부산에 입항했는데, 이들의 임무는 과거 조선 통신사가 막부에 대
해 '번속(藩屬)'의 예(禮)를 취했는지 여부, 쓰시마와 조선 사절 간 의전(儀典)의 양태, 감합인(勘合印)의 성격, 대청 관계에서 조선의 국가적 자주성, 서울 인근에 군함이 진입할 수 있는 항구 조사, 조선과 러시아 간의 관계, 조선의 군비, 조선의 국정, 쓰시마 번의 '사교(私交)' 폐지에 따른 보상책 등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사다는 약 한 달간의 조사를 마친 후, 대조선외교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무력 사용을 전제로 하는 '황사(皇使)' 파견을 건의했으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1871년 관직에서 물러나 저술 활동을 통해 정한론(征韓論)을 전파하는 데 진력했다.

『조선문견록』은 1875년 3월 간행되었으며, 상·하 2권으로 구성돼 있다. 상권은 1868년부터 1874년까지 조일 양국의 교섭 경위를 상세하게 기록한 「교제(交際)」 편을 비롯하여 조선의 풍습을 묘사한 「관례(冠)」·「혼례(婚)」·「상례(喪)」·「제례(祭)」·「잡지(雜誌)」 편이 수록돼 있다. 하권은 「무비(武備)」·「형벌(刑罰)」·「산천(山川)」·「호적(戶籍)」·「저축(儲蓄)」·「흠승(欽承)」·「관제(官制)」로 이뤄져 있다. 목차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의 집필 의도는 조선과의 국교 수립을 앞두고, 에도 막부 시기 쓰시마에서 독점하고 있던 조선에 관한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알리는 데 있었다. 이 책은 일본 정부의 관리가 조선의 정세와 풍습에 관해 기록한 최초의 견문기로서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가진다.

서명	征韓評論
편 · 저자	佐田白茅 (사다 하쿠보)
발간 연도	1875
발행 사항	東京: 忠芬義芳樓蔵版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4170 10)
비고	촬영 필요

일본의 전(前) 외무성 관리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1833-1907)가 자신의 지론인 정한론(征韓論)을 피력하고, 이와 관련된 글 8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비평을 덧붙인 책이다. 1875년 목판 인쇄물로 간행되었으며, 총 20매의 소책자이다.

사다 하쿠보의 이름은 나오히로(直寛), 자는 소이치로(素一郎)이며, 하쿠보(白茅)는 그의 호(號)다. 구루메(久留米) 번의 유신(儒臣)으로 메이지유신 이전에는 존왕양이(尊王攘夷) 운동에 투신했다. 1869년 대조선 국교의 조정 방안을 논한 「조선교제사의(朝鮮交際私議)」의 제출을 계기로 외무성에 임용되었다. 1870년 대조선 국교의 실태 조사와 예비교섭의 사명을 받고 외무성 관료로는 처음으로 부산에 파견됐다. 귀국 후 일본 정부에 무력 사용을 전제로 한 '황사(皇師)'의 파견을 건의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1871년 사직했다. 이후 집필 활동을 통해 정한론을 확산하는 데 주력했다. 본서 외에도 『조선견문록(朝鮮見聞錄)』(1875), 『정한론의 구몽담(征韓論の舊夢談)』(1903) 등의 저서가 유명하다.

『정한평론』은 저자가 조선 정벌의 당위성과 방안을 논한 전반부와 정한론에 관한 글 8편을 발췌한 후 각각의 글에 간략한 비평을 덧붙인 후반부로 구성돼 있다. 전반부에서는 메이지유신 이후 조선 정부에 보낸 서계(書契)의 접수가 척퇴(斥退)된 것은 일본의 국가적 치욕이며, 또한 프랑스·러시아·미국이 한반도를 차지하기 전에 일본이 이를 선점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조선 정벌을 주장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청국에 황사(皇使)를 파견해 군사적 개입을 막는 한편, 30개 대대(大隊)를 파병하되 10개 대대는 강화부에서 곧장 서울로 진격하고, 6개 대대는 경상·충청·전라 등 한반도 남부, 4개 대대는 강원·경기, 10개 대대는 압록강을 거슬러 들어가 함경·평안·황해도를 거쳐 진격하면 50일 이내에 조선 국왕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후반부에 수록된 글의 저자는 요코야마 쇼타로(横山正太郎), 다야마 마사나카(田山正中), 겐사 히사요시(源佐久良), 사가(佐賀)의 북조본영(北組本營), 가타야마 나오요시(片山直義), 작자 미상, 가와카미 슌사이(川上春齊)이다. 그 대부분은 정한론에 반대하는 내용으로, 사다는 그것이 왜 잘못된 판단인지를 한문으로 간략히 적어서 덧붙였다.

조일수호조규의 체결로 조·일 간 국교가 재개되기 전에 일본 내 정한론의 논리구조와 조선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헌이다.

서명	朝鮮事情
편 · 저자	榎本武揚 (에노모토 다케아키)
발간 연도	1876
발행 사항	東京: 東洋社
청구기호	개인문고 (상백 915.1 C456j)
비고	메이지 9년은 1874년이 아니라 1876년임. 수정 필요.

프랑스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신부 샤를 달레(Claude Charles Dallet, 1829-1878)가 쓴 Histoire de l'Eglise de Corée (『한국천주교회사』, 1874)의 「서설(introduction)」을 러시아 주재 일본 공사 에노모토 다케아키(榎本武揚, 1836-1908)가 일본어로 번역한 책이다. 1831년 가톨릭 조선교구가 창설된 후, 조선 선교는 파리 외방전교회(La Société des Missions-Etrangères de Paris)에서 담당했다. 철종 말년에는 조선에 잠입한 외방전교회의 사제들이 12명에 달할 정도였다. 아직 조선의 문호개방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서한과 보고서는 외부에서 조선의 사정을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에노모토는 서문에서 이 책을 번역한 이유에 관해 "이 책은 1874년에 간행된 것으로, 책 중의 기술은 전적으로 양교(洋敎: 가톨릭)의 기연(起緣)과 성쇠(盛衰)를 위주로 했지만, 또한 그 밖에 조선의 풍토, 민정(民情), 정치, 병제 등으로부터 최근 프랑스, 미국의 정한(征韓) 조처까지 언급하고, 좋은 지도 1매를 첨부했다. 이 글과 지도 모두 한번 사람이 보면 조선의 개략을 충분히 알 수 있으니, 이는 실로 다른 책에선 볼 수 없는 것으로서…"라고 설명했다. 즉, 그의 의도는 아직 일본 내 정한론(征韓論)이 비등한 상황에서 조선의 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산천(山川)의 위치와 병영의 규모가 자세히 기록된 지도를 통해 군사전략의 수립에 도움을 주려는 데 있었다.

에노모토는 에도 출신의 사족(士族)으로 1862년부터 1867년까지 네덜란드에 유학하여 국제법·군사학·조선(造船)과 항해술 등을 학습한 후 막부 해군의 지휘관이 되었다. 보신전쟁(戊辰戦争)에서 막부군을 거느리고 홋카이도에서 끝까지 신정부에 대항하여 전쟁을 벌였지만, 결국 패배하여 투항한 뒤로는 메이지 신정부에 중용되어 주러시아공사·외무대신·해군경·주청(駐淸) 공사·체신대신, 문부대신·농상무대신 등의 요직을 차례로 역임한 인물이다.

에노모토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근무하던 중 서기관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로부터 이 책의 존재를 알고, 급히 이를 입수한 후 가톨릭 전교에 관한 부분은 제외하고 조선 내부의 실정 위주로 일본 정부에서 고용한 네덜란드 의사 폼프 판 메르데보르트(Pompe Van Meerdervoort)에게 네덜란드어로 번역하게 했다. 그리고 1875년 12월 31일부터 이듬해 1월 15일까지 매일 4시간씩 자신이 이를 일본어로 읽으면 하나부사가 곁에서 그것을 기록하는 식으로 원고를 작성했다고 한다.

『朝鮮事情』은 1876년 도쿄(東京) 마루야젠시치(丸屋善七)에서 출간된 초판본(初版本)과1882년 슈세이칸(集成舘)에서 간행된 재판본(再販本), 그리고 하나부사의 필사본 등 3가지 판본이 전하는데, 서울대 고문헌자료실에는 1876년 초판본이 소장돼 있다.

서명	朝鮮交際始末
편 · 저자	奧義制 (오쿠 기세이)
발간 연도	1877
발행 사항	東京: 外務省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4280 20)
비고	

일본 외무성 관리 오쿠 기세이(奧義制)가 1868년 메이지유신부터 1876년 조일수호조규의 체결에 이르기까지 조·일 양국 간 왕복한 주요 공문을 수록하고 그에 대해 간략한 해설을 덧붙인 외교문서집이다. 이는 본서에 수록된 발문(跋文)에 "『조선사무서(朝鮮事務書)』에서 산일(散逸)된 것이 적지 않다. 이는 갱시창업(更始創業)의 초기에 성규(成規)가 아직 정돈되지 않아서 기록사무가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메이지 6년(1873) 황성(皇城)의 재난으로 인해 부책(簿冊)이 대부분 사라져 버렸으니 어찌 한탄하지 않겠는가? 이제 이 책이 비록 그 요령만 인용했지만, 그래도 유루(遺漏)의 아쉬움을 면하기 어려우니 훗날 다시 보정(補正)이 있을 것이다. 1877년 음력 8월(仲秋)"이라고 그 편찬 경위를 밝혔다.

총 3권 분량으로, 1868년 음력 3월 쓰시마 도주 소 요시아키라(宗義達)에게 외국사무보(外國事務補)의 자격으로 대조선 교섭을 관장할 것, 그리고 왕정복고(王政復古)에 따라 조선과의 교제를 앞으로 조정에서 관장할 것임을 조선 측에 통고하라는 사령서(辭令書)로부터 시작하여, 1876년 조일수호조규 체결 직후 외무대승 미야모토 오카즈(宮本小一)의 보고서에 이르기까지 주로 쓰시마 번과 부산에서 진행된 조일 국교 갱신에 관한 주요 문서가 수록돼 있다. 중요한 교섭 사항을 일자별로 정리하고 그에 해당하는 문서를 나열한 후, 편자의 간략한 해설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편찬했다.

편자 오쿠 기세이는 외무성 관리로서 1872년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가 부산 초량왜관을 일방적으로 일본의 공관으로 접수한 후, 공관장 대리로 부산에 재근하면서 조일수호조규 체결 이전까지 양국 간 외교 실무를 담당한 인물이다. 참고로 『조선사무서』란 1867년부터 1874년까지 부산 왜관에서 생산한 보고서, 본국 훈령, 조선 외무당국과의 왕복 문서 등을 일본의 부산영사관에서 편찬한 것으로 총 29권 29책에 달하는 방대한 문서집이다. 『조선교제시말』과 『조선사무서』 모두 근대 한일관계사 연구에 필수적인 1차 문헌이다.

서명	富國策
편 · 저자	汪鳳藻 역
발간 연도	1880
발행 사항	北京: 同文館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6010 150)
비고	역자가 ‘丁韙良’으로 잘못 표기돼 있음.

헨리 포셋(1833-1884, 法思德)의 Manual of Political Economy (4th ed., London: Macmillan, 1874)를 번역한 책으로 중국 최초의 근대 정치경제학 서적이다. 숭례(崇禮)가 쓴 서문에 따르면, 『만국공법(萬國公法)』의 번역자로 유명한 윌리엄 마틴(William Alexander Parsons Martin, 중국명 丁韙良, 1827-1016)이 경사동문관(京師同文館)의 부교습(副教習) 왕봉조(汪鳳藻)에게 번역하게 한 뒤에 직접 상세하게 교열을 보았다고 한다. 원저자 포셋은 고전경제학파의 마지막 계승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본서는 존 스튜어트 밀(John Stuwart Mill)의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with Some of Their Applications to Social Philosophy (1848)을 기본으로, 애덤 스미스로부터 밀에 이르는 고전경제학파의 학설을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해설한 모범적 해설서로 평가된다.

본서는 총 3권으로 구성되었다. 1권은 「생재(生財)」로, 「논총(叢論)」, 「논생재유삼요(論生財有三要)」, 「논인공(論人功)」, 「논자본(論咨本)」, 「논삼요자생지력(論三要滋生之力)」, 「논제조다괴지이(論製造多寡之異)」, 「논증익재용지리(論增益財用之理)」의 7장으로 이뤄졌으며, 3권은 「용재(用財)」로, 「논제산지의여균부지설(論制産之義與均富之說), 「논재소자분(論財所自分)」, 「논지조각축지도(論地租角逐之道)」,「논공가(論工價)」,「논이식(論利息)」, 「논소농궁경지법(論小農躬耕之法)」, 「논흥향학이유공가(論興鄉學以維工價), 「논제행파공(論齊行罷工)」, 「논합본동공(論合本同功)」의 9장으로, 3권은 「교역(交易)」으로, 「논가치지별(論價値之別)」, 「논물가귀청지리(論物價貴賤之理)」, 「논농전물산귀천지리(論農田物産貴賤之理)」, 「논인공제조지화물급귀천지유(論人功製造之貨物及其貴賤之由)」, 「논전폐(論錢幣)」, 「논전폐귀천지리(論錢幣貴賤之理)」, 「논방국통상(論邦國通商)」, 「논금은유통각국지리(論金銀流通各國之理), 「논방국화폐호역지법(論邦國貨幣互易之法)」, 「논세렴지법(論稅斂之法)」의 10장으로 이뤄졌다.

본서는 개항기 조선 사회에도 전파되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유길준(俞吉濬)은 1885년에 쓴 「독부국책유감(讀富國策有感)」이라는 시를 남겼고, 김윤식(金允植)은 『음청사(陰晴史)』 고종 19년(1882) 4월 7일조에 “『부국책』3권을 읽었으니 서양인 마틴이 저술한 것이다,(閱富國策三卷 西人丁韙良所著也)”라고 적었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에는 1880년 동문관(同文館)에서 발간한 초판본이 소장돼 있다.

서명	近世朝鮮政鑑 (上卷)
편 · 저자	朴齋炯
발간 연도	1887
발행 사항	東京: 中央堂
청구기호	동장본 (小 951.05 B148j)
비고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이하응(李昰應, 1820-1898)과 관련된 야사(野史)를 기록하고 그 통치의 득실(得失)에 관해 평한 책이다. 1883년 7월부터 1884년 12월 사이에 집필된 것으로 추정되며, 1886년 7월 일본 도쿄(東京) 중앙당(中央堂)에서 간행됐다. 일본 동양사학자 나카 미치요(那珂通世)가 훈점(訓點)을 붙였다. 헌종(憲宗)의 붕어와 고종의 즉위로부터 야인(野人) 시절 대원군의 여러 일화, 대원군의 집권 경위와 정권 확립 과정, 가톨릭 박해, 경복궁의 중건, 서원의 철폐 등을 기록했다. 또한 정조대 이후 조선의 독특한 정치적 제도로 자리 잡은 '세도'의 의미를 정의한 대목으로도 유명하다.

이 책을 쓴 박제경(朴齊絅, 호는 而純)은 갑신정변에 가담하였다가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분노한 민중의 손에 타살(打殺) 당한 이른바 개화당(開化黨)의 일원이었으며, 각 기사의 말미에 '야사씨 왈(野史氏曰)'로 시작되는 사평(史評)을 쓴 배전(裵坵, 호는 此山)은 경상도 김해 출신의 중인으로 이른바 육교시사(六橋詩社)의 일원이었다. 육교시사는 개화당의 선배로 알려진 추금(秋錦) 강위(姜瑋)를 중심으로 청계천 광교 주변의 중인들로 구성된 시 모임이었다. 또한 서문을 쓴 이수정(李樹廷, 호는 荃齋)은 일본에서 처음 세례를 받은 조선인으로서, 『현토한한신약성서(懸吐漢韓新約聖書)』나 『마가복음』과 같은 성경을 우리말로 최초로 번역한 인물이었다. 도쿄외국어학교의 조선어 교사가 되어 조선 지리와 풍속, 역사 등의 강의를 담당했는데, 1886년 5월에 조선정부의 소환령에 응하여 귀국했다가 처형당했다.

흥선대원군에 관한 일화는 대체로 야사의 형태로 전해지는데, 그 기록도 많지가 않아서 『근세조선정감』을 제외하고는 『회여록(會餘錄)』 제1집에 수록된 작자 미상의 「흥선대원군 약전」과 매천(梅天) 황현(黃炫)의 『매천야록(梅泉野錄)』 정도가 있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서는 비록 야사를 수집한 것이긴 하나 흥선대원군 연구에 빠뜨릴 수 없는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서의 집필에 참여한 박제경, 배전, 이수정이 모두 개화당 또는 그와 깊은 관계가 있었던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흥선대원군에 대한 개화당의 인식과 정치사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서명	(朝鮮問題)出師事情
편 · 저자	北村宗助 (기타무라 소스케)
발간 연도	1894
발행 사항	大阪: 岡島寶文館
청구기호	개인문고 (경 951.05 K646s)
비고	

청일전쟁(1894-1895) 직전에 발간된 책으로, 이를 유발한 원인(遠因)으로서 정한론 정변, 운요호사건 및 조일수호조규의 체결, 임오군란, 갑신정변, 텐진조약과 동학농민운동 등의 경위를 서술하였다. 권두에 언론인 겸 평론가 구쓰미 겟소(久津見蕨村)의 서문이 실려 있다. 그런데 이를 쓴 날짜가 1894년 7월 15일이었으니, 이는 일본군 보병 제11연대가 경복궁을 점령하기 불과 8일 전, 청·일 양국이 선전포고를 단행하기 불과 보름 전이었다. 본서의 집필 의도는 청일전쟁을 앞두고 조일관계,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청일관계의 이력(履歷)을 재서술함으로써 일본 국민에게 일본의 대조선 정책이 부당한 '간섭'이 아니라 '의거(義擧)'이자 '보조(保助)'임을 알리고, 더 나아가 임박한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데 있었다.

본서는 「동아(東亞)의 풍운」·「정한론의 비등」·「강화만의 포격」·「경성의 요란」·「갑신의 투쟁」·「텐진의 조약」·「대한(對韓)의 궤모(詭謀)」·「동학당의 봉기」·「대병(大兵)의 출발」·「미래의 예측」 등 10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총 136쪽의 분량 가운데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다룬 제4장과 제5장의 분량이 각각 28쪽과 33쪽에 달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마지막 제10장에서는 "청국이 만약 우리나라가 조선에 제출한 요구가 착착 실행됨을 싫어해서, 끝내 이를 방해하는 데 이른다면, 우리가 굳이 전쟁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우리 국권을 위해, 또 조선의 독립을 위해 나아가 의로운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상황이 이러한 지경에 이른다면 우리 국민은 일어나 청국의 부정(不正)을 책망하고, 전국이 모두 군대가 되어 저들을 격파해야 함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논의를 매듭지었다.

이 책은 7월 28일에 인쇄되어 공식 개전일 다음 날인 8월 2일에 간행됐다. 청일전쟁 개전 전후 일본의 사회적 분위기와 청국 및 조선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문헌이다.

서명	朝鮮革新策: 一名 日淸開戰論
편 · 저자	川崎三郎 (가와카미 사부로)
발간 연도	1894
발행 사항	東京: 博文館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710 225)
비고	

대청(對淸) 개전의 불가피성을 논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조선의 정체(政體) 개혁 문제를 제기한 책으로, 청일전쟁의 공식 선전포고를 불과 닷새 앞둔 1894년 7월 26일 발행되었다. 본서에서 주장한 '조선혁신책'의 골자는, 조선을 '조선공국(朝鮮公國)'으로 만들되 이를 다스리는 공(公)은 조선의 명문가 가운데서 새로 추천을 받아 일본 정부가 선발하고, 내정과 외교의 일대 혁신을 단행하여 완전한 독립의 실제를 거두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근거로, 이미 조선 왕국은 공명(空名)에 지나지 않으니, 조선공국을 설립하여 독자적인 정삭(正朔)을 갖고 청나라에 대한 조공책봉의 의례를 끊게 한다면 오히려 독립의 실제를 누릴 것이라는 견강부회적 견해를 제시했다.

저자 가와사키 사부로(川崎三郎, 1864-1943)는 언론인이자 역사가로, 호(號)는 시잔(紫山)을 주로 썼다. 이바라키현(茨城縣) 출신으로 국권주의를 제창하는 『케세신포(經世新報)』를 창간하고, 입헌정우회(立憲政友會)의 기관지 『주오신분(中央新聞)』의 주필을 지냈으며, 조선 낭인 또는 대륙 낭인 단체인 천우협(天佑俠)과 흑룡회(黑龍會)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도쿠도미 소호(德富蘇峰)와 함께 『공작 가쓰라 다로 전(公爵桂太郎傳)』, 『공작 야마가타 아리토모 전(公爵山縣有朋傳)』의 편찬에 참여했다.

본서는 「조선 혁신의 기회」·「조선의 위치」·「청의 대한책(對韓策)」·「러시아의 대한책」·「영국의 대한책」·「일본의 대한책」(상·중·하)·「러시아의 진취와 우리 국방의 관계」·「조선혁신책」(상·하)·「기회」(상·하)·「일본과 청의 관계」·「일본과 러·영의 관계」·「일·청·러·영의 동양에서의 병력」(상·중·하)·「일청개전론」·「성단(聖斷)」·「일본제국의 일대 천직(天職)」의 총 21장으로 구성됐다. 청·러시아·영국 등 주변 열강의 대한정책을 검토한 후,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의 대한정책이 일관성을 결여했음을 비판했다. 후반부에서는 열강들이 동아시아에 배치한 전력(戰力)을 비교한 후, 대청개전의 구체적 군사 전략을 제시했다. 마지막 장에서는 일본제국은 세계의 최강국이자 동양의 문명국으로서 그 임무는 단지 한반도를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으며, 인도의 독립을 회복시켜서 영국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고, 터키의 국세(國勢)를 크게 혁신시켜서 러시아와 대립하게 하며 베트남·미얀마·타이 등 여러 나라가 타국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그 일대 천직(天職)이라고 주장했다.

1894년 7월 26일 초판이 간행된 후 8월 6일에 재판(再版), 같은 달 16일에 제3판이 간행된 것으로 볼 때, 출간 즉시 상당한 반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에는 제3판이 소장돼 있다.

서명	支那朝鮮形勢錄
편 · 저자	秋山四郎 (아키야마 시로)
발간 연도	1894
발행 사항	東京: 共益商社書店
청구기호	개인문고 (경 952 Ak53s)
비고	아키야마 시로의 沒年이 1931년으로 되어 있는데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청일전쟁 발발 직후인 1894년 10월 일본의 청년들에게 적국인 청나라의 지리와 근세사 등 기본적 정보를 알리기 위해 간행한 책이다. 그 편찬 의도는 저자가 쓴 「예언(例言)」의 다음 구절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충군애국(忠君愛國)의 정신으로 가득한 우리 청년자제들 가운데, 오늘날의 형세를 맞이하여 적개심을 분기(奮起)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겠는가? 이미 적개심을 분기했다면, 왕사(王師: 왕의 군대, 즉 일본군대)가 향하는 바에 대하여, 그 지리가 어떠한지, 그 기후가 어떠한지, 그 군비와 병제는 어떠한지 등의 형세를 알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인정(人情)이다. 이 책은 이러한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주로 청국의 형세를 기록하고 아울러 그것에 관련된 조선의 형세를 기록한 것이다.”

저자 아키야마 시로는 1852년 도쿄 출신으로, 도쿄 여자사범학교와 화족여학교(華族女學校) 등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특히 여자사범학교의 초대 교장 나카 미치요(那珂通世)와 공저로 몇 권의 수업용 교재를 간행하였다. 본서 외의 저작으로 『일본지리소지(日本地理小誌)』(1891, 공저)·『일본지지(日本地誌)』(1896)·『외국지지(外國地誌)』(1897)·『중학한문독본(日本地誌)』(1901) 등이 있다.

본서는 총 91쪽의 소책자로, 「지나(支那)의 지리」·「지나의 근세사」·「조선의 지리」·「조선의 근세사」·「유신 후 일·청·한의 관계」 등 5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청국과 조선의 위치·지세(地勢)·인종과 인구·기후와 물산·연해와 도서(島嶼)·수도와 각 항구·교통·정치·병제 및 19세기 이후 역사를 간략히 소개했다. 제5장 「유신 후 일·청·한의 관계」에서는 1871년 청일수호조규의 체결을 비롯해 정한론 정변, 대만출병, 운요호사건과 조일수호조규의 체결, 류큐번의 오키나와현으로의 편입, 임오군란, 갑신정변의 경위를 서술했다. 권말에 동북아 지도와 발해만을 중심으로 한 중국 동북부의 지도를 수록했다.

서명	朝鮮通商事情
편 · 저자	鹽川一太郎 (시오카와 이치타로)
발간 연도	1895
발행 사항	東京: 八尾書店
청구기호	개인문고 (경 382.0951 Sh63c)
비고	원문보기 링크가 연결돼 있지 않음.

조선에 10년 이상 재류하여 조선어에도 능통했던 저자가 조선의 산업 및 경제발전의 상황, 대청·대일 무역 현황 등을 정리한 책이다. 청일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 1895년 1월 도쿄에서 간행되었다.

저자 시오카와 이치타로(鹽川一太郎)의 이력은 분명하지 않으나, 청일전쟁 당시 일본영사관 서기생(書記生)으로 근무했으며, 갑오개혁 초기엔 가낭청(假郎廳)으로 군국기무처 총재 김홍집을 보좌했다. 이후 일본공사관과 통감부 통역관을 거쳐 1910년 조선총독부 취조국 사무관이 되었다. 1912년 3월 관제 개편에 따라 취조국이 폐지되면서 관직에서 물러났다. 본서의 서문은 일본 학사원회원과 체신대신, 내무대신 등을 역임한 쓰에마쓰 겐초(末松兼澄, 1855-1920)가 썼다. 이에 따르면, 당시 법제국 장관이었던 쓰에마쓰는 1894년 8월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 조선왕실 위문대사의 수행원으로 경성에 도착했을 때 시오카와를 처음 만났으며, 그의 부탁으로 이 원고를 도쿄에서 출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은 「총론」·「구(舊) 일·한 무역」·「구 청·한 무역」·「과거 조선의 외국무역」·「조선 국내 상업의 개략적 상황」·「신(新) 일·한 무역」·「제1기 일·한 무역」·「제2기 일·한 무역」·「청·한의 관계」·「정치적 영향이 미친 일·한 무역의 관계」·「신 청·한 무역 및 메이지 18년 이후 일·청 양국 상민의 조선 무역」·「일본 상인의 수출입 무역에 관하여」·「일·청 양국 상민의 경쟁에 관련하여 그들의 지위」·「조선의 물산으로부터 조선 무역의 장래를 논함」·「일·한 무역의 확장을 논함」·「조선의 재정을 논함」 등 총 16개의 논설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장의 「조선의 재정을 논함(論朝鮮之財政)」이라는 논설은 한문으로 작성되었는데, 이는 갑오개혁을 추진 중인 조선인들에게 읽히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쓰에마쓰의 서문에 따르면, 시오카와가 한국말에 능했기 때문에 조선인들도 그의 재주와 식견을 중시했으며, 군국기무처에서도 그를 종종 불러서 자문을 구했다고 한다. 개항 이후 조선의 경제적 발전과 대청·대일 무역의 현황이 구체적 수치와 함께 서술되어 있어서 비단 청일전쟁의 배경뿐만 아니라 조선 말기 경제사를 연구하는 데도 중요한 문헌으로 평가된다.

서명	蹇蹇錄
편 · 저자	陸奧宗光 (무쓰 무네미쓰)
발간 연도	1895
발행 사항	東京: 外務省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710 16)
비고	

일본 외무대신 무쓰 무네미쓰(陸奧宗光, 1844-1897)가 청일전쟁 및 삼국간섭의 전말의 경위를 서술한 회고록이다. 저자는 그 집필 의도를 「서언(緖言)」에서 "메이지 27년(1894) 4, 5월 사이 조선 동학당의 난(동학농민혁명)이 발생한 이래로 청국 정벌의 공(功)을 거두던 가운데 러시아·독일·프랑스의 간섭이 있었으나 마침내 28년(1895) 5월 8일 일청강화조약(日淸講和條約) 비준 교환을 행하기까지, 그동안의 외교 정략의 개요를 서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제목 '건건록'은 『주역』의 "王臣蹇蹇 匪躬之故"(왕의 신하가 충성을 다 바치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저자 무쓰 무네미쓰는 역대 일본의 외무대신 중에서도 현재 외무성 경내에 유일하게 흉상이 세워진 인물이다. 와카야마(和歌山) 출신으로 메이지유신 이후 외국사무국어용괘, 효고(兵庫)·가나가와(神奈川県) 현지사, 원로원 의관 등을 역임했으나, 세이난전쟁(西南戰爭, 1877) 와중에 정부 전복 음모에 연루되어 6년간 투옥되었다. 1883년 형기 만료로 출소한 후 유럽에서 유학했다. 귀국 후 외무성에 들어가 주미전권공사를 지냈으며, 제1차 야마가타·제1차 마쓰카타 내각의 농상무대신을 거쳐 제2차 이토 내각의 외무대신이 되었다. 재직 중 영일통상항해조약의 체결로 영사재판권을 철폐하여 메이지 일본 외교의 숙원이었던 불평등조약의 개정에 일부 성공했으며, 청일전쟁 개전 외교와 강화, 삼국간섭 문제를 처리했다.

무쓰는 청일강화조약 비준을 교환한 직후부터 삼국간섭의 진상을 밝히고자 「러·독·불 삼국간섭 개요」의 집필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같은 해 10월부터 오이소(大磯)에서 요양하면서 청일전쟁의 발단으로부터 시모노세키 강화조약, 그리고 삼국간섭에 이르는 과정을 구술로 속기사에게 받아적게 한 후, 이를 퇴고하여 12월 31일에 『건건록』을 탈고했다. 단, 이 원고에는 비밀문서가 다수 포함돼 있었으므로, 당시 외무성은 한정된 수량만 인쇄하여 제한된 관계자에게만 배포했다. 그로부터 34년 후인 1929년 1월 간행된 『백작 무쓰 무네미쓰 유고』에 이 원고가 포함되면서 사실상 비밀 해제되었다.

현직 외무대신이 중대한 외교적 사건이 일단락된 직후에 비밀문서를 동원하여 그 전말을 상술한 이례적인 저술로서, 청일전쟁과 삼국간섭뿐만 아니라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 등 한국 근대사 연구에도 중요한 가치를 갖는 문헌이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에는 '秘'라는 주인(朱印)이 찍힌 1895년 판본이 소장돼 있다.

서명	日淸戰役國際法論
편 · 저자	有賀長雄 (아리가 나가오)
발간 연도	1896
발행 사항	東京: 陸軍大學校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370 41)
비고	

일본의 국제법학자이자 사회학자 아리가 나가오(有賀長雄, 1860-1921)가 청일전쟁(1894-1895)에서 제2군 사령부의 법률 고문으로 종군(從軍)한 경험과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본군이 국제법과 국제 교전규칙에 따라 전쟁을 수행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쓴 책이다. 이는 「서언(緖言)」의 "이 전쟁(청일전쟁-인용자)의 특이한 성질은 다름이 아니라, 교전 양국의 한쪽(청국)은 전쟁의 법률과 관례를 준봉(遵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쪽(일본)은 가능한 한 엄중하게 이를 준봉하려고 노력한 사실에 있다."라고 한 구절에서 잘 드러난다. 아리가는 이러한 실례에 기초해서 전쟁법의 준수는 인간 본성에 기초한 의무로서 전쟁에서의 승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통해 전쟁 수행의 관점에서 일본이 서구 열강에 못지않게 '문명화'되었음을 증명하고자 한 것이다.

아리가는 청일전쟁 종전 후, 유럽으로 유학을 떠나 1896년 3월 파리에서 La guerre sino-japonaise au point de vue du droit international (Paris: A. Pedone, 1896)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일청전역국제법론』은 이 책을 귀국 후 다시 일본어로 번역하여 같은 해 8월 육군대학교에서 발간한 것이다. 「일본에서의 전시국제법」·「일청전쟁의 발단」·「개전 이후 일본 재류 청국 신민의 보호」·「전투자와 비전투자」·「진저우성(錦州城) 공략」·「적(敵) 전투원의 행위」·「뤼순항의 전투」·「사망자 취급」·「포로 및 적 부상자의 취급」·「일본 적십자사」·「전리품과 징발」·「점령」·「점령지 재판권」·「웨이하이의 항복」·「휴전」·「국외중립에 관한 雜件」 등 총 16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일반적인 전쟁사의 서술 체계를 따르지 않고 전시국제법, 특히 육전(陸戰)의 예규와 관련된 사항별로 서술한 것이 특징이다.

아리가는 러일전쟁(1904-1905)에도 종군한 후, La guerre russo-japonaise au point de vue continental et le droit international d'après les documents officiels du Grand État-major japonais (Paris: A. Pedone, 1908)와 그 번역서 일러육전국제법론(日露陸戰國際法論) (東京: 東京偕行社, 1911)을 발간했다.

서명	岡本柳之助論策
편 · 저자	井田錦太郎 (이다 긴타로)
발간 연도	1898
발행 사항	東京: 田中三七
청구기호	개인문고 (경 320.4 Ok1o)
비고	

메이지시기 군인이자 대륙낭인 오카모토 류노스케(岡本柳之助, 1852-1912)의 논책(論策)과 약력을 편찬한 책이다. 서문에 따르면, 오카모토의 사상과 행적을 흠모하는 편자가 논책을 연구하고 또 그가 귀국할 때 어려움 없이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이를 발간한다고 하였다. 단, 오카모토의 건의와 의견서는 수십 건에 달하지만, 기휘(忌諱)에 저촉되는 것이나 장황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수록했다.

오카모토는 와카야마(和歌山) 번사(藩士) 출신으로 육군에 들어가 세이난 전쟁(1877)에 참여한 후 소좌(少佐: 소령)로 진급하였으나, 1878년 이른바 다케바시 사건(竹橋事件, 근위 포병의 폭동 사건)에 연루되어 관직을 박탈당했다. 이후 이른바 대륙낭인이 되었고, 무쓰 무네미쓰(陸奥宗光)의 심복으로서 1894년 5월 조선에 입국한 후 조선 주재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 공사와 무쓰 간의 비밀 연락책으로 활동하거나 대원군과의 연락을 담당하는 등 정계 이면에서 암약했다. 1895년 10월 미우라 고로(三浦梧樓) 공사와 함께 명성왕후 시해사건을 지휘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면소(免訴)되었다. 이후 대륙낭인으로 활동했으며, 신해혁명 직후 상하이에서 객사했다.

본서는 「니치렌슈(日蓮宗) 관장(管長)과 각 파 관장에게 바치는 글」(1886)·「정부에서 불교 각 종파에 내리는 불교 진작책」·「사법대신 백작 야마다 아키요시(山田顯義)에게 올리는 책문」(1891)」·「홋카이도 의용병 설립 건의」(1892)·「홋카이도 의용병 설치 건의 참고서」·「흥선대원군에게 올린 글」(1894)·「조선국 국태공(흥선대원군)이 섭정에서 물러나 전권공사 이노우에가
오루에게 내정개혁을 위탁했을 때 국태공에게 올린 글」(1894)·「운현궁에서 열린 조선 내각대신 집회의 결의 요령」(1894)·「대원군 입궐 시말」·「조칙」·「훈련대 기뇨(起鬧) 안(安) 군무대신 보고」·「동방(東邦)의 심세(審世)」 등 10편의 논책과 연도별로 오카모토 류노스케의 행적을 상세하게 정리한 「소전(小傳)」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대원군 입궐 시말」·「조칙」·「훈련대 기
뇨(起鬧) 안(安) 군무대신 보고」의 3편은 명성왕후 시해사건에 관계된 것으로, 비록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고 있으나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갖는 문헌이다.

서명	國際法
편 · 저자	中村進午(나카무라 신고) 譯
발간 연도	1900
발행 사항	東京: 東京專門學校出版部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370 12)
비고	

일본 국제법학자 나카무라 신고(中村進午, 1870-1939)가 제정러시아의 법학자 마르텐스(Fyodor Fyodorovich Martens, 1845-1909)의 국제법 저서를 번역한 책이다. 1900년 1월 도쿄전문학교(현 와세다 대학교의 전신) 출판부에서 간행됐다.

이 책은 당시 영국의 저명한 국제법 학자 홀(William Edward Hall)의 A Treaties on International Law (1895)를 다치 사쿠타로(立作太郎)가 번역한 『홀 씨 국제법(ホール氏国際法)』(1899)과 더불어 메이지 및 다이쇼 초기의 대표적 국제법 번역서로 꼽힌다. 단, 저자가 원저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많은 연구에서도 단순히 '마르텐스의 번역서' 정도로만 언급되나, 목차로 볼 때 최근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of Civilized Nation"이라는 제목으로 영역(英譯)된 1882년 마르텐스 저서의 번역으로 추정된다. 이 책은 국제법학의 고전 중 하나로서,
국제 공동체(international community) 및 '문명화된' 민족과 '문명화되지 않은' 민족의 상대적 역할, 그리고 '국제 행정법(international administrative law)'과 '인권(human rights)'과 같은 개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역자 나카무라 신고는 근대 일본의 대표적 국제법학자 중 1명으로, 도쿄제국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900년 도쿄전문대학 국제법 강사를 시작으로, 가쿠슈인(學習院) 교수, 도쿄상과대학(東京商科大學: 현 히토쓰바시 대학의 전신) 교수 등을 역임했다.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청일전쟁의 종전을 앞두고 여러 강화조약의 선례를 연구한 『강화유례(講和類例)』(1895)와 서구와의 조약 개정 이후 통상항해조약에 관한 비교연구인 『신조약론(新条約論)』(1897), 국제법에 관한 체계적이고 방대한 저술인 『국제공법론(國際公法論)』(1916) 등이 있다.

『국제법』은 상·하 2책으로, 총 1,467쪽에 달하는 방대한 책이다. 상권의 <총론(總論)>에서는 국제법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 국제공동체, 국가 및 개인의 지위, 영토, 조약법 등을 다루고 하권의 <각론(各論)>에서는 국제 행정법, 영사법, 인권, 국제사법, 국제형법, 전쟁법과 국외중립법 등을 서술하였다. 역자는 이 책을 번역한 이유에 관해 서문(「序」)에서 "상권의 1부는 전적으로 유럽 외교사이며, 또 국제공법과 국제사법은 본래 국제형법(國際刑法)에 관계된 것임을 완벽하게 설명한 보기 드문 양서(良書)"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명	韓半島
편 · 저자	信夫淳平 (시노부 준페이)
발간 연도	1901
발행 사항	東京: 東京堂書店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4790 54)/ 개인문고 (경 915.1 Sh.63k)/ 개인문고 (남창 915.1 Sh.63k)
비고	

경성주재 영사 시노부 준페이(信夫淳平, 1871-1962)가 재임 중인 1901년에 조선에 관한 정보를 일본인들에게 전하기 위해 쓴 책이다. 「서언」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역사적 관계는 본디 타국에 비할 바가 아니며 특히 최근 들어 그 관계가 더욱 깊어졌는데도, 구미인이 쓴 저술이나 1896년부터 간행된 『Korean Repository』 등의 잡지와 비교해보면 일본인의 저술은 기쿠치 겐조(菊地謙讓)의 『조선왕국(朝鮮國王)』이나 쓰네야 세후쿠(恆屋盛服)의 『조선개화사(朝鮮開化史)』를 제외하면 손에 꼽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를 집필했다고 하였다. 「부산 및 인천」·「경성」·「경복궁과 경운궁」·「개성부」·「평양 및 진남포」·「성환의 옛 전장」·「행정조직(부록: 의관 제도)」·「재정」·「국제관계의 사력(事歷)」·「각국의 이익선」·「반도에 관한 여러 통계」 등 총 11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제9장 「국제관계의 사력(事歷)」에서 일본·청국·러시아·프랑스·미국·영국·독일·이탈리아·오스트리아와 한국 간의 외교사 및 조약 관계를 자세히 기술했다.

저자 시노부 준페이(信夫淳平, 1871-1962)는 돗토리현 출신으로 1894년 도쿄 고등상업학교(현 히토쓰바시 대학)를 졸업한 후 니가타 상업학교 교사와 시립 구루메 간이상업학교 교장을 지냈다. 1897년 외교관 시험을 합격하고 영사관보(領事官補)로 처음 경성에 부임했다. 그 후 20년간 멕시코 공사관 서기관, 만주 점령지 행정사무관, 통감부 하 인천 이사청 이사관, 오스트리아 대사관 서기관, 네덜란드 공사관 서기관, 캘커타 총영사 등을 역임했다. 1917년 외교관을 퇴직한 뒤에는 와세다 대학에서 국제법을 강의하면서 도쿄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마지막 제11장에는 예산 및 국채, 외국 무역, 수입품목과 수량, 수출 품목과 수량, 수출입의 국가별 비교, 중요 수출입품의 항구별 비교, 경성·원산·목포·진남포 등에서의 수출입, 국가별 선박 입항, 해관세 수입, 전도(全道) 및 경성의 호구, 재한(在韓) 일본인·중국인·미국인 호구, 교육 현황, 기독교도와 선교사의 수 등 한말 경제사회사 연구에 필요한 통계가 기록돼 있다. 한국 근대사 및 한일관계사 연구에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문헌으로 평가된다.

서명	岩倉公實記
편 · 저자	多田好問 (다다 고몬) 편
발간 연도	1906
발행 사항	東京: 皇后宮職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4617 22)
비고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 1825-1883)의 전기이다. 이와쿠라는 이른바 왕정복고(王政復古)의 공신으로서 메이지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우대신(右大臣)과 외무경 등 최고위직을 역임한 인물이다. 특히 1871년부터 1873년까지 특명전권대사로서 사절단을 이끌고 구미를 시찰한 이와쿠라 사절단으로 유명하다.

본서는 이와쿠라의 사후 메이지 천황의 명에 따라 태정관(太政官)의 권대서기관(權大書記官) 직책에 있던 다다 고몬(多田好問)에 의해 1906년 9월 간행했다. 처음에는 상, 하 2책으로 상권 1,158쪽, 하권 2,071쪽의 방대한 분량으로 편찬됐다. 체제는 이른바 기사본말체(紀事本末體)의 양식을 따르고 있으며, 편년체로 중요 사건을 서술하되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진행된 사건은 그것이 끝난 연월에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와쿠라 도모미의 일기, 각서, 발언, 필담뿐만 아니라 가문에 소장된 여러 문서와 관청의 공문서, 그리고 관계된 가문들의 문서와 그 회고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자료를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비단 이와쿠라 개인의 전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중심으로 전개된 막부 말기 및 메이지 초기의 정치사를 연구하는 데 필수적인 사료집이 된다.

상권은 이와쿠라 가문의 가계(家系)로부터 시작하여 페리 제독의 내항과 미일화친조약의 체결, 데라다야(寺田屋)의 소동, 바칸(馬関) · 사쓰에이(薩英) 전쟁, 조슈(長州) 정벌, 유거(幽居), 고메이 천황의 붕어(崩御) 등이 서술되어 있다. 하권에는 메이지 천황의 등극, 유거(幽居)로부터의 석방, 왕정복고의 대호령, 막부타도 운동, 후시미(伏見) · 도바(鳥羽) 전투, 판적봉환, 관제 위계의 개정, 에노모토 다케아키(榎本武揚)의 하코다테 전투, 메이지 개원(改元), 에조치(蝦夷地)의 홋카이도(北海道) 개칭, 이와쿠라 사절단의 파견, 류큐 번왕의 책봉, 조선 사절 파견을 둘러싼 각의의 분열, 사가(佐賀) 전쟁, 원로원(元老院)과 대심원(大審院) 설치를 둘러싼 논의, 세이난(西南) 전쟁, 국회 개설에 관한 의견,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의 사망, 임오군란과 일본 공사관의 습격, 해군 확장, 이와쿠라의 사망과 국장(國葬) 등의 사건을 수록했다.

1927년 이와쿠라공 구적 보존회(岩倉公舊蹟保存會)에서 황실과 관계된 기사를 삭제, 개정하여 상·중·하 3책으로 복각했다.

서명	保護國論
편 · 저자	有賀長雄 (아리가 나가오)
발간 연도	1906
발행 사항	東京: 早稻田大學出版部
청구기호	DDC (325.31 Ar42h)
비고	촬영 필요

근대 일본의 대표적 국제법학자 아리가 나가오(有賀長雄, 1860-1921)가 대한제국 보호국화의 국제법적 법리를 마련하기 위해 보호국 제도와 관련된 유럽 열강의 국가실행과 사례를 정리한 책이다. 저자의 서문에 따르면, 자신은 오래전부터 한국은 일본의 피보호국이 되어야 하며 만주는 청국의 위임에 따라 일본이 통치해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었다. 청일전쟁 직후 프랑스에 갔을 때 보호국 논쟁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했으나 다른 업무가 폭주하여 미처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러일전쟁의 결과 한국은 일본의 피보호국이 되었으나 만주의 위임통치는 실현되지 못하게 되자 후회막급하여 이 책을 저술했다고 하였다.

본서는 「보호국사실(保護國事實)」과 「보호국법리(保護國法理)」의 2개 편으로 구성돼 있으며, 부록으로 각종 보호조약 원문과 번역문 11건을 수록했다. 「보호국사실」에서는 외교사에서 등장한 보호국의 유형을 '타국의 보호를 받지만 세력균형의 필요로 인해 형식상 독립을 유지하는 형태'(제1종), '보호국이 피보호국 주권의 일부를 행사하는 형태'(제2종), '원주민의 반항이나 외교적 분쟁을 피하고자 기존 군주를 존치하지만, 실제로는 속국에 지나지 않는 형태'(제3종), '국가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은 지역에 열강이 지도상에 설정한 보호령'(제4종) 등 4개의 유형으로 분류했다. 「보호국법리」는 일본이 1876년의 조일수호조규와 청일·러일전쟁의 과정에서 한국의 독립을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를 피보호국으로 삼은 국제법적 모순을 해명하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아리가는 민법상 보호후견 관계에서 준(準)금치산자 또는 미성년자가 보호자나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 민법상 제3자에 대해 호주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2종 보호국에 해당하는 피보호국(대한제국)은 제3국에 대해선 '독립'이지만, 이를 보호하는 나라에 대해만 '독립'이 아니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을사늑약의 체결 이후 대한제국의 운명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아리가의 논의는 국내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예를 들어 「보호국연구(保護國研究)」(『外交時報』 제99호, 1906.2)는 『황성신문』(1906.3.15.-16.)에 실렸으며, 『보호국론』의 서장은 김지간(金志侃)에 의해 번역되었다.(『太極學報』 제21호, 1908) 또 김성희(金成喜)는 제2종 보호국이 제3국에 대해 독립국이지만, 보호국에 대해선 독립국이 아니라는 아리가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내기도 했다. (「論外交上經驗的歷史」, 『大韓協會會報』 제8호, 1908)

서명	征韓論實相
편 · 저자	煙山專太郎 (게무야마 센타로)
발간 연도	1907
발행 사항	東京: 早稲田大学出版部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4280 86)
비고	

1873년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의 조선 사절 임명 문제를 놓고 메이지 정부의 의견이 양분된 결과, 사이고를 비롯한 5명의 참의(参議)가 사직하고 군인·관료 약 600명이 대거 정부에서 이탈한 메이지 초기의 일대 정변이었던 '정한론 정변'(또는 '메이지 6년의 정변')에 관한 대표적 연구서이다. 정한론의 발흥을 메이지 초기 일본 국내에 팽배한 국권 확장론의 여파에 따른 것으로 보고, 메이지유신 전후의 국내외 정세로부터 사할린과 쿠릴열도·오가사와라·류큐·대만 등 변경 문제로 인해 정한론이 발흥한 역사적 경위를 검토하고, 1876년 조일수호조규의 체결로 정한론이 일단락되기까지의 과정을 서술했다.

저자 게무야마 센타로(煙山專太郎, 1877-1954)는 근대 일본의 국제정치학자이자 서양사 연구자로서, 특히 러시아사 연구의 선구자로 평가된다. 이와테현(岩手県) 출신으로 1902년 도쿄제국대
학교 문과대학 철학과를 졸업한 후, 스승 아리가 나가오(有賀長雄)의 추천으로 와세다 대학의 강사가 된 후 약 50년 동안 같은 대학에서 교육과 연구에 전념했다. 본서 외에도 『서양최근세사(西洋最近世史)』(1922), 『세계대세사(世界大勢史)』(1944) 등 많은 저서가 있으며, 특히 『근세무정부주의(近世無政府主義)』(1902)는 고토쿠 슈스이(幸徳秋水)를 비롯한 당시 사회주의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책의 집필 의도는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산조 사네토미(三条実美)·기도 다카요시(木戸孝允)와 같이 정한론 정변 당시 사이고의 조선 파견을 좌절시킨 '내치파(内治派)'들만이 참된 국가이익을 추구한 사려 깊고 진실한 정치가들이며, 사이고는 단지 공명심에 불타서 폐번치현 이후 실직한 사무라이들의 생계와 지위 보전을 위해 정한론 정변을 일으켰다는 일반의 역사 인식을 뒤바꾸는 데 있었다. 본서의 집필에는 이타가키 다이스케(板垣退助)·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소에지마 다네오미(副島種臣)의 양자 미치마사(道正), 미야모토 오카즈(宮本小一)와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등 정한론 정변과 관계된 생존자들의 증언과 그들이 비장(秘藏)한 문서가 활용되었다.

서명	故紙羊存
편 · 저자	井上角五郎 (이노우에 가쿠고로) 저, 山口四郎 (야마구치 시로) 편
발간 연도	1907
발행 사항	東京 (비매품)
청구기호	개인문고 (경 049.56 Y143k)
비고	도서관 사이트에는 발행사항을 '東京: 小具庸吉'로 표시했으나, 본서는 비매품이며 小具庸吉은 발행인의 성명임.

1882년 임오군란 직후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명에 따라 조선에 입국하여 『한성순보』의 간행에 기여하고, 김옥균(金玉均)·박영효(朴泳孝) 등 이른바 개화당의 쿠데타(갑신정변) 음모를 은밀히 방조(傍助)한 이노우에 가쿠고로(井上角五郎, 1860-1938)의 글과 연설을 야마구치 시로(山口四郎)가 편찬한 문집이다.

일본의 저명한 서지학자 사쿠라이 요시유키(桜井義之)에 따르면, 『故紙羊存』는 1907년부터 1911년까지 4년간 총 7책으로 간행되었다고 한다. 단, 그도 제5권의 실물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나머지 6책은 도쿄 경제대학(經濟大學) 도서관의 「사쿠라이 문고」에 소장돼 있다. 그 목차는 『朝鮮研究文獻誌-明治·大正 編』(東京: 龍溪書舍, 197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대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에는 이 중 제1권만 소장돼 있다. 여기에는 1882년 12월 조선으로 건너가기 전 송별회에서 한 연설 기록인 「도한의 목적(渡韓の目的)」을 시작으로, 「한성의 남겨진 꿈(漢城之殘夢)」(1891), 「아아! 김옥균 씨(嗚呼金玉均氏)」(1900), 「조선개혁의견(朝鮮改革意見)」(1894) 등 14편의 글이 수록돼 있다.

이노우에 가쿠고로는 빈고노쿠니 후카츠군(備後国深津郡, 현 히로시마현 후쿠야마시(広島県福山市) 출신으로, 1882년 후쿠자와가 창설한 게이오기주쿠(慶應義塾)를 졸업한 후, 1883년 1월 수신사 박영효(朴泳孝) 일행과 함께 조선에 입국했다. 그 후 1886년까지 4년간 조선에 체류하면서 외아문 고문, 『한성순보』 및 『한성주보』 발간, 조선정세 탐지, 남부지방 시찰 등의 활동을 했다. 1890년 제1회 중의원 의원에 당선된 이래로 1924년까지 14선을 연임했다. 일본제강소(日本製鋼所) 회장, 국민공업학교(国民工業学院) 이사장, 게이오기주쿠 평의원 등을 역임하고, 경부철도와 남만주철도 설립에 관여했다. 조선에서의 경험을 기록한 『漢城之殘夢』(東京: 春陽書樓, 1891)이 유명하며, 조선 궁중사를 소재로 한 정치소설 『張嬪: 朝鮮宮中物語』(福地桜痴, 東京: 庚寅新誌社, 1894)의 초고, 『福澤諭吉の朝鮮御經營と現代朝鮮文化とに就いて』(東京: 明治印刷株式會社, 1934)와 『金玉均君に就て』(中島司 編, 東京: 朝鮮中央協會, 1937) 등의 글을 남겼다.

서명	La guerre russo-japonaise au point de vue continental et le droit international d'apr□s les documents officiels du Grand □tat-major japonais
편 · 저자	有賀長雄 (아리가 나가오)
발간 연도	1908
발행 사항	Paris: A. Pedone
청구기호	구장본 서양서 (L620 176)
비고	○ 서명에 오기가 있음: 'contienetal → continental' ○ 'section historique de la guerre de 1904-1905'는 괄호로 구분해서 표기할 것

일본 근대의 저명한 국제법학자이자 사회학자 아리가 나가오(有賀長雄, 1860-1921)가 러일전쟁 당시 일본 육군의 교전 행위를 국제법적 관점에서 서술하고, 그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쓴 책이다. 아리가는 러일전쟁에 종군(從軍)하여 뤼순 진공작전, 그리고 만주군사령부에서 휴전 및 강화에 관한 업무에 참여한 경험과 종전 후 육군 전사부(戰史部)에 보관된 기록 등을 토대로 2년의 작업을 거쳐 본서를 발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11년에는 일러육전국제법론(日露陸戰國際法論) (東京: 東京偕行社)이라는 제목의 일본어 번역본도 간행되었다.

아리가는 러일전쟁 개전 이후인 1904년 7월 만주로 건너가 군함 내에서 열린 참모회의에 출석하여 "러일전쟁이 문명전쟁이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증명하기 위해선 전쟁이 종료된 후 제국 육군이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어떻게 싸웠는지를 기록하고 정리하여 해외에서 발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고 한다. '문명전쟁'이란 당시의 국제법과 관행을 준수하면서 수행된 문명국 간의 전쟁을 뜻한다. 그리고 당시의 문명국이란 구미 선진국과 그 기준에 비추어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제한된 국가를 가리키는 말로, 20세기 초까지는 오직 문명국만이 국제법의 정당한 주체로 간주됐다. 따라서 아리가가 이 책을 집필한 의도 중 하나는, 국제사회에서 '문명국'으로서의 일본 제국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아리가는 1882년 도쿄제국대학을 졸업한 후, 1884년부터 동경전문학교(현 와세다대학의 전신, 1884-1886, 1888-1893, 1896) 및 육군대학교(1896-1899, 1914-)와 해군대학교(1914-)에서 강의하면서 전시국제법에 대한 강의와 연구와 천착했다. 그는 본서를 집필하기 전에 이미 청일전쟁에 종군한 경험을 토대로 La guerre sino-japonaise au point de vue du droit international (Paris: A. Pedone, 1896)와 이를 일본어로 번역한 『일청전역국제법론(日清戰爭國際法論)』(東京: 陸軍大學校, 1896)을 출간했으며, 그 공적으로 1912년 제국학사원 은사상(恩賜賞)을 수상했다.

서명	韓國ニ於ケル第一銀行 (한국에서의 제일은행)
편 · 저자	第一銀行 編
발간 연도	1908
발행 사항	東京: 第一銀行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6044 53)
비고	

1878년 부산에 지점을 개설한 이후, 한국 해관세의 취급, 화폐 정리 사업, 국고금 관리, 그리고 나중에는 화폐 발행 업무까지 담당한 제일은행의 연혁을 편찬한 책이다. 제일은행은 '일본 자본주의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시부사와 에이치(澁澤榮一, 1840-1931)가 1873년 창설한 일본 최초의 은행으로서, 창립 당시의 명칭은 제일국립은행(第一國立銀行)이라고 하였다. 1878년 부산에 지점을 처음 설치하고, 1880년 원산, 1882년 인천, 1886년 경성, 1898년 목포, 1903년 진남포 등 1907년 현재 한국에 지점과 출장소의 총수는 14개에 달할 정도였다. 1884년에는 조선 정부와 해관세 취급 계약을 체결하여 부산, 원산, 인천 등의 해관세를 취급하였으며, 차관 대부 계약을 통해 조선과 대한제국 정부의 재정을 장악해 나갔다. 1902년부터 제일재정권의 발행과 유통이 허가되면서 대한제국의 화폐 주권마저 침범했다. 1905년 통감부의 화폐정리사업에 따라 제일은행권은 사실상 법정통화의 지위를 획득했으며, 1909년 한국은행이 설립되기 전까지 사실상 중앙은행으로서 기능했다.

본서의 「범례」에 따르면, 그 편찬 취지는 제일은행이 한국에서 행한 사업의 전말을 약술하여 은행 업무에 참고토록 하는 한편, 「한국 재정정리 보고서」, 『한국총람』, 『대한법규류찬(大韓法規類纂)』 등의 편찬에 도움을 주는 데 있었다고 한다. 「한국에서의 제일은행의 연혁」, 「한국 해관세의 취급」, 「한국 화폐정리 시말」, 「한국 정부 대상금(貸上金)」, 「은행권의 발행」, 「일본 중앙금고 파출소 사무 취급」, 「한국 국고금의 취급」, 「한국의 중앙은행으로서의 제일은행」, 「한국 산출 지금은(地金銀)의 수납」, 「한국금융기관」 등 총 11개 장으로 이뤄져 있다. 한말 일본 제국주의의 경제적 침략의 첨병이 된 제일은행의 역사와 활동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귀중한 문헌이다. 이 책에서 생략된 자세한 숫자와 통체 등은 별책 「주식회사 제일은행 한국 각 지점과 출장소의 개업 이래 영업상황(株式會社第一銀行韓國各支店出張所開業以來營業狀況)」에 별도로 수록돼 있다.

서명	韓國條約類纂
편 · 저자	統監府 편
발간 연도	1908
발행 사항	東京: 統監府
청구기호	개인문고 (상백 341.251 H193h)
비고	

1908년 통감부에서 편찬한 한국 관계 조약집이다. 통감부는 1906년 2월에 설치된 후 이미 같은 해 11월에 『한국에 관한 조약과 법령(韓國ニ關スル條約及法令)』이라는 조약집을 편찬한 바 있었다. 본서는 1906년 이후 체결된 조약과 법령 등을 추가한 것이다. 또한 『한국에 관한 조약과 법령』에서는 1장에 몇 개 조약문을 병렬하거나, 조선과 독일·프랑스·이탈리아 간의 수호통상조약과 같이 유사한 내용의 조약은 한문본만 수록한 반면, 『한국조약류찬』에서는 이를 국가별로 구분하여 한문 또는 일본어를 먼저 수록하고 해당 국가의 원문을 게재했다. 그리고 전자에서는 생략된 의정서, 세목(稅目), 주요 공문까지 광범위하게 수록했다.

구성은 1876년 2월의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로부터 1908년 10월 "어업에 관한 협정"에 이르기까지 근대 한국이 체결한 67개 조약을 성격에 따라 7편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한국이 체약국은 아니지만 그와 관계된 열강 간의 조약과 장정·규칙·법령·왕복 공문 등을 각 편에 부록으로 실었다.

제1편 「정치에 관한 조약」은 주로 한국의 국권 강탈에 관한 조약들이며, 제2편 「수호통상 및 항해에 관한 조약」은 조일수호조규(1876) 이후 한국이 미국·영국·독일·이탈리아·프랑스·오스트리아·청국·벨기에·덴마크 등과 체결한 수호통상조약 및 통상장정, 세칙장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제3편 「거주에 관한 조약」은 조차지(租借地)와 외국인 거류민에 관한 조약들이며, 제4편 「여행에 관한 조약」에는 이른바 한행리정(間行里程)에 관한 약정서 2건이 수록돼 있다. 제5편 「어업에 관한 조약」은 "조일양국통어규칙"(1883)을 비롯해 이와 관련된 공문과 규칙이며, 제6편 「선박구조에 관한 조약」은 "한국 표류선 취급약정"(1877)과 관련 공문 4건이 수록돼 있다. 제7편 「특별조약」에는 "제물포조약"(1882), "한성조약"(1885), "절영도 지소(地所) 차입 약서"(1886), "월미도 지소 차입 약서"(1891), "한국 연해 및 내하(內河)의 항행에 관한 약정서"(1905), "삼림 경영에 관한 협동약관"(1906), "일시 대부금에 관한 계약"(1908)이 실려 있다. 「추가」편에는 "어업에 관한 협정"(1908.10.31.), "어업법"(융희 2년 11월 법률 제29호), "어업법 시행 세칙"(융희 2년 11월 농상공부령 제72호)이 수록돼 있으며, 「부록」으로 "각국 관세 대조표"가 첨부되었다.

개항 이후 한국이 체결한 근대적 조약과 조약 원문, 그리고 관련된 주요 문서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문헌으로서, 근대 한국외교사 연구의 유용한 자료가 된다.

서명	(朝鮮ニ關スル)東亞經濟調査局報告
편 · 저자	朝鮮總督府
발간 연도	1913
발행 사항	京城 (비매품)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6090 70)
비고	

독일인 오토 비트펠트(Otto Wiedfeldt, 1871-1926)가 동아시아 각지를 조사시찰하고 작성한 「동양경제사정보고(東洋經濟事情報告)」 가운데 조선에 관계된 것만 선별해서 동아경제조사국(東亞經濟調査局)이 번역한 책이다. 서문에 따르면, 비트펠트는 1911년부터 1912년에 걸쳐 수십 일간 조선 내지를 유력하면서 자세하게 식민통치의 시설과 경영 상태를 조사했다고 한다. 「독일 식민지에서의 교육제도」·「관료주의란 무엇인가?」·「정당의 관료적 기관」·「매장 비용 절감책」·「독일황제 하인리히 전하와 일본재정 및 경제」·「조선에서의 교통 문제」·「조선공업진흥책」·「조선에서의 토지 겸병 방지 수단」·「조선시장규칙 및 시장 수수료에 관하여」·「조선 각도(道)에서의 국고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조선에서의 행정구획 변경에 관하여」·「조선에서의 시정에 관하여」·「면(面)을 폐지할 것인가, 아니면 동(洞)을 폐지할 것인가?」·「조선 경편(輕便)철도 추보」·「조선 거류민단의 폐지」·「조선 도(道) 행정에 자치제를 시행하는 일의 가부(可否)」·「조선에서의 외국 기업가에 대한 철도 건설 허가의 가부에 관하여」·「조선 소작농민의 부업 장려」·「조선 소작 제도의 개선에 관하여」 등 총 19편의 독립된 보고서와 논문으로 구성돼 있다. 조선총독부에서 업무에 참고하는 데 유익하다고 판단하여 1913년 비밀 출판하여 관계자들에게 배포했다.

동아경제조사국은 흔히 '만철'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의 조사연구기관으로서, 1908년 만철조사과(調査課) 내 만주조선역사지리조사부(滿州朝鮮歷史地理調査部)와 함께 창설됐다. 처음에는 세계경제의 조사 및 분석을 주된 업무로 삼았으나, 일본 제국주의의 팽창과 함께 그 조사 범위도 점차 확대되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이슬람, 동남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등 중동과 아시아 전역을 포괄했다.

오토 비트펠트는 독일의 정치가이자 경제학자로, 1908년부터 1910년까지, 그리고 1914년부터 1917년까지 독일 내무부에서 고위 관료로 근무했으며, 그 사이에 만철에서 ministerial director로 활동했다. 1922년에는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최초의 주미독일대사로 임명되기도 했다.

서명	朝鮮併合之裏面
편 · 저자	小松錄 (고마쓰 미도리)
발간 연도	1920
발행 사항	東京: 中外新論社
청구기호	개인문고 (남창 951.06 K835c)
비고	

1910년 8월 한일강제병합에 통감부 외무부장으로서 관여한 저자가 그 이면의 정치과정에 관해 기술한 책이다. 서문에서 저자는 "보호제도의 실시, 병합조약의 체결 및 병합 후의 시정에 관한 사무에 참여했으며, 특히 당시 극비를 요하던 조선병합의 실행에 즈음해서는 거의 외부자는 관여할 수 없었던 기무(機務)에 참여했다. 부분적 사항에 관해선 저자보다도 내부사정에 정통한 사람이 있겠지만, 수미일관하게 널리 전반에 걸쳐 조선 창업의 경영에 시종 참여하고, 특히 조선병합의 이면에 숨은 진상을 엿볼 수 있는 기록과 기억을 가진 사람에 이르러선 저자를 제외하곤 드물다기보다는 차라리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강제병합의 진상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음을 자부했다.

저자 고마쓰 미도리(小松錄, 1865-1942)는 아이즈번 출신으로, 1887년 게이오기주쿠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1894년 예일대학 법학사, 1895년 프린스턴대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896년 귀국한 후 외무대신 무쓰 무네미쓰(陸奥宗光)에게 발탁되어 외무성 번역관이 되었으며, 공사관 서기관으로 미국과 시암에서 근무하고 러일전쟁 당시에는 요동군사령부에서 근무했다. 1906년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초대 조선통감으로 경성에 부임할 때 통감부 서기관이 되어 조선에 처음 입국했으며, 이후 1916년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초대 초선 총독이 귀국할 때까지 11년간 경성에 체류하면서 서기관, 참여관, 외무부장, 외사국장, 중추원 서기장관 등을 역임했다. 같은 해 퇴직한 그는 자신이 수집한 자료와 체험에 기초하여 집필 활동에 진력하였으며, 본서 외에도 『메이지 외교 비화(明治外交祕話)』(1927), 이토 히로부미의 문장과 서간을 수집하여 공동 편찬한 『이토공 전집(伊藤公全集)』(전3책, 1927), 『이토공 직화(伊藤公直話)』(1936) 등의 저서가 있다.

이 책은 이토 히로부미, 가쓰라 타로(桂太郎),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 3인이 처음 한국병합 방침을 합의했다고 하는 1909년 4월의 레난자카(靈南坂) 회견으로부터 송병준을 위시한 일진회의 합방 건의, 소네 통감과 데라우치 통감의 시정, 병합의 구체적 경위, 그리고 이후의 외교적 관계와 총독부의 시정 등을 총 18개 장으로 서술했다. 부록으로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을 주장한 「상근일가설(桑槿一家說)」이라는 별도의 논문이 수록돼 있다.

단, 고마쓰가 이 책을 저술한 근본 목적은 한일병합이 강압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원래 동족(同族)이었던 두 민족이 합의에 기초해서 평화적으로 이뤄진 것임을 알리려는 데 있었다. 따라서 이 책은 객관적인 역사의 기록이라기보다는 명확한 정치적 의도에 따라 저술된 것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일례로 이 책이 간행되기 1년 전에 발생한 3·1 운동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그가 주장한 것처럼 한일병합이 쌍방의 합의에 기초하여 평화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총독 통치에 대한 조선 민중의 거국적 저항이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강제병합에 직접 관여한 실무자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역사적 가치를 갖는 문헌이다.

서명	李王宮秘史
편 · 저자	權藤四郎介 (곤도 시로스케)
발간 연도	1926
발행 사항	京城: 朝鮮新聞社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4260 4)
비고	저자의 이름이 '權藤西郎介' 로 잘못 표기돼 있음.

1907년부터 1920년까지 창덕궁에서 근무한 일본인 관리 곤도 시로스케(權藤四郎介)가 궁중에서의 체험과 견문을 기록한 책이다. 책 제목의 '이왕궁'이란 한일강제병합 이후 일제가 대한제국의 황실을 격하해서 붙인 이름이다. 1907년부터 1920년까지 「창덕궁의 15년(昌德宮の十五年)」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신문(朝鮮新聞)』에 연재한 원고를 1920년 8월 조선신문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하면서 대폭 가필·수정하였다.

저자 곤도 시로스케의 생애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1875년 후쿠오카 현 출신으로, 와세대 대학을 졸업한 후 오사카 아사히 신문사와 오사카 후지모토 은행 등에서 근무하다가 1905년 처음 인천에 건너와 인천상업회의소 서기장, 『조선일일신문(朝鮮日日新聞)』의 고문이 되었다. 1907년
대한제국 궁내부의 제실재산정리국(帝室財産整理局)의 사무관에 특채되어 처음 입궁(入宮)했으며, 이후 궁내부(병합 이후 이왕직) 관리로서 회계경리와 문서정리 등 행정 실무뿐 아니라, 시종과 황후궁의 전선(典膳)과 같은 업무까지 보았다.

『이왕궁비사』는 편년체의 역사서술이 아니라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궁중의 흥미로운 일화를 나열한 책이다. 또 곤도 스스로 「자서(自序)」에 "이 책은 이왕궁의 비사라고 제목을 붙였지만, 어떤 의미에선 나의 반생(半生)의 역사이다. 따라서 왕왕 개인적인 사건을 다루어, 자신을 중심으로 기술한 것은 돌아보건대 부끄럽기 짝이 없는 바다."라고 쓴 것처럼, 개인적 회고록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감부 통치로부터 한일 강제병합을 거쳐 총독부 통치, 3·1운동, 궁중과
부중 간의 알력, 이완용과 윤덕영의 암투, 왕세자 이은과 이방자의 결혼 등 궁중의 내밀한 사건과 여러 정치적 격변에 대한 궁중의 시각을 보여준다는 데 이 문헌의 가치가 있다.

이 책은 1920년 8에 발간된 직후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던 듯, 9월에 제2판, 10월에 제3판이 간행되었고, 1927년 10월에 제4판이 발간되었다. 서울대 고문헌자료실 소장본은 제2판이다.

서명	明治十五年朝鮮事變と花房公使
편 · 저자	武田勝藏 (다케다 가쓰조)
발간 연도	1929
발행 사항	東京 (비매품)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4280 17)
비고	

1882년 임오군란 당시 조선주재 일본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 1842-1917) 사후 그 가문에 전승된 문서와 생존자들의 증언에 기초하여 그 전후 경과를 서술한 책이다. 저자 다케다 가쓰조는 임오군란 당시 어학생도로 제물포에 조사를 위해 와 있던 다케다 진타로(武田甚太郎)의 아들로, 본서가 출간되기 2년 전인 1927년에 이미 하나부사 가문에 비장(秘藏)된 관계자료와 여러 조난자의 회고담에 의거하여 게이오기주쿠 대학의 미타사학회(三田史學會)에서 발간하는 계간 학술지 『사학(史學)』 제6권 제2호에 「메이지 15년 조선사변의 회고(明治十五年朝鮮事變の回顧」라는 글을 게재한 바 있었다. 그 연고로 하나부사 사후 13회기(回忌)에 그 아들 해군 소장 자작 하나부사 타로(花房太郎)가 책으로 발간할 것을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여 기존 원고를 증보(增補)한 후 『메이지 15년 조선사변과 하나부사』라고 제목을 고쳐 상재(上梓)했다고 한다.

하나부사와 조선의 관계는 1870년 청일수호조규의 협상을 위해 야나기하라 사키미쓰(柳原前光)의 수행원으로 청국에 건너가면서부터 시작됐다. 그 후 1871년 부산 초량왜관의 접수를 위해 처음 조선에 건너왔으며, 1876년 조일수호조규 체결 직후에는 외무대승(外務大丞)의 자격으로 영사관 설치, 거류지의 획정, 상업회의소 및 병원 설치 등의 현안에 관계했다. 1877년에는 이른바 공사주경(公使駐京) 및 부산 외 2개 항구 개방의 사명(使命)을 띠고 조선에 건너왔으며, 1880년에는 변리공사(辨理公使)로서 고종을 알현하고 메이지 천황의 국서(國書)를 봉정함으로써 경성에 주재한 최초의 외국 공사가 되었다.

본서는 「반도의 정정(政情)과 변란의 동기」, 「경성에서의 공사 이하의 조난」, 「인천에서의 재난(再難)」, 「영국 함선의 구조와 나가사키 귀환」, 「이노우에 외무경의 시모노세키 도착과 하나부사 공사의 도한(渡韓)」, 「제물포조약의 체결」, 「조약 체결 후의 여러 사건」, 「하나부사의 귀조(歸朝) 복명」 등 8개 절로 구성돼 있으며, 경성 주재 일본 공사관원들을 구호한 영국 함선 Flying Fish호 함장에 대한 하사품, 야스쿠니 신사에서의 초혼제, 인천부에서의 순난자(殉難者) 묘소 등 관련 자료를 기록한 「여록(餘祿)」, 그리고 조난자 4인의 회고담을 모은 「회고소록(回顧小錄)」이 부록으로 첨부돼 있다. 군란을 직접 체험한 인물들의 증언과 하나부사 가문에 보관된 중요 공문이 수록돼 있으며, 특히 제물포조약의 합의사항에 대한 사후조처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임오군란의 연구에 귀중한 문헌이다.

서명	朝鮮關係考證彙輯
편 · 저자	미상
발간 연도	1930
발행 사항	필사본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710 30)
비고	서울대 유일본. 촬영 필요

1876년 조일수호조규 체결 협상을 앞두고 일본 정부에서 조선에 관한 정보를 취합하여 편찬한 자료집의 필사본이다. 표지는 “조선관계 고증휘집(朝鮮關係考證彙集)”이라고 적혀 있으며, 속지에는 “1875년부터 1876년까지(自明治八年 至同九年)”이라고 수록문서의 연도가 추가로 표기돼 있다. 10행 원고지에 붓으로 옮겨적은 필사본이다. 관견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유일본으로 보인다.

권두에는 데라지마 무네노리(寺島宗則) 일본 외무경과 빙엄(John A. Bingham, 미국), 쿠엥텡(A. de Saint Quentin, 프랑스), 아이젠데헤르(Karl von Eisendecher, 독일), 스트루프(Charles De Struve, 러시아), 오스티아니(Comte Alessandro Fé d’Ostiani, 이탈리아) 등 서양 열강의 공사 및 영국공사관 1등 서기관 플런킷(F.R.Plunkett) 간의 회담 기록이 실려있다. 이 회담은 모두 1875년 12월 9일에 열린 것으로, 화제는 주로 병인·신미양요의 전황과 조선의 실상, 그리고 조청속방(屬邦) 관계에 관한 의견과 같은 것이다. 앞장에는 “이번 조선국에 변리대신으로 파견되는 것과 관련하여 각국 공사와의 대화서 4철(綴)을 드립니다. 12월 15일 데라지마 무네노리가 구로다 변리대신 님께”라는 표지가 붙어 있다.

이밖에 수록된 문서는 병인·신미양요, 1875년 9월의 운요호사건, 1876년 초 베이징에서의 특명전권공사 모리 아리노리(森有禮)와 총서 대신들 간의 회견에 관련된 공문이 대부분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히로쓰 외무소승에게 보낸 지령서 및 구진(口陳) 별함(別函)」에 수록된 문서들이다. 여기에 포함된 조일수호조규의 체결을 위해 특명전권변리대신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가 강화도에 파견되기 직전 선보사(先報使)로 부산에 파견된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와 훈도 현석운(玄昔運) 간 예비교섭의 필기 등은 다른 문헌에서 발견되지 않는 귀중한 기록이다.

서문과 발문이 없는 필사본이라서 단정하기 어렵지만, 수록 문서의 성격으로 볼 때 1876년 2월 강화도 회담을 앞두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조선에 관한 제한된 정보를 급히 모은 자료집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서는 조일수호조규 직전 구로다를 비롯한 일본 협상단의 조선에 대한 인식 수준과 형세 판단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자료이다. 단, 필사 과정의 문제로 인해 목차와 내용이 맞지 않고, 심지어 일부 문서에선 착간(錯簡)마저 발견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서명	朝鮮開國交涉始末
편 · 저자	奧平武彦 (오쿠다이라 다케히코)
발간 연도	1935
발행 사항	東京: 刀江書院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710 75)
비고	

미국 국무성 소장 공문서와 조선 문헌에 기초해서 조미수호통상조약(1882)의 체결을 중심으로 조선의 개국 과정을 서술한 책이다. 저자는 서문에서 '개국(開國)'의 의미를 "국책(國策)으로 쇄국(鎖國)을 해오던 동양 국가와 서양 국가 간의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이며, 서양인들과의 정규적인 통상(通商) 관계를 창설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어떤 사태 아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조약의 체결을 통해 개국이 이뤄졌는가라는 것은, 개국한 국가의 국제 정국상(政局上)의 지위를 결정하며, 이후 국가적 발전의 출발점을 이룬다."라고 단언했다. 저자의 관점에서 볼 때, 조선의 개국 과정이 갖는 특수성은, 같은 동양의 이웃 국가인 '개국'을 담당하여 구미 열강의 인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있었다. 이에 따라 본서는 전체적으로 조선의 개국을 서술하는 데 일본의 역할과 영향력에 큰 비중을 할애하고 있다.

저자 오쿠다이라 다케히코(奧平武彦, 1900-1943)는 효고현 출신으로 1924년 도쿄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이후 같은 학부의 조수로 근무하다가 1926년 경성제국대학의 창설과 동시에 조선으로 건너와 법문학부에서 정치학·정치사 및 외교사 강좌를 담당했다. 1928년 1월부터 1930년 9월까지 영국·프랑스·독일·미국 등지에서 외교사 관련 문헌을 수집하였으며, 이 책은 그 산물이다. 조선의 도자기·회화·서적 등 문예(文藝)에도 조예가 깊어서 조선총독부의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많은 관련 학술논문도 발표했다.

이 책은 「서언: 동양 제국(諸國)의 개국의 의의」·「조선의 개국에 이르는 전주곡」·「강화조약에 의한 일선(日鮮) 관계의 수립」·「조선과 미국 간 외교관계의 성립」·「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의 조약 체결」·「결언」으로 구성돼 있다. 조선 개국의 전사(前史)로 영국의 애머스트호와 사마랑 호의 도착으로부터 병인박해와 병인양요, 제너럴셔먼호 사건, 신미양요 등을 서술한 후, 조일수호조규와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체결 경위를 주로 다루고, 다른 서양 국가들과의 조약 체결 과정을 간략히 서술했다. 부록으로 「조선외국관계약연표(朝鮮外國關係略年表)」와 로버트 슈펠트(Robert W. Shufeldt)가 1882년 텐진(天津)에서 캘리포니아 전 상원의원 사전트(Aaron A. Sargent)에게 보낸 서한이 첨부돼 있다. 초고는 1935년에 『경성제국대학법학회총간(京城帝國大學法學會叢刊)』 제1호로 발표되었으며, 단행본으로 간행되면서 「조선의 조약항과 거류지」라는 장편의 논문이 함께 수록됐다.

서명	近代日鮮關係の研究
편 · 저자	田保橋潔 (다보하시 기요시)
발간 연도	1940
발행 사항	京城: 朝鮮總督府中樞院
청구기호	(디지털 콘텐츠)/ 개인문고 (小澤 327.51053 T114k 1963)
비고	

19세기 조선 정치외교사 및 근대 동아시아 국제관계사의 고전(古典)으로 꼽히는 책으로 1940년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비밀 간행되었다. 저자에 따르면, 그 집필 의도는 19세기 동아시아 외교사를 조선을 중심으로 하는 내적 동학(動學)의 관점에서 규명하는 한편, 1940년 출간 당시 학계에 발표되지 않고 아직 문서고에 비장(秘藏)되어 있던 조선·청·일본의 정부 기록과 외교문서를 원문 그대로 수록한 일종의 문서집을 편찬하는 데 있었다고 한다. 상권 1,133쪽, 하권 969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초판이 발간된 지 이미 70여 년이 지났지만 일본 학계에서는 사실관계에 관한 한 여전히 이 책의 기술을 인용할 정도로 높은 학문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저자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 1897-1945)는 홋카이도 하코다테 출신으로, 1921년 도쿄제국대학 문학부 국사학과를 졸업한 후, 문부성 유신사료편찬회와 도쿄제국대학 사료편찬소 등에서 근무하다가 1926년부터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사학과에서 국사학(일본사) 강좌를 담당했다. 1933년부터는 조선사편수회의 촉탁으로 순조(純祖)대부터 고종(高宗)대 갑오개혁에 이르는 『조선사 근대편』의 편수 주임을 맡아 1938년 이를 4책으로 완성했다. 일반적으로 그의 역사 연구 방법론은 방대한 사실(史實)과 사료에 기초한 엄밀한 실증주의로 알려져 있다. 『근대 일선관계의 연구』는 그의 대표작으로, 실증주의 사학의 전범(典範)으로 평가된다. 이외에도 『근대 일지선 관계의 연구』(1930)·『메이지 외교사』(1931) 등의 저서와 『일청전역 외교사의 연구』(1951)·『조선 통치사 논고』(1972)의 유고(遺稿) 출판물이 있다.

상권은 『근대 조선사 총설』·『일·한 신관계의 성립』·『일·한 국교의 갱신과 그 반동』의 3편으로 구성돼 있다. 하권은 『조선에서의 일·청의 항쟁』, 그리고 별편(別編)으로 「조선국 통신사 역지행빙고(易地行聘考)」·「메이지 유신기의 타이슈번 재정과 번채(藩債)에 관하여」라는 2개의 독립된 논문이 수록돼 있다.

서명	太陽
편 · 저자	博文館 編
발간 연도	1895-1928
발행 사항	東京: 博文館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Y00 33)
비고	

1895년 1월 창간되어 1928년 2월까지 하쿠분칸(博文館)에서 간행한 월간지로서 일본 메이지와 다이쇼 시대를 대표하는 최초(最初), 최대(最大)의 종합잡지이다. 제34권 제2호로 폐간되기까지 총 34권 531책이 발간되었다. 전체 잡지의 분량이 17만 5,000여 페이지에 달하며, 정계·관계·재계·교육계·군·언론계·종교계·예술계·법조계·의학계 등 사계 전문가 6,500여 명이 필진으로 참여했다.

창간호의 경우 논설·사전·지리·소설·잡록·문원·예원·가정·정치·법률·문학·과학·미술·예술·상업·농업·공업·사회·해외사상·여론일반·사교안내·신간안내·해내휘보·해외휘보·영문의 24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 항목은 이후 조금씩 변화하지만, 대체로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평론에 중점을 두면서 지식 기술의 보급이나 예술과 문학, 가정생활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했다. 특히 화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사진 기술을 도입해 선명한 사진을 많이 수록했으며,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는 260쪽이 넘는 임시증간호를 발행했다. 잡지의 간행 부수는 정확하지 않지만, 초기에는 20-30여만 부로 추정되며 독자층 또한 전국적으로 모든 연령층을 망라했다.

본지를 발간한 하쿠분칸은 오하시 사헤이(大橋佐平)가 1887년 도쿄에서 설립한 출판사로서, 1910년대까지 잡지·전집류·단행본 등 방대한 규모의 출판을 통해 일본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근대적 출판업의 선두주자였다. 특히 청일전쟁 발발을 전후하여 전쟁 관련 출판물을 적극적으로 간행했다. 사실 『太陽』을 간행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는데, 오하시 신타로(大橋新太郎)의 창간사에 따르면 그 취지는 "이제 바깥으로는 정청군(征淸軍)이 대첩(大捷)을 거두었다는 소리가 들리고, 안으로는 발산하려는 호연(浩然)한 정기(正氣)를 억누를 수 없다. … 이러한 때 크게 지식을 세계에서 구하고 우리나라 문명의 진상을 발휘하여 이를 세계로 넓혀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국민의 임무이다. 우리는 『太陽』에 전력을 다하여 한편으로 지식을 만국에 찾는 길을 열어, 나라의 영광이 세계에 빛날 수 있는 단서를 만들고 제2의 유신 대업을 도와 깊은 황은(皇恩)에 조그마한 보탬이 되어 동포 제군의 격려에 답하는" 데 있었다.

『太陽』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일본의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잡지로서, 일본 근대사 연구에 필수적인 자료로 꼽힌다. 서울대 중앙도서관 고문헌 자료실에는 20권(1책), 29권(2책), 30권(2책), 31권(2책), 32권(2책), 33권(5책) 등 14책과 함께 임시증간호로 『現行改正條約類纂』(5권 19호, 1899.8), 『伊藤博文公』(15권 15호, 1909.11) 등 2책이 소장돼 있다.

서명	外交時報
편 · 저자	外交時報社
발간 연도	1898-1998
발행 사항	東京: 外交時報社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Y55 15)/ 연속간행물 보존서고 2 (P327 G124j)
비고	촬영 필요

1898년 2월 일본의 국제법학자 겸 사회학자 아리가 나가오(有賀長雄)가 창간한 국제정치 및 외교 전문 잡지이다. 창간호에 실린 「외교시보 발간의 요지」에 따르면, 그 목적은 "공중(公衆)을 대신하여 열국(列國)의 과거와 현재를 연구하고, 그 극동 외교와의 상관관계를 살펴서 일본의 태도를 정립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었다. 단, 창간 후 4년 동안 본지에 게재된 논문과 기사 중 저자 또는 역자가 확인되는 것 407편 가운데 232편을 아리가가 집필했을 정도로 그의 개인잡지의 성격이 강했다.

『외교시보』는 처음에는 매월 2회 발간하다가 월간지로 바뀌었다. 그 내용은 국제적 이슈, 해외 언론의 논조, 학계의 동향 등에 관한 보도와 더불어 중요한 사안에 관한 국제법학자들의 논문으로 구성되었다. 창간호부터 2,500부가 순식간에 매진되어 증쇄될 정도로 일본 사회에서 큰 관심을 끌었으며, 1920년대엔 연간 수십만 명의 독자를 보유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외교시보』는 20세기 전반기 일본의 외교논단를 대표하는 잡지였다. 이 시기 국제정치 또는 외교 문제의 전문 잡지로는 국제연맹협회의 『국제지식(國際知識)』, 일본외사협회의 『국제평론(國際評論)』, 국제법학회의 『국제법외교잡지(國際法外交雜誌)』 등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외교시보』는 창간의 역사나 투고자의 다양함, 그 정보량에서 단연 으뜸이었다. 이 저널에 기고한 필자는 일본의 재계·정계·관계·학계·군·언론계 등 사계의 권위자를 망라했다.

이후 휴간과 복간을 반복하다가, 1998년 9월 자금 문제로 인해 4번째 휴간을 한 뒤로는 아직 복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창간호부터 제956호(1945.4)까지의 목차와 필자 색인은 『外交時報 総目次 · 執筆者索引 : 戦前編』(伊藤信哉 編, 日本図書センター, 2008)으로 간행됐다. 이후의 목차는 『마쓰야마 대학 논집(松山大學論集)』 제26권 제2호부터 제4호(2014-2015)에 수록된 「資料: 『外交時報』総目次-戦後編 (1)-(5)」를 참조할 수 있다.

서명	國際法雜誌/ 國際法外交雜誌
편 · 저자	日本 國際法學會
발간 연도	1902-현재
발행 사항	東京: 國際法學會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Y50 13)/ (Y50 13)
비고	『國際法雜誌』와 『國際法外交雜誌』는 같은 저널임.

일본 국제법학회가 1902년 창간한 국제법 및 국제정치 전문잡지이다. 창간 당시 편찬위원에는 다카하시 사쿠에(高橋作衛), 야마다 사부로(山田三郎), 데라오 도루(寺尾亨), 아리가 나가오(有賀長雄), 나카무라 신고(中村進午), 후쿠오카 히데(福岡秀猪), 도미즈 히론도(戶水寬人), 마쓰나미 니이치로(松波仁一郎) 등 당시 일본의 손꼽히는 국제법학자들과 구라치 테쓰키치(倉知鉄吉), 야마카와 다다오(山川端夫)와 같은 외교관, 군인이 망라돼 있었다. 매월 1회 간행되었으며, 「논설」·「잡록(雜錄)」·「서성반향(西聲反響: 서구의 소식)」·「연찬 자료(硏鑽資料)」·「공문(公文)」·「부록」 등으로 구성되었다. 국제법 전문잡지로는 프랑스(1874년)와 벨기에(1875)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창간되었다. 목차에서 알 수 있듯이, 명칭은 비록 『국제법잡지』였으나 아직 국제정치학이라는 학문 분과가 성립하기 이전이었으므로 서구 정세의 보도와 국제정치의 해설에도 주력했다.

일본 국제법학회는 1897년 3월 설립됐다. 야마다 사부로의 회고록에 따르면, 1896년 당시 서구와의 조약개정 문제로 고심하고 있던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 외무차관이 외무성 촉탁으로서 이 문제를 연구해줄 것을 의뢰하자, 이는 일개인이 아니라 일본 법학계의 역량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고무라 또한 이 말이 옳다고 여겨, 야마다가 각 대학 법과대학의 저명한 연구자를 동원하고, 고무라가 외교관 및 다른 선배들을 설득하여 마침내 국제법학회의 창설을 실현했다고 한다. 그 창립 목적은 (1) 국제법의 연구, (2) 국제지식의 보급, (3) 조약 개정의 연구에 있었다.

『국제법잡지』는 1912년 10월 발간된 제11권 1호부터 『국제법외교잡지』로 명칭을 바꿨다. 법학자 백충현 서울대 명예교수와 국사학자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공동으로 1902년 제1권 1호부터 1910년 제9권 7호까지 『국제법잡지』에 수록된 논문 가운데 한국의 국권 침탈과 관련된 것 102건을 선별하여 그 요지를 정리한 논문(백충현·이태진, 「일본 국제법학잡지 『국제법잡지』에 수록된 한국 국권침탈 관계 논문」, 『서울국제법연구』 제7권 제1호, 2000)이 있다.

서명	國憲編纂起原
편 · 저자	宮島誠一郎 (미야모토 세이치로)
발간 연도	1905(정책)/ 1907(부록)
발행 사항	東京 (비매품)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210 124)
비고	발간연도, 발행사항 수정/ 촬영 要

좌원(左院)의 의관(議官)으로서 일본제국 헌법 편찬에 참여한 미야지마 세이치로(宮島誠一郎, 1838-1911)의 보고서로서, 「정책(正冊)」과 「부록」의 2책으로 구성돼 있다. 미야지마는 요네자와번(米澤藩) 출신의 사족(士族)으로, 에도 말기부터 메이지 시대에 활약한 관료이자 정치가였다.

「정책」은 1872년부터 1874년까지 좌원(左院)을 중심으로 추진된 국헌(國憲) 편찬 작업에 관한 주요 문서를 편찬하고, 미야지마가 기록한 간단한 일지를 담고 있다. 「국헌편찬의 경위」와 「국헌편찬기원」 등 2개의 절로 구성돼 있다. 전자에는 '1872년 4월의 건언서', '이와쿠라에게 보낸 서한', '이와쿠라의 회신' 등이, 후자에는 '입국헌의(立國獻議)', '국회의원 수독(手讀) 조사', '정원(正院) 사무 장정', '좌원 개정(改定)의 논의', '태정대신 연설의 각서', '좌원 직제 및 사무 장정' 등이 실려 있다. 원래 이 책은 미야지마가 1881년 5월에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에게 올린 보고서다. 이보다 앞서, 메이지 정부는 1872년 5월 국헌(國憲) 수립의 건언(建言)을 가납(嘉納)하고, 대의제 정부에 관한 조사 업무를 좌원에 맡겼다. 그런데 이와쿠라는 당시 서양 순방으로 인해 부재중이었다. 미야지마는 1881년 국회개설 청원 운동으로 인해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과거의 사실을 이와쿠라에게 보고하기 위해 이를 작성한 것이다. 그 후 오랫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다가 1905년에 이르러 출판되어 연구자 등에게 배포되었다.

「조선국 사절 파견에 관한 각의(閣議) 분열 사건」이라는 부제가 붙은 「부록」은, 실제로는 일본 제국헌법과 무관한 1873년의 이른바 정한론 정변에 관한 책이다. 당시 사이고 다카모리(西鄕隆盛),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 이타가키 다이스케(板垣退助), 이와쿠라 도모미등 일본 정부의 주요 당국자 간 왕복한 문서를 수록하고, 정한론으로 인해 각의(閣議)가 분열된 경위를 상세히 서술했다. 「정책」에 이어 1908년에 인쇄되어 지인들에게 배포되었다. 정한론 정변을 중심으로 메이지 초기 일본 정치사를 연구하는 데 기초자료로서 귀중한 가치를 가진다.

「정책」과 「부록」은 모두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가 편찬한 『메이지문화전집(明治文化全集)』에도 수록됐다. 전자는 제4권 「헌정편(憲政編)」에, 후자는 제22권 「잡사편(雜史編)」에 실려 있다.

서명	日鮮通交史 (附 釜山史)
편 · 저자	釜山甲寅會
발간 연도	1915/ 1916
발행 사항	釜山: 釜山甲寅會
청구기호	개인문고 (남창 951.53 N636)/ 구장본 동양서 (428049)/ 개인문고 (경 951.53 N636)/ DDC (951.53 N636)
비고	

부산의 일본인 거류민 단체 부산갑인회(釜山甲寅會)에서 부산의 역사 및 강제병합 이후 지방행정과 '발전상' 등을 정리하여 편찬한 책이다. 191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는 조선인과 일본인에게 통합적 행정을 실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개항 이래의 거류지 제도를 철폐하고 부제(府制)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부산의 일본인 거류민단이 해체되면서, 그 후신으로 만들어진 것이 부산갑인회였다. 부산갑인회는 1914년 3월 31일 일본인들의 지방자치권 획득이라는 목표하에 설립된 단체로서 간부 3명, 의원 21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되었다.

부산갑인회에서 『일선통교사』를 편찬한 목적은 부산 거류 일본인들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부산에 대한 '애향심'과 단결력을 고취하는 데 있었다. 그 편찬 경위에 관해 본서의 서문에 "이 중요한 역사를 가지는 부산 민단은 시세의 추이에 따라 한 조각 제령(制令)으로 인해 갑자기 그 자치 능력을 빼앗겼다. 그리고 최후의 시기에 민단의원이 된 사람들에게 조선총독부는 기념품 증여 보조로서 금 1,200엔을 내려주었다. 이에 옛 민단의원에 의해 조직된 부산갑인회는, 그 유지를 계승해서 이 보조금의 전부를 기부하여 『부산사(釜山史)』의 편찬을 기획하여 길이 이를 기념하고자 했다."라고 적혀 있다.

『일선통교사』는 전편과 후편의 2책으로 편찬되었다. 「고대기(古代記)」라는 부제가 붙은 전편은 총 706쪽으로, 「서론」·「일한(日韓)」·「조선」·「쓰시마와 조선」·「소씨(宗氏)와 부산」·「외교」·「명승구적」 등 7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부산을 중심으로 이뤄진 조선과 쓰시마번 간의 교섭과 제반 제도를 기술한 제6장 「외교」의 분량이 전체의 2/3에 달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후편은 「근대기(近代記)」로, 총 332쪽이다. 「서언」·「총독정치」·「지세(地勢)」·「기상(氣象)」·「각 정청(政廳) 및 자치기관」·「호구」·「교육」·「종교」·「위생」·「방화설비」·「항만설비 및 매축(埋築) 사업」·「교통운수」·「경제」·「상업기관 및 금융」·「공업」·「수산업」·「농사와 식림(植林)」·「간행물」·「특설 단체」·「잡조(襍俎)」 등 21개 장으로 이뤄져 있다.

근세 이후 부산에서 이뤄진 조선과 일본 간 통교(通交)의 내력과 1910년 한일강제병합 이후 부산에서 시행된 지방행정 및 경제사회적 실상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문헌이다.

서명	日本開化小史
편 · 저자	田口卯吉 (다구치 우키치)
발간 연도	1929/ 1939
발행 사항	東京: 改造社/ 東京: 岩波書店
청구기호	
비고	촬영 필요

프랑수아 기조(François Pierre Guillaume Guizot)와 헨리 버클(Henry Thomas Buckle) 등 유럽 근대 문명사가의 영향을 받아 최초로 문명사(文明史)의 시각에서 일본사를 서술한 역사서로서, 일본 근대사학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진무천황의 건국으로부터 도쿠가와 막부가 붕괴하고 왕정복고가 이뤄질 때까지 중앙 정권의 이동을 중심으로 일본 문명의 발전과정을 서술했다. 원본은 1877년부터 1882년까지 화장(和裝) 전 6권 6책으로 완간되었다.

저자 다구치 우키치(田口卯吉, 1855-1905)는 1855년 에도의 하급 무사 집안에서 태어나 시즈오카 번의 누마즈병학교(沼-兵學校)와 대장성 번역국 등에서 수학했으며, 1874년 졸업과 동시에 대장성 관리가 되어 번역 업무를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양학(洋學)의 선구자인 오쓰코쓰타로오쓰(乙骨太郎乙)와 세키 신파치(尺振八)의 영향으로 영국의 문명론과 자유무역론, 자유주의 정치이론을 접하게 되었다. 본서가 큰 성공을 거둔 후 1878년에 관직을 사임하고, 이후 언론 및 저술 활동을 통해 자유민권운동에 헌신한 인물이다.

법칙적·체계적 역사서술을 중시하였으며, 『대일본사(大日本史)』나 『일본외사(日本外史)』 등 기존의 역사서가 천황가 위주의 서술방식을 취한 것을 비판하고 인민 중심의 역사학을 주창했다. 특히 "인심의 문야(文野)는 화재(貨財)를 얻는 어려움과 구분될 수 없다. 화재가 풍부한데 인심이 야만적인 곳이 없고, 인심이 문명화되었는데 화재가 부족한 나라가 없다."라고 하여 문명 발전의 정신적 요소와 물질적 요소 간의 상보적(相補的) 관계를 강조했다. 1880년대 말 이후 본서를 비롯한 문명사론(文明史論)은 전반적으로 퇴조하였으나, 그 인민 중심적 사관은 재야의 민간사학에 의해 계승된 것으로 평가된다.

1917년 경제잡지사(經濟雜誌社)에서 양장본으로 재출간되었으며, 1927년 『데켄 다구치 유키치 전집(鼎軒田口卯吉全集)』 제2권, 1929년 『가이조 문고(改造文庫)』, 1934년 『이와나미 문고(岩波文庫)』로 계속 간행되었다. 서울대 고문헌자료실에는 1929년 『가이조 문고』본과 1939년 『이와나미 문고』본이 소장돼 있다.

서명	秘書類贊
편 · 저자	平塚篤 · 金子堅太郎 · 尾佐竹孟
발간 연도	1933-36
발행 사항	東京: 秘書類纂刊行會
청구기호	帝國議會資料 (5100 15)/ 臺灣資料 (5100 15 10)/ 外交編 (5100 15)/ 雜纂 (5100 15)/ 日淸事件 (5100 15A)/ 財政資料 (5100 15)/ 帝室制度資料 (5100 15)/ 官制關係資料 (5100 15)/ 兵政關係資料 (5100 17)/ 法制關係資料 (5100 15)/ 實業 · 工業資料 (5100 15)
비고	주제별로 달리 분류되어 있는데, 같은 문서집이므로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음.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1841-1909)의 관계 서류를 모은 사료집이다. 이토 히로부미는 생전에 공무와 관련된 각종 서류를 직접 모아 두었는데, 이를 점검한 후 비서에게 명하여 주제별로 편찬하게 했다. 시기적으로는 1870년대 후반부터 1900년 이전까지의 문서가 대부분이며, 의견서·건백서·보고서, 조서·법률·칙령·조약의 조문, 연설 초고, 회의 기록, 공신(公信), 메모·각서·수기 등 매우 다양한 형태의 문헌을 망라했다. 이들 서류는 이토가 사망한 후 궁내성(宮內省)에 수장되었는데, 1933년부터 1936년 사이 히라쓰카 아쓰시(平塚篤), 가네코 겐타로(金子堅太郎), 오사타케 다케키(尾佐竹孟)가 편집하여 『비서류찬(秘書類贊)』 전 24책이 간행되었다. 그중에서도 『조선교섭자료』(3책)에는 운요호사건 이후 청일전쟁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외교문서와 더불어 구스타프 부아소나드, 이노우에 가오루, 오토리 게이스케, 미우라 고로, 스기무라 후카시 등의 의견서 등이 수록돼 있다.

이토 히로부미는 메이지 정부의 핵심 인물이었으므로, 그와 관련된 문서집에는 최고 국가기밀에 속하는 중요한 문서 및 기록이 다수 수록돼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비서류찬』은 일본 근대 정치사뿐만 아니라, 근대 한일관계사 연구에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료의 보고(寶庫)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비서류찬』은 1969년과 1970년에 『헌법자료(憲法資料)』(전3책)라는 문서집과 합쳐서 『메이지 100년사 총서(明治百年史叢書)』로 이토 히로부미 편, 『비서류찬』(전27책)으로 복각, 간행되었다. 2007년에는 일본의 유마니쇼보(ゆまに書房)라는 출판사에서 궁내청(宮內廳) 서릉부(書陵部)에 비장(秘藏)된 원본 문서를 영인해서 『이토 히로부미 문서(伊藤博文文書)』(전 30권)라는 문서집으로 재출간하였다.

이밖에 이토 히로부미와 관련된 사료집으로는, 이토가 받은 서한들을 발신인 별로 편찬해서 수록한 『이토 히로부미 관계문서(伊藤博文關係文書)』(전 9권), 이토 자신의 서간·시화·저작·연설·담화 등을 모은 『이토공 전집(伊藤公全集)』(전 3권), 관련 서류 및 단편적인 자신의 수기·각서·서간 초고·관계자의 담화 등을 수록한 『이토 히로부미 비록(伊藤博文秘錄)』(正·統), 『창랑각잔필(滄浪閣殘筆)』 등이 있다.

서명	東亞先覺志士記傳
편 · 저자	葛生能久 (구즈우 요시히사)
발간 연도	1933-36
발행 사항	東京: 黑龍會出版部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4616 57)/ 개인문고 (경 920.053.K156t)
비고	발간 연도 잘못 표기되어 있음. 원문 링크되어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사이트에선 1권만 열람 가능. 촬영 필요.

본서는 흑룡회(黑龍會)가 정한론(征韓論)으로부터 러일전쟁을 거쳐 만주국의 건국까지 일본의 대륙침략 정책의 역사를, 그것에 관련된 이른바 대륙 낭인의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한 책이다. 1933년부터 1936년까지 총 3권으로 편집, 간행되었다. 흑룡회는 근대 일본의 최대 국가주의 단체이자 우익 조선낭인 및 대륙낭인들의 결사로서, 의화단 사건 이후 러시아의 만주 진출이 본격화하자 1901년 우치다 료헤이(內田良平, 1874-1937)의 주도로 창설되었다. 이들은 '동문동조론(同文同祖論)' 등을 내세우면서 대한제국과 일본의 '합방(合邦)'과 일본을 맹주가 된 대아시아제국의 건설을 주장했다.

흑룡회 주간(主幹) 우치다 료헤이가 쓴 본서의 서문과 범례에 따르면, 그 편찬 계기는 흑룡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한 옛 선배와 동지들의 제사에서 동아(東亞) 문제를 위해 목숨을 바쳐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된 선배와 동지들의 사적(事績)을 편찬할 것을 제안한 데 있었다. 또한 본서의 출간은 '선각지사(先覺志士)'들의 참된 면목을 세상에 전함과 동시에 이른바 동아 문제의 변천 및 추이와 일본의 국시(國是)와 국책(國策)이 향할 바를 알리는 데 충분할 것이라고 자평(自評)했다. 아카호리 마사모토(赤堀政基)가 편찬 주임을, 구즈우 요시히사(葛生能久)가 감수를 담당했다.

상, 중권과 하권의 일부는 「본문(本文)」으로서 일본의 조선과 대륙침략의 역사를 서술했다. 하권의 대부분은 「열전(列傳)」으로, 무려 1,016명에 달하는 관련자들의 생애와 사적(事績)을 정리해서 수록했다. 그중에는 김윤식, 김홍집, 김옥균, 박영효, 송병준, 유길준, 윤시병, 이두광, 이완용, 이용구, 이주회, 장석주, 조희연, 황철 등 친일당으로 분류된 조선인도 다수 포함돼 있다. 대륙 낭인의 조선 및 중국 침략 활동을 정당화하고 찬양하기 위해 편찬한 책이긴 하나, 「열전」에는 다른 곳에서 찾기 어려운 인물들의 행적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근대 일본의 아시아주의와 대륙정책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1966년 『메이지 100년사 총서(明治百年史總書)』로 복각판이 간행되었다.

서명	出島蘭館日誌 (3책)
편 · 저자	村上直次郎 (무라카미 나오지로) 역
발간 연도	1938-1939
발행 사항	東京: 文明協會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710 92)
비고	○ '고문헌(디지털콘텐츠)'로 1938년 6월 13일자 『東京朝日新聞』의 기사가 링크되어 있는데, 이 기사는 高坂正顯의 『歷史的世界』라는 책에 대한 서평으로서 『出島蘭館日誌』와 관계가 없음. ○ 한글로 '출도난관일지' 검색어를 입력하는 경우 농학 도서관 자료만, '출도란관일지'로는 고문헌자료실 소장 자료만 검색됨.

『데지마 네덜란드 상관 일지(出島蘭館日誌)』는 데지마(出島)를 통해 일본인들과 교역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소속 역대 상관장(商館長)들의 일지(Daghregister des Comptoirs Nangasacque) 일부를 번역한 것이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세계 각지의 상관(商館)에 일지를 기록할 것을 명하여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정세를 파악했다. 원본은 네덜란드 헤이그 국립문서고에 수장되어 있는데, 일본 제국학사원(帝國學士院)은 1926년부터 10년에 걸쳐 그 등사(謄寫) 작업을 완료했다.

데지마란 1634년 에도막부가 나가사키에 축조한 인공섬으로, 1641년부터 1859년 사이 네덜란드 상인과의 무역은 오직 이곳에서만 허용됐다. 그리고 이는 쇄국정책 아래서도 제한적이나마 서구의 근대적 지식과 기술이 유입되는 창구가 됨으로써, 훗날 일본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 선도적으로 문호개방을 단행한 중요한 배경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특히 네덜란드 상관장 일지는 1631년부터 1860년까지 약 230년간의 기록 가운데 누락된 부분이 13년 정도에 불과하며, 일본의 공사(公私) 기록 중에서는 이 일지에 필적할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본서는 총 3권으로 발간되었으며, 각 권은 역사적 배경을 간략히 서술한 「서설」과 본문에 해당하는 「일지」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단, 약 230년간의 상관일지 가운데 이 책에 번역되어 수록된 것은 1641년 이후 약 10년간의 분량에 불과하다. 번역자 무라카미 나오지로(村上直次郎, 1868-1966)는 역사학자이자 제국학사원 회원으로서, 특히 일본과 유럽, 또는 동남아시아 관계사의 권위자로 명성이 높았다. 1938년 재단법인 문명협회(文明協會)의 창설 30주년 및 이를 설립한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 1838-1922)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간행됐다.

⑵ 동아시아 국제법/ 외교사

서명	공법편람(公法便覽)
편 · 저자	Woolsey, Theodore Dwight (드와이트 울지, 吳爾璽) 저, Martin, William Alexander Parsons (윌리엄 마틴, 丁韙良) 역
발간 연도	1877 (光緒 3년)
발행 사항	廣東: 羊城十八甫森寶閣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370 102)
비고	

『공법편람(公法便覽)』은 미국 뉴욕 출신의 국제법학자이자 기독교 국제법을 제창한 테어도르 울지(Theodore Dwight Woolsey, 吳爾璽, 1801-1889)가 1860년에 저술한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Law (국제법 연구 서설)를 윌리엄 마틴(중국명은 丁韙良)이 1877년에 한역한 책이다. 1860년에 초판이 간행된 바 있으며, 1879년까지 제5판이 나왔다. 그리고 1890년 울지의 아들이 증보한 제6판이 있다. 마틴의 번역 저본으로 사용된 것은 1874년에 나온 제4판으로 추정한다.

테어도르 울지는 기독교 국제법의 전파자로서 실정법주의가 주류로 형성되어 있던 19세기 후반 국제법 학설에 대해 자연법 이론에 입각하여 이 책을 집필하였으며, 보편적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법 또한 보편적으로 전파될 수 있다는 점이 이 국제법 연구의 가장 중요한 기조임을 밝혔다. 그는 국제법을 기독교 국가 간의 상호관계와 상호 신민의 관계에서 의무적인 것이라고 인정하는 규칙의 총체라고 규정한다. 아울러 이러한 국제법은 야만이나 반(半)문명국에는 적용되지 않고 유럽 국가들이 이러한 국가에 대해서도 국제법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울지는 예일대 총장으로 선출된 바 있으며, 정치·경제·국제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국제법 강의를 개설하기도 했다. 울지는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와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의 회원을 역임한 바 있다.

이 책은 1882년 무역 협상을 위해 청에 갔다가 조선에 돌아온 김윤식(金允植)에 의해 조선에 처음 수입되었다. 그리고 전병훈(全秉薰)이 1899년 1월 1일에 상소한 글에는 『공법편람』의 일부를 인용하여 여러 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독립국으로 인정받아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만국공법』이나 『공법회통』만큼 주목을 받은 책은 아니지만 현재 서울대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판본에는 경성제대와 개인 소장자의 장서인(藏書印)을 확인할 수 있다.

서명	연합국헌장급국제법원규약(중국어) (聯合國憲章及國祭法院規約(中文))
편 · 저자	國際聯合 (국제연합)
발간 연도	1946
발행 사항	New York: 비매품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370 106)
비고	

『연합국헌장급국제법원규약(중문)(聯合國憲章及國祭法院規約(中文)』은 1946년 미국에서 개최된 연합국 국제 조직 회의와 연합국 헌장에 관한 내용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담고 있으며 출판지는 미국 뉴욕이다. 여기서는 연합국 헌장을 비롯해, 국제연합의 결성과 원칙, 그리고 참가국의 준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아울러 연합국 주비(籌備)위원회 · 총회 · 안전보장이사회 · 경제 및 사회이사회 · 탁관(託管) 이사회의 대표 파견 및 참석 방식 등 각 회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이 수록되어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제1장 「요지와 원칙(宗旨及原則)」, 제2장 「회원(會員)」, 제3장 「기관(機關)」, 제4장 「대회(大會)」, 제5장 「안전이사회」, 제6장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爭端之平和解決)」, 제7장 「평화에 대한 위협 및 파괴·침략 행위에 대한 대응방법(對於和平之威脅和平之破壞及侵略行爲之應付辦法)」, 재8장 「구역 방법(區域辦法)」, 제9장 「국제경제 및 사회합작(國際經濟及社會合作)」, 제10장 「경제 및 사회이사회(經濟暨社會理事會)」. 제11장 「비자치영토에 관한 선언(關於非自治領土之宣言)」, 제12장 「국제탁관제도(國際託管制度)」, 제13장 「탁관이사회(託管理事會)」, 제14장 「국제법원」, 제15장 「비서처」, 제16장 「기타 조관(雜項條款)」, 제17장 「과도적 안전 방법(過渡安全辦法)」, 제18장 「수정」, 제19장 「비준 및 서명(批准及簽字)」 등 총 19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록으로 「국제법원규약(國際法院規約)」 5장과 「참가연합국 국제 조직 회의와 각 정부가 의정한 과도적 방법(參加聯合國國際組織會議各政府所議定之過渡辦法)」이 첨부되어 있다. 이 자료는 중화민국이 국제연합의 이사국으로 참가하게 된 것과 관련이 있으며, 국제연합의 결성 초기 규정에 대해 소상히 알려주고 있는 자료이다.

서명	각국교섭공법론(各國交涉公法論)
편 · 저자	Phillimore, Robert (로버트 필리모어, 費利摩, Fei-li-ma)
발간 연도	1894 (光緖 20년)
발행 사항	虹口: 江南製造局翻譯館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370 42) v.1-16
비고	'Fei-li-ma(費利摩)'는 중국식 발음으로 본명은 Robert Phillimore이다. 傅蘭雅는 존 프라이어(John Fryer).

『각국교섭공법론(各國交涉公法論)』은 총 16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본은 1854년 영국의 법학자 로버트 필리모어(Sir Robert Joseph Phillimore, 1810-1885)가 저술한 Commentaries Upon International Law 의 일부로 추정된다. 이 책의 중국어 원본은 『국제법주해(國際法注解)』으로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먼저 1권 4집은 「나라와 영토(國與領土)」라는 표제가 있고, 다음 2집 4권은 「평시공법(平時公法)」, 3집 4권은 「전시공법(戰時公法)」 등으로 총 1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1854년(咸豐 4년)에 처음 간행되었으며, 1857(咸豐 7년)에 다시 속간이 나왔다. 이후 『각국교섭공법론(各國交涉公法論)』은 1870년(同治 9년)에 복간되기도 하였다.

『국제법주해』는 이후 강남제조국의 번역관 존 프라이어(John Fryer, 傅蘭雅)가 원본을 구역하고 청국인 유세작(俞世爵)이 필사하여 1894년(光緖 20년)에 『각국교섭공법론』으로 다시 편찬되었다. 번역 원본인 『국제법주해』와 대조해 보면, 『국제법주해』의 9권을 9, 10, 11, 12권 등 네 권으로 나누고, 10권은 13, 14권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11권과 12권을 15권과 16권으로 나누어 편집하였다. 마지막 권에는 편집 후기라고 할 수 있는 「교감기(校勘記)」가 있으며 「동명이역문자(同名異譯文字)」가 표로 첨부되어 있어 다른 번역과 대조할 수 있다. 현재 서울대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각국교섭공법론(各國交涉公法論)』은 강남 제조국에서 간행한 판본이다.

이 책의 원저자인 로버트 필리모어는 영국의 법관이자 정치인으로 해군성 고등법원의 마지막 판사를 역임했다. 1853년 타비스톡 지역구 의원으로 처음 정계에 입성했으며, 영국의 교회법, 국제법 해설과 관련된 저작을 저술했다. 1885년에 사망했으며, 그의 아들 월터 필리모어(Walter Phillimore) 역시 부친을 이어 교회법과 해군법의 권위자로 이름을 알린 바 있다.

서명	비준설(批准說)
편 · 저자	Martens, Fedor Fedorvich (페도르 마르텐스) 저, 有賀長雄 (아리가 나가오) 역
발간 연도	1889
발행 사항	東京: 비매품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370 48)
비고	출판년도 '1889'가 설명에 누락.

『비준설(批准說)』은 독일의 국제법 학자 페도르 마르텐스의 저서 중 일본의 아리가 나가오(有賀長雄, 1860-1921)가 열국교제법(列國交際法)과 조약비준거절론(條約批准拒絶論)을 일본어로 번역하여 1889년 3월에 간행한 것이다. 이 책의 원저자인 페도르 마르텐스(Fedor Fedorvich Martens, 1845-1909)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에서 교수를 역임한 러시아의 국제법 학자이자 외교관으로 The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of civilized nations (1882), On the goals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1871) 등을 저술한 바 있다.

이 책에는 주로 영국, 러시아 등 서방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조약 체결 및 교섭 사례까지 다루고 있으며, 마지막 장에는 1889년 3월 7일 타임즈에 실린 미일통상항해조약(米日通商航海條約)에 관한 사설이 수록되어 있다. 아울러 이 책은 일본의 국제법 개정 등에 참고하기 위해 번역된 것으로 보인다.

마르텐스는 국제관계에서 국가의 역사적 발전과 그 법칙을 주로 연구하였으며, 국제관계의 발전에 있어 국가 간의 상호 소통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국제사회의 모든 독립국가는 하나의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며, 공동의 이익과 권리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한 국제 소통의 개념이 국제법의 체계가 되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비준설』을 비롯한 마르텐스의 저술 일부는 아리가 나가오의 손을 거쳐 동아시아에도 소개될 수 있었다.

서명	만국공법(萬國公法)
편 · 저자	Wheaton, Henry (헨리 휘튼, 惠頓) 저, Martin, William Alexander Parsons (윌리엄 마틴, 丁韙良) 역
발간 연도	1864 (同治 3년)
발행 사항	北京: 崇實館
청구기호	법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古 341 W56mCm)/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자료실 (341 W56mCmf)
비고	

『만국공법(萬國公法)』은 미국 선교사인 윌리엄 마틴(William A. P. Martin, 丁韙良, 1827-1916)이 미국의 법학자 헨리 휘튼(Henry Wheaton, 惠頓, 1785-1848)이 1836년에 저술한 『국제법 원리, 국제법학사 개요 첨부(Elements of intenational law with a Sketch of the History of the Science)』를 번역한 것이다. 마틴은 처음 바텔(Emer de Vattel)의 저서를 번역하려고 했으나 워드(J.E. Ward) 주중 미국공사의 조언으로 휘튼의 책을 번역하게 되었다. 마틴 스스로가 책의 서두에서 밝혔듯, 휘튼의 책은 유럽 문명권의 제국주의적 팽창을 합리화하는 국제법 이론서이자, 바텔의 책보다 현실 문제에 대한 지침서로 더욱 적합하게 받아들여졌다. 이 책은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중국, 일본 등에서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마틴이 중국어 판본의 번역 저본으로 삼은 것은 1855년에 간행된 로렌스(W.B. Lawrence)의 판본이다.

휘튼은 국제법이 유럽과 기독교의 산물이며 문명 기독교 국가들의 법이기에 보편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19세기 유럽 공법학의 특징으로 휘튼은 이를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켰다. 또한 휘튼은 국가 승인의 창조적 효과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조선이나 중국과 같은 국가에 의해 주목받았다. 국가는 절대적 존재지만 그 절대성은 다른 절대적 존재에 의해 인정받아야 한다는 국가 승인설은 헤겔(G.W Hegel)의 이론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마틴은 『만국공법』의 영문 서문에서 국제법 지식이 없는 중국을 돕고자 하는 개인적인 동기에서 번역에 착수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마틴은 청 총리아문의 관원들이 국제법 원칙보다 도덕 철학적인 면에 착안하고 있음을 간파하면서 중국적인 사유로 이 책을 이해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1864년에 나온 『만국공법』의 초판본은 영문 표지와 서문이 있는 것과 한문으로 이루어진 것 두 가지가 존재하며, 모두 4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문 초판본은 현재 하버드와 예일 대학교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한문 초판본은 300부가 출간되었다고 한다. 규장각에 소장하고 있는 것은 한문본이다.

서명	Studies in international law
편 · 저자	Holland, Thomas Erskine (토마스 홀란드)
발간 연도	1898
발행 사항	Oxford, Clarendon press
청구기호	구장본 서양서 (L220 1)
비고	

Studies in international law 는 영국 옥스퍼드 브리튼 컬리지의 국제법 교수 토마스 홀란드(Thomas Erskine Holland, 1835-1926)이 1898년에 저술한 책이다. 토마스 홀란드는 법철학에 관한 여러 저서를 남겼으며, 학술적 공로를 인정받아 1917년에 기사 작위를 받았을 뿐 아니라 영
국 아카데미 회원을 역임한 바 있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장에서는 전쟁법을, 두 번째 장에서는 국제법의 체계를 다루고 있으며 마지막 장은 동아시아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전쟁과 관련된 국제법 문제, 성문화된 국제법의 중요성, 그리고 러시아·튀르키예 관계와 베를린 조약 사례 등을 다루고 있다.

국제법에 관한 원칙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시론에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교전법이 아직 성문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관례와 기존 규칙을 이용하여 성문화된 국제 원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1856년 파리 선언과 미국의 교전국 선박에 대한 나포 행위, 1874년 브뤼셀 회의의 실패와 군사적 이해관계의 영향 등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국제 협약이나 선언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국제법과 국내법이 충돌할 경우에 대한 질문을 검토하고 있다.

국제법의 효용에 관해 이 책에서 저자는 국내법의 원칙보다도 명시된 조약을 우선시하여 국제적 의무를 먼저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그는 국제 문제에서 국내법에 근거한 결정이 자국의 책임을 피할 수 있게 하겠지만 다른 나라의 권리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국내 법원의 입법 및 판결은 성문화된 국제법과 조화를 이루는 구조를 갖추어야 함을 주장한다.

서명	Diplomatic documents relating to the outbreak of the European war
편 · 저자	Scott, James Brown (제임스 스콧)
발간 연도	1916
발행 사항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청구기호	구장본 서양서 (L220 123)
비고	

Diplomatic documents relating to the outbreak of the European war 는 제임스 브라운 스콧(James Brown Scott, 1866-1943)의 저작으로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의 발발과 영국·프랑스·러시아·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세르비아·이탈리아·스페인·덴마크·네덜란드·룩셈부르크·노르웨이·스웨덴·스위스 등 참전국의 공식 외교문서 및 외교 백서(白書)·청서(靑書) 등을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의 내용은 유럽 16개 국가와 관련된 공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국 수상과 공사의 공식 문서 및 서한을 정리하고 있다. 이밖에 각국의 교섭 기록을 각국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타임라인 형식으로 자세히 나열하여 정리하는 부분과 참고자료도 갖추고 있어 세계대전 발발 전후의 상황을 상세히 아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이다.

이 책의 저자인 제임스 브라운 스콧은 미국 출신으로 하버드와 베를린, 하이델베르크, 파리 등에서 국제법을 연구했다. 1894년부터 1899년까지 로스엔젤레스에서 변호사로 일했으며, 남가주 대학교에서 로스쿨 학장을 역임했지만, 미국과 스페인의 전쟁(1898)으로 인해 학장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이후 일리노이 대학교 법학과, 컬럼비아 대학교 법학과 교수, 조지워싱턴대학교 법학과 등에서 교수직을 역임하였으며, 1907년 제2차 헤이그 평화 회의에서는 미국 대표단의 국제법 고문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 국적법 개정을 두고 국무부 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하였다. 그는 이후에도 헤이그 평화 회의에 관해 여러 편의 저작을 내었으며, 미국 국제법 저널의 편집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서명	공법회통(公法會通)
편 · 저자	Bluntschli, Johann Caspar (요한 블룬칠리, 步倫) 저, Martin, William A. P. (윌리엄 마틴, 丁韙良) 역
발간 연도	1896 (建陽 1년)
발행 사항	서울: 學部編輯局
청구기호	동장본 (古 341 B628mKm)
비고	

『공법회통(公法會通)』은 스위스의 블룬칠리(Johann Caspar Bluntschli, 1808-1881)가 저술한 『문명국들의 근대 국제법(Das moderne Völkerrecht der Civilisierten Staten)』을 마틴이 1880년에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다. 저자인 블룬칠리는 취리히 정치학교를 졸업한 후에 베를린 대학, 본 대학에서 공부하고 법학박사를 취득하였다. 그 후, 1830년에 취리히에서 관직 생활을 시작했으나 1848년에는 다시 뮌헨 대학의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국제법 분야에서 여러 저술을 작성하였으며, 1868년에 『문명국들의 근대 국제법』 초판을 출간할 수 있었다. 이 책은 1872년에 제2판, 1878년에 제3판이 나왔으며, 프랑스어·러시아어·스페인어·일본어 등으로 번역된 바 있다.

1880년 청 총리아문의 지원을 받은 동문관에서 출간한 판본이 조선에 유입되었으며, 전체 구성은 천·지·인의 총 3장으로서 제1책은 서문, 범례, 연표, 목록, 제1권-2권, 제2책은 제3권-7권, 제3책은 제8권-1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주권국가 간의 평등과 주권사상을 담고 있다. 1896년 대한제국 학부 편집국에서 참고자료로 발행하기도 하였다. 1896년 5월 우리나라에서 본서를 간행할 때 학부 편집국장(學部編輯局長) 이강직(李康稙)이 편집에 참여하였다.

본서는 총 3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은 10권으로 되어 있으며, 제1권부터 제9권까지는 블룬츨리의 원전을 번역한 것이고, 제10권은 「미국행군훈계(美國行軍訓戒)」를 수록하고 있다. 제1책은 제1·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서문(序文)」, 「범례(凡例)」, 「연표(年表)」, 「목록(目錄)」이 있다. 그리고 책의 마지막 부분마다 정오표를 첨부하여 오탈자를 수정하였다. 「서문(序文)>에는 총 3편의 글이 실려 있다. 제1권의 「범례(凡例)」에서는 '공법회통(公法會通)'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유, 공법의 정의, 본서의 편찬 원칙, 유의 사항 등을 밝히고 있으며, 「연표(年表)」는 역대 중국왕조의 연도와 서력을 나열하여 비교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인 블룬칠리는 국제법을 종교 신앙으로부터 떼어 놓았으며, 기독교 세계관에서 벗어난 국제법의 적용지역이 전 세계로 확대되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책은 서문을 비롯하여 9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67개의 명제가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공법회통』을 두고 중국 등지에서는 한때 『공법천장(公法千章)』으로 부르기도 했다. 블룬칠리는 이러한 명제를 바탕으로 국제법의 법전을 구성하고자 하였으며, "판단한 것으로 있는 법(lege lata)"과 "있어야 할 법(lege ferenda)"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서명	중국봉건사회(中國封建社會)
편 · 저자	瞿同祖 (취통주) 저, 田島泰平 (다지마 타이헤이), 小竹武夫 (고무라 다케오) 등역
발간 연도	1942
발행 사항	東京: 生活社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740 184)
비고	

『중국봉건사회(中國封建社會)』는 중국 사회학자인 취통주(瞿同祖)의 저작으로 중국의 역대 봉건사회를 토지의 소유와 주인과 농민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한 책이다. 이 책은 1930년대 중국학계에서 벌어진 중국 사회사 논쟁에서 나온 책으로 역사적 맥락과 연대기적 구성을 중시하는 기존 중국학계의 해석에서 벗어나 봉건사회의 구조와 경제·정치·사회 시스템의 변화 과정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중국 사회사 연구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책은 1942년 일본 생활사에서 다지
마 타이헤이(田島泰平), 고무라 다케오(小竹武夫)가 일본어로 번역하여 간행되었다.

다양한 사회 현상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 경제와 정치 시스템을 동일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사회 현상을 대상으로 삼아 그 형성과 붕괴 과정을 분석하고 다양한 사회 조직의 기능과 상호관계를 규명한 점은 이 책의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토지 소유권의 비대칭성을 밝혀내어 봉건제 하의 정치·사회에서 소유주의 우월적 지위가 농민의 지위와 대비되고, 토지 소유권에 대한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이 봉건제의 특징임을 설명하고 있다. 취통주는 봉건사회에서 토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토지에 대한 주권은 곧 지배층에게는 지배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피지배층인 농민에게 있어서는 의무를 규정하므로 토지 소유권의 유무는 곧 이러한 정치·경제·사회 시스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이 책을 저술한 취통주는 중국의 사회학자이자 역사가로 알려져 있다. 호남성 장사 출신으로 『중국봉건사회(中國封建社會)』을 비롯해 『중국법률여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한대사회결구(漢代社會結構)』, 『청대지방정부(清代地方政府)』 등 저술을 남겼다. 그의 조부는 청말 군기대신을 역임한 취홍지(瞿鴻禨)이며, 그의 아버지는 외교가로 활동한 취시엔즈(瞿宣治)이다. 숙부는 『한대충속제도사전편(漢代風俗制度史前編)』, 『중국사회사료총초(中國社會史料叢鈔)』를 저술한 구시엔잉(瞿宣穎)이다. 취통주는 1930년 연경대학 사회학과에 입학하였으며, 이후 연경대학 대학원에서 우웬자오(吳文藻)와 양카이따오(楊開道)의 지도를 받았다. 취통주의 학부 졸업 논문은 「춘주봉건사회적해부(春秋封建社会的解剖)」이며, 석사학위논문은 「중국봉건사회」로 이 논문은 1937년 북경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에서 출판되었다. 『중국봉건사회』는 1930년대 중국 학계에서 벌어진 중국 사회사 논쟁과도 관련이 있다. 취통주는 당시 중국학계의 관점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양한 사회 조직과 그 기능, 그리고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영국 역사학계의 관점과 이론을 적용하여 중국 봉건사회를 분석하였다.

서명	만주우환사(滿洲憂患史)
편 · 저자	梅公任 (메이꽁런)
발간 연도	1930
발행 사항	東京: 外務省情報部
청구기호	DDC (952.8 H856mJm)
비고	Y□, Ch□eh-min(予覺民)은 필명으로 실제 저자는 메이꽁런 (*촬영 필요)

『만주우환사(滿洲憂患史)』는 민국시기 동북지역 국민당 계열 정치가이자 언론인인 메이꽁런(梅公任, 1892-1968)이 1926년부터 『익세보(益世報)』에서 연재된 글을 편집하여, 1929년에 천진 익세보관(天津益世報館)에서 간행한 것이다. 이 책은 일본의 중국 침략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의 저자로 사용된 위주에민(予覺民)은 필명으로 보인다. 이 글이 『익세보』에서 연재된 이후, 일본 측은 중일 우호 관계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동북당국에 항의를 하고 판매 금지를 요구하고 저자인 메이꽁런에게 책임을 묻기도 했다. 그리고 1930년 일본 외무성 정보부(外務省情報部)에서 이 책의 일본어 번역본을 제작하였다.

이 책은 일본이 동삼성을 '만주(滿洲)'라고 명명한 것에는 동삼성을 중국의 땅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한 의도가 있으며, 이는 곧 대륙 침략의 야욕을 숨기고 있는 것임을 폭로하고 있다. 나아가 동삼성의 명칭을 유지하면서 일본 제국주의의 동북 침략 계획과 음모를 폭로하고, 학문적으로는 동삼성이 중국의 영토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특히 동삼성의 명칭에 관한 유래를 학술적으로 입증하려고 하였으며, 9·18 사건 이전 가장 먼저 명칭 문제를 다룬 저서라는 점에서 학술사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저자 메이꽁런은 대흥둔(大興屯) 출신으로 『혁명정신교육(革命精神教育)』, 『중국문자진화사(中國文字進化史)』, 『시경정의통고(詩經精義通詁)』, 『도덕경정제(道德經正諦)』, 『남화경정의보주(南華經正義補註)』, 『매공임혁명회억록(梅公任革命回憶錄)』 등을 저술한 바 있다. 그는 1913년 봉천고등사범학교에 입학하였으며, 이듬해 국립심양고등사범학교로 옮겨 1918년에 졸업했다. 졸업 이후 안동동변상과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1923년에는 교사직을 그만두고 동삼성 지역 『민보(民報)』의 편집자가 되어 1926년에 『滿洲憂患史』를 『益世報』에서 연재하였다.

1928년, 메이꽁런은 국민당에 입당하였으며, 1929년에는 성립제일사범학교(省立第一師範校)의 교장에 취임하였으며, 봉천성 국민당 중앙밀령(奉國民黨中央密令)이 되어 CC파의 지시를 받아 동북당무조사공작(東北黨務調查工作)을 이끌기도 했다. 9·18 사건 이후에는 북경으로 갔으며 계속해서 동북 지역의 지하 공작과 의용군의 항일 투쟁을 지원하였다. 이후 동북민중구국회(東北民衆救國會)를 조직하고 『구일팔주간(九一八週刊)』을 창간하는 등 항일 활동을 이어갔다. 1932년 이후에는 국민정부감찰원위원(國民政府監察院委員)과 국민당 한구시 당부상무위원(國民黨漢口市黨部常務委員)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1948년에는 대만으로 건너갔으며 1968년 타이베이에서 사망하였다.

서명	주판이무시말(籌辦夷務始末)
편 · 저자	두수조(杜受田), 가정(賈楨), 보균(寶鋆) 등
발간 연도	1930
발행 사항	北平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710 66) v.1-130
비고	1930년 판본은 고문헌 자료실 소장 유일본임.

『주판이무시말(籌辦夷務始末)』은 청 도광(道光)·함풍(咸豐)·동치(同治) 시기의 내각(內閣)과 군기대신(軍機大臣)과 관련된 유지(諭旨)와 내외신공(內外臣工)의 접주(接奏)에 관한 문건으로 구성되어 있는 18-19세기 청말 국정(國政)과 관련된 자료집이다. 그중 도광 시기 80권은 두수조(杜受田)와 문경(文慶) 등이 편집하였으며, 함풍 시기 80권은 가정(賈楨) 등이 맡아 편집하였다. 그리고 동치 시기 100권은 보균(寶鋆) 등이 주편으로 편찬하였다. 여기에는 아편전쟁부터 19세기 중반 동치연간까지 청나라의 대외 사무 및 정책과 관련하여, 외국으로부터 온 문서와 일반 민중의 서찰(信札)까지 총 9,300건의 문서가 수록되어 있어 청나라 말기의 국내외 상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참고할 수 있는 자료집이라고 할 수 있다.

편년기월(編年紀月)의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주판이무시말』의 체례(體例)는 기거주(起居注)와는 다르며, 실록(實錄) 및 성훈(聖訓)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실록에서는 유지(諭旨)를 자세
하게 기록하고 있으나 주장(奏章)은 약소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반해, 『주판이무시말』은 주장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또한 『도광이무시말』의 제작에 참여한 적 있는 조균(趙畇)은 "이무(夷務)가 날로 번잡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방략(方略)이 아직 책으로 엮이지 못하고 있으니 이후 누적될 문건과 사실의 누실에 대비하여 당시의 진주(陳奏) 등을 모아 기록하고 한 자라고 놓치지 않고, 또 한 자라도 바꾸지 않으면서 책 하나로 모았으니 이를 『주판이무시말』이라 명명하였다."고 『주판이무시말』의 제작과 편집의 기원을 밝히고 있다. 본래 궁궐 장서고에 장기간 공개되지 않았으나 신해혁명 이후 일반에 공개되었다.

『주판이무시말』의 공개 과정을 살펴보면, 1926년 1월 북경 고궁박물원 문헌관에서 소장하고 있던 군기처 당안들이 대고전(大高展)으로 이장되었고 1927년 문헌관 측에서 대고전의 자료를 학자들에게 공개한 바 있다. 1929년에 잇따라 『주판이무시말』이 복사 및 출간되면서 세간에도 알려지게 되었다. 현재까지 정식 출판된 적이 있는 『주판이무시말』의 판본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臺北國風出版社의 國風本(1963), ② 臺北文海出版社의 文海本(1971), ③ 臺北臺聯國風出版社의 臺聯國風本(1972), ④ 上海古籍出版社의 古籍本(2008)이 있으며, 서울대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판본은 그보다 앞선 시기에 나온 초기 판본으로 추정된다.

서명	육십년래중국여일본(六十年來中國與日本)
편 · 저자	王芸生 (왕윈셩)
발간 연도	1932
발행 사항	天津: 大公報社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710 69)
비고	

『육십년래중국여일본(六十年來中國與日本)』은 중국의 왕윈셩(王芸生, 1901-1980)이 1932년에 간행한 근대 중일관계 관련 서적으로, 1930년대 『대공보(大公報)』에 게재한 동명의 칼럼을 취합·정리한 것이다. 이 책은 총 8권으로 현재 규장각에는 7권까지만 소장하고 있다. 책의 내용은 1930년대 중일관계와 중일전쟁을 상세히 분석한 것으로 『일본외교문서(日本外交文書)』 · 『고궁당안(故宮檔案)』 · 『이홍장문집(李鴻章文集)』 등 다양한 사료가 활용되었다. 왕윈셩은 서문에서 가감 없이 순수 문헌을 가지고 직접 진상을 설명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저술 배경에 관해, 왕윈셩은 1931년부터 직접 청사(淸史) 관련 문서를 수집·분석하여 1932년 『대공보(大公報)』에 『육십년래중국여일본』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게재하기 시작했다. 1871년 중일수호조규(中日修好條規)부터 시작하여 1931년 9·18 사건까지의 중일 관계를 다루고 있으며 풍부한 자료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1932년에 연재된 원고를 취합하여 책으로 간행하였다. 왕윈셩이 사망하고 2년 후인 1982년에 전권의 출간이 완료되었다. 1933년에는 일본어로 번역어 일본의 용계서점(龍溪書店)에서 『일중외교 60년사(日中外交 60年史)』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이 책은 출간된 직후부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1934년 당시 국민당의 장제스는 왕윈셩을 따로 초청하여 강의를 열기도 했으며,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도 왕윈셩의 저작을 주목한 바 있다. 특히 저우언라이는 1857년에 이 책의 중간(重刊)을 계획하기도 했다고 한다. 1987년, 다나카 가쿠에이 일본 수상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이 책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현재는 관련 연구자로부터 정리되지 않은 데이터의 남용과 체계적인 설명의 부족을 지적받고 있으며, 지나치게 열강과 일본의 외교에 비판적인 관점에만 국한되어 있는 부분을 단점으로 꼽기도 한다.

서명	중화민국외교사(中華民國外交史)
편 · 저자	張忠紱 (장쫑푸)
발간 연도	1936
발행 사항	北平: 北京大學出版處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710 87)
비고	

『중화민국외교사(中華民國外交史)』의 저자는 중화민국의 정치학자이자 외교가로 알려진 장쫑푸(張忠紱, 1901-1977)이며, 호북(湖北) 무창(武昌) 출신으로 남개대(南開大學)과 북경대(北京大學)의 교수를 지낸 바 있다.

장쫑푸가 1936년에 저술한 『중화민국외교사』는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한 중화민국의 외교 사정을 다루고 있다. 대 독일 절교와 선전 포고에서부터 시작하여, 중국의 참전, 니시하라 차관과 산동 반환 문제, 중일 군사 협정, 파리 평화 회의에서의 중국 외교 상황, 러시아 혁명과 중국의 관계, 시베리아 출병 등 당시 중국 외교의 현안을 다룬 책이다. 장쫑푸는 서문에서 국내·외 자료를 참고하여 외교 현안의 역사적 기원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중국의 국익을 찾기 위한 해결책을 이 책에서 설명하고자 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1930년대 이전 청말부터 중화민국을 한 맥락으로 보고 그 연속선상에서 중국의 외교 현안과 정책을 서술했다는 점이 이 책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인 장쫑푸는 1913년부터 무창문화중학교와 청화학교에서 공부하였으며, 1923년, 미국으로 건너가 미주리 주립 대학교 언론학과에서 유학하였다. 이후 미시간 대학교 정치학과에 편입하였으며, 다시 하버드 대학으로 적을 옮겨 국제법과 정치학을 전공했다. 1927년에는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국제정치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28년에는 위싱턴 브루킹스 연구원의 선임 연구원으로 일했다. 동시에 당시 남경 국민정부 외교부 총장 우챠오슈(伍朝枢)의 비서직을 맡기도 했으며, 곧이어 주미 중국공사관의 비서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1929년, 중국으로 돌아온 후 장쫑푸는 심양 동북대학 정치학과 교수를 잠시 맡았다가, 1931년에 북경대학 정치학과 교수에 선임되었다. 1935년에는 장제스에게 중일관계에 대한 조언을 하기도 했으며, 1936년에는 태평양학회에 중국 대표로 참석하여 반년 동안 워싱턴에 체류했다. 이후 국민참정회 참정원, 외교부 참사, 외교부 미주국 국장, 유엔 대학 대표단 고문, 국민정부 문관처 비서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1949년부터 미국에 건너가 살았으며 1977년에 별세했다.

서명	중포외교사(中葡外交史)
편 · 저자	周景濂 (저우징리엔)
발간 연도	1936
발행 사항	北平: 商務印書館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710 88)
비고	

『중포외교사(中葡外交史)』는 중국의 역사학자 저우징리엔(周景濂)이 편저자로 1936년에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에서 출간한 책으로 중국과 포르투갈의 외교와 역사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책에는 차이위엔페이(蔡元培), 왕윈우(王雲五), 우징헝(吳敬恒)도 편집자로 참여하였다.

이 책은 16세기 초부터 19세기까지 중국과 포르투갈의 관계사를 다루고 있으며, 포르투갈인들이 동아시아에 진입한 16세기를 기점으로 영파(寧波) 등지의 중국 상인과 포르투갈 상인의 경제적 교류와 침략 행위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명대(明代) 포르투갈 사절의 광동 진입 실패의 배경에 관해 자세히 다루고 있으며 이들이 폭력 행위 등으로 인해 중국에서 축출된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다룬다. 그리고 15세기의 포르투갈 상인들의 마카오 정착과 포르투갈인들의 조차(租借)와 정착에 관한 법률적 문제, 천주교 전교 문제 등을 설명하고 있다. 청대 중국과 포르투갈 관계에 관해서는 청 초기부터 마카오를 둘러싼 포르투갈과의 무역 관계와 치외법권 등 외교 문제를 다룬다. 이 책은 1991년에 상무인서관에서 중간(重刊)했다.

이 책의 저자인 저우징리엔은 강소성 출신으로 섬서사범대학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섬서성 인민정부의 문사(文史) 연구관의 관원을 지냈다. 그는 민국시기부터 중국과 외국과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1936년에 『중포외교사』를 저술하였다. 또한 이듬해인 1937년에는 북송(北宋) 시기의 인물인 소식(蘇軾, 1037-1101)의 전기인 『소동파(蘇東坡)』를 저술한 바 있다. 이 책은 국학총서(國學叢書)에도 수록되어 정중서국(正中書局)에서 간행되었다. 특히 『소동파(蘇東坡)』는 소식에 관한 전기 중 가장 최초에 나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중일전쟁 시기에 주경렴은 상해 대남중학(大南中學)을 설립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1945년 이후에는 농공민주당(農工民主黨)에 가입하여 공작위원회 주임을 맡기도 하였다. 이후 각지에서 교편을 잡거나 정치 및 자선 활동 등에도 참여하였으며, 중국 정부에서 그 공적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서명	외교사통록(外交思痛錄)
편 · 저자	莊禹梅 (좡위메이)
발간 연도	1918
발행 사항	上海: 交通圖書館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710 226)
비고	

『외교사통록(外交思痛錄)』는 민국시기 소설가인 좡위메이(莊禹梅, 1885-1970, 病骸는 필명)가 편집하고 장시에훈(姜俠魂)이 교정하여 1918년 상해 책으로, 청말민초 시기 중국의 외교를 민족주의의 시각에서 다루고 있는 책이다. 저자인 좡위메이는 이 책의 서두에서 청말 외교를 실패로 규정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결과를 재현하지 않기 위한 교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이 책의 저술 동기로 밝히고 있다.

아편전쟁(1840)부터 8개국 연합국의 북경 점령 과정, 청불전쟁, 마가리 사건, 청일전쟁, 삼국간섭, 경자 배상, 영국과의 티벳 교섭, 러시아와의 외몽골 협상, 민국 시기의 중일 협상 등의 사안을 중국의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다. 특히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청말 외교와 대외교섭을 굴욕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은 이 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부록에서는 청말 민초의 철도사(鐵道史), 중국 관세 협정의 실패, 러시아의 중국변경 침입, 미국의 중국인 노동자(華工) 규제, 청도 조차(靑島租借) 등의 사안을 다루면서, 청말 서구 국가와의 "불평등 조약"이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이 간행된 시점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열린 파리평화회의 기간과 겹친다. 당시 시대적 배경에서 이 책의 간행 배경과 내용을 이해해 보면 당시 중국 내 중국 대중 정서와 민족주의와도 관련이 있다. 저자인 좡위메이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영합하여 청말의 불평등 조약이 현재 민국시기까지 이어져 중국을 계속 난처하게 만들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민족이 단결된 힘으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외교사통록』은 1977년에 간행된 『近代中國史料叢刊』에도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을 편집한 좡위메이는 절강 진해(浙江鎭海) 출신으로 『朝鮮痛史: 亡國影』, 『鐵血男兒: 孫中山演義』, 『中國古代史釋疑』, 『古書新考』 등을 저술한 소설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1905년, 상해 이과전수학교(上海理科專修學校) 졸업한 이후 소설가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광복회와 중국공산당에 가입했다. 이후 영파(寧波) 등지에서 활동하며, 손문이 1916년 영파에 왔을 때 손문의
연설을 기록하기도 했다. 1918년 5.4 운동 당시 영파(寧波)에 있었으며, 이 운동과 민족주의의 열
풍 속에서 『外交思痛錄』을 간행하였다. 이후 1919년에는 영파의 시사공보(時事公報)의 편집인으로 활동했으며, 1925년에는 국민당에 입당했다. 국민당에 입당한 이후에는 국민당 영파시 상업민사부 부장과 영파일보(寧波日報) 사장을 역임하였으며, 1927년 영파에서 일어난 반혁명 쿠데타로 체포되었다가 1929년에 석방될 수 있었다. 석방 이후 공산당에 재입당하였으며, 이후에는 항일선전 활동에 주로 관여하였다. 1945년 이후에는 영파일보 사장, 영파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비서장, 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서명	중외통상시말기(中外通商始末記)
편 · 저자	王之春 (왕지춘)
발간 연도	1895 (光緒 21년)
발행 사항	北京: 寶善書局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710 256)
비고	

『중외통상시말기(中外通商始末記)』은 1644년(順治 원년)부터 1874년(同治 13년)까지 200년간 청과 외국의 교섭과 그 역사를 다루고 있으며, 전 책은 20권으로 편년체 형식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 2권은 부록으로 중국 연해 지도와 외교 책략에 관한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왕지춘은 청말 외국의 위협이 커지는 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현재의 외교적 난국을 타개하는 지침으로 삼으려 하였다. 그리고 관련 사료와 문헌, 각 관료의 상소와 저술 등을 수집하여 작성한 책으로 참고할 가치는 높은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청말시기 조정 관료인 왕지춘(王之春, 1842-1906)이 1879년경에 저술한 책으로 원제목은 『청조유원기(清朝柔遠記)』와 『국조유원기(國朝柔遠記)』로 알려져 있으며, 다른 이름으로는 『국조통상시말기(國朝通商始末記)』 혹은 『중외통상시말기(中外通商始末記)』로도 알려진 책이다. 특히 청일전쟁이 벌어지고 있던 1895년에 간행되었다는 점에서 이 책은 청일전쟁 직전 청의 외교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저자인 왕지춘은 청말 관료로서 팽옥린(彭玉麟) · 증국번(曾国藩) · 이홍장(李鴻章) · 좌종당(左宗棠) 등 청의 중신 아래에서 일하며 정무를 경험했다. 1879년, 일본이 류큐를 병합하자 양강총독 심보정(沈葆楨)의 명을 받아 일본 나가사키, 고베, 오사카, 요코하마, 도쿄 등을 다니면서 정탐 활동을 하기도 했다. 1884년에는 청불전쟁과 변경 협상에도 참여하였으며, 1894년 러시아 알렉세이 3세의 대관식에 이홍장과 함께 참석하여 청-러 협상에 관여하기도 했다. 이후 왕지춘은 러시아 출사(出使) 관원으로 임명되었으며 러시아에 주재하고 있는 동안 러시아와 유럽의 상황을 청 조정에 보고했다. 또한 1900년 의화단 운동 시기에는 안휘순무로 재직하면서 조정에 의화단을 신속히 진압하여 외국이 간섭할 여지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했다. 광서신정기에는 안휘성의 구실학당(求實學堂)을 안휘대학당(安徽大學堂)으로 확장하는 사업을 이끌기도 했다. 1902년에 광서순무(廣西巡撫)로 직을 옮겼으나 이듬해 파직되었다. 이후에도 광서 지역의 봉기에 외국 세력을 끌어들인다는 소문에 연루되어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으며, 월한(粵漢) 철도의 권리를 회수하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서명	광서조약(光緖條約)
편 · 저자	許同莘 (허동신)
발간 연도	1914
발행 사항	北京: 中華民國外交部圖書處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720 11)
비고	

『광서조약(光緖條約)』은 민국시기 허동신(許同莘, 1878-?)이 광서 원년(1875)부터 광서연간의 마지막 해인 광서 34년(1908)까지 청의 대외관계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조약 및 외교 사안과 관련된 문서를 정리하여 편집한 책으로, 1914년에 외교부 도서처(中華民國外交部圖書處)에서 간행하였다. 이 책은 중화민국 외교부가 타국과의 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제작한 것이다. 『광서조약』에는 광서연간에 발생한 임오군란(1882), 갑신정변(1884)과 같은 조선 관련 사안을 포함하여, 청일전쟁(1894-1895), 삼국간섭(1895), 무술변법(1898) 등 청 대내·외 현안을 다룬 중요 문건을 수록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인 허동신은 일찍이 과거에 응시하여 거인(擧人)을 획득한 바 있다. 이후 일본 정법대학에서 유학하였으며, 1899년 귀국 이후에는 호광총독의 막료로 들어가 학습판사(學習辦事) 직을 맡았다. 1906년에는 호광총독에서 군기대신으로 직을 옮긴 장지동(張之洞)의 막료가 되어 외교사무 등을 담당하는 직책을 맡았다. 특히 장지동을 측근에서 모시고, 그와 관련된 공문을 많이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1909년에는 『장문양공전서(張文襄公全書)』를 집필하기도 하였다. 중화민국이 성립한 이후인 1912년에 허동신은 북양정부의 외교부에서 검사(僉事)를 맡았으며, 이후 10년 동안 검사직에 머물면서 청말 외교와 관련된 저서를 집필하였다. 이때 1914년에 『동치조약』을 간행하고, 이듬해에 『광서조약』을 집필하였다. 허동신은 광서연간(光緖年間, 1874-1904)까지 청의 외교에서 중요한 조약 및 외교 사안과 관련된 문서를 선별하여 『광서조약』에 수록하였다.

허동신은 북양 정부가 해산된 나서 하북성 정부의 주임비서로 자리를 옮겼으며, 중일전쟁 기간에는 하남성 정부의 주임비서를 맡기도 했다. 그의 저술로 중에는 『동치조약』 외에도 장지동의 문서를 정리하여 편찬한 『장문양공전서(張文襄公全書)』이 가장 유명하다. 이밖에 『치독요지(治牘要旨)』, 『공독전의(公牘詮義)』, 『공독학사(公牘學史)』와 같이 주로 정부의 주요 인물 및 기관과 관련된 저작을 남겼다. 현재 서울대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허동신의 편저작으로는 『동치조약』을 비롯해 『광서조약(光緖條約)』이 있다.

서명	동치조약(同治條約)
편 · 저자	許同莘 (허동신)
발간 연도	1915
발행 사항	北京: 中華民國外交部圖書處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720 13)
비고	

『동치조약(同治條約)』은 간행한 책으로 청 동치연간(1856-1875)까지 청 외교의 중요한 조약 및 외교 사안과 관련된 문서를 모은 책으로, 민국시기 허동신(許同莘, 1878-?)이 편집하고 장승계(張承棨)이 교감하여 중화민국 외교부 도서처(中華民國外交部圖書處)에서 1915년에 간행되었다. 이 책은 중화민국 외교부가 타국과의 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목적의 참고자료로 제작한 것으로, 동치연간에 있었던 태평천국(1864)의 멸망, 염군(捻軍)의 평정(1867-1868), 로버호 사건(1867), 목단사 사건(1874) 등 대내·외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과 관련된 문서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의 저자인 허동신은 일찍이 과거에 응시하여 거인(擧人)을 획득한 바 있다. 이후 일본 정법대학에서 유학하였으며, 1899년 귀국 이후에는 호광총독의 막료로 들어가 학습판사(學習辦事) 직을 맡았다. 1906년에는 호광총독에서 군기대신으로 직을 옮긴 장지동(張之洞)의 막료가 되어 외교사무 등을 담당하는 직책을 맡았다. 특히 장지동을 측근에서 모시고, 그와 관련된 공문을 많이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1909년에는 『장문양공전서(張文襄公全書)』를 집필하기도 하였다. 중화민국이 성립한 이후인 1912년에 허동신은 북양정부의 외교부에서 검사(僉事)를 맡았으며, 이후 10년 동안 검사직에 머물면서 청말 외교와 관련된 저서를 집필하였다. 이때 『동치조약』을 집필하였으며, 동치연간(同治年間, 1862-1874)까지 청의 외교에서 중요한 조약 및 외교 사안과 관련된 문서를 선별하여 이 책에 수록하였다.

허동신은 북양 정부가 해산된 나서 하북성 정부의 주임비서로 자리를 옮겼으며, 중일전쟁 기간에는 하남성 정부의 주임비서를 맡기도 했다. 그의 저술로 중에는 『동치조약』 외에도 장지동의 문서를 정리하여 편찬한 『장문양공전서(張文襄公全書)』이 가장 유명하다. 이밖에 『치독요지(治牘要旨)』, 『공독전의(公牘詮義)』, 『공독학사(公牘學史)』와 같이 주로 정부의 주요 인물 및 기관과 관련된 저작을 남겼다. 현재 서울대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허동신의 편저작으로는 『동치조약』을 비롯해 『광서조약(光緖條約)』이 소장되어 있다.

서명	약장성안회람(約章成案匯覽)
편 · 저자	北洋大臣衙門洋務局 (북양대신아문 양무국)
발간 연도	1905
발행 사항	上海: 點石齊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720 15)
비고	

『약장성안회람(約章成案匯覽)』은 청말 북양대신아문 양무국(北洋大臣衙門洋務局)에서 1905년에 간행하였으며, 청 강희연간(康熙年間)부터 광서(光緖) 30년 (1904)까지 청과 각국이 맺은 조약, 관련 규약, 참고 자료 등을 정리·수록하고 있다.

이 책은 갑편(甲編)과 을편(乙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갑편(甲編)은 각국과 체결한 조약을 연·월·일 순서로 정리하고 있다. 갑편에서는 주로 도광연간 이래 체결한 조약을 외무부에서 간행한 사본 및 관련 문서를 수록하고 있으며, 을편(乙編)은 장정성안(章程成案)으로 각 문건을 계약, 교섭, 국경, 개항, 조차, 통상, 항해, 금지령, 소송, 고용, 관광, 선교, 상환, 철도, 광업, 우편, 대회 등 20여 개 부문과 안건별로 분류하며 이와 관련된 문건을 수록하고 있다.

또한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청나라 외무부와 북양 양무국이 보관하고 있는 청나라와 외국 간의 규약 및 조약의 체결, 규상소, 관련 문건을 분류하여, 「각국입약연월표(各國立約年月表)」, 「각구안통상개부원시표(各口岸通商開埠原始表)」, 「대청여도(大清輿圖)」 등 10여 종의 표가 첨부되어 있다. 특히 이 자료는 청나라 정부의 공식적인 자료로, 청나라와 각국이 체결한 통상조약의 체결 시기, 조관을 시대순으로 나열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조약 자료와는 달리 「대청여도」와 같은 지도를 수록하고 있다는 점도 이 자료의 특징이다.

이 자료는 북양대신아문 양무국에서 편찬했지만, 실제 편집 작업을 주관한 것은 안세청(顔世清, 1873-1929)로 알려져 있다. 안세청은 광동 출신으로 대부분의 일생을 북경에 거주하였다. 안세청의 정치적 행적이나 자료의 제작 경위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문화 관련 사업에 적지 않은 업적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서울대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약장성안회람』의 판본은 상해 점석재 서국(點石齊書局)에서 나온 1905년의 석인본(石印本)이다.

서명	통상각국조약(通商各國條約)
편 · 저자	中華民國 外交部 (중화민국 외교부)
발간 연도	1929
발행 사항	北京: 中華民國 外交部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720 16)
비고	

『통상각국조약(通商各國條約)』은 1929년 중화민국 외무부에서 발간한 책으로, 청말 시기부터 중화민국 초기까지 중국과 각국이 체결한 조약을 수집·정리한 책이다. 이 책은 총 23권이며, 각 권은 국가별로 체결한 조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책부터 「영국 조약(英國條約)」, 제2책 「중영속정장인조약(中英續訂藏印條約)」, 제3책 「프랑스 조약(法國條約)」, 제4책 「러시아 조약(俄國條約)」, 제5책 「미국 조약(美國條約)」, 제6책 「중미속의통상행선조약(中美續議通商行船條約)」, 제7책 「독일 조약(德國條約)」, 제8책 「스웨덴-노르웨이 조약(瑞典國那威國條約)」, 제9책 「덴마크 조약(丹國條約)」, 제10책 「네덜란드 조약(荷蘭國條約)」, 제11책 「에스파이나 조약(日斯巴尼亞國條約)」, 제12책 「벨기에 조약(比國條約)」, 제13책 「미국 조약(美國條約)」, 제14책 「오스트리아-헝가리 조약(奧斯馬加國條約)」, 제15책 「일본 조약(日本國條約)」, 제16책 「중일통상행선조약속약(中日通商行船條約續約)」, 제17책 「중일회의동삼성사의조약(中日會議東三省事宜條約)」, 제18책 「페루 조약(秘魯國條約)」, 제19책 「브라질 조약(巴西國條約)」, 제20책 「포르투갈 조약(葡國條約)」, 제21책 「한국 조약(韓國條約)」, 제22책 「멕시코 통상조약(墨西哥國通商條約)」, 제23책 「신축조약(辛丑各國和約)」 등이 수록되어 있다.

1950년 이전 중화민국이 간행한 조약 자료집 가운데 가장 다양한 국가와의 조약을 수록하고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다른 자료집과 달리 이례적으로 한국과의 조약도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1899년의 한청통상조약(韓淸通商條約) 이후부터 청과 대한제국 간에 체결된 것이다. 이 책의 소장본 주기에는 경성제국대학도서장(京城帝國大學圖書章)이 남아있다.

서명	통상약장류찬(通商約章類纂)
편 · 저자	徐宗亮 (서종량)
발간 연도	1892
발행 사항	廣州: 廣東善後局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720 17)
비고	

『통상약장류찬(通商約章類纂)』은 서종량(徐宗亮, 1828-1904)이 청말 청나라와 각국의 통상 조약 및 외교 관련 문건을 편집한 것으로 교섭의 전후 사정 등을 시간순으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 책은 1892년 광동선후국(廣東善後國)에서 간행되었으며, 총 35권, 20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에는 청나라의 조약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등 국가의 주요 조약과 조관 일부를 모두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조약 이외에도 국제 교섭 등에 참고할 수 있는 국가, 국기 등도 참고 자료로 수록하고 있다. 특히 19세기 말 태극기가 '고려국기(高麗國旗)'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4괘의 색상 또한 문자를 통해 표시하고 있는 문건을 볼 수 있다. 이는 태극기의 원형과 관련한 최초의 기록이다.

이 책을 저술한 서종량은 청말의 문인이자 정치가로, 호림익, 이홍장과 같은 인물과 교류한 인물이다. 1887년에는 조정의 명으로 흑룡강 일대를 순찰하면서 동북 변경의 사정에 대해 알 수 있
었다. 그리고 변경 지역에 다가오는 러시아의 위협을 경고하기 위해 『흑룡강술략(黑龍江述略)』(총 6권)을 저술하기도 했으며, 이 책을 통해 청과 러시아의 실정을 분석하였으며, 정치적 이해관계, 지역의 지형과 관습 등을 실사구시하여 자세히 기록하였다. 또한 서종량은 이 책에서 자강(自强)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후 서종량은 『잠허선생문집(潛虛先生文集)』의 교정에 참여한 바 있으며, 『선사제시문초(善思齋詩文鈔)』, 『귀려담주왕록(歸廬談往錄)』와 같은 저서를 남기기도 했다. 『통상약장류찬』은 이후 1977년에 간행된 『近代中國史料叢刊續編』의 제35권에 수록되었다.

서명	통상조약장정성안휘편(通商條約章程成案彙編)
편 · 저자	李鴻章 (이홍장)
발간 연도	1886
발행 사항	邵武: 鐵城廣百宋齊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720 18)
비고	

『통상조약장정성안휘편(通商條約章程成案彙編)』은 이홍장이 편저한 대외관계 참고 자료이며, 19세기 중후반 청나라와 타국이 체결한 조약을 정리하여 수록하고 있다. 현존하고 있는 『통상조약장정성안휘편』은 1886년에 간행된 철성 광백송제 장본(鐵城廣百宋齊藏本)이다. 이 책의 정확한 편찬자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책의 앞부분에는 이홍장이 책의 제작 취지와 배경에 대해 밝히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으며, 여기서 이홍장은 "泰西立國의 道는 互市로서 經으로 삼고 交隣으로서 緯를 삼으니 訂約을 논의를 행하는 것은 여기에 있으며 춘추전국의 회맹과도 같다"라면서 조정의 명을 받아 이 책을 제작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향후 서구 국가와의 교섭에 참고할 목적으로 이 책을 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청나라가 영국, 미국,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이탈리아, 러시아 등 외국 간에 체결한 통상조약과 장정을 정리하고 있다. 이밖에도 교섭의 취지, 의례, 관습, 통·번역에 관해서도 설명하고 있으며, 행선(行船), 무역, 관원 배알(官員拜謁) 등 주로 무역과 교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참고서라고 할 수 있다. 서두에서는 각국과 교섭하는 경우 총리아문에 이를 보고하고 각 성은 정해진 바에 따라 이를 시행할 것을 밝히고 있다.

책의 구성은 총 30권 12책으로 되어 있으며, 목차에 따라 卷一·二 「總類(上·下) -各國立約年月/訂約(附 彼此相助)」, 卷三·四 「吏類(一·二) -遣使/設領事等官」, 卷四·五·六·七·八·九·十·十一·十二·十三·十四·十五·十六·十七 「戶類(一·二) -稅務(附 各國賽會)/償款恤款/交際儀文」, 卷十七·十八·十九·二十·二十一·二十二 「禮類 -優待保護/遊歷/學習/傳教」, 卷二十三 「兵類 -疆界, 卷二十四, 二十五, 二十六, 二十七 -法禁/交涉案件(上中下)」, 卷二十八, 二十九, 三十 「工類 -租庸建置(附 選募洋將), 行船(附 各國理船事宜)」로 구성되어 19세기 말에 간행된 조약집 및 교섭 참고자료 중 가운데 가장 폭넓고 각 분야를 소상히 다루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서명	각국약장찬요(各國約章纂要)
편 · 저자	勞乃宣 (노내선)
발간 연도	1891
발행 사항	上海: 圖書集成印書局鉛印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720 19)
비고	

『각국약장찬요(各國約章纂要)』은 노내선(勞乃宣, 1843-1921)이 광서 17년(1891)에 청과 각국의 조약과 장정을 각 유형에 따라 정리하여 편집한 것이다. 노내선이 책을 저술한 경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다. 권두에는 「각국입약연표(各國立約年表)」가 있으며, 이어 「유력(遊歷)」, 「전교(傳敎)」, 「내지상무(內地商務)」, 「잡조(雜條, 上·中·下)」로 정리하고 있으며, 부록으로는 각 나라의 간략한 역사(各國述略)와 조약 체결의 경유(立約緣起), 서양 종교의 기원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1890년대 이전까지 청과 영국,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서구 국가와 체결한 각 조약 가운에 해당 분야의 조항만 발췌하여 이를 따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기타 청말 조약집과는 편집 구성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부록에 있는 「각국술략(各國述略)」에서는 『해국도지(海國圖志)』와 같이 이전 청나라의 지리서도 함께 언급하면서 세계 지리를 다루고 있으며, 크리스트교에 대한 부분과 서구의 중요 도시도 언급하고 있어 당시 청나라 지식인의 세계관과 인식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또한 부록의 「입약연기(立約緣起)」에서는 청나라와 서구 국가 간 조약 체결의 경위에 대해 간략하게 다루고 있으며 여기에는 청불전쟁의 시말, 화약(和約)의 체결, 통상 항구 등을 설명하고 있어 청말 외교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마지막으로 「서교원류(西敎源流)」에서는 크리스트 교의 기원과 확산에 대해 다루면서 서구 국가의 정신과 본질을 종교적 측면에서 이해를 시도하고 있다. 『各國約章纂要』은 심운룡(沈雲龍)이 편집한 『近代中國史料叢刊續編(臺北: 文海出版社, 1874)』의 第19輯에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을 저술한 노내선은 청말의 음운학자이며, 병음문자운동에 참여하였으며 『등운일득(等韻一得)』, 『경음보(京音譜)』, 『영음보(寧音譜)』, 『오음보(吳音譜)』, 『민광음보(閩廣音譜)』 등과 같이 중국 각지의 언어와 발음을 연구한 저서를 남긴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동치 10년(1871)에 진사에 올랐으며, 광서 5년(1879)부터는 임유(臨榆), 남피(南皮), 완현(完縣), 오교(吳橋) 등지에서 지현(知縣)을 지냈다. 광서 27년(1901)에는 절강대학당 총리를 맡기도 하였으며, 광서 34년(1908)에는 4품 경당후보(京堂候補)를 받아 헌정편사관참의(憲政編査館參議)에 오르기도 했다. 선통 3년(1911)에는 경사대학당 총감독과 학부부대신 겸 대리대신을 맡기도 했다. 청나라 멸망한 이후에는 공화제도 연구에 매진하면서, 『共和正解』, 『共和續解』, 『君主民主平議』을 남기기도 했는데, 이는 그가 서구 학문과 정치 제도에 일찍이 관심을 보이고 공부한 결과이기도 하다. 노내선은 1921년 곡부(曲阜)에서 향년 79세로 사망하였다.

서명	아묵리가조약병세칙(亞墨利加國條約竝稅則)
편 · 저자	
발간 연도	1859
발행 사항	비매품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720 37)
비고	

『아묵리가국약조병세칙(오)(亞墨利加國條約竝稅則(五))』은 일본과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네덜란드와의 수호통상조약과 그 세칙을 담고 있는 『五ヶ国条約書并税則』(전 5권)의 순서상 「불란서국조약병세칙(仏蘭西国条約並税則)」, 「영길리국조약병세칙(英吉利国条約並税則)」, 「아란타국조약병세칙(阿蘭陀国条約並税則)」 등, 일명 "안세이 조약(安政條約)"의 다섯 번째 편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1858년(安政 5년) 7월 28일에 일본 정부가 미국과 맺은 일미수호통상조약(日米修好
通商條約, '해리스 조약')과 그 무역 세칙을 기록하고 있다.

이 자료는 일본이 미합중국과 친선 관계를 맺고 통상 무역과 인적 교류를 활발하게 하겠다는 뜻을 서두에서 밝히고 있는 등 일본과 미합중국과의 개항에 관한 규정을 자세히 담고 있다. 자료의 구성은 크게 조약과 세칙(稅則)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가나가와, 나가사키, 효고, 니이가타 등 항구 개항, 외국 화폐 사용, 영사재판권, 관세, 선교, 군함 등의 통상과 관련된 사무 세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세칙의 마지막에는 시모다 항을 관장하는 시모다 부교(下田奉行, 井上信濃守) 등의 서명이 있다. 이 시모다 부교는 1860년에 폐지되었다.

1854년에 미국 페리 제독의 개항 요구로 인해 일미화친조약(日米和親條約, 神奈川條約)이 체결되었다. 2년 후인 1856년에 중국은 영국·프랑스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불평등 조약을 맺은 상태였다. 당시 미국 총영사 타운젠트 해리스(Townsend Harris, 1804-1878)는 중국의 상황을 들어 막부에 무역을 요구했으며, 그 결과 1858년에 일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일본 측에서는 이노우에 기요나오(井上清直)와 이와세 다카노부(岩瀬忠震)가 대표로 나왔으며, 미국 측에서는 해리스 총영사가 나와 가나가와현 앞 바다에서 이 조약을 조인하였다. 이 조약에는 무역에 관한 규정 이외에도 에도와 오사카에 미국인의 거주 권한, 치외법권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일본에 관세 자주권을 보장하지 않는 불평등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일미수호통상조약은 1899년의 일미통상항해조약(日米通商航海條約)의 체결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서명	영길리국조약병세칙(英吉利國條約竝稅則)
편 · 저자	
발간 연도	1859
발행 사항	비매품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720 38)
비고	

『영길리국조약병세칙(英吉利國條約竝稅則)』은 일본과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네덜란드와의 수호통상조약(안세이 개국 조약 혹은 안세이 임시 조약)과 그 세칙을 담고 있는 『五ヶ国条約書并税則』(전 5권)의 순서상 「불란서국조약병세칙(仏蘭西国条約並税則)」, 「영길리국조약병세칙(英吉利国条約並税則)」, 「아란타국조약병세칙(阿蘭陀国条約並税則)」 등과 함께 그 세 번째 편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1858년(安政 5년) 7월 18일에 일본 정부가 영국과 맺은 일영수호통상조약(日英修好通商條約)과 그 세칙을 기록하고 있다. 당시 영국 측은 영국 인도 총독 제임스 브루스 백작(James Bruce, 8th Earl of Elgin and 12th Earl of Kincardine, 1811-1863)을 대표로 하여 일본과 이 통상조약을 맺었다.

이 자료의 구성은 크게 조약과 세칙(稅則)으로 나눌 수 있으며, 에도에 영국 대표부를 설치하는 것, 하코다테, 가나가와, 나가사키의 개항, 영국인의 거주 등에 관한 협정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항구 개항, 외국 화폐 사용, 영사재판권, 관세, 선교, 군함 등의 통상과 관련된 세칙이 명시되어 있다.

1854년, 유럽에서는 크림전쟁(1854-1856)이 발발한 상태였으며, 당시 러시아와 교전 중이던 영국 동인도함대 함대가 일본 근해를 순항하게 되었다. 그래서 1854년 8월 7일, 영국 동인도함대 사령관 스털링((Sir James Stirling)이 나가사키에 입항해 영국 선박의 일본 항구 기항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로써 일영약정(日英約定)이 일본과 영국 간에 협의되었으며, 이를 통해 영국 선박은 일본의 나가사키, 하코다테 등 항구에서 물자를 보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향후 일본이 외국에 항구를 개방하는 경우, 영국에게도 동일하게 개방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후 1858년에 이르면, 청나라와 천진에서 통상조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 영국 인도 총독 제임스 브루스 경이 본국의 지시를 받아 일본과의 통상조약을 조율하였으며, 그 결과 1859년 8월 26일에 일영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영일 양국은 이듬해 7월 11일에 비준서를 교환하였다. 이 조약에 따라 주일 총영사 겸 외교대표로 광동 영사였던 러드퍼드 알콕 경(Sir Rutherford Alcock, 1809-1897)이 일본에 파견되었으며, 먼저 다카나와(高輪)의 도젠지(東禅寺)에 임시 공관을 두었다.

서명	불란서조약병세칙(佛蘭西國條約竝稅則)
편 · 저자	
발간 연도	1859
발행 사항	비매품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720 39)
비고	

『불란서국조약병세칙(佛蘭西國條約竝稅則)』은 일본과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네덜란드와의 수호통상조약(안세이 개국 조약 혹은 안세이 임시 조약)과 그 세칙을 담고 있는 『五ヶ国条約書并税則』(전 5권)의 순서상 「불란서국조약병세칙(仏蘭西国条約並税則)」, 「영길리국조약병세칙(英吉利国条約並税則)」, 「아란타국조약병세칙(阿蘭陀国条約並税則)」 등과 함께 두 번째 편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1858년(安政 5년) 10월 9일에 일본 정부가 프랑스와 맺은 불일수호통상조약(日
佛修好通商條約) 및 무역 세칙을 기록하고 있다.

당시 프랑스 측은 중국 원정군 사령관 장 밥티스테 루이 그로 남작(Jean-Baptiste Louis Gros, 1793-1870)을 대표로 하여 일본과 이 통상조약을 맺었다. 책의 구성은 일본과 프랑스의 개항 사무에 관한 조약과 세칙(稅則)으로 나눌 수 있으며, 에도, 고베, 나가사키, 니가타, 요코하마
의 항구를 개방하는 것과 치외법권의 인정, 관세 규정을 자세히 담고 있다.

체결 당시 영국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던 프랑스는 같은 해 청나라와의 천진 조약(天津條約)을 체결하였으며, 일본과는 불일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나폴레옹 3세의 동방정책의 성과로 이 조약을 언급되기도 한다. 영국과 프랑스는 해군을 동원하여 일본을 압박하였으며, 통상 항구의 개방을 요구하였다. 1858년 9월 그로 남작을 비롯한 프랑스 사절단이 일본에 도착하여 나폴레옹 3세의 국서를 전달하였으며, 한편 일본 측에서는 미즈노 타다노리(水野忠徳)·나가이 나오유키(永井尚志)·이노우에 키요나오(井上清直)·호리 도시히로(堀利熙)·이와세 타다나리(岩瀬忠震)·노노 야마카네죠(野々山鉦蔵) 등 6명의 외국봉행(外國奉行)이 대표로 파견되어 조약을 조인하였다. 특히 불일수호통상조약의 일부 조관은 청나라와 프랑스 간의 천진 조약과 유사하다.

서명	아란타국조약병세칙(阿蘭陀國條約竝稅則)
편 · 저자	
발간 연도	1859
발행 사항	비매품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720 40)
비고	

『아란타국조약병세칙(阿蘭陀國條約竝稅則)』은 일본과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네덜란드와의 수호통상조약(안세이 개국 조약 혹은 안세이 임시 조약)과 그 세칙을 담고 있는 『五ヶ国条約書并税則』(전 5권)의 순서상 「불란서국조약병세칙(仏蘭西国条約並税則)」, 「영길리국조약병세칙(英吉利国条約並税則)」, 「아란타국조약병세칙(阿蘭陀国条約並税則)」 등과 함께 네 번째 편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1858년(安政 5년) 8월 18일에 일본 정부가 네덜란드(오란다)와 맺은 일란수호통상조약(日蘭修好通商條約) 및 무역 세칙을 기록하고 있다. 이 조약은 일본 정부에게 영사재판권과 관세자주권을 인정하게 한 조약으로 같은 해 영국, 프랑스 등과 맺은 협정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책의 구성은 일본과 네덜란드의 개항 사무에 관한 조약과 세칙(稅則)으로 나눌 수 있으며, 나가사키, 니가타, 요코하마 등 항구 개방과 치외법권의 인정, 관세 규정을 자세히 담고 있다.

미국 페리 제독의 내항 이후 일미통상수호조약(日米通商修好條約) 체결에 맞춰 일본과 네덜란드 사이도 일란화친조약(日蘭和親條約) 및 일란추가조약(日蘭追加條約)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1858년 8월 18일에 체결되었으며, 일본 측에서는 나가이 나오유키(永井尚志) · 오카베 나가츠네(岡部長常) · 이와세 타다나리(岩瀬忠震) 등이 대표로 참석하였고, 네덜란드에서는 야뉘스 헨리퀴스 돈케르 퀴르티위스(Jan Hendrik Donker Curtius, 1813-1879) 상관장(商館長)이 나와 조인하였다. 특히 야뉘스는 이후에도 일본에 상주하면서, 나가사키 해군 전습소를 설립하고 일본어 문법서를 편찬하는 등 여러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아울러 일란수호통상조약으로 1828년 필립 프란츠 폰 시볼트가 국보인 일본 지도 등을 일본 국외로 반출하려다 발각된 사건인 일명 '시볼트 사건'에 대한 시볼트의 처분이 면제될 수 있었다.

서명	묵서아국조약병세칙(魯西亞國條約竝稅則)
편 · 저자	
발간 연도	1859
발행 사항	비매품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720 41)
비고	

『로서야국조약병세칙(魯西亞國條約竝稅則)』은 일본과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네덜란드와의 수호통상조약(안세이 개국 조약 혹은 안세이 임시 조약)과 그 세칙을 담고 있는 『五ヶ国条約書并税則』(전 5권)의 순서상 「불란서국조약병세칙(仏蘭西国条約並税則)」, 「영길리국조약병세칙(英吉利国条約並税則)」, 「아란타국조약병세칙(阿蘭陀国条約並税則)」 등과 함께 첫 번째 편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1858년(安政 5년) 8월 19일에 일본 정부가 러시아와 맺은 일로수호통상조약(日
露修好通商條約)과 그 세칙을 기록하고 있다. 책의 구성은 일본과 러시아의 개항 사무에 관한 조약과 세칙(稅則)으로 나눌 수 있으며, 나가사키, 니가타, 요코하마 등 항구 개방과 치외법권의 인정, 관세 규정을 자세히 담고 있다.

앞서 1855년에 일본 측 츠츠이 마사노리(筒井政憲)와 가와지 도시아키라(川路聖謨)와 러시아 측 푸티아틴이 대표로 조인한 일아화친통호조약(日俄和親通好條約, 下田條約)에 후속하는 조약이다. 일아화친통호조약으로 일본과 러시아 간 쿠릴 열도의 경계를 획정하였으며, 이 조약이 일본 측은 남쿠릴 열도의 4개 섬이 일본에 귀속된 근거임을 주장하고 있다. 일로수호통상조약(日露修好通商條約)은 1858년 8월 19일에 체결되었으며, 이듬해 1859년 8월에 비준을 거쳐 효력을 발휘하였다. 이 조약으로 일본과 러시아는 상호 외교사절의 파견 및 상주를 규정하였다. 한편 러시아는 일본에서 러시아인의 통행 자유 및 체류, 거주, 가옥 임대, 신앙의 자유 등을 보장받았다. 또한 가나가와와 효고를 통상 항구로 증설하고 일본의 항구에서 러시아인이 무역하는데 일본 관리의 간섭받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최혜국 조항에 따른 관세와 영사재판권 등을 보장받았다.

이 조약은 일본 정부에게 영사재판권과 관세자주권, 최혜국 대우 등을 인정하게 한 조약으로 같은 해 영국, 프랑스 등과 맺은 협정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1895년(明治 28년)에 일로통상항해조약(日露通商航海条約)이 체결되어서야 이 조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서명	미국속수조약(美國續修條約)
편 · 저자	
발간 연도	1880
발행 사항	비매품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720 70)
비고	

『미국속수조약(美國續修條約)』는 19세기 말, 청과 미국이 체결한 이른바 미국속수조약(美國續修條約)의 사본으로 총 18장이 한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광서 6년(1880)과 광서 7년
(1881)에 청과 미국이 체결한 두 가지 조약이 중국어로 기록되어 있다.

자료의 서두에는 청이 함풍 8년(1858)에 미국과 맺은 和約과 동치 7년(1868)에 맺은 조약에 이어, 華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중미속수조약(美國續修條約)을 체결했음을 밝히고 있다. 먼저, 첫 번째 조약은 광서 6년(1880)에 체결한 것으로 중국인 노동자의 미국 이민 규제를 규정하였다. 이 조약은 광서 6년 10월 15일(서력으로는 1880년 11월 17일)부터 효력이 발휘되었다. 두 번째 조약은 광서 7년(1881) 6월 16일에 체결된 것으로, 첫 번째 조약과 마찬가지로 화공 문제와 양국 교섭 방식 등을 다루고 있지만 무역 조약에 가까운 것으로 아편 무역을 금지하고 톤당 관세를 양국이 동일하게 설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 조약은 광서 7년 10월 15일(서력으로 1881년 11월 17일)에 효력이 발휘되었다. 두 조약 모두 청 측에서는 이홍장이, 미국 측에서는 제임스 앤젤(James B.Angell, 중국어 조약문에서는 '笛安師'로 표기)이 양국 대표로 협의하였다.

이 조약은 미국에서 '앤젤 조약(Angell Treaty)' 혹은 중미속수조약(中美續修條約)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미국이 중국인 노동자(華工)의 이민을 규제한 첫 번째 조약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이 조약 이후, 1882년의 미국의 중국인 배제 조례(Chinese Exclusion Act of 1882)과 1888년의 스콧 조례(the Scott Act of 1888)로 인해 중국인 이민이 더욱 엄격히 규제되었다. 이 자료의 표지에는 일본제국 대학도서관 소장인이 찍혀있다.

서명	덕국속수조약(德國續修條約)
편 · 저자	
발간 연도	1880
발행 사항	비매품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720 71)
비고	

『덕국속수조약(德國續修條約)』은 1880년 청과 독일이 체결한 덕국속수조약(德國續修條約)의 사본으로 총 32장이 한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덕국속수조약(德國續修條約)』은 '속수조약(續修條約)'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독일어로는 'Spezial Bestimmungen zu der Zusatz-Convention'로 표기하고 있다. 이 조약은 청과 독일 간의 통상 및 항행, 정박, 면세 등에서의 최혜국 대우를 규정한 것으로, 독일이 청나라 내지에서 통상하는 것을 허가하고 타국 상인과 마찬가지로 상업에서의 각종 혜택의 수여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우선, 이 조약이 체결된 경위는 독일 측이 먼저 1861년(咸豐 11년)에 맺은 중덕통상조약(中德通商條約)의 제14조의 개정을 거론하여 청 측과 협상한 것에서 시작한다. 제2차 아편전쟁의 결과로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은 청과 천진 조약(1858)을 체결하였으며, 독일 역시 청에게 다른 서구 국가와 동등한 특권을 요구하려고 하였다. 이에 독일은 청에 원정대를 파견하여 청을 압박하였으며, 그 결과 1861년 7월에 독일은 청과 중덕통상조약(中德通商條約)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독일은 1880년에 중덕통상조약(中德通商條約)의 체결 이후 10년 후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제41조 조관을 구실로 삼아 청과 통상조약의 개정을 논의하였다.

즉 이 조약은 독일 측의 요구로 개정된 것이며, 청 측에서는 심계분(沈桂芬) 등이 대표로 1880년 3월 31일(光緒 6년 2월 21일)에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1880년 8월 21일(光緒 6년 7월 16일)에 효력을 발휘하였다. 이 조약의 마지막 부분에는 조록빙단(照錄憑單)이 같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이 조약의 개정에 참여한 청 측 관료의 명단과 독일 대표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으며, 조관에 따라 체결 후 1년의 조정 기간을 거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자료의 표지에는 일본 제국대학도서관 소장인이 찍혀 있다.

서명	기회균등주의관계자료(機會均等主義關係資料)
편 · 저자	南滿洲鉄道株式会社 經濟調査会 (남만주철도주식회사 경제조사회)
발간 연도	1935
발행 사항	大連: 南滿洲鉄道株式会社 經濟調査会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730 71)
비고	

『기회균등주의관계자료(機會均等主義關係資料)』는 1935년(昭和 10년)에 남만주철도주식회사 경제조사회(南滿洲鉄道株式会社 經濟調査会)에서 경조자료(經調資料)의 第八四編으로 간행된 책이다. 이 책은 문호개방과 기회균등주의에 관한 관련 국가의 조약, 교환서, 외교문서, 국제회의 기록, 결의문, 선언문, 성명서, 연설문 등 참고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은 국가별로 구분하여 각국과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고 있으며, 조선과 만주국, 중화민국을 포함한 동아시아(第一部) 및 아프리카(第二部), 태평양 제도(第三部), 중동(第四部), 중남미(第五部) 국가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第六部'는 위임통치지역을 다루고 있으며, 위임통치 방식에 따라 이를 A, B, C로 구분하여 기회균등주의와 관련한 개별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중국 편의 경우, 1858년부터 1909년까지 서장(西藏), 요동 반도, 운남·사천, 산동 반도, 교주(膠州), 만주 등지의 국경, 철도 등 중요 현안을 다루고 있다. 중국과 영국·러시아의 교섭 및 내부 사정까지 소상히 분석하고 있다. 조선의 경우, 1894년 청일전쟁 시기, 조선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 청의 교섭 내막을 비롯하여, 조선과 만주를 둘러싼 일본과 러시아의 교섭, 그리고 한일합방과 관련된 사안까지 정리하고 있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동아시아 국제정세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서의 가치는 높다고 할 수 있다.

위임통치에 관한 부분도 먼저 윌슨 미국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와 문호 개방 정책을 언급하면서, 팔레스타인, 아프리카, 이라크와 같은 위임통치 지역에서의 현안과 기회균등주의의 실천에 대해 다루고 있다. 특히 국제연맹규약의 적용 여부와 실천에 대한 영국, 미국, 일본, 독일 등 국가의 주장과 지위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국제연맹의 관련 회의와 기록을 수록하고 있다.

서명	구주동방교섭기(歐洲東方交涉記)
편 · 저자	麥高爾 (맥고이) 저, Young, John Allen (영 앨런, 林樂如) 역, 瞿昂來 (구앙래) 필사
발간 연도	1880
발행 사항	上海: 江南製造局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9910 36)
비고	

『구주동방교섭기(歐洲東方交涉記)』는 영국인 맥고이(麥高爾)가 저술한 것을 미국인 앨런(林樂如, Young John Allen, 1836-1907)이 번역하고 청나라인 구앙래(瞿昂來)가 필사한 책으로, 1880년에 강남제조국 번역관(江南製造局繙譯館)에서 목판본 12권 2책으로 출간되었다. 이후 1896년과 1909년에 재간행된 바 있으며, 1909년 판본은 강남제조국에서 연인본(鉛印本)으로 간행된 바 있다.

이 책은 서구 국가와 동아시아와의 교섭을 다루고 있는 책으로 주로 영·러 교섭 및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러시아의 교섭을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은 크림전쟁과 불가리아 봉기에서 시작하여 1877년 러시아-튀르키예 전쟁의 기원과 과정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또한 튀르키예 문제를 둘러싼 영국과 러시아의 교섭, 산스테파노 조약, 튀르키예 분할에 대한 베를린 회의 등 당시 크림반도를 둘러싼 유럽 국가의 전쟁과 교섭을 주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번역자인 林樂如는 책의 서문에서 책에서 다루고 있는 최근 러시아와 튀르키예 전쟁의 시말에 관해 "유럽 각국이 교환한 문서가 상세하며, 영국과 러시아 어느 한 편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있다."면서 이 책을 소개하고 있다. 이후 양계초(梁啓超) 또한 이 책을 『서학서목표이열국세정계요(西學書目表以列國歲政計要)』에 수록하기도 하였다.

이 책의 원본을 저술한 맥고이(麥高爾)에 관해서는 맥고이가 영국 국적을 가진 사실 말고는 저자의 본명, 원본 제목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책을 번역한 앨런은 감리교 선교사로 청나라에 있었으며, 『구주동방교섭기』를 비롯해 『중동전기(中東戰記)』를 번역·저술하기도 했다. 또한 앨런은 1899년에 채이강(蔡爾康)과 공동으로 『중동전기본말(中東戰記本末)』를 간행한다. 이 『중동전기본말(中東戰記本末)은 광무 3년(1899) 조선의 황성신문사에서 『중동전기(中東戰記)』라는 제목의 연인본(鉛印本)으로 간행되었다. 이 책에는 1894년 청일전쟁에 관련된 당시 청 측의 상유(上諭), 전보문, 공문뿐만 아니라 청일전쟁과 관련된 세계 각국의 언론보도, 중국에 있는 선교사가 남긴 기록이 수록되어 있어 참고 가치가 높다. 황현의 『매천야록』, 곽종양의 『면우집』 등에서도 이 『중동전기(中東戰紀)』를 인용하고 있으며, 유근과 현채도 1899년에 이 책을 정리하여 국한문으로 출판하기도 했다. 이승만은 1900년 옥중에서 이 책을 편역하고 자신의 논설을 붙여 한국어 번역본인 『청일전기(淸日戰記)」의 원고를 완성하기도 했다. 그리고 필사를 맡은 구앙래는 강소성 출신으로 정확한 것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이후 상해격치서원(上海格致書院)에 있으면서 1886년에 중국해군과 부강에 관한 글을 써서 상을 받기도 했다.

서명	일청수호통상조약초안(日淸修好通商條約草案)
편 · 저자	
발간 연도	1871
발행 사항	비매품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720 47)
비고	

『일청수로통장조약초안(日淸修好通商條約草案)』는 1871년(明治 4년) 청일수호조규(淸日修好條規, 다른 이름으로는 淸日修好通商條約라고 한다)의 일본 측 초안으로, 청일수호조규는 당시 정식 국교나 무역 협정이 없이 유지되던 청일 양국이 통상을 위해 처음으로 체결한 조약이다. 총 48개 조관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 책의 표지에는 '화청조약의고(和淸條約擬稿)'로 표기하고 있고, 초안이기에 양국 전권대표의 직함과 성명 등은 기입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당시 서구 국가와의 조약이 일반적으로 관세 혜택과 최혜국 조항 등을 이른바 불평등 조약에 해당하는 조관이 포함되는 반면, 이 조약은 청일 양국이 영사재판권을 협정한 것이 이외에, 상호 관세율을 최저로 정하고 최혜국 조항 및 내지 통상 허용 등의 규정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청나라와 대등한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이 조약을 청과 협상하였으며, 이 조약은 외국과 일본이 맺은 조약 가운데 처음으로 대등한 성격을 가진 조약으로 평가받는다. 청 측 또한 일본과의 조약을 통해 일본 측의 세력 확장에 대응하고, 서구 국가와의 조약에서 불리한 조관을 개정하기 위한 사례로 만들고자 하는 목적에서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고자 했다.

이 조약은 크게 양국 외교사절의 수도 상주, 영사재판권의 승인, 상호 영토의 보장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해관에 관한 세칙을 규정하여, 청일 간 관세 자주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청일 양국이 개방하는 항구의 목록이 있으며, 여기에는 청의 천진(天津), 담수(淡水)까지의 항구가 열거되어 있으며, 일본의 나가사키(長崎), 고베(神戶) 등 항구가 양국이 협정한 통상항으로 열거되어 있다. 이 조약의 비준을 위해 1873년 일본의 외무경(外務卿) 소에지마 다네오미(副島種臣)가 청 동치제에게 국서를 전달하였다. 당시 소에지마가 청 황제에게 삼고구궤두례(三跪九叩頭禮)를 행하지 않은 것은 청일 양국 관계가 주권을 가진 독립국 간의 대등한 관계임을 주장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조약 이후, 1874년에 일본의 대만 출병으로 인해 조약의 원칙에 금이 가게 되었으며, 류큐 병합과 1880년대 이후 조선에서 일본이 세력을 확장하려고 시도함에 따라 양국 간의 우
호와 신뢰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사실상 청일수호통상조약은 통상에만 효력이 있게 되었다. 이 조약은 1895년까지 청일 양국의 통상을 규정하는 조약이었으며, 청일강화조약(淸日講和條約, 일명 '시모노세키 조약') 이후 효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서명	개정일영동맹조약각국신문논평일반(改訂日英同盟條約各國新聞論評一班)
편 · 저자	外務省臨時報告委員 (외무성 임시보고위원)
발간 연도	1906
발행 사항	東京: 外務省臨時報告委會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720 42)
비고	

『개정일영동맹조약각국신문논평일반(改訂日英同盟條約各國新聞論評一班)』은 1906년 일본 외무성 임시보고위원(外務省臨時報告委)에서 편집하고 간행한 것으로, 1905년에 체결된 제2차 영일동맹에 대한 영국, 미국, 독일 등 서구 국가의 여론을 참고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여기에는 영국의 『타임즈』, 『데일리 프레스』, 『스펙트럼』, 『스탠다드』, 『데일리 메일』, 『홍콩 데일리 프레』스 등 언론지를 비롯해 미국의 『뉴욕 트리뷴』, 『글로브』, 『세인트 루이스 데모크라트』 및 독일의 『파슬 자이퉁』, 프랑스의 『파리 르 피가로』 등 서구 국가의 주요 언론의 동향을 다루고 있어 영일동맹을 비롯해 20세기 초 동아시아 국제정세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
료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영일동맹은 제2차 영일동맹(Anglo-Japanese Alliance)으로 1902년에 영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공수(攻守) 동맹조약인 제1차 영일동맹을 갱신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두 차례의 영일동맹은 청에서의 영국의 이익과 조선에서의 일본의 이익을 위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러시아의 동아시아 진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으며, 영국과 일본이 조선 및 청에서 2개국 이상 국가와 교전하는 경우, 공동 참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제2차 영일동맹에서는 적용 범위를 인도 지역까지 확장하였다.

이후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의 참전을 결정한 것도 이 동맹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비공개 협약에서는 일본이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경우, 영국은 우호적 중립을 유지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 조약에 일본 측은 하야시 다다쓰가 특명전권대사를 영국에 파견하였으며, 영국 측에서는 외무장관 랜스다운이 대표로 이 동맹을 체결하였다. 특히 여기에서는 영국 언론의 입장을 다루면서, 러시아와의 경쟁에서 일본의 지원을 얻기 위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우월권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실제 제2차 영일동맹 조약문의 제3조에서는 조선을 일본의 보호국화한다는 것을 영국이 승인하고 있다. 일본 또한 제1차 영일동맹과 마찬가지로 이 조약을 통해 청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영국의 권리를 인정하였다.

제2차 영일동맹에 관한 영국 측 논평은 1895년의 삼국간섭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한국의 종주권과 요동 반도의 조차는 어디까지나 일본의 방어적인 태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변호하는 관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미국의 『뉴욕 트리뷴』과 같은 언론에서도 러일전쟁이 동아시아에 대한 러시아의 야욕을 무너뜨린 전쟁이며, 이 전쟁 이후 체결된 영일동맹은 인류를 위한 평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영일 양국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반면 독일 언론은 러일전쟁과 영일동맹으로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과 진출은 폐기될 수밖에 없고, 만주 및 압록강 이남의 일본 지배

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또한 영일동맹은 조선과 청에 대한 일본의 권익만을 위한 것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과 러시아, 프랑스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프랑스 언론 역시 영일동맹으로 동아시아 및 인도 지역에서 영국의 영향력이 팽창함으로 인해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서의 입지가 동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즉, 영일동맹에 대해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자국의 이해관계와 이 사안을 직결시켜 이해하고 있으며, 20세기 초까지 삼국간섭 당시의 세력 구도와 각국의 입장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당시 주한일본공사였던 하야시 곤스케(林權助)는 조선을 압박하고자 이 영일동맹의 조약문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일본어 사본과 함께 조선 정부와 고종에게 보내기도 했다. 제2차 영일동맹에서는 제1차에서 협의했던 동맹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으며, 미국과 일본 간의 포츠머스 조약(1905.8.9) 이후인 1905년 9월 27일에 공표되었다. 이 조약은 1923년에 효력을 상실하였다.

서명	극동의 위기(極東の危機)
편 · 저자	Stimson, Henry Lewis (헨리 스팀슨) 저, 鈴木東民 (스즈키 토민) 역
발간 연도	1936
발행 사항	東京: 福田書房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740 107)
비고	

『극동의 위기(極東の危機)』는 허버트 후버(Herbert Hoover) 행정부부터 트루먼 행정부까지 국무장관을 역임한 헨리 스팀슨(Stimson, Henry Lewis, 1867-1950)이 1933년에 작성한 만주사변 관련 논문을 번역한 것으로, 만주사변과 일본의 중국 침략을 비판하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일본 중앙공론사(中央公論社)의 1936년 11월 호의 별책 부록에 '極東の危機』(THE FAR-EASTERN CRISIS)'라는 제목으로 실려 공개되었다. 이 책에는 중앙공론사의 기요사와 키요시(清沢洌, 1890-1945)가 번역한 판본과 스즈키 도민(鈴木東民, 1895-1979)이 번역하여 복전서방(福田書房)에서 간행된 번역본 두 가지가 있으며, 현재 서울대 중앙도서관에는 스즈키 도민의 번역본이 소장되어 있다. 기요사와의 번역본은 2022년에 재간행되기도 했다.

스팀슨은 처음 1911년 하워드 태프트 미 대통령에 의해 전쟁부 장관(Secretary of War)에 임명되었다. 이후 공직을 떠나, 허버트 후버 대통령 시기에 국무장관을 역임했으며, 1931년 일본이 중국을 침공한 만주사변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중화민국의 영토·행정에 대한 위해와 파리 부전조약(不戰條約)을 위반한 일본의 행위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한 '스팀슨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스팀슨은 일본을 비롯한 주축국에 강경한 태도로 일관한 '매파'였다. 미국에 있는 일본계 미국인을 추방하거나 수감 하는 법안에 찬성하였으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사용할 때도 전투원과 노동자를 구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스팀슨은 독일을 분할 통치하려는 '모겐소 플랜'에 반대하면서 한편으로는 독일에 있는 미군 점령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권을 유지하려고 했으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또한 루즈벨트에게 러시아를 포함한 10여개 유럽 국가들이 독일과의 경제 교류를 유지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즉 스팀슨은 전후 독일인을 궁지로 몰아넣는 것은 결국 연합국에 대한 반감만을 초래할 것이므로 독일에 대해서는 비교적 온화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 책을 처음 번역한 기요사와 키요시는 일본의 언론인으로 외교와 현대사에 해박했다고 한다. 스스로 자유주의를 표방했다는 점에서, 기요사와가 스팀슨의 책을 번역한 것은 일본의 군사적 확장을 경고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추측된다. 또 다른 번역자인 스즈키 토민 역시 일본의 언론인이자 노동운동가로 알려져 있다.

서명	근대지나외교사론(近代支那外交史論)
편 · 저자	王正廷 (왕정정) 저, 竹內克己 (다케우치 카츠코) 역
발간 연도	1929
발행 사항	東京: 中日文化協會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710 28)
비고	

『근대지나외교사론(近代支那外交史論)』은 민국시기 외교가인 왕정정(王正廷, 1882-1961)이 1928년에 저술한 『중국근대외교사개요(中國近代外交史概要)』(外交研究社, 1928)을 다케우치 카츠코(竹內克己, 1890-1973)가 번역하여 1929년에 일본 중일문화협회(中日文化協會)에서 출간되었다. 이 책은 청말의 외교를 실패로 규정하면서 중국은 이미 세계 외교에 포함되는 등 국제 환경의 변화 속에 있으므로 중국이 국제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외교는 공도(公道)의 길을 걸었으며, 국제연맹과 워싱턴 회의를 통해 중국의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왕정정은 국제관계라는 것은 무력을 비롯한 실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으로, 약한 나라는 곧 외교를 할 수 없으므로 국가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우선임을 밝히며 외교의 중대함을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의 구성은 청말 국제관계의 기원에 대해 다루면서, 러시아, 스페인, 영국, 일본과의 국제관계와 아편전쟁, 청일전쟁, 러일전쟁, 파리평화회의, 워싱턴 회의 등 중국과 관련된 중요 국제 사안을 다루고 있다. 특히 왕정정은 육징상(陸徵祥)이 이끈 파리평화회의에서 남경국민정부 대표로 참여한 바 있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협상과 동아시아 문제를 소상히 알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20세기 초 중국의 국제 외교 및 불평등 조약 개정 및 관세·조차 문제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 책의 저자인 왕정정은 중화민국의 정치가이자 외교관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미국에서 국제법을 공부한 경험이 있어 주로 미국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1919년에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교섭을 위해 파리 평화회의가 개최되자 육징상, 고유균 등에 이어 중국대표단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북양정부와 남경국민정부가 연합하여 구성된 중국대표단은 국내의 정치적 문제와 평화 회의 서명 여부를 두고 내홍이 있었으며, 당시 왕정정은 남경국민정부를 대표해서 서명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여기에 중국에서 중일민사조약(中日民四條約)에 반대하여 5·4운동이 일어났으며, 중국대표단은 결국 베르사유 조약에 서명을 거부하게 되었다. 결국 파리평화회의에서 중국의 희망 조건을 달성되지 못했으나 이후 워싱턴 조약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왕정정은 파리에서 귀국 직후, 국민 정부내 갈등으로 하야했으나 이후 북경 중국대학교 교장, 헤이그 상설중재법원의 중재원 등으로 활약했다. 이후 왕대섭(汪大燮) 정권하에서 외교총장과 국무총리를 역임하기도 하였으며, 19520년대 중소교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기도 하였다. 이 책을 번역한 다케우치 카츠코는 언론인 출신 정치인으로 중의원 의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서명	선린국보기(善隣國寶記)
편 · 저자	瑞渓周鳳 (즈이케이 슈보)
발간 연도	1466
발행 사항	비매품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710 4)
비고	

『선린보국기(善隣國寶記)』는 일본 무로마치 막부 시기 교토 상국사(相國寺)의 승려 즈이케이 슈보(瑞渓周鳳, 1392-1473)가 집필한 대외관계 서적이다. 이 책은 일본 최초의 대외관계 서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책의 서문에는 분쇼 원년(1466)의 연호가 있고 책의 마지막 장에는 분메이 2년(1470)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걸쳐 저술된 것으로 추정되나, 책의 문서 일부는 분메이 18년(1486)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 즈이케이 슈보 사후에 다시 가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선린국보기』는 무로마치 막부의 제 8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타카로부터 명나라와의 외교문서 작성을 명 받은 즈이케이 슈보가 당시 작성한 문서를 편집하여 저술한 것이다. 책의 내용은 주로 무로마치 막부 3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満)의 대명(對明) 외교와 조공 수락을 비난하고 있다. 이 책은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상권(上卷)」에는 기원후 58년부터 1392년까지 중국과 조선의 관계를 승려의 왕래를 중심으로 하여 편년체로 기록하고 있다. 「중권(中卷)」은 1398년부터 1475년까지 주로 명과 조선으로부터 받은 외교문서를 기록하고 있으며, 「하권(下卷)」은 1433년부터 1486년까지 외국에서 받은 외교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저자인 즈이케이 슈보는 무로마치 시대 중기의 임제종 몽창파(臨済宗夢窓派) 계열의 승려로 이즈미국(和泉國) 출신으로 속세에 있을 때 성은 오토모(大伴)라고 한다. 와운산인(臥雲山人)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당시 쇼군이었던 아시카가 요시노리(足利義教)를 접견하기도 했다. 에이쿄(永亨) 8년(1436)과 9년(1437)에 산성국 경덕사(山城國景徳寺)와 등지사(等持寺)의 주지로 임명되었으며, 에이쿄의 난 이후에는 쇼군의 명을 받아 사후 교섭과 처리를 위해 관동(關東) 지역으로 파견되기도 했다. 이후에도 무로마치 막부 8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타카(足利義政)로부터 문필의 재능을 인정받아 막부에서 외교문서 작성을 맡았으며, 이때 『선린국보기』를 작성하였다.

서명	사이관고(四夷館考)
편 · 저자	羅振玉 (라진옥) 편
발간 연도	1924
발행 사항	上海: 東方學會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710 61)
비고	

『사이관고(四夷館考)』는 중국 명대(明代) 동이(東夷)·서융(西戎)·남만(南蠻)·북적(北狄)을 다룬 서적으로 사이관(四夷館)에서 간행하였다. 명 영락(永樂) 5년(1407)에 설치된 사이관(四夷館)은 주변 국가 및 민족과 관련된 문서를 번역하는 기구로 본래 한림원(翰林院)에 소속되어 있다가 이후 홍치(弘治) 7년(1494)에 태상소경이 관리하게 되어 태상사(太常寺) 관할이 되었다. 사이관이 처음 설치된 이후에는 몽골(蒙古)·여진(女眞)·서번(西番)·서천(西天)·회회(回回)·백이(百夷)·고창(高昌)·면전(緬甸)의 8개 관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주변 국가 및 민족의 언어를 통·번역하는 학생을 양성하였다. 그리고 명 정덕(正德帝) 시기에 사이관은 팔백관(八百館)으로 증설되었으며, 명 만력제(萬曆帝)에는 섬라(暹羅)가 추가되었다. 사이관에서는 당시 주변 국가와 민족의 기록을 조사·수집하여 각 민족의 역사, 지형, 문화, 경제, 풍속, 문자 등을 기록하여 이 『사이관고』을 간행하였다. 청대에도 사이관은 사역관(四譯館)으로 변경되어 명맥을 유지하였으며, 명대 초기와 마찬가지로 팔관(八館) 체제로 운영되었다. 건륭 13년에 사역관은 예부(禮部) 관할이 되었으며, 명칭 역시 회동사역관(會同四譯館)으로 변경되어 서역(西域)과 백이(百夷)를 이관(二館) 체제로 유지되었다. 다만, 청대 사역관의 경우에는 여진(女眞)과 달단(韃靼)은 없어졌다.

『사이관고』는 민국시기 '갑골사당(甲骨四堂)' 중 한 사람이자 고고학 및 문헌학으로 높은 명성을 가진 라진옥(羅振玉, 1866-1940)이 이를 다시 편집하여 동방학회(東方學會)의 『동방학총서초집(東方學叢書初集)』에 수록하였다. 라진옥은 돈황(燉煌) 연구를 비롯하여 목간(木簡), 명청시대 문헌을 수집하고 연구하여 『사이관고』를 정리한 것 이외에도 『돈황석실유서(敦煌石室遺書)』·『일적총잔초편(佚籍叢殘初編)』·『과사조씨연표(瓜沙曹氏年表)』 등을 편저하기도 했다.

서명	외교문독(外交文牘)
편 · 저자	中華民國 外交部 (중화민국 외교부) 편
발간 연도	1921-1927
발행 사항	北京: 中華民國 外交部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700 42)
비고	

『외교문독(外交文牘)』은 1921-1927년 동안 중화민국 외교부에서 간행한 대외관계 관련 참고자료로 제1차 세계대전 전후 중화민국의 외교 현안에 관한 외교문서, 관련 공문 등 수록하고 있다. 원문 필사본의 경우에는 중국어와 영어 대조문이 있어 제1차 세계대전 전후 동아시아 외교관계에 대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도가 높다. 이 책은 1부 「중일 해결 산동현안 임시회의록(中日解決山東懸案臨時會議錄(第1-2卷))」, 2부 「참전안(參戰案(1冊))」, 3부 「수개세칙안(修改稅則案(1冊))」, 4부 「복주 일중인민 투구안(福州日中人民鬪毆案(1冊))」, 5부 「화성돈[워싱턴] 회의록(華盛頓會議錄(第1-2))」 등, 총 9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청도(靑島) 조차지, 제순(濟高)-서고(徐高) 철도, 니시하라 차관(西原借款)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2부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중국의 참전 및 이공대병(以工代兵) 정책과 관련한 문서를 수록하고 있다. 3부에서는 이전 청과 서구 국가 간의 관세 불평등의 개정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4부에서는 1919년 중국 복주(福州)에서 발생한 반일 민중 시위와 일본인 사상자 문제(福州慘案, 台江事件)를 다루고 있다. 5부는 1921-1922년 워싱턴 회의(The Washington Naval Conference; The Washington Arms Conference; the Washington Disarmament Conference)에서의 중국대표단과 관련된 문서를 수록하고 있다. 러시아를 제외한 미국, 프랑스, 일본, 중화민국, 영국,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 9개국이 참가한 이 회의에서 중국은 주권, 독립에 대한 인정과 이권 회복할 수 있었다. 이 회의에서 중국은 청도 조차 문제 등이 얽혀 있던, 이전 1919년 파리 평화 회의에서와는 달리 제1차 세계대전 이전 독일이 산동 반도에서 가지고 있던 권익을 일본이 아닌 중국에 반환한다는 점을 결정한 것에서 의의가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중국의 조차 및 이권 문제에 관해 파리 평화 회의에서의 외교적 실패를 제외하고 워싱턴 회의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중화민국 외교 성과를 알리는 홍보로서의 성격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서명	시모노세키 춘범루에서의 두 영웅의 회견(下關春帆樓に於ける兩雄の會見)
편 · 저자	明治史籍研究會 (명치사적연구회) 편
발간 연도	1925
발행 사항	福岡: 明治史籍研究會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710 218)
비고	

『시모노세키 춘범루에서의 두 영웅의 회견(下關春帆樓に於ける兩雄の會見)』는 1925년(大正 14년) 명치사적연구회(明治史籍研究會)가 간행한 책으로 1895년 청일전쟁 이듬해 청과 일본의 강

화 협상과 그 시말을 담고 있다. 당시 일본 시모노세키 춘범루(下關春帆樓)에서 청나라 전권대신 이홍장(李鴻章)과 일본 측 대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협상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이 협상에는 총 다섯 차례 회담이 있었으며, 회의 도중에 있었던 이홍장에 대한 암살 시도, 강화 협상에 대한 청일 양측의 내막,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이후의 결과 등에 대해 상세하게 논의하고 있다. 이 책은 중국어 원문(이홍장의 발언)에 대한 일본어 번역문을 포함하여 이홍장과 이토 히로부미의 대화록도 수록되어 있어 시모노세키 회담의 시말을 소상히 설명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아울러 일본의 입장에서 청일전쟁의 강화 회담과 전후처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일전쟁 전후 일본의 협상 태도를 알 수 있는 단서를 제시해주고 있다.

1894년 청나라와 일본 양국은 조선의 동학당이 일으킨 내란을 빌미로 조선에서 전쟁을 벌였으며, 1894년 말 청군의 패색이 짙어지자 1895년 2월 북양아문대신 이홍장을 일본에 파견해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 외무대신 무쓰 무네미쓰(陸奥宗光)와 강화 협상을 진행하였다. 협상의 결과, 양국 간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었으며, 청은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고 요동 반도와 대만 및 그 부속 섬 전체를 일본에 양도, 그리고 2억 량(兩)의 배상금 지급을 골자로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조약에 대해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이권을 지키고자 했던 러시아, 독일, 프랑스는 이른바 삼국간섭으로 산동반동의 할양 등 협정의 이행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일본은 대만은 그대로 할양받는 대신 청나라에 요동(遼東) 반도를 반환하였다.

⑶ 서구 한국학

서명	Korean speech: with grammar and vocabulary
편 · 저자	Ross, John (존 로스)
발간 연도	1882
발행 사항	Shanghai: Kelly & Walsh
청구기호	구장본 서양서 (G160 2)
비고	

스코틀랜드 출신의 장로교 선교사 존 로스(John Ross)가 집필한 한국어 학습서. 저자 존 로스는 글래스고대학교와 에든버러의 신학교에서 수학한 뒤, 1872년 중국 선교사로 만주에 파견되었다. 당시 조선은 선교사의 입국을 금지하였으나, 접경지에서 조선 상인들을 접하면서 신약성경의 한국어 번역을 장기적인 목표로 삼게 되었다고 한다. 의주 출신 행상인 이응찬의 도움으로 한국어를 습득한 로스는 1877년 그의 첫 한국어 학습서인 Corean Primer를 중국 상하이에서 발행하였다. 1882년에 출간된 본 도서는 Corean Primer의 문법과 회화를 재구성한 것으로, 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표지에 'New Edition'이라고 표기하였다.

책은 크게 「서문(Preface)」과 「색인(Index)」, 「문법(Grammar)」, 그리고 총 30과의 「회화부」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과 목차 뒤에는 한글의 자모와 발음법을 표기하였으며, 책 전체에 걸쳐서 유럽의 로마자 사용 방식에 따라 한국어 텍스트를 음역하였다. 문법 부분은 '명사'와 '동사'로 구성되었는데, '명사'에서는 '명사에 붙는 어미(Noun ending)'를 중심으로 '주격(Nominative), 소유격(Possessive), 목적격(Objective), 호격(Vocative), 대격(Accusative), 탈격(Ablative)13)'의 6격을 설정하고, '형용사(Adiective)', '대명사(Pronoun)', '의문 대명사(Interrog P.)', '관계 대명사(Rel. P.)', '비인칭 대명사(Impers. P.)', '지시 대명사(Demonst. P.)'를 포함하여 서술하였다. 또, '동사(Verbs)'에서는 기본적으로 시제(tense)를 중심으로 '현재(Present), 과거(Past), 미래(Future)'를 설정하고, 종결된 동사에 부여된 '종결 종지법(terminal functuation)'이 의미를 표시한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서술법(Indicative Mood)'에서는 '현재', '완료', '미래 불확정', '미래 확정'으로 시제를 구분하고, 이를 '단언(affirmative)'과 '의문(interrogative)'으로 나눈 뒤, 인칭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회화부」는 일상생활 관련 주제를 다룬 28개 과와 윤리 및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2개 과를 합쳐 총 30가지의 주제의 예문을 포함하고 있다.

저자 존 로스는 주로 한중 접경지에서 거주하는 조선인들을 접하면서 한국어를 익혔기 때문에, 학습서임에도 평안도 방언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에 학계에서는 19세기 중·후반의 평안도 방언을 연구하는 데에 좋은 자료로 평가된다. 현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열람할 수 있다.

서명	On the Corean, A□no and Fusang writings
편 · 저자	Lacouperie, Albert Terrien de (알버트 라쿠페리에)
발간 연도	1892
발행 사항	경성: 경성제국대학교(비매품)
청구기호	구장본 서양서 (G160 3)
비고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발행 사항이 '[n.p.]: [n.p.]' 로 표기되어 있음. ○ 학술지 『통보』에 수록된 논문을 발췌제본한 것이므로 발행 사항은 경성제국대학교로 표기함.

유럽에서 발행된 중국학 저널 『통보(T'Oung Pao)』 제3권 449-465쪽에 수록된 중국학자 알버트 라쿠페리에(Albert Terrien de Lacouperie)의 논문을 발췌·제본한 책자. 해당 논문이 게재되었던 동양학 학술지 『통보』는 1890년 네덜란드 라이덴에서 창간되었으며, E. J. Brill 출판사에서 발행하였다. 이 학술지는 프랑스 출신과 네덜러드 출신 동양학자가 공동으로 편집을 담당한다는 초기 방침에 따라 구스타프 슐레겔(Gustaaf Schlegel)과 앙리 꼬르디에(Henri Cordier)가 초대 에디터를 역임하였다.

본 논문의 저자인 라쿠페리에는 프랑스 출신 동양학자로 1884년에 런던대학교 교수로 부임하였으며, '시노 바빌로니아니즘(Sino-Babylonianism)' 즉, 중국 고대 문명의 서구 기원설을 주장하는 연구로 널리 알려져 있다. 본 논문은 한국어의 음절 문자 체계가 374년에 정립되었다는 독일 출신 동양학자 하인리히 클라프로트(Heinrich Julius Klaproth)의 견해가 오류임을 지적하여 주목을 받았다. 저자에 따르면, 한국의 문자는 불교가 중국에서 전래된 이후인 7세기에 설총에의
해 만들어졌으며, 15세기에 언문 체계가 정립되어 이후 18세기까지 발전을 거듭하였다고 한다. 저자는 또, 25개로 구성된 한글 자모는 불교 순례자들에 의해 7세기 인도-티벳트 지방에서 유래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아울러, 아이누 문자 중에 한국어 문자와 유사한 표기가 있으므로 한국어 문자의 성립 시기를 5세기 말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해당 표기는 문자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하였다.

약 18쪽에 달하는 비교적 짧은 논문이지만, 클라포르트 뿐만 아니라 슐레겔, 레옹 드 로니(Leon de Rosny) 등 아시아의 언어·문자의 체계와 계통을 밝히려는 19세기 유럽 동양학 연구자들의 다양한 학술적 견해를 본문과 각주에서 소개하고, 그에 관한 저자 자신의 견해도 밝히고 있다. 언어학 중심의 동양학 연구는 18세기에 시작된 인류 문명의 기원론에서 전승된 학적전통으로, 언어 및 문자의 계통에 관한 19세기 동양학계의 연구 경향과 학술 네트워크는 근래에도 주목받는 연구 주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 역시 19세기 유럽 동양학계의 언어·문명 연구의 흐름과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이 수록된 저널 『통보』는 현재 학술 데이터베이스 Jsto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서명	A Corean manual or phrase book
편 · 저자	Scott, James (제임스 스콧)
발간 연도	1893
발행 사항	Seoul: English Church Mission Press
청구기호	구장본 서양서 (G160 5)
비고	

저자인 제임스 스콧(James Scott)은 영국 출신 외교관으로 1884년 한국 주재 영국 부영사로 부임하여 인천에서 근무한 바 있다. 본 도서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데 유용하게 참고할 만한 도서가 많지 않았던 시기에 저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한국어 회화 학습서이다. 초판은 1887년 중국 상하이에서 출판되었는데, 소장본은 1893년 서울에서 출간된 수정판이며 이를 나타내기 위해 표지에 'Second Edition'이라고 명기하였다. 출판사인 성공회 출판부(English Church Mission Press)는 영국 성공회 선교부를 이끌던 코르프(Charles John Corfe) 주교가 1889년 서울 낙동에 설립한 곳이었는데, 당시 배재학당 내에 설립되었던 미 감리교 선교부의 삼문출판사(The Trilingual Press)와 함께 영어와 한문, 한글 세 가지 언어로 출판이 가능한 인쇄소였다.

본 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반부에서는 문법을, 후반부에서는 회화를 다룬다. 전반부의 '소리(sounds)' 장에서는 한글 자모를 발음 기호와 함께 소개하고, '발음(pronunciation)' 장에서는 각 자모가 포함된 단어의 예를 발음 및 단어의 의미를 기술하였다. 이후 명사, 형용사, 대명사, 동사, 부사, 후치사, 접속사 등에 속하는 단어의 예시와 각 품사의 문법적인 특징을 설명하였다. 후반부는 40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제에 맞는 한글 문장이 큰 글자로 표기되어 있고, 문장 하단에 작은 알파벳 활자로 발음을 표기하였으며, 다시 그 아래에 작은 활자로 각 단어에 대응되는 영어 단어를 표기하고, 맨 마지막 줄에는 괄호 속에 대역(對譯) 영어 문장을 기술하였다.

서문에 따르면, 저자는 독자가 문법보다는 회화를 익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이 책을 집필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전반부에서 품사별 문법을 설명하는 데에도 많은 분량이 할애되었다. 또한, 저자는 상하이에서 출간된 초판본에서도 회화 부분의 문장이 호평을 받았음을 언급하면서, 수정판에서는 이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부 수정을 가했다고 밝혔다. 회화 부분은 대화보다는 단문 중심의 문장 나열이 많은 것이 특징이지만, 다양한 구어 문장이 수록되어 있어 당시의 구어를 연구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에도 적합하다.

저자는 초판본 서문에서 문법 부분은 존 로스(John Ross)와 펠릭스 클레르 리델(Félix-Clair Ridel)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밝히면서, 파리외방전교회의 사제들과 로스 선교사에게 직접 감사를 표하였다. 수정판 서문에서는 파리외방전교회에서 출간한 사전과 문법 교본을 참고하여 회화를 위한 기초 문법을 집필하였다고 밝혔다. 또, 수정판의 출간에 조언과 도움을 준 성공회 조선교구의 트롤로프(Mark Napier Trollope) 사제와 코르프 주교에게도 감사를 표하였다. 현재 Hathi trust에서 수정판 전문을 열람할 수 있다.

서명	Remarks on the Korean language
편 · 저자	Ramstedt, Gustaf John (구스타브 람스테트)
발간 연도	1928
발행 사항	경성: 경성제국대학교(비매품)
청구기호	구장본 서양서 (G160 6)
비고	◦ 발행 사항이 'Helsinki: [n.p.]'로 표기 되어있음 ◦ Mémories de la Société Finno-Ougrienne 제58호에 수록된 논문을 발췌·제본한 책자이므로 '경성제국대학교'로 표기하였음

핀란드 출신의 언어학 연구자 구스타브 람스테트(Gustaf John Ramstedt)가 1928년 저널 Mémories de la Société Finno-Ougrienne 제58호에 발표했던 논문을 발췌·제본한 책자. 본 논문이 수록된 저널은 판란드 헬싱키의 Finno-Ugrian Society에서 발행하였다. 본 논문은 비교언어학적 방법론에 따라 한국어와 우랄 알타이어의 유형적 유사성을 밝힌 연구이다. 저자는 핀란드의 외교학자이자 언어학자로 헬싱키대학교에서 우랄어족에 속하는 언어를 배우고, 이후 몽골, 동튀르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아시아 지역의 학술 탐험대에 참가해 알타이 민족의 언어를 연구하였다. 저자는 특히 알타이어족에 관한 비교연구로 잘 알려져 있는데, 한국어를 알타이어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저자의 주장이 본 논문에 잘 담겨있다.

한국어와 우랄-알타이어 간의 유사성은 19세기부터 한국을 연구하던 달레(Claude-Charles Dallet)나 로스(John Ross), 로니(Leon de Rosny) 등이 주장해왔으나, 당시 이들의 주장은 문자에 대한 외견상의 관찰에 따른 견해였을 뿐, 언어학적인 비교에 기반한 학설은 아니었다. 그런데 본 논문의 저자인 람스테트는 외견상의 유형적 유사성이나 발음이 비슷한 낱말을 나열하기보다는, 음운과 형태의 측면에서 음운대응과 문법 형태소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어와 알타이제어 간의 친연성을 과학적으로 논증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저자는 한국어를 규정하는 세 가지 요소로 전승된 구어와 문법, 중국어로부터 차용된 단어와 표현, 그리고 음운의 형태를 꼽았다. 이들 중에서 저자는 비교연구의 가치가 가장 높은 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구어인데 중국 문화의 유입으로 그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보았으며, 그로 인해 독자적인 언어 발전이 저해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논문은 총 12쪽 분량으로 길지 않으며, 영문으로 작성되었다. 서구 동양학계에서는 본 논문이 저자가 이후 1949년에 출간한 Studies in Korean Etymology의 출발점이 된 연구이자 한국어와 알타이제어와의 언어학적 비교연구에서도 선구적인 위치에 있는 연구라는 평가를 받았다. 첫 면 상단에는 본 논문이 수록된 저널의 소장처로 추정되는 대학 도서관 두 곳(경성제국대학 외 불명)이 불어 필기체로 표기되어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열람할 수 있다.

서명	Translation of a comparative vocabulary of the Chinese, Corean, and Japanese languages
편 · 저자	Medhurst, Walter H. (월터 메드허스트) 저, Gütalaff, Karl F. (칼 귀출라프) 편
발간 연도	1835
발행 사항	Batavia: Parapattan Press
청구기호	구장본 서양서 (貴 G162 2)
비고	저자가 'Philo Sinensis' 라고 표기되어 있음

1835년 바타비아에서 출간된 대역 어휘집. 부제를 포함한 제목은 Translation of a comparative vocabulary of the Chinese, Corean, and Japanese languages: to which is added The thousand character classic, in Chinese and Corean이다. 저자는 'Philo Sinensis' 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프러시아의 포메라니아 출신 선교사 칼 귀출라프(Karl F. Gütalaff)의 필명으로 알려져 있다. 또, 본 도서는 편찬자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는 않으나, 조사에 따르면 영국 출신 선교사 월터 메드허스트(Walter H. Medhurst)가 편찬하였다고 한다. 'Philo Sinensis'는 본래 메드허스트의 필명으로 알려졌으나, 근래 연구에서는 귀출라프의 필명으로 밝혀졌다. 두 사람은 1820년대에는 바타비아에서, 그리고 1830년대에는 중국 광저우 지방을 근거지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인연을 맺고 교류하게 되었다. 메드허스트는 1830년대 초에 중국에서 발행되는 영문 정기간행물 The Chinese Repository 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어・한국어・일본어 비교 어휘집을 편찬하고자 하는 뜻을 드러내면서 동시기에 귀출라프가 발표한 영어로 된 한글 자모표를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소장본 제일 앞에는 영어 발음이 표기된 한글 자모표가 수록되어 있으며, 곧이어 별도의 제목이 없는 서문이 있다. 서문에 따르면 어휘집의 편찬 목적은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서양인을 돕기 위함에 있었다. 책은 크게 한자를 매개로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부분과 영어 단어에 대응하는 한국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뉘는데, 영어-한국어 대역 어휘집 부분은 서양서처럼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읽는 방식이며, 한자를 매개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부분은 동양서처럼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읽도록 하여서 별도의 앞・뒤 표지 없이 속표지로 이를 구분하도록 하였다. 뒷부분은 속표지에 제목을 '조선위국자휘(朝鮮偉國字彙)'라고 표기하였다. 또, 「왜어유해(倭語類解)」와 「조선천자문(朝鮮千字文)」을 수록하고 그에 대한 한국어 훈과 음, 영어 번역을 표기하였다. 또, 「왜어유해」의 경우에는 일본어의 한글 발음도 표기하였다. 영어-한국어 대역 어휘집 부분은 영문 색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약 5,400개의 영어 단어를 표제어로 하여 그에 대응하는 한국어 단어를 제시하고 해당 단어가 나오는 페이지 수와 행수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여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편찬자인 메드허스트나 저자 귀출라프가 직접 어휘를 수집한 것은 아니며 기존의 어휘집을

번역한 도서인데, 방대한 분량의 단어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를 사용하는 독자를 상정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해당 어휘집이 출간된 시기와 지역을 고려할 때, 중국어나 일본어를 어느 정도 습득한 선교사・외교관 등을 학습 대상으로 상정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즉, 이 책은 일반적인 영어 사용자보다는 중국어와 문화에 익숙한 서양인의 한국어 학습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목적에 따라 편찬된 어휘집인 것이다. 한국어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던 시기에 편찬된 도서임에도 방대한 분량의 어휘와 색인을 포함한 만큼 19세기 중후반 이후 한국어
에 관심을 가졌던 다른 서양인들의 사전 및 학습서 편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대 소장본의 영문 속표지에는 ‘S. C. Malan/ from the author’라는 수기가 있는데, 저자가 동양학자인 솔로몬 말란(Solomon C. Malan)에게 증정한 도서가 소장본으로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영문 색인 부분에서 마지막 두 페이지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서명	韓英大字典 = The unabridged Korean-English dictionary
편 · 저자	Gale, James S. (제임스 게일)
발간 연도	1931
발행 사항	京城: 朝鮮耶蘇教書會
청구기호	구장본 서양서 (G162 3)
비고	촬영을 추천함.

캐나다 출신 장로교 선교사 제임스 게일(James S. Gale)이 편찬한 한국어-영어 이중언어 사전. 현재 소장본은 1931년에 출간된 제3판으로, 1911년에 출간된 『한영자전』 제2판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초판은 1897년 요코하마 Kelly & Walsh 출판사에서 인쇄한 『한영ㅈ뎐』(韓英字典, A Korean-English Dictionary)이며, 제2판은 조선야소교서회(朝鮮耶蘇教書會)에서 발행하고 요코하마 The Fukuin Printing Co., L't.에서 인쇄하였다. 현재 소장본인 제3판은 조선야소교서회에서 발행하고 중앙기독청년회(현 서울 YMCA)에서 인쇄하였다. 제3판은 총 1797쪽에 달하는데 그중 서문이 16쪽이며, 나머지 1781쪽이 사전에 해당하는 본문이다. 저자인 게일은 제2판이 출간된 이후에도 제3판 개정을 준비하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1928년에 은퇴한 이후 영국으로 가면서 별도의 출간 계획이 잡히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요코하마에 보관 중이던 제2판의 연판(鉛版)이 1923년에 발생한 관동대지진으로 소실됨에 따라 조선야소교서회에서 제3판의 출간을 기획하게 되었다. 이에 제3판의 개정 및 증보 작업은 한국에서 활동하며 구약성경을 번역하기도 한 있는 피터스 목사(Alexander Albert Pieters)가 담당하였다고 한다. 현재의 소장본인 제3판에는 게일이 1927년에 작성한 서문과 초판의 서문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제3판에는 약 8만 개 이상의 어휘가 수록되어 있는데, 저자 서문에 따르면 제2판에 수록되었던 인명·지명 등은 삭제하고 각종 문헌에 실린 35,000여 개의 새로운 어휘를 추가하였다고 한다. 국문학계에서는 1945년 이전에 출판된 한국어 대역사전 중 낱말 수집과 정리가 가장 체계적인 사전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주로 서양인들의 한국어 학습을 위한 것이나 대역사전이기 때문에 거꾸로 영어를 배우는 한국인들에게도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기독교사 연구 분야에서도 개신교 초기 성서 번역 과정에서도 해당 사전이 중요한 역할을 한 사전이라는 평가가 있다. 현재 국립한글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제3판의 서문과 본문 일부만 열람할 수 있다.

서명	韓英字典 = 한영자뎐: A Concise 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 in two parts: Korean-English & English-Korean
편 · 저자	Underwood, Horace G. (호레이스 언더우드), Hulbert, Holmer B. (호머 헐버트), Gale, James S. (제임스 게일)
발간 연도	1890
발행 사항	Yokohama: Kelly & Walsh
청구기호	구장본 서양서 (G162 9a)
비고	

재한 선교사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가 호머 헐버트(Holmer B. Hulbert), 제임스 게일(James S. Gale) 등과 함께 한국어를 편찬한 한영·영한사전. 1890년 일본 요코하마의 Kelly & Walsh 출판사에서 발행하였고, 같은 곳에 소재한 세이시분샤(Seishi Bunsha, 製紙分社)에서 인쇄하였다. 제1권(Vol.Ⅰ)은 'A Korean-English'로 한영사전이며, 제2권(Vol.Ⅱ)은 영한사전인 'An English-Korean' 으로 각각 내용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1889년 11월에 작성된 서문에 따르면, 본 사전의 편찬 동기는 영어로 된 한국어 사전이 없다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주 저자인 언더우드는 한국에 온 이후 약 5년 동안 한국어 단어를 수집하여 영어로 대역하였으며, 게일은 한영사전을, 헐버트는 영한사전을 편찬하는 작업에 참여하였다. 맞춤법은 『전운옥편(全韻玉篇)』의 철자법을 따랐으며, 자모의 배열은 프랑스 선교사들이 편찬한 『한불자전(한불ᄌᆞ뎐)』(1880)의 것을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또, 한자어는 중국에서 활동한 선교사 윌리암스(Samuel Wells Williams)의 『중국어음절사전(Syllabic Dictionary of the Chinese Language)』의 것을 비교, 채택하였고 한국 고유의 단어는 엄격한 검증과정을 통해 채집하였다고 한다. 또, 한국인으로는 천주교인이자 언더우드의 한국어 교사로 알려진 송순용(宋淳容)이라는 인물의 도움이 컸다고 하는데, 해당 인물은 언더우드의 『한영문법』(1890) 편찬도 조력하였다. 또, 송순용은 갑오개혁 이후 학부(學部) 내에 설치된 국문연구소 국문연구위원으로 임명되기도 하였다.

서문 다음에는 「언문ᄎᆞ례」, 「받침ᄎᆞ례」, 「글자고뎌법」 등 한글로 된 설명문이 2면에 걸쳐 제시되어 있는데 서문의 내용과 큰 차이는 없다. 제1권 한영사전의 마지막 부분에는 수사를 고유어와 한자어에 걸쳐 제시하였고, 이어서 수명사(Specific classifiers), 화폐단위 이름, 날, 달, 주일 등이 명칭이 수록되어 있다. 제2권 영한사전은 먼저 영어 단어와 그 문법적 특성을 서술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한국 단어를 대역하였다.

본 사전의 「한영사전」 부분을 통해서는 출간 당시 한국인들의 구어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간 시점에서는 언더우드가 이후 문법서를 발행하기 위한 구어 층위를 확정시

켜 주었고 나아가 향후 성서 번역 작업을 위한 토대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또, 「영한사전」의 경우 한문 문어가 제공해준 어휘들과 다른 층위로서 서구적 개념어에 대한 역어들이 한글 문어에 재편되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자료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2권에 해당하는 「영한사전」 부분과 제1권과 2권을 합본한 '학생판(student edition)' 전문을 열람할 수 있으며, Internet Archive(https://archive.org)에서는 학생판 전문을 열람할 수 있다.

서명	English-Corean dictionary: being a vocabulary of Corean colloquial words in common use
편 · 저자	Scott, James (제임스 스콧)
발간 연도	1891
발행 사항	Corea: Church of England Mission Press
청구기호	구장본 서양서 (G162 10)
비고	촬영 추천함

영국 출신 외교관 제임스 스코트(James Scott)가 편찬한 영한대역사전. 1891년에 성공회 출판부(Church of England Mission press)에서 발행하였으며, 언더우드의 『영한사전』(1890)에 이어 출간된 두 번째 영한사전이다. 본 도서를 발행한 성공회 출판부는 서울 낙동에 자리했던 활판소로 배재학당 내에 설치된 감리교회의 삼문출판사(The Trilingual Press)와 더불어 영어와 한문, 한글 세 가지 언어로 인쇄 출판이 가능한 곳이었으며, 활자도 자체 개발하여 일본에서 주조한 것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자는 1884년부터 1892년까지 애스턴(William G. Aston)과 더불어 인천 부영사로 조선에 체류하였는데, 서양인으로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데에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바탕으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서 및 사전의 출간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한다. 본 사전은 그가 1887년에 편찬·출간한 『언문말칙(A Corean Manual or Phrase Book with Introductory Grammar)』의 후속 작업이자 자매 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저자가 편찬한 한국어 학습 시리즈의 전편에 해당하는 『언문말칙』은 한국인과의 대화를 위한 회화 학습서였지만 전반부에서 한국어 문법을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었다. 본 도서 역시 본질은 사전이지만, 한국어에 관한 대략적인 소개와 문법 등이 정리되어 있다. 총 384쪽에 달하는 분량인데, 그중 26쪽은 서문과 한국어 소개에 할애하였다. 서문에서는 사전 편찬의 어려움, 그리고 편찬 방법 등에 관해 기술하였다. 이어지는 한국어 소개 부분은 한국인의 문자 생활에 대한 역사적 개관, 자음·모음·이중모음 등의 음운론과 동사·형용사 등의 문법 및 한국어의 언어학적 계통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사전은 1880년에 출간된 프랑스 선교사들의 『한불ᄌᆞ뎐』, 1890년에 출간된 언더우드의 『한영자뎐』과 더불어 게일이 1897년에 편찬·출간한 『한영ᄌᆞ뎐(Korean-English Dictionary)』의 기초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온라인으로 Hathi trust에서 전문을 열람할 수 있지만, 서문과 한국어 소개 부분 일부가 누락된 상태이다.

서명	A comparative grammar of the Korean language and the Dravidian Dialects of India
편 · 저자	Hulbert, Holmer B. (호머 헐버트)
발간 연도	1905
발행 사항	Seoul: Methodist Publishing House
청구기호	구장본 서양서 (G163 4)
비고	

재한 선교사 호머 헐버트(Homer B. Hulbert)가 1905년에 펴낸 한국어 연구서.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한국어의 계통을 밝히기 위한 연구 중 하나로, 저자가 관립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시기에 출간되었다. 책을 발행한 감리교출판사는 배재학당 내에 설립되었던 삼문출판사(The Trilingual Press)가 1900년 이름을 바꾼 곳이며, 1890년대에는 헐버트 자신이 출판사 책임자를 지내기도 하였다.

저자는 1887년 한국에 입국한 미국 출신 감리교 선교사로, 미국에서 다트머스대학교를 졸업한 후 유니언 신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던 중 1884년 무렵 조선 파견을 제안받은 이후부터 조선과 동아시아에 관한 공부를 시작했다고 한다. 헐버트는 선교사이자 역사학자, 7개 언어를 구사하는 언어학자, 교육자, 언론인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한국어 연구와 보급을 장려한 한글학자이기도 했다. 본 도서가 출간된 1900년대 초반은 저자 헐버트가 한국에 관한 저술 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하던 시기였다. 비록 언어 연구가 헐버트의 한국 연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아니었지만, 한국 입국 초기에는 언더우드의 사전 편찬작업에 참여한 바도 있으며, 이두 관련 논문이나 한글의 우수성을 피력한 보고서 등을 발표한 일도 있었다.

저자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연구라는 맥락 속에서 한국어의 계통 연구에 착수하였지만, 전문적인 언어학의 이론적 토대를 갖춘 연구자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비교언어학의 초창기에 활발히 활용되었던 공통 특징론을 연구에 적용, 한국어와 드라비다어의 자모 체계에서 나타나는 유사성에 주목하였으며, 문법체계와 음운 어휘 간의 비교 또한 시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저자는 한국어와 인도의 드리비드어와의 비교를 통해 두 언어가 음운 및 어간, 명사의 성과 활용체계 등의 부분에서 많은 유사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기원이 같다는 '남방기원설(일본·대만·말레이 등의 언어들과 더불어 인도의 드리비드어에서 유래되었다는 가설)'을 주장하였다. 국내에서도 아직 한글과 한국어에 관한 학술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시기에 생산된 연구인 만큼 언어역사연구의 기반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Internet Archive에서 1906년 판 전문을 열람할 수 있다.

서명	Every-day Korean = 日用朝鮮語
편 · 저자	Underwood, Horace H. (호레이스 언더우드)
발간 연도	1921
발행 사항	Seoul: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청구기호	구장본 서양서 (G167 1)
비고	

재한 선교사 2세 호레이스 호튼 언더우드(Horace H. Undrewood)가 집필한 한국어 학습서. 1921년 대한기독교서회(大韓基督敎書會,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에서 발행되었다. 저자는 미국 출신 장로교 선교사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와 릴리아스 호튼 언더우드(Lillias Horton Underwood)의 아들로 1890년 서울 정동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소년기를 보냈다. 저자는 한국에서의 삶을 기록한 릴리아스 호튼 언더우드의 수필집 With Tommy Tompkins in Korea (1905년 출간)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소년기를 보낸 저자는 학업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대학교를 졸업한 후 선교사 자격으로 한국에 재입국하여 연희전문학교의 전신인 경신학교에서 강의하였다. 또,연희전문학교와 정신학교를 설립하는 실무에도 참여하였으며, 이후 연희전문학교 부교장과 교장까지 지내다가 해방 이후에는 미군정장관 고문, 문교부장 고문을 역임하였다.

본 도서는 저자가 석·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미국으로 다시 떠나기 전에 집필, 출간되었다. 저자는 서문을 통해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어학 교육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본서를 집필하였다고 밝혔으며, 특히 성공적인 선교 활동을 위해서는 언어 습득을 기반으로 한 대인 접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미국 필라델피아에 소재한 Presbyterian Historic Society에서는 1930년대 중반까지도 해당 도서가 주요 교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어학 교육 커리큘럼이 선교문서 중에서 발견되기도 하였다. 교재는 크게 서문과 목차, 그리고 회화체로 된 35개 과의 본문과 어휘집 및 「각종 단위」 등이 포함된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과 목차는 영어로 기술되어 있지만, 본문은 각 단원의 숫자만 한자로, 그 외의 표기는 모두 한글이며 영어 번역문은 없다. 학습자 모어의 대역문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학습자가 단독으로 사용할 학습서라기보다는 한국어 해설해 줄 조력자 혹은 교육자의 존재를 상정한 학습서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열람할 수 있다.

서명	Corea: the hermit nation
편 · 저자	Griffis, William E. (윌리엄 그리피스)
발간 연도	1882/ 1902
발행 사항	New York: Charles Scriber's Sons
청구기호	구장본 서양서 (H220 2)/ 구장본 서양서 (H220 2e)
비고	

1882년에 출간된 윌리엄 그리피스(William E. Griffis)의 단행본. 1882년 미국과 영국에서 출간된 이후 대중적 인기에 힘입어 1888, 1897, 1904, 1907년에 중판을 거듭하여 1911년 제9판까지 발행되었다. 1895년에는 『조선개화의 기원(朝鮮開化の起源)』이라는 제목으로 수교사(水交社)에서 일본어판이 출간되기도 하였다. 현재 소장본은 뉴욕 Charles Scriber's Sons 출판사에서 1882년 발행된 초판본과 1902년에 발행된 제6판 본이다.

저자는 미국 필라델피아 출신의 목사로 자연과학을 전공했으며, 1870년 일본에 초빙되어 화학·물리학을 강의했고, 동경제국대학의 전신인 동경개성학교(東京開成學校) 화학과를 창설하였다. 1874년 미국으로 귀국한 그는 1876년 The Mikado's Empire를 출간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어 Corea, the Hermit Nation 을 집필하여 1882년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에서 출간하였다. 저자는 해당 도서를 집필하기 전까지는 한국을 방문한 일이 없으며, 대신 일본에서 접한 문헌자료와 조선을 방문했던 외국인들의 증언 및 기록 등을 토대로 원고를 집필하였다고 한다. 저자는 1882년에 출간된 초판 서문에서 조선의 문호개방에 대한 관심이 한국사 책을 저술하는 동기가 되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미국을 통해 조선의 문호가 개방되고 그와 더불어 기독교가 전해지기를 바라는 선교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해석된다.

본 도서 초판본의 분량은 462쪽으로 마지막 20쪽은 부록이다. 본문은 총 5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대사부터 개항에 이르는 1880년대 초반까지의 역사를 다룬다. 부록은 한국어와 한국 문학, 도량형, 지형에 관한 소개, 색인, 그리고 지도를 포함하고 있다. 제1부는 고대・중세사, 제2부는 정치와 사회, 제3부는 근・현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3부는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는 시기까지를 다루었는데, 이후에 출간된 판본에서는 제3부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제6판 본에서는 제2, 3, 6판의 서문과 제59장 “Corea in 1888”, 제60장 “Corea in 1897”이 추가되었다. 서문에 따르면 본문에 추가된 2개의 장은 제6판 출간을 기획하면서 저자가 추가로 집필하였다고 한다. 현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을 통해 Internet Archive에서 초판과 제6판 전문을 열람할 수 있으며, Hathi trust에서는 제6판 전문을 열람할 수 있다.

서명	The passing of Korea
편 · 저자	Hulbert, Holmer B. (호머 헐버트)
발간 연도	1906
발행 사항	London: William Heinemann
청구기호	구장본 서양서 (H220 4)
비고	

1906년 뉴욕 Doubbleday, Page & Company 출판사와 런던 William Heinemann 출판사에서 발행한 호머 헐버트(Homer B. Hulbert)의 도서. 조선의 역사와 1905년에 체결된 제2차 한일협약 즉, 이른바 을사보호조약 체결을 전후한 시기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풍속 등을 473쪽에 걸쳐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저자 헐버트는 미국 출신 선교사로 다트머스대학을 졸업하고 유니언 신학교에 재학 중이던 1886년에 조선에 선교사로 와서 육영공원(育英公院)의 교사를 지냈다. 1891년 미국에 귀국하였다가 1893년 다시 조선에 와서 정기간행물 『코리안 리뷰(Korean Review)』의 편집을 주관하였다. 저자는 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 당시 이준(李儁), 이상설(李相卨) 등과 동행하였는데, 이로 인해 이후 대한제국 입국을 거부당하여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저자는 서문에서 1905년에 체결된 제2차 한일협약의 부당함을 서구에 알리고자 한다는 집필 동기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권두에는 “이 책을 황제와 한국인들에게 바친다(Dedicated to his majesty THE EMPEROR OF KOREA and TO THE KOREAN PEOPLE)”라고 표기하였다. 총 35개의 장에 걸쳐서 20세기 초 조선의 생활 풍습과 국내외의 정세, 문화, 교육, 건축물, 언어, 백성, 문학, 음악, 미술, 종교, 그리고 왕실 모습이 수십 장의 사진과 함께 기록되어 있으며, 마지막에 색인을 첨부하였다. 저자는 서문에서 ‘조선 민족성’에 관한 긍정적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한글’을 만든 민족이 왜 일본에 의해 식민지가 되어 가고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저자가 고종 황제의 측근이자 특사로도 임명되었던 만큼 일본 침략의 부당함과 더불어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겠다는 조약을 어긴 점 등을 비판하였다.

국내에서는 집문당 출판사에서 1999년과 2006년에 신복룡이 번역한 한국어판을 출간하였다. 현재 소장본은 1906년 런던 William Heinemann 출판사에서 발행한 판본이나, 온라인에서는 Hathi Trust와 Internet Archive에서 1906년 뉴욕에서 출간된 판본의 전문을 열람할 수 있으며, 위키피디아 라이브러리에서도 뉴욕 출간본 텍스트를 열람할 수 있다.

서명	Corea and the powers: a review of the Far Eastern question
편 · 저자	Duncan, Chesney (체스니 던컨)
발간 연도	1889
발행 사항	Shanghai: Shanghai Mercury
청구기호	구장본 서양서 (H220 7)
비고	

1889년 8월 중국의 Shanghai Mercury 출판사에서 발행한 체스니 던컨(Chesney Duncan)의 저서. 저자는 영국 출신으로 1883년부터 그의 저서가 발행되던 시점까지 조선 제물포에서 관세업무 보좌역으로 근무 중이었으며, 영국 왕립아시아협회 중국지부 회원(British member of the Chin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으로 언론을 통해 극동의 국제 정세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활발하게 제시하였다.

이 책에서 저자는 러시아의 팽창을 의식하면서 극동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해야 할 것을 주장하면서 영세중립정책을 권유하였다. 그는 조선이 강대국에 의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오류에서 발생한 잘못된 생각을 거부하면서, 그러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시정하고, 다른 국가들의 이익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조선이 '평화적 중립지대(peaceful neutral zone)'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조선에서 엄정한 중립(strict neutrality)이 유지되지 않고서는 조선의 어떠한 진정한 번영(real prosperity)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조선의 영세중립 정책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한편, 저자는 19세기 후반 동아시아에서 활동하였던 서양인들에서 흔히 나타나는 관점, 즉 일본을 중심으로 주변국을 타자화하는 시각도 일면 나타내는데, 언론은 물론이고 이 책에서도 조선 정부의 무능력과 사회의 부패상을 지적하면서 이를 일본 정부 및 사회와의 비교를 통해 강조하였다.

책은 총 96쪽이며, 서문과 본문, 그리고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가 직접 작성한 서문 뒤에 목차를 배치하였으며, 본문 제1장에서는 러시아와 한국, 2장에서는 러시아의 목적, 3장에서는 러시아의 동향에 관한 영미권과 인도의 언론 기사, 제4장에는 1886년부터 1890년까지 조선에서 외교 고문을 지낸 오웬 데니(Owen N. Denny)의 인터뷰를 수록하였다. 부록에는 동아시아 외교 정세를 다룬 7개의 언론 기사가 추가로 수록되어 있다. 본문과 부록 모두 영국 The Times, Times of India, The Standard 등과 같은 매체의 기사를 중심으로 그에 관한 저자의 견해를 서술하는 형식이다. 현재 Hathi Trust에서 전문을 열람할 수 있다.

서명	On race struggles in Corea (Read 16th April, 1890)
편 · 저자	Parker, Edward H. (에드워드 파커)
발간 연도	1890
발행 사항	경성: 경성제국대학교(비매품)
청구기호	구장본 서양서 (H220 15)
비고	○ 발행 사항에는 'Yokohama: Asiatic Society of Japan, 1890.' 라고 표기되어 있음. ○ Transactions of the Asiatic Society of Japan 제18호에 수록된 논문을 발췌제본한 책자이므로 '경성제국대학교' 로 표기함.

일본 요코하마에서 발행된 아시아학회 일본지부(Asiatic Society of Japan)의 학술지 Transactions of the Asiatic Society of Japan 제18호에 수록된 에드워드 파커(Edward H. Parker)의 논문. 학술지에서 해당 논문을 발췌・제본한 형태이다. 제목 아래에 1890년 4월 16일 아시아학회 일본지부 모임에서 본 연구를 저자가 직접 발표하였다고 표기되어 있다.

저자 에드워드 파커(Edward Parker)는 영국 출신 변호사이자 중국학자로, 1869년 학생 겸 통역관으로 중국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중국 원저우와 푸젠, 상하이 등지의 영사관에서 근무하였으며, 1885-1887년 사이에는 부산 영국영사관의 부영사와 총영사대리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파커는 1895년에 은퇴 후 영국으로 돌아가 리버풀대학교를 거쳐 오웬스대학교 교수로 부임하여 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당대에는 아편전쟁을 비롯하여 중국의 정치・사회・외교 등에 관한 저술로 널리 알려졌으며 후대에는 그가 수행했던 중국어 연구가 학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본 논문은 저자가 부산에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간 지 7년 만에 출간한 중국 북방민족의 역사에 관한 연구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발표한 것으로 보이며, 1887년에는 동 학술지 제15호에 "The Manchu Relations with Corea"라는 논문을 발표한 적도 있다. 본 논문은 총 72쪽으로, 서문과 1, 2부로 나누어진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의 서술은 한서(漢書) 중 조선전(朝鮮傳)에 기초하였으며 기원전 200년 무렵부터 기원후 1세기까지 한민족의 역사, 그중에서도 주로 고조선의 성립부터 멸망까지를 다룬다. 2부에서는 후한서(後漢書)를 기초로 하여 1-2세기 한반도의 고대 국가부터 고려 시대까지를 다룬다. 중국 문헌을 기초로 한 연구인만큼 중국 각 왕조가 한반도에 끼친 영향력을 중심으로 한국 고・중세사를 서술한 것이 특징이다. 논문 말미에서 저자는 이후 시기의 역사는 중국학 영문 학술지인 China Review 제15권(1886-1887)에서 다루었음도 밝히고 있다. 현재 Internet Archive와 Hathi Trust에서 본 논문이 포함된 학술지 전문을 열람할 수 있다.

서명	In Korea with Marquis Ito
편 · 저자	Ladd, George T. (조지 래드)
발간 연도	1907
발행 사항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청구기호	구장본 서양서 (K120 2)
비고	

1907년 이토 히로부미 통감의 초청으로 조선을 방문했던 미국 출신 선교사 조지 래드(George T. Ladd)의 여행기. 뉴욕 Charles Scribner’s sons 출판사에서 발행하였다.

저자는 1864년 미국 오하이오주 클래브랜드에 있는 웨스턴리저브대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앤도버신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였다. 이후 1879년에 웨스턴리저브대학교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1881년 예일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1892년부터 1899년까지 일본 정부의 초청으로 일본을 세 차례 방문하면서 이토 내각에서 외교 고문을 역임하였으며, 1906년부터 1907년까지는 다시 일본을 방문, 동경제국대학교에서 강의하기도 하였다. 저자는 1899년에는 일본에서 교육의 진흥과 발전에 공헌하였음을 인정받아 메이지 천황으로부터 8등금 중 3등급에 해당하는 욱일중수
장(旭日中綬章)을, 1907년에는 2등급에 해당하는 욱일중광장旭日重光章)을 하사받은 미국 내 대표적인 친일 인사이면서, 특히 이토 히로부미와 가까운 관계였다.

본 도서는 한국 내에서 기독교의 교세를 진단해달라는 이토 히로부미의 요청에 따라 한국 내 교회의 활동과 그 사회적 영향력을 파악할 목적으로 방한하여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집필하였다. 책은 총 2부 1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는 서울과 평양, 제물포 등지를 방문한 여행기 형식이다. 제2부는 한국의 정치・경제・ 외교・사회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토 히로부미의 통치를 소개하면서, 조선인이 미개하고 게으르므로 일본의 조선 지배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또, 한국 개신교회와 선교사들이 독립운동에 관여하는 상황을 비판하고 그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 책이 출간되자 재한 선교사이자 독립운동 인사들과 교분을 맺고 있었던 대표적인 친한 인사 호머 헐버트(Homer Bezaleel Hulbert)는 저자가 한국의 상황을 곡해하였다고 반박하는 글을 New York Times 에 기고하기도 하였다.

책의 본문은 총 472쪽으로 이토 히로부미의 사진을 포함, 저자가 한국에서 찍거나 입수한 사진이 12장이 본문 중에 배치되어 있으며, 마지막에는 색인이 수록되어 있다. 현재 Internet Archive와 Hathi Trust에서 전문을 열람할 수 있다.

서명	Korea
편 · 저자	Hamilton, Angus (앵거스 해밀턴)
발간 연도	1904
발행 사항	London: William Heinemann
청구기호	구장본 서양서 (K120 4)
비고	

조선의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 등을 상세하게 소개한 책. 저자는 영국 출신 언론인 앵거스 해밀턴(Angus Hamilton)이며, 1904년 런던에 소재한 윌리엄 하이네만(William Heinemann) 출판사에서 발행하였다. 저자는 팔 멀 가제트(Pall Mall Gazzet)에 소속되어 종군기자로 활동하면서 아프카니스탄과 극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기사를 영국 일간지 등에 게재하였다. 해밀턴은 대한제국에도 특파원으로 방문하여 수개월 체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대한제국에서 보고 느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집필하였으며, 1903년 12월에 탈고하였다고 한다.

주로 통계를 바탕으로 20세기 초 대한제국의 사회상을 기술하였으며, 영국인의 관점에서 러시아·일본·프랑스·독일·벨기에·영국·미국 등 다른 열강들이 조선을 어떻게 침공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총 309쪽 분량인데, 도입부와 24개 장의 본문, 부록과 지도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서문에서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을 언급하며 호의를 드러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일본의 확장 전략 앞에 무력하며 군사력이 취약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특히 제8장에서는 대한제국 정부의 세금과 예산을 다루는데, 저자가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1903년도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밝히기도 하였다. 제14장에서는 개항지인 원산, 부산, 목포 등에 관하여 서술하였으며, 17장은 한국 내륙 지방을 여행한 기록, 19장은 금강산 기행문이다. 본문 외에도 풍부한 그림과 사진, 도표 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는데, 왕자 이자선, 대원군, 고종의 사진과 압록강변의 풍경, 금강산 주변 장안사와 신계사 사진, 궁중 무희 등의 사진이 눈길을 끌며 특히 가슴을 드러낸 여인의 사진이 화제가 된 바 있다. 또, 가장 뒤에 첨부된 지도에는 동해가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되어 있다.

1904년에 제2판이 발간되었으며, 1910년에는 미국 J. B. Millet Company 출판사에서 증보판을 발간하였다. 이 증보판에는 허버트 오스틴 중령(Herbert H. Austin)이 쓴 "A Scemper through Korea"와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内正毅) 총독이 쓴 "Reforms and Progress in Korea"라는 글이 함께 수록되어 있으며, 서문은 The Land of Morning Calm을 쓴 천문학자인 퍼시벌 로웰(Percival Lowell)이 작성하였다. 1904년 발행본 중에서는 라이프치히 판본에 가장 사진이 많고, 뉴욕 판본은 사진이 대거 축소되어 있다고 한다. 현재 소장본은 런던에서 출간된 제2판으로

Hathi Trust에서 전문을 열람할 수 있다.

서명	The call of Korea: political, social, religious
편 · 저자	Underwood, Horace G. (호레이스 언더우드)
발간 연도	1908
발행 사항	New York: Fleming H. Revell
청구기호	구장본 서양서 (K120 6)
비고	

영국 출신의 미국 선교사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가 한국에서 선교사업을 시작한 지 23년째 되던 해에 출간한 선교 보고서 형태의 도서. 1908년 뉴욕 Fleming H. Revell 출판사에서 발행하였다.

저자는 한국에 장로회를 최초로 전도한 목회 선교사이며, 비 개신교인들에게는 연세대학교의 전신 중 하나인 연희전문학교와 경신학교의 설립자로도 알려져 있다. 언더우드는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13세가 되던 해에 미국으로 이주하였으며, 1881년 뉴욕대학교를 졸업하고 네덜란드 개혁 신학교(The Dutch Reformed Theologica Seminary)에 입학하여 1884년까지 수학하였다. 1883년 11월 장로교 목사가 되면서 당시 영미권의 선교사들이 주로 파견되던 인도에서 목회 활동을 하기 위해 1년간 힌디어와 의학을 공부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조선이라는 동아시아의 생소한 국가에 파견할 선교사가 부족하다는 소식에 선교지를 조선으로 변경,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의 임명을 받아 1885년 봄 인천 제물포에 도착하였다. 선교 중에서도 성서 번역과 교육, 출판 사업 등에 특히 역점을 두었다.

본 도서는 추천사와 저자 서문을 포함한 도입부와 6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5장 이상의 사진과 지도가 책의 중간에 배치되어 있다. 추천사는 미국 장로교회 선교 운동의 지도자였던 아서 피어슨(Arthur T. Pierson)이 작성하였다. 저자는 서문에서 한국인들의 호응으로 한국 개신교회가 짧은 기간 동안 늘어나는 신자 수를 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성장을 보였으며, 따라서 더 많은 선교사가 파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본문 제1장
과 2장에서는 한국의 지리적 위치와 면적, 지형, 인구, 질병, 산업, 정부 등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와 한국 사회의 관습 등에 관해서 다루었으며, 3장에서는 전통신앙에 관해 서술하였다. 저자가 수
행한 선교사업에 관한 내용은 주로 4장과 5장, 그리고 6장에서 다루어지는데, 5장의 경우 천주교를 포함하여 조선 선교의 역사에 대해 다루고 있다. 사진으로는 언더우드가 참여한 한국성격번역위원회, 창덕궁 전경과 서울 풍경, 장례식 모습이나 승려, 관원, 장승, 새문안교회 전경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00년 국내 CLC(기독문서선교회) 출판사에서 『와서 우릴 도우라』라는 제목으로 번역·출간하였으며, 원저는 현재 Hathi Trust에서 전문을 열람할 수 있다.

서명	With Tommy Tompkins in Korea
편 · 저자	Underwood, Lillias H. (릴리아스 언더우드)
발간 연도	1905
발행 사항	New York: Fleming H. Revell
청구기호	구장본 서양서 (K120 7)
비고	

여성 개신교 선교사로서 한국에서의 삶을 다룬 수필집. 1905년 뉴욕의 Fleming H. Revell Company 출판사에서 발행하였으며, 저자는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의 아내이자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서 활동했던 릴리아스 언더우드(Lillias H. Underwood)이다.

저자는 31세라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시카고 여자의과대학에 입학하였으며, 졸업 후에는 쿡 카운티 간호학교에서 간호 지식을 습득하고 시카고 여성소아병원에서 임상훈련을 받았다. 이 병원에서 임상훈련을 받으며 근무하던 시기에 장로교단 총무인 프랭크 앨린우드(Frank Ellinwood)을 만나게 되면서 한국 파견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1888년 미국 북장로교 의료 선교사 자격
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명성황후의 시의를 지냈으며, 광혜원과 제중원 등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여성 환자를 진료하였다. 비교적 늦은 30대 중후반에 미혼 여성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는데, 1889년에 재한 선교사였던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와 결혼하여 1890년 아들 호레이스 호튼 언더우드(Horace H. Underwood)를 서울에서 출산하였다.

본 수필집은 한국에서 낳은 어린 아들을 키우면서 관찰하는 어머니의 시점에서 경험했던 에피소드들을 서술한 것이다. 수필집은 총 13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1장에서는 아들의 출생, 2장에서는 한국에서의 생활, 3장에서는 선교 활동, 4장에서는 탁아소에서의 생활 등이 다루어진다. 5장에서는 한국에서의 국경일과 휴일을, 6장에서는 아들과 궁궐을 방문한 이야기, 7장에서는 황해도 지방 여행기, 8장에서는 언더우드의 가족 별장에 관한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다. 제10장과 13장에서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궁궐 화재 사건을 다루었으며, 11장과 12장은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내륙 지방을 여행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한국에서 아들을 출산하고 양육한 경험과 선교사업의 과정, 한국의 문화와 거리 풍경 등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아이를 업은 여성, 서양식 정장을 입은 한국 여성, 숭례문 전경 등의 사진이 삽입되어 있다. 현재 Hathi Trust와 Internet Archive에서 전문을 열람할 수 있다.

서명	Account of a voyage of discovery to the west coast of Corea, and the great Loo-Choo Island: with an appendix, containing charts, and various hydrographical and scientific notices
편 · 저자	Hall, Basil (바실 홀)
발간 연도	1818
발행 사항	London: John Murray
청구기호	구장본 서양서 (K120 9)
비고	

1816년 인도 총독 앰허스트(J.W.Amherst) 경이 이끌었던 견중사절단(遣中使節團)의 일행으로 알세스트(Alceste)호와 함께 우리나라 서해안을 탐사했던 라이라호(Lyra)의 함장 바실 홀(Basil Hall)의 항해 탐사기. 1818년 런던 John Murray 출판사에서 발행하였다.

저자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해군 장교로 사절단의 임무 수행 후 귀국길에 조선의 서해와 류큐 지역을 탐사하였다. 당시 조선의 해안은 중국에 왔던 예수회 선교사들의 지도에 그려져 있었지만 정확하지 않았고, 18세기 후반에 조선을 방문한 브로튼(William R. Broughton)은 남해안을 항해했을 뿐, 서해안을 탐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자는 당시의 항해가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문과 부록 329쪽에 동아시아인들이 구사하는 단어집을 84쪽에 걸쳐 수록하였고, 조선에 관해서는 본문 중에 57쪽에 걸쳐 기술하였다. 당시 일행이 조선을 거쳐 도착한 류큐에서 한 달 이상을 머물렀기 때문에, 책에서도 조선보다는 류큐에 관한 기록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조선의 경도와 위도를 정확히 측정한 것이 특징이며, 조선의 풍습, 조선과 중국의 관계, 조선의 한자음(漢字音) 등에 관해서도 서술하였다.

저자는 책에서 조선 관리와의 면담을 인상 깊었던 일로 기록하였으나, 서양인을 낯설어하고 두려워하는 민중을 보고 조선인의 성품이 비사교적이라고 평하였다. 이 때문에 향후 조선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한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을 대동하라고 권유하기도 하였다. 제1장에 한국 관련 채색삽화가 수록되어 있는데, 조선인들이 서양인의 외양에 더 가깝게 표현되어 있다. '조선 관리와 수행원들(Corean Chief and Secretary)'이라는 제목의 이 삽화는 당시 그들을 맞이했던 마량진첨사(馬梁鎭僉使) 조대복(趙大福)과 함께 온 조선 관리들을 그린 것이다. 지금의 충남 서천군 서면에 있던 마량진의 첨사 조대복은 당시 함께 그들을 접했던 비인현감(庇仁縣監) 이승렬(李升烈)과 함께 기독교 성경 전래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거론되기도 한다. 당시 알세스트호의 함장이었던 머리 맥스웰(Murray Maxwell)이 조대복과 이승렬에게 성격을 선물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왕조실록(純祖 16년 7월 19일 丙寅)에는 이들이 어떤 책을 전달받았는지 기술되지 않았는데, 이 항해 탐사기를 통해서 성경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한국과 관련된 부분은 1866년 프랑스에서 발행된 출간물 En Corée에 수록된 바 있으며, 2003년 『10일간의 조선 항해기』라는 제목으로 삶과 꿈 출판사에서 번역·출간하였다. 1818년에 출간된 원저는 현재 Hathi Trust와 Internet Archive에서 전문을 열람할 수 있다.

서명	Narrative of a voyage in His Majesty’ s late ship Alceste to the Yellow Sea, along the coast of Corea, and through its numerous hitherto undiscovered islands, to the island of Lewchew: with an account of her shipwreck in the straits of Gaspar
편 · 저자	M’ leod, John (존 맥레오드)
발간 연도	1817
발행 사항	London: John Murray
청구기호	구장본 서양서 (K120 10)
비고	

1816년 9월 1일-10일까지 열흘 동안 한반도 서해안을 탐사했던 알세스트호(Alceste)의 군의관 존 맥레오드(John M’leod)가 1817년 출판한 항해 탐사기. 1817년 런던 John Murray 출판사에서 발행하였다. 저자는 영국의 군의(軍醫)로 앰허스트(J.W.Amherst)경이 이끄는 견중사절단(遣中使節團) 일행이었는데, 당시 바실 홀(Basil Hall)이 선장이었던 라이라호(Lyra)와 맥스웰(Murray Maxwell) 선장이 운행하는 알세스트호가 함께 10일간 한반도 서해안을 탐사하였는데, 저자는 그중 알세스트호에 탑승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세스트 호는 이후 본국 귀로 중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동쪽 가스파 해협에서 좌초, 침몰하여 많은 수집품이 수장되었다고 한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이 항해탐사대는 한반도 서해안에 세 번 기착한 것으로 나와 있다. 첫 번째는 옹진군 소청도이고, 두 번째는 충청남도 서천군, 세 번째가 전남 진도군 상조도였다.

맥레오드의 여행기에는 당시 조선의 이모저모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과 함께 2장의 우리나라 관련 채색삽화가 수록되어 있다. 비록 조선인의 모습을 서양인처럼 표현하기는 했지만 200년 전의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총 288쪽 중 앞부분에 해당하는 21쪽부터 53쪽까지는 대체로 조선에 관한 내용이며, ‘소청도 주민들(Islanders of sir James Hall’s Group)’, ‘조선의 관리와 수행원들(Corean Chief and Attendants)’이라는 제목의 삽화도 38쪽과 40쪽 뒤에 각각 삽입되어 있다. ‘소청도 주민들’에서 소청도는 지금의 대청군도(大靑群島:옹진군에 속하며 백령도·대청도·소청도로 구성됨)이며, 삽화의 인물들은 모두 그곳의 주민들이다. 또 다른 ‘조선 관리와 수행원들’이라는 제목의 삽화는 당시 탐사대 일행을 맞이했던 마량진첨사(馬梁鎭僉使) 조대복(趙大福)과 함께 온 조선 관리들의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한다. 275쪽부터는 부록으로 영국 포츠머스에 도착해서 치른 의례에 관한 설명과 유구국의 역대 왕 목록, 유구어 단어집, 고별사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1818년 런던 Clowes Murray 출판사에서 재발행되었으며, 같은데 미국 필라델피아 M. Carey and Son 출판사에서도 해당 도서를 출간하였다. 또, 1818년에 출간된 바실 홀(Basil Hall)의 항해 탐사기와 더불어 1866년 프랑스에서 발행된 출간물 En Coree 에 수록되기도 하였다. 1817년에 출간된 원저는 현재 Hathi Trust에서 전문을 열람할 수 있다.

서명	Things Korean: a collection of sketches and anecdotes, missionary and diplomatic
편 · 저자	Allen, Horace N. (호레이스 뉴턴 알렌)
발간 연도	1908
발행 사항	New York: Fleming H. Revell
청구기호	구장본 서양서 (K120 12)
비고	

한국에서 약 20년간 의료 선교사이자 외교관으로 체류하였던 호러스 알렌(Horace Allen)이 체류 기간 중 관찰하고 경험했던 이야기를 담은 책. 1908년 뉴욕 Fleming H. Revall Comapny 출판사에서 발행하였다.

저자는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나 웨슬리언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마이애미 의과 대학을 졸업한 후 북장로교 소속 의료 선교사로 청나라 상하이에서 의료 선교사로 활동하였으나 상하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러던 중 조선에 선교사를 파견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원하여 1884년(고종 21) 가족과 함께 입국하게 되었다. 조선 입국 초창기에 알렌은 선교사가 아니라 미국공사관 소속 의사로 신분을 보장받았는데, 갑신정변 당시 민영익(閔泳翊)의 부상을 치료하면서 서양 의사로 명성을 쌓았으며, 이후 고종의 허락을 받아 국립 의료원인 광혜원(廣惠院)을 설립하고 고종의 시의(侍醫)도 겸하였다. 또, 1887년에는 박정양(朴定陽)이 미국 주차 조선 공사로 워싱턴에 부임할 때 외무비서관으로 동행하는 등 외교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아관파천 이후에는 주한 미국 대리공사 겸 총영사를 거쳐 1901년 주한 미국 전권공사로 임명되었으며, 1905년 제2차 한일협약(을사늑약)이 체결되자 미국으로 귀국하였다.

책의 내용은 알렌의 선교와 외교 활동, 공사관에서의 업무와 생활, 중국과 한국에서의 일상 기록과 회고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은 총 256쪽이며, 1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4장은 한국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에서 경험한 일들을 서술하였으며, 한국에 도착한 이후의 경험들은 제5장에서부터 다루어진다. 저자는 극동의 정세와 외교, 조선의 역사, 문물, 관습 등 비교적 폭넓은 주제를 다루었는데, 가난, 관리들의 부패, 사회적인 혼란 등 부정적인 모습까지도 서술하였으며, 아울러 19세기 후반 조선의 풍물과 관습, 서울 거리, 가옥 등과 같은 풍경에 대해서도 묘사하였다. 15장의 사진이 중간중간 수록되어 있는데, 구식 군인의 모습, 왕릉, 상점, 관료 등의 모습이 다양하게 담겨 있다. 현재 Hathi Trust와 Internet Archive에서 전문을 열람할 수 있다.

서명	Korea
편 · 저자	Coulson, Constance J. D. (콘스탄스 쿨슨)
발간 연도	1910
발행 사항	London: Adam and Charles Black
청구기호	구장본 서양서 (K120 15)
비고	

1910년 런던의 Adam and Charles Black 출판사에서 발행된 “The Peeps” 시리즈 중 한국 편이다.

저자 콘스탄스 쿨슨(Constance J. D. Coulson)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여성 화가로, 결혼 전 이름은 콘스탄스 제인 도로시 테일러(Constance Jane Dorothy Tayler)였다. 저자는 26세 무렵인 1894년 한국을 방문하여 1901년까지 약 7년간 한국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시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두 권의 책을 출간하였다. 다만 저자가 본 도서의 머리말에서 몇 차례 한국을 방문했다고 밝힌 것으로 미루어볼 때 한국에 입국한 이후 1901년까지 계속 한국에 머물기보다는 한국에 일정한 거처를 두고 주변의 다른 국가들과 한국을 오갔을 거라 생각되며, 마지막으로 한국을 떠난 시기가 1901년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 도서는 1904년에 저자가 집필, 출간했었던 Koreans at Home: The Impressions of a Scotswoman의 속편 격으로, 저자가 조선에서 생활하면서 보고 느낀 바를 서술한 것이다. 책은 전체 85쪽이며, 총 18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인과 에드워드 피츄(Edward H. Fitchew)라는 영국의 화가가 그린 삽화 12점과 지도 1점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삽화 중 일부는 앞서 1904년에 출간되었던 저자의 책에 이미 수록되었던 것을 재수록한 것이다. 내용은 1장 ‘한국의 여성과
아이들’로 시작되며 한국의 미신, 인삼, 고종황제 알현, 평양 여행기, 한국의 의복, 사람들과 신념, 주택, 전래동화, 무속 신상, 한국을 처음 방문한 유럽인들, 서울의 궁, 한국의 사회계급, 황제의 출궁 행렬, 한국의 기독교 역사, 일본의 속국이 된 한국 등 총 18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각 장은 주제별로 나누어져 있지만, 저자가 한국에서 지내면서 일상에서 경험한 것들과 한국의 풍습이 주제와 섞여 개인적인 시각의 수필 성격이 짙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서양문물을 빠르게 흡수했던 일본의 속국이 됨으로써 부패하고, 폐쇄적이고 수동적인 한국에 사회적인 개혁과 진보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시각 등 풍습과 역사적인 면에서 외국인인 저자의 오해와 오류가 나타난다. 또, 한국의 명칭을 ‘Korea’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본문 첫 장에서 한국인들은 스스로 ‘Chosen’이라고 지칭한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현재 Internet Archive에서 도서 전문을 열람할 수 있다.

서명	In the uttermost East
편 · 저자	Hawes, Charles Henry (찰스 하웨스)
발간 연도	1904
발행 사항	London: Harper & Brothers
청구기호	구장본 서양서 (K120 30)
비고	

영국 출신 탐험가이자 인류학자인 찰스 하웨스(Charles Henry Hawes)가 1900년경 일본과 한국을 거쳐 시베리아 동쪽과 사할린, 만주, 중국 등지를 여행한 경험을 기록한 기행문. 부제를 포함한 원제목은 In the uttermost East: being an account of investigations among the natives and Russian convicts of the Island of Sakhalin, with notes of travel in Korea, Siberia, and Manchuria이다. 1903년 런던의 Haper 출판사에서 처음 발행되었으며, 현재 소장본은 1904년에 발행된 제2판이다.

지정학적, 인류학적 관점에서 사할린과 시베리아 거주민들의 민족지를 다룬 책으로, 적어도 20세기 초까지 서구에서는 매우 생소했던 지역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출간 당시부터 학계의 상당한 관심을 받았으며, 다른 논문이나 책에서 참고문헌으로 인용되기도 하였다. 저자는 영국의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인류학을 전공하였으며, 1910년 무렵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 보스턴미술관에 재직하였고 위스콘신대학교와 다트머스대학교에서 강의하기도 하였다. 책은 총 2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일본과 함께 제1장에서만 다루어진다. 여행의 주요 목적지가 사할린과 시베리아였기 때문에, 저자가 한국에 머문 시간은 전체 여행 기간에서 상대적으로 짧았으며, 따라서 책에서도 한국 방문이 큰 비중으로 다루어지지는 않았다.

저자는 일본 나가사키에서 배편으로 부산과 원산을 거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하였는데, 제1장에는 부산 상점의 전경과 원산에서 방문한 우체국, 그리고 경찰, 마구 등의 생활용품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인류학적・민족지학 관점에서 관찰한 현지인들의 외양, 거주형태, 복식, 관습 등을 세밀하게 관찰하여 서술한 것이 특징이다. 600쪽이 넘는 비교적 방대한 분량의 도서로 저자가 직접 관찰한 풍경이나 생활 물품 등을 확인시켜주는 사진들도 다수 수록되어 있다. 또,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서문과 목차 외에도 도판 목차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러시아어, 극동 지방과 사할린섬, 아무르강 하구 인근, 쿠릴 열도, 일본의 홋카이도에 거주하는 니브흐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아이누 언어의 용어집도 수록되어 있다.

현재 Internet Archive에서는 1903년 런던에서 출간된 초판을, Hathi Trust에서는 1904년 뉴욕에서 출간된 판본의 전문을 열람할 수 있다.

서명	A catalogue of the romanized geographical names of Korea= 羅馬字策引朝鮮地名字彙
편 · 저자	小藤文次郎 (고토 분지로), 金澤庄三郎 (가나자와 쇼부로)
발간 연도	1903
발행 사항	Tokyo: University of Tokyo
청구기호	구장본 서양서 (K120 31)
비고	

1903년 동경제국대학교에서 발행한 한국 지명 로마자 색인집. 저자는 지질학자 고토 분지로(小藤文次郎)와 언어학자 가나자와 쇼부로(金澤庄三郎)로, 고토가 1903년 발간한 Map of Korean Peninsula 를 출간하면서 해당 도서를 보게 될 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색인집을 동시에 발간하였다. 고토가 작성한 조선 지도를 기초로 가나자와가 한글 발음에 따른 로마자를 명기하는 방식으로 작업하였다고 전해진다.

고토 분지로는 동경제국대학교 지질학과 제1회 졸업생으로 이후 4년간 독일에서 유학하고 귀국하여 모교의 지질조사소에서 근무하다가 1886년 동 대학의 교수로 부임하였다. 그는 6명의 대원과 함께 조랑말 4마리를 끌고 1901년 1월 3일 군산에서 출발하여 19일 부산에 도착, 24일에는 부산에서 출발하여 2월 16일 목포에 도착하고, 20일에는 목포에서 출발하여 3월 19일 부산에 도착하기까지 69일간에 걸쳐 한반도의 남부를 동서로 3번 횡단하면서, 길거리를 근거로 한 지형과 지질을 분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한국 답사는 1900년부터 14개월간 2회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이 조선 여행을 바탕으로 이후 「조선산맥론(朝鮮山脈論)」을 포함하여 두 개의 글을 발표하였는데, 특히 1903년에는 동경제국대학교 영문 저널에 “An Orographic Sketch of Korea”를 발표한 바 있다. 또 공동저자인 언어학자 가나자와 쇼부로 역시 1898년부터 1901년까지 한국에 유학하면서 한반도 각지를 여행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도서는 1882년에 출간된 사토우・애스턴・챔벌린(Ernest Satow, William. G. Aston, Basil Hall Chamberlain) 공저의 A Manual of Korean Geographical and Other Proper Names Romanized에 표기된 지명을 포함하고 있다. 서문을 제외하고 약 90쪽에 걸쳐 알파벳 순서에 따라 A부터 한국 지명의 영어식 표기, 한문 표기, 소재지의 영문 및 한문 표기를 함께 명기하였다. 서양 국가들의 한반도와 인근 지역 지명의 표기에 상당한 영향을 준 도서로 평가되며 현재 Internet Archive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도서 전문을 열람할 수 있다.

서명	Pictorial Chosen and Manchuria
편 · 저자	Bank of Chosen
발간 연도	1919
발행 사항	京城: 朝鮮銀行 (비매품)
청구기호	구장본 서양서 (K120 36)
비고	

조선은행에서 창립 29주년을 기념하여 발간한 사진집. 조선은행에서 약 10년 동안 한국과 만주의 풍토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관해 수집해 온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출간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총 316쪽에 달하는 사진집으로 크게 제1부 「조선」과 제2부 「만주」로 구분되어 있다. 「조선」은 다시 총 21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위 항목에서는 풍경과 역사, 그리고 '보호국과 식민지화', 습관, 금융, 교통 및 통신, 행정, 농업, 임업, 광업, 해양, 공업, 상업, 종교, 교육, 보건위생, 경찰, 사법, 군사 등의 주제가 다루어진다. 마지막에는 한국의 주요 도시와 방문할 만한 곳, 그리고 금강산을 별도 항목으로 다루었다. 제2부 만주의 경우 대체적인 구성이 제1부와 유사하나 '식민지화에 이르는 과정'이 '최근의 발전'으로 대체되었고, 관습과 군사 관련 항목, 그리고 금강산 항목이 없어서 총 1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부 뒤에는 부록으로 일본의 도쿄 오사카, 고베, 시모노세키, 중국 칭다오, 상하이, 지난, 톈진, 그리고 시베리아 치타, 블라고베시첸스크,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등지에 소재한 조선은행 지점 소개와 함께 사진이 16쪽에 걸쳐 수록되어 있다.

목차 중 '보호국과 식민지화', 이나 '최근의 발전'과 같은 항목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식민통치의 치적과 동아시아로의 팽창을 홍보하기 위한 사진집이며, 영문판 비매품으로만 발간되었다. 사진집이라고는 하나 각각의 항목에서 다루는 주제에 관한 설명도 비교적 상세하게 이루어져서 한국과 만주에 대하여 지식이 없는 서구의 독자에게는 상당한 정보를 제공하는 책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한국을 다루는 제1부 중 '역사' 항목에서는 한국 역사가 고대 시기 중국의 식민지에서 출발한다고 서술하였으며, '보호국과 식민지화' 항목에는 이른바 '을사조약'의 체결과 통감부 설치에 관한 서술 및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 통감의 사진, 그리고 일본 메이지 천황의 명의로 발표된 한일합방조서의 영문 번역본,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와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총독의 사진 등이 수록되어 있다. 또, '금융' 항목은 조선은행의 설립과 발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대 은행장의 사진을 수록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열람할 수 있다.

서명	Korea and the ten lost tribes of Israel with Korean, Japanese and Israelitish illustrations
편 · 저자	McLeod, Nicholas/Norman (니콜라스/노먼 맥레오드)
발간 연도	1879
발행 사항	Yokohama: C. Levy and the Sei Shi Bunsha Co.
청구기호	구장본 서양서 (K120 42)
비고	

한민족이 앗시리아를 정복한 후 이스라엘 왕국에서 추방된 열지파의 후손임을 주장한 책. 부제를 포함한 도서에 붙은 부제가 'dedicated to Great Britain, America, Germany, France, and the other Teutonic nations of Europe, the supposed representatives of the royal house of Judah, and the seed only of the royal house of Ephraim, and the children of Israel, their companions, and to the Jews or Judah, who are with them, also to China, Japan and Korea, the shin dai or celestial race of which are supposed to represent the royal house of Israel or Ephraim and the ten lost tribes, or all the house of Israel called Jacob his companions and fellows'이다. 1879년 일본 요코하마의 C. Levy 출판사와 세이시분사(Sei Shi Bunsha)에서 출판하였다.

저자는 니콜라스 맥레오드(Nicholas McLeod) 혹은 노먼 맥레오드(Norman McLeod)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스코틀랜드 출신 선교사라고도 하나, 일본에서는 회계사, 상업 중개인 등을 거치며 다양한 경제활동에 종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저자는 19세기 후반 일본 요코하마, 고베 등지에 거주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진정한 '진정한 이스라엘인'을 찾는 작업에 천착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는 홍콩으로 이주하였다고도 전해진다. 본 도서가 출간되기 1년 전인 1878년에 Japan and the Lost Tribes of Israel 이라는 제목의 책도 출간, 일본인도 이스라엘 열지파의 후손임을 주장한 바 있다.

본 도서에서는 고대 한반도 원주민들이 노아의 홍수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난 기원전 2357년에 일본에 도착한 야벳 즉 노아의 셋째 아들의 후손들이며, 시조인 단군은 셈족 계통으로 이스라엘인의 모습을 닮았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한국인이 단군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것에서 힌트를 얻은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건축물과 복식, 관습 등을 유대인의 그것과 비교함으로써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근거의 대표적인 예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흰옷 입기를 좋아하여 '백의민족'으로 불리며 한국 사람 역시 흰옷을 즐겨 입어 '백의민족'으로 불리고 있다는 점, 이스라엘 여인들이 바깥나들이를 할 때 얼굴을 가리고 다녔는데 한국 여인들도 얼굴을 가리고 나들이를 하였다는 점, 또 한국 여인들도 물을 나를 때에 이스라엘 여인들처럼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다닌다던가, 언어적으로 '애미, 애비' 등이 유사하다는 것 등이다. 한국 민족과 유대인 간의 혈통적 계승 관계를 주장하고 그 근거로 관습과 생활양식 등을 제시하는 만큼, 한국인의 복식과 외양이나, 풍경을

묘사한 삽화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책 제목에 한국이 주요하게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관한 서술은 전체 약 80쪽 중에서 20쪽에도 미치지 못하며, 오히려 일본에 관한 서술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 책의 후반부 약 30쪽 정도는 민족지 연구와는 큰 관련이 없는 일본 여행 책자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열람할 수 있다.

서명	Report by Mr. Carles on a journey in two of the central provinces of Corea, in October 1883
편 · 저자	Carles, William Richard (윌리엄 칼스)
발간 연도	1884
발행 사항	London: Printed by Harrison and Sons
청구기호	구장본 서양서 (K120 44)
비고	

영국 출신 외교관 윌리엄 칼스(William Richard Carles)가 작성한 기행문 형식의 보고서. 1884년 런던의 Harrison and Sons 출판사에서 발행하였다.

저자는 1867년부터 중국에서 통역관으로 근무하면서 외교관으로서의 경력을 쌓기 시작했으며, 1880년대 중반 역시 영국 외교관 애스턴(William George Aston)과 더불어 당시 갓 서구권과 조약을 체결한 한국에에 파견되었던 인물이다. 그가 한국을 처음 방문한 것은 1882년 조미수호조약 체결 무렵이었으며, 이후 조영수호조약의 초안을 가지고 1883년에 다시 조선을 방문하였다. 칼스의 회고에 따르면, 그는 1883년 11월 초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물포에 도착하여 서울에 머무른 이후 북쪽 광산 지대를 시찰하고 서울로 돌아와 제물포에서 다시 상하이로 떠나는 일정이었지만, 배를 타지 못하여 부산까지 이동하면서 내륙을 여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12쪽 분량의 길지 않은 보고서로, 저자 서문이나 목차는 물론이고 별도의 삽화나, 사진, 지도 등의 자료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영국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작성된 보고서였던 만큼 방문했던 지역의 지형적 특징, 산업 및 무역의 현황 전반에 관하여 골고루 서술하였다. 저자는 1883년부터 1885년까지 한국에 관해 총 3개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1885년에 발표한 두 번째 보고서와 세 번째 보고서 역시 모두 런던에서 출간되었다. 저자는 1886년에 1883년의 방문을 다룬 첫 번째 보고서와 1884년에 작성하였던 두 번째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글을 영국 왕립지리학회에서 발표하고 발표문을 학회지에 기고하였으며, 1888년에는 런던과 뉴욕에서 그동안의 보고서와 발표문 등을 토대로 한국에서의 경험을 추가하여 집필한 도서 Life in Corea를 출간하기도 하였다. 저자의 첫 번째 보고서에 해당하는 본 도서는 현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열람할 수 있다.

서명	Report by Vice-Consul Carles of a journey from S□ul to the Phy□ng Kang Gold-washings, dated May 12, 1885
편 · 저자	Carles, William Richard (윌리엄 칼스)
발간 연도	1885
발행 사항	London: Printed by Harrison and Sons
청구기호	구장본 서양서 (K120 45)
비고	

영국 출신 외교관 윌리엄 칼스(William Richard Carles)가 작성한 기행문 형식의 보고서. 1885년 런던의 Harrison and Sons 출판사에서 발행하였다.

본 도서는 저자가 1883년부터 영국 의회에 제출한 한국 관련 보고서 중 세 번째 것으로, 서울부터 강원도 북부 평강군 일대의 사금 채취 지역을 시찰한 후에 작성한 보고서이다. 분량은 5쪽으로 길지 않으며, 역시 별도의 서문이나 목차, 지도, 삽화 등의 자료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본문에 따르면 평강군 방문에는 의료 선교사이자 왕실 시의이기도 하였던 알렌이 동행하였으며, 말을 타고 출발하였으나 출발한 이튿날부터는 도보로 이동했다고 한다. 평강군 일대의 광산까지 이동하는 과정과 경로를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하였는데, 특히 지형에 대한 묘사와 주요 지역 간의 이동 시간과 거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특징적이다. 저자 일행은 양주, 연천, 철원 등을 거쳐서 평강에 도착했는데, 방문지 주요 농산물과 인구, 물가 등의 현황도 간략하게 기록하였다. 저자는 평강군 지역의 사금 채취업에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채취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규모와 채취량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기록하였다.

영국 의회에 제출된 칼스의 보고서는 총 3개인데, 같은 해 4월에 제출한 두 번째 보고서는 서울에서 출발하여 파주, 개성, 평양을 거쳐 의주, 함흥 지방을 시찰한 보고서였다. 본 도서에 해당하는 세 번째 보고서는 저자가 종전에 한반도 북부를 시찰할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강원도 북부 지역만을 별도로 시찰한 것이기 때문에, 분량은 앞의 두 보고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보고서에서는 하단에 저자가 이동 중에 방문한 지역과 서울에서부터의 거리가 간략하게 표로 제시되어 있다.

저자는 1883년에 조선을 방문 이후 약 6개월 만인 1884년 4월에 갑신정변으로 전임자가 조선을 떠남에 따라 조선 주재 부영사로 부임하게 되었다. 중국 각지에서 외교관 경력을 쌓고 한국에 부임했던 만큼, 저자가 작성한 보고서는 당시 영미권에서 큰 주목을 받았으며 특히 한국에 체류하며 직접 관찰·경험한 바를 토대로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로 여겨졌다. 현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열람할 수 있다.

서명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or, Life in Korea
편 · 저자	Underwood, Lillias H. (릴리아스 언더우드)
발간 연도	1904
발행 사항	Boston: American Tract Society
청구기호	구장본 서양서 (K120 51)
비고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릴리아스 호튼 언더우드(Lillias H. Underwood)가 15년간 한국에 체류한 경험을 담은 수필집. 1904년 보스턴의 American Tract Society 출판사에서 발행하였다. 저

자는 한국에서 교육 선교사업에 종사하였던 호레스 그랜트 언더우드의 부인이며, 1888년 의료 선교단으로 한국에 파견되었다. 저자는 한국에 파견되기 전까지 간호사로 근무하였으며, 한국에서는 명성황후의 의료진으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도서는 총 1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에서는 저자가 제물포에 도착해서 서울로 가는 과정에서 받은 인상과 관찰한 것들을 서술하고 있다. 제2장과 6장에는 저자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습득하고 익히는 과정, 명성황후와의 만남과 궁중 의례에 관한 묘사가 담겨있다. 제3, 4, 5장은 저자가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의주까지 여행한 내용이며, 7장에서는 청일전쟁과 김옥균 살해 등 대외관계에 관한 주제가 다루어진다. 제8장과 9장, 12장은 주로 역병의 창궐과 의료 선교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서술하였으며, 제10, 11, 13장에서는 을미사변과 아관파천, 독립협회 등 국내 정치 상황이 다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제14, 15장은 평양에서의 선교 활동에 관한 내용이다. 책에는 서울 풍경과 광화문, 관료들, 궁궐, 고종, 한국의 마을과 상점, 교회, 그리고 다양한 한국인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40여 장이 수록되어 있다.

저자는 한국의 전통을 상징하는 것으로 상투, 즉 'Top-knot'을 지목, 이를 책의 제목으로 담아냈다. 초기 개신교 선교의 상황과 실정을 알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며, 서양인으로서 아직 전통 사회에 머물러 있는 듯했던 조선에서 겪었던 일화,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서 접한 왕과 왕비에 관한 이야기들도 살펴볼 수 있다. 또, 저자가 의료 선교사로서 바라본 19세기 말 조선 사회의 보건위생과 질병에 관한 견해가 비교적 솔직하게 드러나 있는 것도 특징이다. 북장로회 해외선교부 한국 총무였던 엘린우드(Frank Field Ellinwood)가 추천사(Introduction)를 작성하였으며, 저자 서문과 목차가 이어진다. 국내에서는 『상투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집문당 출판사에서 1999년 번역·출간하였으며, 원저는 현재 Hathi Trust와 Internet Archive에서 전문을 열람할 수 있다.

서명	Korea and her neighbours: a narrative of travel, with an account of the vicissitudes and position of the country
편 · 저자	Bishop, Isabella Bird (이사벨라 비숍)
발간 연도	1905
발행 사항	London: John Murray
청구기호	구장본 서양서 (K120 58 1)/ 구장본 서양서 (K120 58 2)
비고	

영국의 지리학자 이사벨라 버드 비숍(Isabella Bird Bishop)의 기행문. 소장본은 1905년 영국 런던의 John Murray 출판사에서 발행한 판본이며, 초판은 1897년 미국의 Fleming H. Revell Company에서 발행하였다. 출간 당시 영국 출판시장의 베스트셀러로 꼽혔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저자는 1872년 오스트레일리아와 하와이를 시작으로 세계 각지를 여행하면서 기행문을 출간하였으며, 1892년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영국왕립지리학회 회원이 되었다. 저자가 한국을 처음 방문한 것은 1894년이었으며, 이후 3년간 중국과 조선을 네 차례 오가면서 고종과 명성황후를 알현하고 동학농민전쟁과 청일전쟁과 정치적, 외교적 사건들을 목격하였다. 저자는 왕실부터 빈민에 이르기까지 19세기 후반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풍속 등을 다채롭게 관찰하고 체험하였으며, 11개월에 걸쳐 한국 내륙을 여행하면서 한국인들이 이주한 시베리아 지방까지 방문하였다. 전체 2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선의 풍토, 의식주, 동식물과 자원, 정치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온돌방의 치수와 온도 측정, 국왕의 행차, 무속 신앙, 기생, 그리고 금강산, 원산, 만주, 시베리아 등지를 여행하면서 겪은 일 등이 사진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저자가 한국에서 직접 관찰하고 경험한 바를 현장감이 느껴지는 서술로 전달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 초판본은 본문과 부록을 포함하여 약 490쪽이며 단권으로 출간되었으나, 영국 John Murray 출판사에서는 이를 2권으로 나누어서 출간하였다. 저자의 여행경로가 표기된 지도와 섬세한 삽화와 사진 등이 40여 개 수록되어 있으며, 부록에는 선교사업 통계와 1895-96년 무역현
황, 개항장 인구, 1896년 5월 14일 러시아 공사 베베르(Karl Ivanovich Wäber)와 일본 공사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가 한국과 관련해 체결한 각서 등이 수록되어 있다. 많은 대중적 인기를 누린 책이었던 만큼 11쇄까지 출간되었는데, 소장본인 1905년 영국 John Murray 출판사의 판본은 제1권과 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Internet Archive에서 전문을 열람할 수 있다.

서명	Korea: terrain appreciation
편 · 저자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발간 연도	[19--]
발행 사항	Washington: U.S. Army Corps of Engineers, Office of the Chief of Engineers
청구기호	구장본 서양서 (大 K120 59)
비고	○서지사항에 저자가 'United States Army, Office of the Chief of Engineer' 로 표기되어 있음. 그러나 이는 발행 주체이며, 문서를 작성한 것은 내무성 산하의 지질조사국임. ○촬영 추천함.

미국 육군의 군사작전에 대비하여 작성된 한반도 지형분석 문서. 미국 내무성 산하의 지질조사국(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USGS)에서 미국 육군 공병대(United States Army Corps of Engineers, USACE)를 위해 작성하였다. 작성 시기는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한반도 각지의 지명을 일본식 영문으로 표기한 점이나 수록된 사진 자료들, 1945년 동일기
관에서 제주도와 대마도 해역을 대상으로 작성한 지형평가 문서 등을 바탕으로 추측해보건대 1940년대 중·후반-1950년대 초에 작성되었을 것이다.

문서 각 장의 상단과 하단에는 기밀문서라는 의미에서 대문자로 'CONFIDENTIAL'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문서의 우측 하단에는 지질조사국이 육군 공병대를 위해 작성하였다고 표기되어 있다. 크기가 49 x 61cm로 일반적인 도서보다 크며, 본문은 약 35쪽 분량인데, 크게 한반도의 지형, 강, 물 공급 상황, 토양, 그리고 도로 상황과 지질 분석에 관한 보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형을 살펴보기 위한 사진과 지도가 다수 수록되어 있다. 사진은 모두 흑백이지만, 약 10장의 한반도 전체 지도를 포함, 지형을 파악하기 위한 지역별 지도는 색상을 통해 지형적 특징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반도를 지형에 따라 함경도와 평안북도 일대, 함경남도 해안지역, 원산을 포함하는 황해도와 강원도 북부 지역, 강원도 태백산 일대, 소백산맥 일대, 대구를 포함하는 영남 내륙지역, 진남포를 포함한 서해 북부 지역, 군산을 포함하는 서해 남부 지역 등 8개 지역으
로 분류한 것도 특징적이다. 동해는 'Sea of Japan'이라고 표기하였다. 제주도는 본 문서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아마도 대마도와 더불어 1945년에 별도의 문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조사가 포함된 이 별도의 문서는 현재 미국 지질조사국 홈페이지 (https://pubs.usgs.gov/unnumbered/70098415/report.pdf)에서 전문을 열람할 수 있다.

향후 군사작전에 대비하여 작성한 문서이기 때문에, 지형의 분석에 있어서 군사의 엄폐와 이동, 식수 공급, 굴착 등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으며, 지역별로 그 적합성 여부를 상세하게 서술한 것이 특징이다. 소장본은 현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열람할 수 있다.

서명	The Cloud dream of the nine, a Korean novel: a story of the times of the Tangs of China about 840 A.D.
편 · 저자	Kim Man-Choong, translated by Gale, James S.
발간 연도	1922
발행 사항	London: Daniel O' Connor
청구기호	구장본 서양서 (F118 2)
비고	

캐나다 출신 선교사 제임스 게일(James S. Gale)이 번역한 김만중의 소설 『구운몽』의 영역본. 1922년 영국 런던의 Kurodahan Press 출판사에서 발행하였다. 19세기 후반 미국과 유럽에서 한국의 구비문학 작품집이 영문으로 출간된 사례는 있었지만, 본격적인 문학 작품의 번역·출간은 게일의 『구운몽』이 최초였다. 저자는 1888년 장로교 선교사로 한국에 입국한 이래 한영자전을 편찬하였을 뿐만 아니라, 34년간 한국에 체류하면서 한국어 문법, 민속, 역사, 문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저술 활동을 지속하였다.

해당 도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상세한 서문(Introduction)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치한 32쪽 분량의 서문은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서문은 역자 자신이 아니라, 1946년 영국에서 출간된 Old Korea, The Land of the Morning Calm의 공저자인 엘스펫 스콧(Elspet Keith Robertson Scott)이 작성하였다. 서문에는 소설의 원저자와 번역자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작품의 줄거리와 그 배경이 되는 세계관까지 소개하고 있다. 특히, 구운몽의 줄거리를 소개하는 'The Tale'이 20쪽으로 서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해당 서문은 꿈과 현실을 오가는 복잡한 줄거리와 유교, 도교, 불교 사상이 총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소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성되었다.

본문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성진'이라는 이름의 불제자가 하룻밤의 꿈속에서 부귀영화를 맛보고 깨어나, 인간의 부귀영화는 일장춘몽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껴 불법에 귀의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본문의 목차는 원저와 동일하게 1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 안에는 16장의 흑백 삽화가 수록되어 있다. 본문의 분량은 300쪽이며, 그게 뒤이은 '부록(Appendix)'에는 본문에서 사
용된 용어 46개에 대한 설명을 미주 형식으로 수록하였다.

『구운몽』은 이후 1974년에 리차드 러트(Richard Rutt), 또 2019년에는 하인츠 I. 펜클(Heinz Insu Fenkl)에 의해 영역·출간되었다. 그러나 게일의 영역본은 '본격적인 한국 문학 번역의 효시'로 평가받는 동시에 파급력의 측면에서도 여전히 대표적인 영역본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문학계의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Internet Archive에서 전문을 열람할 수 있다.

서명	Uncle Mac the missionary, or, More news from Korea
편 · 저자	Perry, Jean (진 페리)
발간 연도	1908
발행 사항	London: Partridge
청구기호	구장본 서양서 (F118 3)
비고	○서지사항에 발행연도가 '[19--]' 로 표기되어 있음. ○촬영을 추천함.

한국에서의 선교사로 활동한 경험을 투영한 소설. 1908년 런던의 S. W. Patridge 출판사에서 발행하였다. 저자 진 페리(Jean Perry)는 영국 출신의 여성 선교사로 1891년 10월 호주장로회에 의해 선교사로 파송되어 부산에 도착했다. 그 후 함께 파송된 선교사들과 일본식 가옥을 매입, 고아 2명을 양육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하였는데 이 기관이 오늘날 동래 일신여학교의 전신이라고 한다. 이후 저자는 견해의 차이로 호주장로회와 결별, 영국복음선교회를 조직하여 서울에서 1911년까지 고아들과 맹아들을 위한 사회사업에 종사하면서, 선교지로서 한국을 서구권에 알리기 위해 소설을 집필하였다. 조선에서의 선교경험을 소설화한 저자의 문학 작품으로는 본 도서 외에도 Chilgoopie the Glad, The Man in Grey 등이 있으며, 한국에서의 선교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집필한 수기로는 Twenty Years a Korea Missionary가 있다.

본 도서 Uncle Mac the missionary는 그녀의 세 번째 문학 작품이다. 서문과 본문을 합쳐 총 170쪽 분량이며, 표지를 포함하여 총 6장의 삽화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영국 삽화가 월터 패짓(Walter Paget)의 작품이다. 저자는 서문을 통해 한국에서의 생활이 큰 즐거움이라고 밝히면서 선교사업의 성공적인 실적, 그리고 자신이 수행 중인 교육 선교를 통해 얻은 기쁨과 보람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본 소설의 주인공인 '맥(Mac)'은 선교사로서 한국에서 다양한 한국인들과 접촉하고 그들의 삶을 함께 경험하며 함께 교회를 운영하고 집회에 참여하는 등 신앙공동체를 일구면서 생활한다. 그렇게 생활하면서 만난 한국인들이 개신교에 입교하는 과정, 개신교 신앙이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가져온 변화와 그것의 소중함 등을 14개 장으로 구성된 본문에서 서술하였다.

페리의 소설 집필은 대체로 기금 모금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저자가 구사하는 담론은 개신교 전파가 어려운 한국의 관습과 문화를 딛고 그들을 신앙으로 인도하는 선교사들의 노고와 그것을 통해 나타난 변화를 조명하고 있다. 다만 저자가 상당히 유창하게 한국어를 구사하였고, 그를 통해 한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상당하였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소설로 풀어낼 정도의 문예적 면모가 있었다는 점이 소설에서 잘 드러난다. 책 겉표지의 측면부에는 영문 서명과 저자명 아래에 한글로 '조선으로도ᄒᆞᄂᆞᆫ말이오'라는 글귀가 인쇄되어 있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영국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열람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접속이 중단되었으며, 고문헌 자료실에서 원본 대출이 가능하다.

서명	Korean fairy tales
편 · 저자	Griffis, William Elliot (윌리엄 그리피스)
발간 연도	1922
발행 사항	New York: Tomas Y. Crowell Company
청구기호	구장본 서양서 (F118 4)
비고	서지사항에 발행사항을 'London: George G. Harrap' 으로 표기했으나, 이는 동 저자가 1911년에 출간한 Fairy Tales of Old Korea 를 발행한 출판사이므로 오기이다.

Corea, The Hermit Nation의 저자 윌리엄 그리피스(William Elliot Griffis)가 한국의 전래동화를 수집하여 영어로 번역해서 출간한 책. 1922년 미국 뉴욕의 Tomas Y. Crowell Company에서 발행하였다.

저자 그리피스는 앞서 1911년에 이미 Fairy Tales of Old Korea라는 제목의 전래동화집을 런던 George G. Harrap 출판사를 통해서 출간한 바 있으며, 본 도서인 Korean fairy tales 는 1911년에 출간된 책의 증보판 형식으로 출간되었다. 저자는 일찍이 그의 대표작 중 하나로 널리 알려진 Corea, The Hermit Nation에서도 제2부 "한국의 정치와 사회"의 제34장, '전설과 민담'에서 한국의 전래동화를 다룬 바 있으며, 해당 분야에 관한 저자의 관심은 1911년 Fairy Tales of Old Korea의 출간으로 이어졌다. 저자는 한국 문화의 정체성과 배경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로서 민담, 즉 전래동화가 자리하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 책은 1911년에 출간된 Fairy Tales of Old Korea에 담겨있던 19개의 전래동화에 'Fancha and the Magpie', 'The King of the Flowers', 'Car-kin and the Queen Mother', 'The Magic Peach', 'The Mirror that Made Trouble', 'Old Timber Top', 'Longka the Dancing Girl', 'Shoes for Hats' 등 8개 전래동화를 더한 것으로, 모두 27개의 민담과 동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12쪽 분량이다. 본 도서에는 '버릇없는 호랑이(The Unmannerly Tiger)'를 비롯하여 '도깨비의 장난(Tokabi and His Prans)' 등과 같은 민담은 물론 한국인의 시조인 단군 설화나 주몽 설화와 같은 건국 설화도 포함되어 있다. 또, '토끼의 눈(The Rabbits's Eyes)'는 토생전으로 거북이가 토끼의 간이 아니라 눈을 구하러 육지로 나오는 이야기이다. 이외에도 신문왕 설화와 보신각종의 기원과 같은 역사 설화나 견우와 직녀, 장화홍련전, 흥부전 등 한국을 대표하는 전래동화들이 망라되어 있다. 현재 Internet Archive에서 전문을 열람할 수 있다.

서명	The Fragrance of spring
편 · 저자	Urquhart, Edward J. (에드워드 우르크하트)
발간 연도	1929
발행 사항	Seoul: 時兆社
청구기호	구장본 서양서 (F118 6)
비고	

예수재림교회 선교사인 에드워드 우르크하트(Edward J. Urquhart, 한국명 禹國華)가 영어로 번역한 소설 춘향전. 1929년 경성에서 출판되었으며, 동대문 인근에 위치한 시조사(時兆社)에서 인쇄하였다. 저자는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선교사로 1916년 내한하여 1936년까지 20년간 개신교 선교 활동에 종사하였다. 본 도서가 출간될 당시에 저자는 시조사에서 발행하는 잡지 『월간 시조』의 주간과 편집국장의 직을 겸하고 있었다.

춘향전은 1889년에 선교사 알렌이 춘향전과 심청전, 흥부전, 견우와 직녀 등 7편의 이야기가 포함된 민담집 Korean Tales 에서 영역이 이루어진 바가 있었고, 이후에는 1912년 『매일신보』에서 연재하였던 이해조의 개작 신소설 「옥중화」를 선교사 게일이 영역하여 “The Story of Choonyang”이라는 제목으로 1917년 9월부터 1918년 7월까지 자신이 편집장을 지내고 있었던 Korea Magazine에 연재하기도 하였다. 각 영역본의 특징이 서로 다른데, 알렌의 영역본 Chun Yang, The faithful dancing-girl wife는 대략 23장짜리 경판본을 원저로 한 것으로 비교적 간략하게 축약된 이야기이며, 게일의 영역본은 당시 큰 대중적 인기를 누였던 신소설을 번역한 것으로 향후 단행본 출간까지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 도서는 저자가 판소리라는 춘향전의 본래 장르를 살리고자 영문 시의 형식으로 영역한 것이 매우 특징적이다. 본문은 총 136쪽이며,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자 서문과 독자를 위한 안내문을 별도로 배치하였다. 이 안내문에서는 인명, 지명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한국어의 영문 표기에 관한 설명 등이 이루어졌다. 또, 본문에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와 관련된 한국의 풍경 사진이 6장 간략한 설명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저자는 서문을 통해 최대한 원래의 이야기에 최대한 가깝게 번역하였나, 더 나은 이해를 위해 몇몇 변화를 주었다고 밝혔으며, 춘향이 비록 실존 인물은 아니나 많은 한국 여성을 대변하는 존재라고 설명하였다. 또, 춘향전이 동양의 나라 한국에서 구전되어오던 이야기지만 서구권에서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서사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열람할 수 있다.

서명	The rebirth of Korea: the rewakening of the people, its causes and the outlook
편 · 저자	Cynn, Hugh Heung-wo (신흥우)
발간 연도	1920
발행 사항	New York: Abingdon Press
청구기호	구장본 서양서 (M250 9)
비고	

일제강점기의 개신교 활동가 신흥우가 한국의 독립에 대한 견해를 피력한 책. 1920년 미국 뉴욕의 Abingdon Press 출판사에서 발행하였다.

저자 신흥우는 1889년 배재학당을 졸업하고 개신교 계열의 개화 운동에 참여하였다. 1903년 미국 유학을 떠나 남가주대학(Univ. of Southern California)에 입학에서 1910년에 학사학위를, 이후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와 법학박사를 취득하였다. 1911년 5월 귀국한 뒤 모교인 배재학당의 학감이 되었고, 이듬해 학당장에 취임하였다. 그러나 1919년 3.1운동 당시에 보인 소극적 행보로 인해 1920년 9월 학당직에서 물러났다. 저자는 1910년대에 윤치호와 함께 감리교계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로 정동교회, 감리교 선교부 교육이사회,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YMCA)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문은 약 190쪽 분량이며, 본문 뒤에 부록에는 한국에서의 개신교 선교에 관한 견해, 한국이 처한 정치·외교적 현실, 그리고 1876년 강화도조약부터 1910년의 한일병합조약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조약들이 영문으로 수록되어 있다. 부록만 약 80쪽이 넘는 분량이다. 저자는 서문에서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려던 차 몇몇 대학으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았으며, 해당 강연을 위해 준비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책을 집필하였다고 밝혔다. 본문 제1부에서는 3.1운동 사진과 함께 독립운동의 역사적인 원인과 배경, 그리고 과정을 서술하였으며 그 안에서 개신교의 역할도 함께 다루었다. 제2부에서는 조선총독부의 식민통치 정책, 제3부에서는 민주주의와 한국의 미래 등을 주제로 다루었다. 이를 통해 저자는 일
본의 침략 과정과 강압적인 식민통치를 자세하게 서술하고 조선독립의 정당성을 피력하고자 하였다. 속표지 뒷장에는 'TO THE WOMEN IN KOREA'라고 표기, 조선의 여성에게 이 책을 바친다는 저자의 뜻을 표현하였다. 추천사(Introduction)는 미국 북감리교 해외선교부 총무였던 프랭크 노스(Frank Mason North)가 작성하였는데, 저자 신흥우가 충실한 기독교인이요 애국자라고 소개하였다. 현재 Hathi Trust와 Internet Archive에서 전문을 열람할 수 있다.

서명	The New Korea
편 · 저자	Ireland, Alleyne
발간 연도	1926
발행 사항	New York: E. P. Dutton
청구기호	구장본 서양서 (M250 13)
비고	

통계를 기반으로 식민통치가 한국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책. 1926년 뉴욕의 E. P. Dutton 출판사에서 발행하였다. 저자 얼레인 아일런드(Alleyne Ireland)는 영국 출신 탐험가이자 식민지 행정 연구가로, 20세기 초부터 아시아에 분포한 서양 제국의 식민지 버마, 말레이 군도, 홍콩, 필리핀, 인도차이나 등에 관해서 연구해왔다. 본 도서의 서문에 따르면, 저자는 대만 방문도 계획하였으나 러일전쟁의 발발로 해당 계획은 무산되었고, 1922년 무렵 동아시아를 방문할 기회가 다시 찾아왔을 때 일본의 식민통치를 후속 연구 주제로 결정,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한다.

본 도서는 저자가 입수한 각종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조선총독부 식민지 행정의 목표와 방법, 결과 등을 항목별로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저자가 입수한 자료는 조선총독부에서 식민통치를 홍보하기 위해 발간한 영문 연간 자료집 The Annual Report on Reforms and Progress in Chosen, compiled and published by the Government-General이 중심이 되기는 하지만, 저자는 해당 자료집 외에도 기타 통계자료를 번역하여 활용하였다고 밝혔다. 책은 총 354쪽이며 목차는 총 13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지막 제11, 12, 13장은 모두 식민지 조선의 경제 성장에 관해 다루고 있다. 제1-3장에서 한국의 지리적 환경과 역사, 일본과의 관계 등 개괄적인 소개가 이루어지며, 이어서 제5-10장에서는 행정, 사법, 치안, 교육, 보건・위생 등에 관한 통계를 제시하고 그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또, 부록으로 한국과 일본이 맺은 각종 조약, 조선 총독의 포고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저자는 서문에서 오로지 통치의 효율성 측면에서만 식민지 행정을 분석하고자 한다고 밝혔으며, 한국이 이민족인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 것은 문화적 수준이 미개하기 때문이 아니라 조선 정부가 부패하고 무능하였기 때문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면서도 조선총독부의 식민통치가 서구 문물과 제도를 유입하는 등 효율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평가하면서 행정, 경제 측면에서의 발전에 특히 주목하였다. 국내에서는 2008년 『일본의 한국 통치에 관한 세밀한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살림 출판사에서 번역・출간되었다. 현재 Hathi Trust와 Internet Archive에서 전문을 열람할 수 있다.

서명	The Korean conspiracy trial: full report of the proceedings
편 · 저자	special cerrespondent of the "Japan Chronicle"
발간 연도	1912
발행 사항	Kobe: Office of the "Japan Chronicle"
청구기호	구장본 서양서 (M250 274)
비고	관련 도서로 조선총독부 외사국에서 외신 보도를 모은 자료집이 현재 고문헌 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다. [(貴 M250 42 1-5)/ (M250 43 1-9)] 이들 자료집에 대한 촬영과 해제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추천함.

1912년 6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약 20회에 걸쳐 경성지방법원에서 열린 105인 사건의 재판 보고서. 1900년 일본 고베에서 발행을 시작한 영문 주간지 Japan Chronicle에서 105인 사건의 재판 전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는데, 본 도서는 해당 기록을 모아서 도서 형태로 출간한 것이다.

일본 고베에 근거지를 둔 영문 출판사가 한국에서 열린 재판에 관심을 가지고 보도했던 이유는 미국 선교본부 차원의 대응으로 105인 사건이 워싱턴 주재 일본대사관에도 알려지는 등 미일 관계 문제로까지 확대될 조짐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재한 선교사들은 해당 사건을 기독교 탄압사건으로 인식, 사건의 전모를 본국 선교본부와 각국 언론, 미국 정부에 알리는 한편, 대규모의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1911년 10월 12일 헌병경찰대가 평북 선천의 기독교계 학교인 신성중학교 학생 3명을 검거하여 서울로 압송하고 연이어 기독교계 학교의 학생들과 교사들 수십 명을 추가로 구속하자 미 북장로회 선교부는 이 사실을 선교본부에 알리고, 조선총독부에도 서한을 보내는 등 대응을 시작했다. 그리고 2월 9일 윤치호가 이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전격 체포되자 YMCA와 그가 소속된 남감리회 선교사들도 함께 대응을 시작, 질레트(Phillip Gillet)와 YMCA 회장을 맡고 있던 저다인(Joseph L. Gerdine)은 이 사건을 조사한 보고서를 뉴욕의 각 해외선교본부로 발송하였으며, 그해 6월에 시작된 재판에 방청객으로 들어가 재판 상황을 수시로 선교본부에 편지와 전보로 알렸다.

이 재판 과정을 보도한 Japan Chronicle 역시 이 과정에 동행하였는데, 재판정의 모습과 검사의 기소 내용, 피고인에 대한 심문과 변론까지 상세하게 서술한 것이 특징이다. 총 136쪽이며 별도의 서문이나 목차는 없으며, 공판 일자별 기록을 연달아 이어서 배치한 구성이다. 제목에서 보이듯, 105인 사건은 영미권에서 'Korean Conspiracy Case'라고 알려지고 보도되었으며, 해당 도서 외에도 브라운 총무의 보고서 Korean Conspiracy Case 등이 전해진다. 조선총독부에서도 해당 사건이 외교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을 생각, 외신의 보도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정보를 수집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중앙도서관 고문헌 자료실에 함께 소장되어 있다. 현재 본 도서는 Internet Archive에서 전문을 열람할 수 있다.

서명	Thriving Chosen: a survey of twenty-five years' administration
편 · 저자	Government-General of Chosen (조선총독부)
발간 연도	1935
발행 사항	Keijo: Taisho Shashin Kogeisho
청구기호	구장본 서양서 (M450 161)
비고	Edited by Foreign affairs section

조선총독부에서 시정 25주년을 기념하여 편찬한 영문 자료집. 내지에 표기된 바에 따르면 조선총독부 외사국에서 편집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1935년 10월 경성에서 출간되었다.

시기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조선총독부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식민통치의 성과나 치적을 홍보하는 편은 아니었다. 그러나 시정 연보를 영역한 Annual Report on Administration of Chosen은 통감부 시절인 1907년부터 1939년까지 꾸준히 발행하였으며, 본 도서 역시 그러한 편찬 사업의 일환에서 기획되었다. 본문은 94쪽이며, 쪽수가 표기되지 않은 사진과 지도, 도표 등도 다수 수록되어 있다. 목차에는 각 장・절의 번호가 부여되어있지 않으나, 크게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 중 가장 앞 순서에는 채색 지도가 배치되어 있는데, 한반도 각지의 특산물이 그려져 있고, 동해는 'Japan Sea'라고 표기되어 있다. 지도에 이어 배치된 서문은 당시 정무총감이마이다 기요노리(今井田清徳)가 작성하였는데, 정무총감의 영문 직책은 'Vice Governor-General'이라고 표기하였다. 서문 뒤에는 조선총독부 청사 전경,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 통감 및 통감부 전경, 역대 총독, 그리고 역대 정무총감의 사진을 차례로 삽입하였다.

이어지는 3개의 장에서는 조선의 기후와 풍토, 동・식물, 인구 등을 소개하고, 6번째 장에서는 교육, 문화, 전통, 금융, 토지, 농업, 임업, 광업, 교통 및 통신, 무역, 보건위생 등 27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선총독부 통치의 성과를 지도, 통계 및 사진 자료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다. 7번째 장에서는 조선의 관광지, 8번째 장에서는 만주에서의 성과를 소개하고, 9번째 장에는 조선총독부의 통치, 특히 식민지 조선의 발전에 관한 재한 서양인들의 견해를 수록하였다. 마지막 장에는 조선의 장래에 관한 우가키 가즈시케(宇垣一成) 총독의 연설문을 수록하였는데, 이는 1934년 9월 경성에서 개최된 제국 중등교육 관련 행사에서 했던 연설이라고 밝혀져 있다. 본 도서는 현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열람할 수 있다.

서명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편 · 저자	Rhee, Syngman (이승만)
발간 연도	1912
발행 사항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청구기호	구장본 서양서 (M600 101)
비고	

우남 이승만이 프린스턴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을 출간한 책. 저자는 1875년 황해도 평산군에서 태어나 대한제국 시절 독립신문과 협성회회보 주필 등을 거치며 독립협회 활동을 하였고, 미국으로 망명한 이후에는 외교독립노선을 주장하면서 활동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자 마지막 주석을 거쳐 대한민국의 제1·2·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였다.

독립협회 활동에 참여하였다가 투옥되었던 저자는 사면 이후 도미하여 5년에 걸쳐 1907년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학사, 1910년 2월 하버드대학교에서 석사, 1910년 6월 14일 프린스턴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가 박사학위를 받을 당시 총장이 그로부터 3년 후에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된 우드로 윌슨(Thomas Woodrow Wilson)이었다. 본 도서는 당시 프린스턴대학교 대학원장 앤드류 웨스트(Andrew West) 교수의 주선으로 프린스턴대학교 출판부에서 단행본으로 출간하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해상무역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19세기 중엽까지 전시 중립법의 발전을 시대적 변천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또, 중립법의 발전사를 5개의 시기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제1장에서는 근대 국제법 발전 초기부터 1776년 미국 독립선언 시까지, 제2장에서는 1776년부터 1793년까지, 제3장에서는 1793년부터 1818년까지, 제4장에서는 18181년부터 1861년까지, 제5장에서는 1861년부터 1872년까지 중립법의 발전과정을 설명하고, 마지막 제6장은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필자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조선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겪었다는 점에서 해당 문제가 다루어졌으리라 생각할 수도 있으나, 본 연구는 어디까지나 미국의 관점에서 본 해상 교역의 자유를 중심으로 다루기 때문에 미국이 직접 관련되지 않은 한국에서 벌어진 전쟁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 논문이 출간되기 전까지는 미국 내에서 전시중립을 주제로 한 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시중립의 발전을 미국적 관점에서 정리한 선도적 학술서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현재 Internet Archive와 Hathi trust에서 전문을 열람할 수 있다.

⑷ 정치학

서명	分權論
편 · 저자	福沢諭吉 (후쿠자와 유키치)
발간 연도	1877 (明治 10년)
발행 사항	東京: 福沢諭吉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500 124)
비고	일본국회도서관본과 출판년월이 동일하나 겉표지, 속표지, 판권지의 차이가 있어 같은 판본으로 보기 어려움. 촬영 필요

『분권론(分權論)』은 일본의 계몽주의 사상가이자 교육자이며 게이오 대학교의 설립자인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 1834-1901)가 지방 분권을 옹호한 저술이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중앙집권을 실시하고 부(府)와 현(縣)을 두어 중앙에서 지사를 파견했지만 여전히 각 다이묘는 지번사(知蕃事)로 번의 통치를 계속하였다. 이러한 이중적 통치는 비효율적이고 구역의 분할을 복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폐번치현은 번을 폐지하고 조세를 메이지 정부가 거두어 국가재정을 안정화시키려고 하였다. 폐번치현은 결국 200만 명이 넘는 번사(蕃士)들을 대량해고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메이지 정부와 번의 대립이 심각해졌다. 『분권론』은 한편으로는 메이지 정부의 폐번치현을 환영하면서 정권(군사, 외교)와 치권(지방의 치안 유지 및 교육)을 모두 정부가 쥐는 것이 아니라 치권은 지방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 책이다.

『분권론』은 1876년 10월 24일 메이지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쿠마모토(熊本)에서 일어난 신푸렌(神風連), 같은 해 10월 27일 후쿠오카 현의 아키즈키(秋月), 10월 28일 하기(萩)에서 사족반란이 일어난 다음 해에 저술되었다. 후쿠자와는 『분권론』에서 치안과 교육을 사족들에게 맡김으로써 사족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사족들에 대해 메이지 정부가 내란죄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먼저 내란을 일으킨 것은 정법(政法)의 관점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죄이지만, 학자의 입장에서 검토해보면 그 내란의 원인, 결과,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고찰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사상 및 양심의 자유에 대한 보장을 간접적으로 주장한다. 그는 국권을 입법과 외교 등으로 규정하고 치권은 “주거하는 인민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폐번치현 이후 후쿠자와 유키치가 서양 정치 사상과 법의 관점에서 신정부와 구정치세력의 대립을 완화시키려고 할 때 어떠한 논리와 개념들을 사용했는지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이다.

경성제대본은 일본국회도서관본과 출판년월은 동일하지만 겉표지, 속표지, 판권지의 차이가 있다. 일본국회도서관본은 겉표지가 없고 속표지의 ‘吉’의 ‘士’가 ‘土’로 표기되어 있고, ‘版’의 글자도 약간 다르게 표시되어 있다. 마지막 페이지의 경우 일본국회도서관본과 판권면허일자, 저술출판인은 모두 동일하나 ‘賣捌書林’은 일본국회도서관본은 ‘丸家善七’로, 경성제대본은 ‘山中市兵衛’, ‘丸家善七’, ‘慶應義塾出版社’로 되어 있다.

서명	自由略論
편·저자	大井憲太郎 (오이 겐타로)
발간 연도	1889 (明治 22년)
발행 사항	大阪: 中村芳松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500 125)
비고	경성제대본은 일본국회도서관본과 다른 판본임.

『자유약론(自由略論)』은 일본의 정치가, 변호사, 자유민권운동가인 오이 겐타로(大井憲太郎, 1843-1922)가 1889년에 쓴 자유에 대해 개념부터 구체적인 제도까지 설명한 저술이다. 이 책은 상편과 하편으로 나눠져 있다. 상편은 사회개혁과 자유의 관계, 자유의 종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한다. 사회개조가 하루아침에 될 수 없다는 점, 사회개조를 할 법을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개혁방법으로 효과가 있는 것은 무엇인지, 자유가 하늘로부터 나온 고유한 것이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 자유의 종류와 정치상의 자유, 생각의 자유, 자유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과 상반되는 것 등으로 시작하여 국가, 정치, 사회에서 자유의 의미를 광범위하게 논한다. 하편에서는 자유주의는 국가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오히려 국가의 이익과 백성들의 복리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유주의 국가의 제도의 형태와 당위에 대해 논한다. 구체적으로는 관료와 백성이 조화되기 위해서는 군민동치(君民同治)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공론은 민중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그리고 옳다고 여기는 것과 아니라고 여기는 것임을 알아야 하며, 유교가 왜 정치개혁에 방해되는지를 설명하며 실질적인 개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당정치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 논한다.

저자인 오이 겐타로는 나가사키에서 난학과 영어를 배운 뒤 에도에 상경하여 불어와 화학을 배우고 에도 막부의 개성소 사밀국에 출사한다. 메이지 유신 이후 자유당 내 좌파로 활동하다가 1885년 오사카 사건을 일으켜 투옥, 1889년에 특사로 출옥한다. 만년에는 대외강경론자로 표변하지만, 이 책을 출판했던 시점에는 입헌자유당을 결성하고 보통선거를 주장하며 노동과 농민운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자유약론』의 경성제대본은 일본국회도서관본과 다른 판본으로, 일본국회도서관본은 내표지가 있으나 경성제대본은 없고 대신 일본국회도서관본에 없는 자유약론서, 자유약론자서가 포함되어 있다. 판권지도 다르다. 일본국회도서관본은 '메이지 22년 4월 1일 인쇄를 시작해서 동년 4월 2일 재판까지'가 표시되어 있고, 경성제대본은 '메이지 22년 3월 19일 상편 인쇄, 3월 20일 상편 출판, 4월 1일 하편 인쇄, 4월 2일 하편 출판'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일본국회도서관본은 상하권이 합쳐져서 금액이 표시된 데 반해 경성제대본은 상하본이 따로 금액이 책정되어 있다. 판권소유라는 표시도 경성제대본에만 있다.

서명	民約論覆義
편 · 저자	Rousseau, Jean-Jacques (장 자크 루소) 저, 原田潛 (하라다 센) 역
발간 연도	1883 (明治 16년)
발행 사항	東京: 春陽堂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500 129)
비고	일본국회도서관 등 다른 아카이브에 소장되어 있으나, 공개되어 있지 않음. 촬영 필요.

『민약론복의(民約論覆義)』는 장 자크 루소(Rousseau, Jean-Jacques, 1712-1778)의 『사회계약론(Du Contrat Social ou Principes du droit politique)』을 하라다 센(原田潛)이 주해를 달아 1883년 번역·출판한 책으로 민주주의 개념의 초기 번역을 잘 보여주는 책 중 하나이다. 『사회계약론』은 잘 알려져 있듯이 장 자크 루소의 대표적 저술로 1762년에 출판되었다. 『사회계약론』에서 루소가 핵심적으로 제시하는 이론은 일반의지론과 사회계약론이며, 그 내용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인간주권을 강조한다. 요컨대 이 책은 루소가 생각하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구상이 제시되어 있다. 『사회계약론』의 일본 번역은 일본을 변화시키기 위해 서양의 정치제도와 개인 및 개인의 권리를 새롭게 규정하던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루소의 문제의식을 당대 일본인들이 어떻게 전유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하라다 센의 『사회계약론』의 중요성은 그가 이 책을 번역할 때 선택한 용어와 개념들에서도 발견된다. 『사회계약론』의 일본 최초의 번역은 핫토리 토무(服部德, ?-?)의 『민약론(民約論)』(1877)이며, 이후 나카에 조민(中江兆民, 1847-1901)이 한문으로 번역한 『민약역해(民約訳解)』(1882)가 출판되었다. 하라다 역은 『사회계약론』의 세번째 완역본으로, 핫토리 역을 많이 참조하였고, 핫토리 역의 오류 역시 그대로 답습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오류와 별개로 『민약론복의』는 서양 정치개념의 초기 번역어를 잘 보여주는 책이며, 또한 다른 번역자들과 번역어의 선택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자료이다. 예를 들어 하라다는 사회계약을 민약, 주권자를 군주, 정치 상태를 인세, 대물권을 토지, 대의원, 대표자를 대의사라고 번역하거나 투표를 발언, 선출을 선거, 호민관을 감국관, 독재관을 총재관, 감찰관을 심사관, 정치종교를 종교로 번역하는데, 그 중 어떤 것들은 기존 번역자들과 동일하게 번역하고 있으나 본인만의 개념 번역 역시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들은 1880년대에도 번역어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각 페이지는 19세기 동아시아 출판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인 두주(頭註)를 두는 형식을 취했다. 두주는 루소가 아니라 역자인 하라다 센이 붙인 것으로 제목의 복의(覆義)는 하라다의 주를 의미한다. 하라다는 서두의 「예언육칙(例言六則)」에서 원서의 내용이 난해하여 독자의 편의를 위해 주석을 달았다고 설명한다.

서명	時事小言
편 · 저자	福沢諭吉 (후쿠자와 유키치)
발간 연도	1881 (明治 14년)
발행 사항	東京: 福沢諭吉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500 136)
비고	속표지에 '저자장판(著者藏版)'으로 되어 있음.

『시사소언(時事小言)』은 일본의 계몽주의 사상가이자 교육자이며 게이오 대학교의 설립자인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 1834-1901)가 쓴 책으로, 국력의 강화로 일본이 독립 주권국가를 확립해야 하며, 국내 정치에서의 안정과 국제 관계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민화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두 6편으로 되어 있으며, 제1편은 안으로는 안정을 이루고 밖으로는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2편은 정치에 대한 글로, 1편에 이어 안으로는 안정되고 밖으로는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력이 강한 국가를 세워야 하고 대의의 실제를 시행하기 위해 재정이 탄탄해야 하며 모든 지역의 재정적 건전성을 위해 산업이 장려될 필요가 있으며, 행정의 발전을 위해 국회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제3편은 주권자와 관료의 권력의 명확한 한계, 병력의 강한 무력 제어, 압제적 통치가 아닌 엄정한 법의 실현 등이 전제되어야 행정력이 강한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4편은 국제사회에서 강대국과 약소국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일본과 외국과의 관계, 조약, 군사력과 상업적 발달, 국가 간 소송의 기준이 되는 법률에 대한 지식, 서양 국가의 기본정보, 즉 인구, 재정, 육군 및 해군의 수 및 국방 지출 비용, 외교 등을 기술한다. 제5편은 국가의 재정과 민간 경제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한편 일본인의 생활 개선의 필요성, 국가 재정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논한다. 제6편은 국민의 기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하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여성의 교육의 필요성도 역설한다.

이 책에는 후쿠자와 유키치의 조선과 중국에 대한 시선이 드러난다. 그는 조선과 중국을 일본과 비교하며 폄하하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서구 열강에 잠식되고 있고 조선의 경우 속국의식을 버리지 못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일본이 두 국가와 달리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사소언』은 후쿠자와 유키치가 인식하고 있는 국제사회와 국내정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괴리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흥미로운 책이다.

서명	混同秘策
편 · 저자	佐藤信淵 (사토 노부치) 저, 織田完之 (오다 칸시) 편
발간 연도	1888 (明治 21년)
발행 사항	東京: 穴山篤太郎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500 34)
비고	

『우내혼동비책(宇內混同秘策)』이라고도 불리는 『혼동비책』은 에도시대 후기의 농정학자이자 경세가인 사토 노부치(佐藤信淵, 1769-1850)가 1823년에 저술한 일본 국내의 통치론과 세계 정복론을 개진한 책이다. 전권은 「우내혼동대론」, 권1, 후권은 권2와 「泉原法略說」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근왕가(勤王家) · 농업사학자이자 메이지 정부에 봉사한 오다 칸시((織田完之, 1842-1923)가 교정·출판하였다. 사토 노부치는 농정가로 유명하지만, 그는 동시에 에도 시대 후기의 절대주의 사상가로도 알려져 있다. 오다 칸시는 메이지 정부의 농상무성(農商務省)에서 근무할 당시 농정학자인 사토 노부치의 저서를 편찬하고 일본 재래식 농법의 조사 및 편찬에 종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혼동비책』은 농업과 관련된 책은 아니지만, 사토의 저서들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번역된 것으로 보인다.

『혼동비책』은 일본이 세계 만국의 근본이며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일본 국내의 정치를 굳건히 하되, 중앙집권적이고 행정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토 외에 에도에 왕성을 만들어 동경(東京)을 만들고 오사카는 서경(西京)으로 세우며, 나고야 · 젠소 · 고치 · 마쓰에 · 하기 · 하카타 · 구마모토 · 오오도마리 오오미-가나자와-누마타루-니가타-아오모리-센다이-남부에 절도 대사를 두어 관내의 정사를 통치하고, 하치조지마(八丈島), 오가사와라(小笠原) 제도를 개발하여 그 자원을 이용하며 도쿄의 방어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도에 건설될 황도는 황성을 중심으로 서쪽에 황실, 동쪽에 대학을 두는 나름대로 구체적인 주장을 제시한다. 다른 국가의 정복에 대해 그는 약소국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첫번째 정복해야 할 땅으로 중국의 만주를 지목한다. 군사적 및 경제적으로 만주 이북을 정복한 후 중국 본토에 대만과 닝보에서 침공하고 난징에 임시 황궁을 정하고 명나라 황제의 후손을 상공에 봉해 전통적인 조상숭배를 인정한 후 신사와 학교를 세워 교육하라고 하였으며, 중국을 정복한 후에는 필리핀, 남양제도의 영유권 등을 주장했다.

서명	自由之理
편 · 저자	Mill, John Stuart (존 스튜어트 밀) 저, 中村正直 (나카무라 마사나오) 역
발간 연도	1877 (明治 10년)
발행 사항	東京: 木平謙一郎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500 51)
비고	전 2책. 번역자의 본명은 '나카무라 마사나오'로, 책 표지에 이름이 '中村敬太郎'라고 나오지만 사이트에는 '中村正直'를 병기할 필요가 있다. 나카무라 마사나오는 그의 호인 게이우(敬宇)로 잘 알려져 있지만, 본명 역시 같이 표시해야 한다.

『자유지리(自由之理)』는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의 저서 『자유론(On Liberty)』의 일본어 번역서로, 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正直)가 1870년 말부터 1871년 초까지 번역한 책이다. 메이지 초기 자유민권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유명하다. 원본은 1870년 런던 출판이라고 표시된 것을 보아 1870년 Longmans, Green, Reader, and Dyer에서 나온 보급판을 저본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속표지 다음 페이지에 빌헬름 폰 훔볼트의 『정부의 영역과 의무(The Sphere and Duties of Government)』에서 발췌한 문장과 그에 대한 한문 번역을 삽입했다. 그 다음으로는 나카무라와 시즈오카 학문소(靜岡學問所)에서 화학을 가르치던 미국인 교사였던 에드워드 워런 클라크(Edward Warren Clark)가 1872년 1월 27일에 작성한 소개의 글, 오쿠보 이치오(大久保一翁)의 인사말('一翁寬'으로 되어 있음), 「자서」, 「자서」(나카무라 마사나오가 썼다고 표시되어 있음), 「밀 소전(小傳)」, 목차, 그리고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의 제목은 1장 「서론」, 2장 「사상과 토론의 자유」, 「인민으로부터 구별되는 개성이 어떤 의미에서 복지[福祥安寧]가 되는 요소가 됨을 논함」, 4장 「정부[仲間會所]가 인민의 위에서 시행하는 권세의 한계를 논함」, 5장 「적용[施用]을 논함」이다. 경성제대도서관에는 『자유지리』는 1872년과 1877년 판본이 소장되어 있다. 1872년본이 5권 분책인 반면 1877년본은 합본으로 단권이다.

이 책의 본문은 일본어 번역이지만, 클라크의 소개의 글은 영어, 오오쿠보의 인사말은 의고문(擬古文), 두 개의 자서는 한문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독특하다. 나카무라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충 설명을 넣거나 원문에 없는 영국 백과사전 항목을 번역한 문장을 난외주(欄外註)로 삽입했다. 메이지 초기 번역서들이 갖고 있는 문제와 동일하게 나카무라가 선택한 번역어들이 원전의 원의를 그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자유지리』는 루소의 『사회계약론』 번역 등과 더불어 메이지 초기의 서양 정치 개념 및 사상의 일본적 수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이다.

서명	宰相責任論
편 · 저자	Rebecque, Benjamin Constant de (뱅자맹 뢰벡) 저, 大塚成吉 (오오츠카 나리요시) 역
발간 연도	1883 (明治 16년)
발행 사항	東京: 潛心堂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500 64)
비고	

『재상책임론(宰相責任論)』은 스위스 출신의 프랑스 정치가, 정치사상가, 저술가인 뱅자맹 콩스탕(Benjamin Constant de Rebecque, 1767-1830)의 De la responsabilité des ministres, par M. Benjamin de Constant (1815)를 오오츠카 나리요시(大塚成吉)가 번역한 책이다. 콩스탕의 관심은 독립적이며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정치사안에 대해 대립할 경우 그 정치적 교착상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있었다. 영국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의회 시스템의 기본 헌법 원칙으로 공공기관 인사절차에 대한 '주무장관의 책임성(ministral responsibility)'이라는 항목이 존재하며, 이는 임명과 임명된 사람의 선정에 대한 책임은 의회에 책임을 지는 주무장관에 있다는 것이다. 콩스탕은 영국의 '주무장관의 책임성'이 행정기관과 입법기관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지만 프랑스에 도입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책의 목적은 프랑스에서 정치적 책임의 도입을 막고자 한 것으로, 19세기 대륙 자유주의자들의 주요 약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저술로 평가받는다. 이 책을 번역한 오오츠카 나리요시는 메이지 시대의 정치가이자 변호사, 제1기 중의원 의원이었으며, 이 책 외에도 경제와 법에 대한 번역서가 다수 있다.

『재상책임론』의 서문은 메이지 시대 관료이자 법률가였던 시마모토 나카미치(島本仲道, 호 北洲, 1833-1893)가 썼으며, 본문은 「책임의 소재를 확정함」, 「재상 책임에 관한 헌법 규칙」, 「재상 책임의 본래 의미를 규명하는 것이 속관에 대한 처분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이유를 논함」, 「반박에 답함」, 「1814년 의회에 제출된 의견」, 「통상적인 책임」, 「재상이 부도덕하여 공개적으로 신임을 받을 수 없다고 선언함」, 「재상을 재판해야 하는 재판소」, 「재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의 변론을 공론화하는 일」, 「소송절차」, 「재상에게 언도되는 형벌」. 「제왕의 특사권에 제한을 두어 형벌을 받은 재상과 보스에게 부여될 수 있는가?」, 「책임의 효과에 관해 앞의 몇 장에서 논의하여 정해진 것의 결과를 논함」, 「개인의 자유」 등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에 정오표가 첨부되어 있다.

서명	經世新論
편 · 저자	杉田定一 (스기타 데이이치)
발간 연도	1880 (明治 13년)
발행 사항	大板: 杉田定一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500 95)
비고	도서관 사이트의 발행사항에 출판지가 누락되어 있음. ‘오사카’로 수정되어야 함. 책의 내용에 대한 부기 및 낙서가 있음. ‘스기타 테이이치’인데 ‘사다이치’로 오기. 수정 필요.

『경세신론(經世新論)』는 일본의 정치가인 스기타 데이이치(杉田定一, 1851-1929)가 1880년에 출판한 책이다. 스기타는 일본 오사카 출신의 정치가로, 자유민권운동의 선두주자로 제1회 중의원 선거에서 후쿠이현(福井県)에서 당선되었다. 이후 제1차 오쿠마 내각(大隈内閣) 홋카이도 청장, 중의원 의장 등을 역임한 자유당, 헌정당(憲政党), 정우회(政友会)의 중진이다. 이후 1912년 귀족원 의원이 된다.

그는 『경세신론』의 필화 사건으로 메이지 14년(1881년) 1월에 구금되어 5월 30일 가나자와 법원에서 금옥 6개월의 판결을 받았다. 그는 자유민권론자로 알려져 있다. 스기타는 1875년 도쿄에 상경하여 『채풍신문(采風新聞)』을 창간, 신문기자로 활동하며 정부에 비판적이어서 수차례 감옥에 갇혔다. 이타가키 후스케 등과 함께 자유민권운동에 정진한 것으로도 유명한데, 1882년 난에츠 자유당을 결성, 고향인 후쿠이에서 국회 개설 청원 운동과 지세 개정 반대 투쟁을 지도했다. 1884년에는 상하이에 건너가 동양학관 설립에 관여하기도 했다.

『경세신론』은 전세계가 전쟁상태라는 전제 속에 완력론(腕力論), 외교론, 동양회복론, 기론(機論, 불평당설(不平黨說), 자유가진취론(自由可進取論), 창란론(唱難論) 등을 논한다. 내용에서도 확인되듯이 이 책은 자유민권론자로서 스기타의 면모도 잘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의 아시아주의를 드러내는 글이기도 하다. 스기타는 아시아가 통합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한편 백인들과 서양 열강들의 야심 및 인종차별주의를 비판했다. 그는 모든 국가들이 국익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피해자가 되길 기다리기보다는 싸움에 뛰어드는 것이 현명하다고 주장한다. 『경제신론』에는 그의 이와 같은 관심사가 잘 반영되어 있다. 이 책은 세계가 전쟁상태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시작, 국가 간의 무력, 외교, 동양이 어떻게 강대국으로 위상을 회복할 것인지,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강한 국방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강조되어 있다. 이 책은 메이지 시대의 자유민권운동론자들이 국가와 국제정치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자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서명	日本政体史 (政治学経済学法律学講習全書)
편 · 저자	秦政治郎 (하타 세이지로)
발간 연도	1890 (明治 23년)
발행 사항	東京: 博文館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510 105)
비고	저자 하타 세이지로의 이름이 '마사지로' 로 표기되어 있음. 수정 필요.

『일본정체사(日本政体史)』는 정치학·경제학·법률학 강습전서(政治学経済学法律学講習全書) 시리즈 24권 중 한 권으로, 고대부터 메이지 유신시기까지 일본의 정치사를 제도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기술한 책이다. 저자인 하타 세이지로(秦政治郎)는 일본의 역사교사로, 『일본제국역사(日本帝國歷史)』, 『교육칙어봉석(教育勅語奉釋)』 등의 저서가 있다. 『일본정체사』는 「소인(小引)」, 「개원연표(改元年表)」, 「변천총론(變遷總論)」, 「정체종론(政体宗論)」, 「제계약표(帝系略表)·장군약표(將軍略表)」, 제1강 「정치의 기원과 국체」, 제2강 「족제자치정략(族制自治政略)」, 제3강 「직제간섭정략(職制干涉政略)」, 제4강 「위임정치」, 제5강 「복고정치」, 제6강 「양립정치(兩立政治)」, 제7강 「번병정략(藩屛政略)」, 제8강 「왕정유신의 정략」 등 총 8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타 세이지로는 「소인」에서 당시 헌법상의 군현제도가 점차 완비되고 국회 개설을 곧 앞둔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국의 역사를 잘 알아야 하며, 국가와 지식인들 중 정치를 논하는 사람들, 사회와 자기를 위해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들 역시 역사를 거울삼아 미래에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 예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나간 역사의 득실의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분석하여 대응해야 하며, 일본의 모든 제도가 서양에서 온 것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역사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정치적 변화를 7가지 현상적 변화로 설명하고, 다시 제도의 차원에서 족제정(族制政)→군주독재의 정치→군현제도→왕정복고→봉건정→무인할거정치(武人割据政治)→봉건막병(封建藩屛)→왕정복고→군현정치의 고제복고→입헌대의정치 성립으로 설명한다. 이 국가로서 어떻게 성립했는지, 두주(頭註)를 두어 본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기 쉽도록 편집했다. 막부정치를 위임정치로, 군현정치를 유복고로 이해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데, 여기에서 위임, 복고는 현재의 의미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유신(維新)은 이 책에서 복고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책의 내용은 정치사를 사건 중심으로 서술하기보다는 각 정체의 제도적 특징을 논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장 중요한 장은 제8강인데, 중앙집권적 정치의 개편, 삼권분립, 관제의 개정, 조세개혁, 법률 개혁, 내각 설치, 대정대신 폐지, 헌법 포고, 중의원, 귀족원 등에 대한 설명이 망라되어 있다. 또 메이지 유신 이후 개정된 조세의 종류 및 국가재정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쉽게 이해하도록 표와 그림을 삽입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제도 개혁의 방향과 의미를 일본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규정하고자 했다는 점, 그리고 역사를 정치 및 행정제도사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자료라 할 수 있다.

서명	共和原理
편 · 저자	Naquet, Alfred Joseph (알프레드 조셉 나케) 저, 奧宮健之 (오쿠노미야 겐시) 역
발간 연도	1882 (明治 15년)
발행 사항	東京: 自由出版會社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510 106)
비고	상하 2권으로 되어 있음. 도서관에서 검색이 안됨. 일본 국회도서관본은 상하 2권을 합쳐서 파일로 만들어서 판권지 등이 빠져 있음. 촬영필요.

『공화원리(共和原理)』는 알프레드 조셉 나케(Alfred Joseph Naquet, 那計阿爾布禮, 1834-1916)의 책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다. 알프레드 조셉 나케는 프랑스의 화학자, 교수, 정치가로, 비밀결사활동을 하다 스페인으로 추방되기도 한 19세기 말 프랑스 정치가 중 극좌파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이 책을 번역한 오쿠노미야 겐시(奧宮健之)는 영문학자이자 사회운동가인데, 그 역시 일본의 자유당 좌파 중 가장 급진적인 행동파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화원리』는 모두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헌군주정이나 전제정과 대비되는 공화정, 특히 프랑스 공화정의 특징을 저자의 입장에서 정리한 것으로 보이나, 오쿠노미야가 어떤 원본으로 작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케의 「약전(略傳)」을 보면 국회의원으로서 나케의 급진적인 발언과 활동을 강조하면서 그를 프랑스의 뛰어난 정치가의 표본으로 설명하고 있다. 나케와 오쿠노미야가 동시대인이라는 점, 둘다 급진적인 정치가로 평가받았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오쿠노미야의 관점에서 급진적이며 실천적인 차원의 정치이론을 수입 및 수용을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상권은 10장까지, 하권은 11장부터 16장까지 있다. 상권 목차는 상하권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공화정체론」, 「질서론」, 「국보론」, 「준법론」, 「헌법론」, 「입법권론」, 「행정권론」, 「각성책임론」, 「의원개선론」, 「집권과 분권론」, 「권형원론」, 「정교한계론」, 「교육론」, 「조세론」, 「결합」, 「회사」, 「출판」, 「자유론」, 「도부론」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하권 목차를 보면 「권형원론」, 정교한계론」, 「교육론」, 「조세론」, 「결합」, 「회사」, 「출판」, 「자유론」, 「도부론」이 각각 「소학교육」, 「고등법원론」, 「정교분리론」,「조세론(1, 2, 3, 4)」, 「결사」, 「집회」, 「출판자유론」, 「도부론」으로 바뀐 것이 확인되어, 하권을 출판할 때 장 제목을 교정한 것으로 보인다. 판권지를 보면 상권은 1882년 10월, 하권은 1882년 12월에 출판되었다. 각 페이지에 두주(頭註)를 두어 개념이나 용어에 대해 설명 등을 부기하거나 내용을 정리해서 삽입함으로써 독자들이 쉽게 읽도록 했다.

서명	政治學
편 · 저자	Rathgen, Karl (칼 라트겐) 저, 山崎哲蔵 (야마자키 데쓰조), 李家隆介 (리노이에 류스케) 역
발간 연도	1894 (明治 27년)
발행 사항	東京: 明法堂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510 130)
비고	도서관 링크는 일본국회도서관본과 연결되어 있는데, 경성제대본과 다른 판본임.

『정치학(政治學)』은 칼 라트겐(Karl Rathgen, ラートゲン, 1856-1921)이 도쿄대학에서 강의한 내용을 리노이에 류스케(李家隆介), 야마자키 데쓰조(山崎哲蔵)가 번역, 출판한 것이다. 칼 라트겐은 독일의 경제학자로, 1882년부터 1890년까지 도쿄대에서 공법, 국가학, 행정학을 가르쳤다. 『정치학』은 이를 반영하여 국가편(상), 헌법편(중), 행정편(하)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길준의 『정치학』은 라트겐 책의 한국어 중역본으로 알려져 있다. 메이지 시대의 정치학자이자 교육자인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의 발문, 병학자이자 서예가인 요시다 반카(吉田晩稼)의 서(序), 관료이자 정치가인 이시즈카 에이조(石塚英藏)의 서(序), 범례, 야마자키가 쓴 「정치학소인(政治學小引)」 이후 본문이 이어진다.

국가편은 「서론(緖論)」에서 형이상학, 정치학을, 제 1편 「국가의 요소」에서 기후, 지형, 지질, 인민과 국가의 관계 등과 같은 자연적 요소, 가족제도, 지방단체, 사회, 민족과 같은 사회적 요소를 다룬다. 제 2편 「국가의 생리」에서 국체와 정체를 구분하여 국체를 이론적으로 분류하고 국가의 형태를 역사적으로 구분하여 고대국가, 가족국가, 신권국가, 도시국가, 봉건국가로 분류한다. 그리고 근대국가의 형태를 정치제도의 형태에 따라 입헌군주제와 대의공화제, 연방제로 구분, 제시한다. 그리고 국권의 범주를 서술하되, 국가의 목적, 정부 행위의 범주, 국권의 제한 및 국민의 자유, 국가의 연원과 성질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헌법편은 「서론(緖論)」, 「국가의 주권」, 「국가의 기관」, 「국가의 기능(주권의 작용)」 3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권의 주체, 객체, 국토, 국민, 국적의 취득 및 상실, 군주에 대한 규정, 관직의 종류와 의무, 국회의 성질, 권한, 편제, 국회의원의 지위, 중앙정부의 기능, 입법, 행정권의 구분, 국가별 지방제도의 특징, 사법행정권, 사법부의 기능 및 사법권의 범주, 특징, 재무행정권, 군사행정, 행정감독권, 행정재판 등을 영국, 프랑스, 프로이센, 독일, 일본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행정편은 경찰제도, 인구조사, 빈민구제, 공중위생, 초, 중, 대의 대중교육, 교육해정기관, 여성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념, 사건, 용어 풀이 외에도 본문의 장절의 구분을 두주(頭註)에 표기해서 보기 쉽게 편집되어 있다.

도서관 링크는 일본국회도서관본과 연결되어 있는데, 경성제대본과 다른 판본이다. 일본국회도서관본은 1895년본으로 국가편, 헌법편, 행정편이 각각 한 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경성제대본은 1897년본으로, 세 편 합본으로 되어 있다.

서명	眞政大意
편 · 저자	加藤弘之 (가토 히로유키)
발간 연도	1870 (明治 3년)
발행 사항	東京: 谷山樓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510 153)
비고	발행사항에 출판지 정보가 빠져 있음. '東京'으로 수정. 『진정대의』의 일본국회도서관 디지털 파일은 해상도가 너무 떨어져서 원본의 서지적 특징이나 형태를 알기 어려움. 높은 해상도로 촬영 필요.

『진정대의(眞政大意)』는 일본의 정치학자이자 교육자인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 1836-1916)의 정치에 대한 저술로 그의 또 다른 저술인 『입헌정체략(立憲政體略)』의 다음에 출판한 책이다. 가토 히로유키는 19세기 중반 이후 서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번서조소(蕃書調所)라는 연구교육기관을 설치하고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을 비롯한 서양 각국의 법학, 철학, 문학, 사학, 심리학 등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서적을 수집하고 번역했다. 가토 히로유키는 이 번서조소 출신 중에서 독일의 국가학(Staatslehre)을 연구하던 양학자였다. 이후 초대 도쿄대학 총장을 역임했고, 유럽의 대학 및 교육제도를 모방하여 일본의 근대적 학제확립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입헌정 및 서양의 정치제도 도입을 일찍부터 주장하고 천부인권설에 입각, 자신의 주장을 전개했는데, 『진정대의』는 그의 초기 정치사상론을 대표하는 저작 중 하나이다.

가토는 『진정대의』 서문에서 국정에는 치법(治法)과 치술(治術)이 있으며,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국정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고 설명한다. 그는 『입헌정체략』이 치법에 대한 책이라면 『진정대의』는 치술에 대한 저술이며, 그 핵심은 안민(安民)에 있고, 안민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성과 국가의 기원을 잘 아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치법은 법과 제도, 즉 상하동치(上下同治), 만민공치(萬民公治)의 입헌제도와 삼권분립의 제도를 의미한다. 치술은 정치를 의미하는데, 가토는 이 책에서 천부인권 개념의 설명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이 책이 서양 정치사상을 전달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데, 가토는 천부인권을 유교의 인의, 예양, 효제, 충신과 같은 개념과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대의』는 아키쓰키 다네타쓰(秋月種樹)의 서문, 가토 히로유키의 자서(自序), 상권, 하권,권대사(權大史) 이쿠타 구와시(生田精)의 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토 히로유키는 서문에서 자신의 다른 이름인 후지와라 히로유키(藤原弘之)를 사용했다.

서명	政治眞論: 一名主權辯妄
편 · 저자	Benthan, Jeremy (제레미 벤담) 저, 藤田四郎 (후지타 시로) 역
발간 연도	1882 (明治15년)
발행 사항	東京: 自由出版會社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510 164)
비고	

『정치진론(政治眞論): 일명주권변망(一名主權辯妄)』은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의 첫번째 저술이자 주권에 대한 에세이인 A Fragment on Government; or Comment on the Commentaries: Being an Examination of What Is Delivered, on the Subject of Government in General, in the Introduction to Sir William Blackstone's Commentaries (1776)을 번역한 책이다. 벤담이 이 책을 저술한 목적은 1765년 출판된 윌리엄 블랙스톤(William Blackstone)의 영국법 주해(Commentaries on the Laws of England)에 대해 비판하기 위해서이다. 블랙스톤에 대한 가장 신랄한 비판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는 벤담은 이 책에서 블랙스톤이 영국 법률 체계의 결함을 제대로 보지 않고 현상유지를 지지하며 블랙스톤의 법적 의무의 본질과 원천에 대한 분석이 모순적이며 아마추어적이라고 비판한다. 이 책을 번역한 후지타 시로(藤田四郎, 1861-1934)는 외무성 참사관, 체신상, 농상무상 비서관 등을 거쳐 농상무 차관, 34년 귀족원 의원을 지내고 또한 일본화재보험 사장, 대만제당 회장 등을 역임한 관료출신 기업인이다. 본인의 저술로 『청국시찰담(清国視察談)』, 『구미정당연혁사총론(欧米政党沿革史総論)』이, 번역서로는 『정치진론』 외에 『영국헌법사론(英国憲法史論)』이 있다. 이를 통해 그가 영국헌법 및 정당 개혁 등에 관심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서문은 메이지 시대 관료이자 법률가였던 시마모토 나카미치(島本仲道, 호 北洲, 1833-1893)가 한문으로 썼다. 후지타가 작성한 「서언(緒言)」, 「제레미 벤담 소전(小傳)」, 「범례」, 제1장 「정부의 조직을 논함」 (48절), 제2장 「정체론」(35절), 제3장 「영국정체론」(21절), 제 4장 「최고의 권력인 입법권을 논함」(41절), 제5장 「최고의 권력인 입법권의 의미를 논함」(13절)로 구성되어 있다. 벤담의 원본에는 55장에 달하는 서론이 있으나 번역본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완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원문에는 장 제목이 없는데, 후지타가 임의로 장의 제목을 정하여 삽입한 것으로 보인다. 벤담의 원저에도 개념 등에 대한 주석을 달았는데, 후지타 역시 두주(頭註)를 두어 고유명사나 내용에 대한 짧은 설명을 부기했다.

서명	代議政體論
편 · 저자	Spencer, Herbert (허버트 스펜서) 저, 스즈키 요시무네(鈴木義宗) 역
발간 연도	1878 (明治 11년)
발행 사항	東京: 鈴木義宗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510 165)
비고	일본국회도서관본의 경우 9쪽에서 12쪽까지 결락. 역자의 이름이 ‘스즈키 요시무네’인데 ‘스즈키 기소’로 오기.

『대의정체론(代議政體論)』은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 斯辺撒, 1820-1903)가 1857년에 발표한 에세이 “Representive Government—What is it good for?”를 번역하여 책으로 출판한 것으로, 스펜서가 정치부터 도덕의 문제까지 다양한 간행물에 실었던 에세이를 모은 에세이집인 Essays: Moral, Political and Aestetic에 실려 있다. 허버트 스펜서는 영국출신의 사회학자, 철학자, 심리학자로, 영국 사회학의 창시자라고 일컬어진다. 스펜서의 사회진화론(Social Darwinism)은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크게 유행하였다.

이 에세이는 스펜서가 관찰한 대의제의 장점과 단점을 귀납적인 방법으로 대의제 정부가 정의를 실현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저술되었다. 스펜서는 대의정부의 한계로 보이는 문제들이 오히려 대의제 정부가 적절한 업무에 보다 완벽하게 적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과이며, 나아가 고도로 조직되고 발전된 국가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다.

번역자인 스즈키 요시무네는 이익에는 반드시 해로움도 같이 따라오는 것은 사물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익을 얻으려면 해가 되는 것을 관찰해야 하며, 민선의원을 설치하려면 그 이익과 해로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대의제가 설치되지 않은 일본은 그 득실을 알기 어려우므로 오랫동안 대의제를 시행했던 유럽의 경험을 통해 어떤 장점과 문제가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민선의원의 장단점을 이론적으로만 논할 것이 아니라 유럽의 경험을 통해 대의제와 군주제 중 어떤 것이 더 우월한지, 더 국가와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스즈키가 스펜서의 글을 번역한 이유이다. 스즈키는 이 외에도 정치와 관련, 『간섭론』, 『선거법』, 『부녀법률론』 등의 책을 번역하거나 저술하였다.

경성제대본은 일본국회도서관본과 동일하나, 일본국회도서관본은 9쪽에서 12쪽까지가 결락되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 역자의 이름이 ‘스즈키 요시무네’가 아닌 ‘기소’로 되어 있는데 수정이 필요하다.

서명	通俗國權論
편 · 저자	福澤諭吉 (후쿠자와 유키치)
발간 연도	1878 (明治 11년)
발행 사항	東京: 福澤諭吉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510 166)
비고	

『통속국권론(通俗國權論)』은 일본의 계몽사상가, 교육가, 저술가인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가 1878년에 저술한 책으로, 후쿠자와가 『통속민권론(通俗民權論)』과 한 세트로 기획된 책이다. 『통속민권론』의 목적은 이 책을 저술할 권리와 자유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인민들이 민권이라는 말을 듣고 자유와 방종을 혼동하여 정부에 반대하기만 하면 민권이 신장된다는 풍조를 보게 되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민권의 진의를 설파하고자 한 것이다. 『통속민권론』의 짝이 되는 『통속국권론』은 민권과 국권이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논하여 국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국가 안에서의 자유와 권리'를 설명하려는 목적하에서 저술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통속국권론』은 제1장 「총론」, 제2장 「국권을 중시해야 함」, 제3장 「약속을 중요하게 여겨야 함」, 제4장 「내외의 사정을 상세히 알아야 함」, 제 5장 「전장의 연속」, 제6장 「국가를 부강하게 함」, 제7장 「외국과의 전쟁이 부득이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이 개항하고 외국과 조약을 맺으면서 자국과 타국의 복잡한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전제하에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가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개인들이 알아야 하는 것들을 간략하고 쉽게 서술하였다. 후쿠자와는 개인을 보편적 개인이 아닌 "국가 안의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자유란 국가가 안전하고 부강해졌을 때 가능한 것이라는 주장과 더불어 동시에 "백 권의 만국공법은 몇 대의 대포에 미치지 못하고, 몇 책의 화친조약은 탄약 한 상자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부국강병을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후쿠자와 유키치의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기본 틀은 당시 서양 열강들의 식민지 개척의 논리와 정당화를 비판적으로 관찰한 결과로 보인다.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국가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은 그러한 이유로 이해되는데, 이러한 후쿠자와의 입장은 근대 시민론에서 규정하는 국가와 개인의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정치사상적으로 검토해야 할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서명	(通俗)日本民權眞論
편 · 저자	丹羽純一郎 (니와 준이치로)
발간 연도	1879 (明治 12년)
발행 사항	東京: 高橋源五郎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510 175)
비고	

『일본민권진론(日本民權眞論)』은 니와 준이치로(丹羽純一郎; 본명 織田純一郎, 1851-1919)가 민선의원 즉 국회를 만드는 데 앞서 권리로서의 민권의 기원과 왕 혹은 천황, 국가와 민권의 관계에 대해 서술한 책이다. 저자인 니와 준이치로는 일본의 번역가이자 작가로, 메이지 유신 직후 영국 에딘버러 대학으로 유학, 귀국 후 19세기 동시대 영국 작가들의 작품을 번역·소개하였다. 1878년 에드워드 불워리턴(Edward Bulwer-Lytton)의 『어니스트 말트래버스(Ernest Maltravers)』(1837)을 『화류춘화(花柳春話)』라는 제목으로 번역했고, 이 책은 일본에서 베스트
셀러가 되었다. 당시 영국인들에게 그는 "일본에서 최초로 신뢰할 수 있는 번역자"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1880년대에는 오사카 아사히 신문의 주필이 되어 저널리스트로서의 활동도 했으며, 『일본민권진론』 외에도 『정치가사회(政治家社会)』와 같은 정치 저술을 남겼다.

『일본민권진론』은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총론」, 「민권의 기원」, 「민권을 신장시키는 것은 즉위선서에서 비롯된 것」, 「지식의 폭을 넓히는 것」, 「가업을 배우는 것」, 「인민독립의 일」, 「품행을 닦는 일」, 「관민의 힘을 균등하게 하는 일」, 「속박을 법제화하여 자주자유의 권리를 일으키는 일」이다. 니와의 관심은 각 장의 제목에서 확인되듯이 정치가들의 자의적 권력을 법으로 규정하여 제한하고 관료와 국민의 힘을 균등하게 만들어 개인의 자유권을 확립하는 것에 있지만, 제3장의 「민권을 신장시키는 것은 즉위선서에서 비롯된 것」에서 확인되듯이 그 전제로서 모든 법과 제도가 천자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니와는 동아시아에서 권위 등으로 사용되던 개념어인 권(權)이 권리로 번역되면서 사람들이 그 의미를 혼돈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천자의 권위와 제도와 법에 의해 민권이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당대 영국인들에게 그의 번역이 신뢰할 수 있다고 평가받았다는 사실인데, 이 책의 번역방식과 번역어를 187, 80년대 다른 번역서들과 비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모든 법과 제도가 천자로부터 나온다는 그의 주장에 대한 검토이다. 사실 입헌군주제에서 군주의 즉위와 함께 군주에 의해 법과 제도의 정당성이 나온다는 전제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니와가 천황을 어떻게 규정하고 그 규정 속에서 입헌군주제의 전제를 설명하는 방식,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명	東京土産
편 · 저자	元田直 (모토다 나오시)
발간 연도	1871 (明治 4년)
발행 사항	東京: 鈴木喜右衛門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510 239)
비고	‘모토다 나오시’ 인데 ‘하라다 타다시’ 로 오기. 수정 필요.

『동경토산(東京土産)』은 모토다 나오시(元田直, 1834-1916)가 1868년 3월 14일에 공포된 「5개조 서약문(五箇条の御誓文)」을 기반으로 세계의 대세와 생활 개선을 주장,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한 책이다. 1867년 에도 막부의 대정봉환(大政奉還)에 따라 출범한 메이지 신정부는 구 막부, 섭관 등을 폐지하고 천황의 친정을 기본으로 서양의 열강을 따라잡기 위한 개혁을 모색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화된 것이 「5개조 서약문」이다. 그 내용은 첫째, 널리 회의를 열어 모든 중요한 사항을 공론에 따라 정할 것, 둘째, 상하가 마음을 하나로 하여 활발히 경륜을 행할 것, 셋째, 관리와 무사, 서민이 각각 뜻한 바를 이루게 해서 인심으로 하여금 지치지 않도록 할 것, 넷째, 과거의 악습을 타파하고 세상의 공도를 따를 것, 다섯째, 전세계에서 지식을 구해 황도의 기반을 분발하여 일으킬 것 등 다섯 가지이다.

『동경토산』의 내용은 「5개조 서약문」의 확장, 옹호, 설명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는 국시는 천리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외국과 교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대세를 파악하고 일본을 강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교의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며 서양의 학문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한다. 『동경토산』은 20장의 짧은 소책자로 따로 장절 구분은 없으며, 가메타니 세이켄(亀谷省軒)가 서문을 썼다.

저자인 모토다 나오시는 일본의 유학자, 법학자, 법률가, 교육가로, 도쿄대언인조합(현 도쿄변호사회) 회장, 도쿄부 심상사범학교 교장, 도쿄법학사(현 호세이대학) 설립자 중 한 명이다. 그는 태정관 기록조사위원장에 임명되어 미쓰쿠리 린쇼(箕作麟祥)와 함께 프랑스 민법을 심의한 적이 있으며, 1874년 도쿄 간다에 일본 최초의 사립 법률학교인 법률학사(法律學舍)를 개설하여 프랑스 법을 강의하였다. 1887년에는 동경 심상사범학교 교장에 취임, 의무교육의 보급과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명	民權自由論
편 · 저자	植木枝盛 (우에키 에모리)
발간 연도	1879 (明治 12년)
발행 사항	大阪: 小池仙次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510 256)
비고	

『민권자유론(民權自由論)』은 일본의 자유민권 사상가이자 정치가인 우에키 에모리(植木枝盛, 1857-1892)가 1879년 저술한 책이다. 그는 1875년부터 자유민권운동에 참여하면서 우에키는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를 비롯한 계몽사상가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한편 제국도서관(현 국립국회도서관)에 다니며 독학하고, 신문에 투서하는 등 언론 활동을 시작했다. 1881년에는 「동양대일본국헌안(東洋大日本國憲法按)」을 초안했는데, 이 안에는 연방국가제, 일원제 의회, 국민의 권리로서 저항권-혁명권의 명문화 등 당대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민권자유론』은 「동양대일본국헌안」보다 2년 전에 출판되었으며, 민중 계몽을 실시할 목적으로 저술된 책이다. 이 책은 우에키의 첫번째 책이자 그의 자유민권사상의 총합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이 책에서 천부인권론과 인민주권론 등을 설명하는데, 평이한 구어체와 한자의 독음을 달아 이해를 도움으로써 폭넓은 독자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독자의 눈높이를 맞춘 우에키의 글쓰기는 민권에 대해 일반 대중에게 알기 쉽게 설파하여 민권사상의 보급에 큰 역할을 했다고 인정된다. 책은 「자서(自序)」, 제1장 「인민이 나라의 일에 마음을 쓰지 않을 수 없음」, 「인민이 자유의 권리를 얻어야 한다는 것」, 「국가는 민권자유를 신장시켜야 한다는 것」, 「국가는 인민의 자주 및 자유를 헌법에 의거해 굳게 보호해야 한다는 것」, 「민권을 세우면 국권이 신장되어 독립을 지킬 수 있게 되며 전제정치는 나라를 망하게 하고 나라를 팔기에 이른다는 것」, 「부록」, 「발(跋)」로 구성되어 있다. 「부록」은 「민권 시골 노래(民權田舍歌)」가 실려 있다. 그의 사상과 저술은 후쿠자와 유키치의 『통속민권론』, 『통속국권론』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권자유론』은 경성제대본과 동일한 판본 외에 특이하게도 1879년 동년에 출판된 이본(異本)이 발견된다. 같은 해 다카이 고타로(高井光太郎)가 출판한 본과 쇼분도(集文堂) 판본이 있다. 다카이 고타로본의 『민권자유론』에는 삽화가 삽입되어 있다. 이 책은 일반인들을 위해 쉬운 일본어로 작성된 점, 민권이라는 말을 유통시키기 위해 노래를 만들어 삽입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중요한 자료이다.

서명	政學提綱
편 · 저자	林正明 (하야시 마사아키) 역
발간 연도	1873 (明治 6년)
발행 사항	東京: 求知堂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510 79)
비고	촬영 필요

『정학제강(政學提綱)』의 저자인 하야시 마사아키(林正明, 1847-1885)는 일본 막부말기부터 유신기의 계몽사상가, 관료, 정치가, 언론가, 정치평론가이다. 그는 자유당 결성에 참여하여 간사가 되었고, 『근사평론(近事評論)』、『부상신지(扶桑新誌)를 주관했고, 또한 『동양자유신문(東洋自由新聞)』의 사장을 역임했다. 이 신문은 메이지 10년대 대표적인 자유주의 좌파 정론지가 된 것으로도 유명하다.

하야시는 1863년부터 1869년까지 약 6년간 게이오 대학에서 후쿠자와 유키치에게 사사했다. 그는 1869년 도미, 아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에서 공부하고 귀국하여 법무성 법관이 되었지만, 1870년 다시 영국으로 유학을 간다. 영국에서 라트머스 칼리지에서 수학하였다. 1872년 귀국, 태정관정원, 재무성조세권조, 법무성 통역관으로 활동한다. 『정학정강』 외에도 『영국헌법(英国憲法)』, 『합중국헌법(合衆国憲法)』, 『만국정담(万国政談)』, 『태서신론(泰西新論)』을 저술하는데, 그의 저술은 나카무라 마사나오가 번역한 『공화정치(共和政治)』, 미쓰쿠리 린쇼(箕作麟祥)의 『국제법(国際法)』과 함께 일본 법제사에서 중요한 계몽서로 평가된다.

『정학제강』은 「서언」, 제1절 「정치는 무엇인가」, 제2절 「정치의 목적」, 제3절 「정치의 기원」, 제4절 「정치의 분류」, 제5절 「입헌과 함께 대의정치」 등 모두 5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제5절이 책의 절반을 차지한다. 하야시는 좋은 정치란 공정한 법으로 국가를 다스리고, 국내의 재산을 보호하며 인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그러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군주독재나 귀족제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입헌군주제와 의회, 공화주의에 대해 소개한다. 『정학제강』은 메이지 초기에 법학의 전문가이자 법관 출신이 정치에 대해 규정하고 좋은 통치를 시행할 수 있는 정치제도를 분류하고 설명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자료로 보인다. 표지에는 하야시 역(譯)이라고 나오지만 원본은 확인되지 않는다.

서명	公議所日誌
편 · 저자	博文局
발간 연도	1869 (明治 2년)
발행 사항	本町(江戶): 上州屋惣七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520 30)
비고	상하 2책 16권. 발행사항이 미상으로 나옴. 발행사항 수정 필요. 총 19권이나, 경성제대본은 16권만 있음. 와세다대본은 총 4책으로 편집되었고, 경성제대본은 2책(상권 1-9권, 하권 10-16권)으로 편집함.

『공의소일기(公議所日誌)』는 일본 입법 자문 기관으로 1869년 4월 18일에 설치된 공의소의 회의록을 모은 것이다. 공의소는 각 번과 각 학교에서 선출된 공무원(8월 20일에 공의원으로 개칭)으로 구성되었으며, 의안 제출권을 가졌다. 의장은 다카나베번 출신의 아키즈키 타네타츠(秋月種樹)가 맡았다. 의장 대행은 사쓰마번 출신의 모리 아리노리(森有礼), 부의장에는 구 막부의 신하
인 간다 타카히라(神田孝平)가 임명되었다. 공의원은 정부 각 관에서 각 1명, 부속 각 학교에서 1명, 부현 대표는 없고 각 번에서 1명이 대표로 파견되어 19개 부문으로 나뉘어 심의를 진행했다. 임기는 4년으로 2년마다 절반씩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공의소는 존속기간은 몇 달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단두대, 칼자루, 인신매매, 부정한 사람 등의 제도 폐지와 같은 구습을 타파하는 안건을 많이 내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럼에도 메이지 신정부는 공의회를 폐지하는데, 군현제 도입의 찬반에 대한 자문에서 절반 미만의 의원이 서명한 양론 절충의 답변이 나온 것을 계기로 중앙집권파의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가 '공의회 무용론'을 주장했다. 결국 1869년 8월 15일에 공의회는 권한이 축소된 집의원(集議院)으로 개편되었다.

『공의소일기』는 1869년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의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총 19권에 이른다. 이 일지에는 공사대책소의 제도 법령과 책문(策問)을 편찬한 2권도 포함되어 있다. 1권에서는 공의소 내부를 도상으로 제시하는데, 의장의 위치, 학교관, 형법관, 외국관 군무관, 회계관, 신지관 등의 위치와 의원들의 자리 등을 표시했다. 회의방식, 공의소 법칙 등을 먼저 제시하고 2권부터는 일지로 구성되어 있다. 각 권의 뒤에는 관판어용(官版御用)이라고 인쇄되어 있다. 경성제대본은 총 19권 중 16권만 확인된다. 경성제대본 외에 와세다대본이 확인되는데, 편집사항이 다소 다르다. 와세다대본은 총 4책으로 편집되었고, 경성제대본은 상하 2책(상권 1-9권, 하권 10-16권)으로 편집되어 있다.

서명	萬國政表
편·저자	博文局
발간 연도	1886 (高宗 23년)
발행 사항	서울: 博文局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590 108)
비고	

『만국정표(萬國政表)』는 조선이 일본을 비롯한 구미 열강과 조약을 체결하게 된 상황에서 세계 각국에 대한 정보를 보급하고 확산시키려는 의도에서 편찬되었다. 1886년(高宗24) 김윤식(金允植), 정헌시(鄭憲時) 등은 영국에서 간행된 『정치연감』 중 「열국정표(列國政表)」를 번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6대주 51개국의 정치·재정·교육·종교·군사·통상 등을 소개하고 있다. 김윤식의 서문에 “조선 개국 495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출판년도가 1886년으로 추정된다. “정표”라는 표현에서 보이듯이 이 책은 세계국가들의 정치체제를 구분하고 그 정치이념을 설명한 책이다.

총 4권이다. 제1권은 김윤식의 서문, 정헌시의 서문, 「범례」, 「총론」, 「각국정교약설(各國政敎略說)」, 아시아 국가들의 종교·조세·군대·교육·통화·역법 등을 상세히 소개한다. 제2권과 제3권은 유럽국가들의 종교·조세·군대·교육·통화·역법을, 제4권은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의 국가들의 종교·조세·군대·교육·통화·역법을 기술한다.

「총론」에서는 세계를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의 6주로 구분하고, 각 주에 속한 51개국과 그 속국을 명시했다. 또 정치체제도 구분했다.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전제왕치(專制王治), 전제제치(專制帝治), 부락정치, 속국[屬地]의 넷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 중 조선은 전제왕치 국가에, 중국과 일본은 전제제치 국가에 속한다고 설명한다. 유럽의 경우 입헌제치(立憲帝治), 입헌정치(立憲王治), 공화정치(共和政治)로 구분되며 러시아, 터키 등은 전제제치, 오스트리아, 독일 등의 국가는 입헌제치, 영국은 입헌왕치, 프랑스 등은 공화정치라고 설명한다. 「각국정교약설」에서는 군주전제, 군민동치, 공화정치를 구분하고 각 정체에서 입법·사법·행정권의 행사 방법과 차이에 대해서 설명한다. 군주전제는 군주가 삼권을 모두 총괄하고 군민동치는 군주와 국회가 삼권을 나누어 정치하고, 공화정치에는 군주가 없고 임기제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나온다고 설명한다. 각 대륙의 종교를 소개하고, 조세의 형태, 징병제도, 관립, 공립, 사립학교의 차이, 은본위제와 금본위제 등을 소개한다. 이 책은 조선정부가 백성들에게 세계정세 및 각국의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편찬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서명	英國政事概論
편 · 저자	Amos, Sheldon (셸던 아모스) 저, 安川繁成 (야스가와 시게나리) 역
발간 연도	1875 (明治 8년)
발행 사항	東京: 詩香堂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590 326)
비고	상편 3권 하편 3권 총 6권이나, 경성제대본은 상편만 소장되어 있다. 일본국회도서관본은 내표지가 검게 나와 있음. 상편 3권 마지막 장의 경우 일본국회도서관본은 '森江佐七版' 으로 되어 있으나, 경성제대본은 '版' 자가 탈락되어 있고 대신 도장이 찍혀 있음.

『영국정사개론(英國政事概論)』은 번역자인 야스가와 시게나리(安川 繁成, 1839-1906)가 영국의 법률가인 셸던 아모스(Sheldon Amos 阿謨私 ユモス, 1835-1886)와 나눈 대화를 책으로 편찬한 것이다. 야스가와 시게나리는 야스가와 시게나리는 메이지시대의 정치인, 사업가로, 모리 아리노리(森有礼)의 추천을 받아 행정관제도료서기관(行政官制度寮書記官)이 되고, 1871년 소의장(少議長)이 되어 1872년 구미(歐美)를 시찰하였다. 귀국 후에 태정관인서국부장(太政官印書局副長) · 공부권대서기관(工部權大書記官) · 회계검사원부장(會計檢查院部長) 등을 역임하였고, 1898년에는 중의원의원(衆議院議員)이 되었다. 1882년에는 수신사로 왔던 박영효와 만나기도 했다. 1872년 구미시찰단은 프랑스에서 법률제도에 대해 조사하던 중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시찰단의 일부는 프랑스에 남고 일부는 영국으로 가서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다. 야스가와는 영국으로 가서 조사하던 중 셸던 아모스를 추천받아서 영국 정치 전반에 대한 질문을 했고, 아모스는 당시 영국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을 주었다.

『영국정사개론』은 상하편으로, 각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편 제1권은 군주의 즉위, 군주 입법, 행정, 사법 등과 관련된 직무, 상하원에 대해 설명, 제2권은 선거의 방법 및 국회의원의 의무 및 특권, 의안, 정당과 정부의 체제, 관료의 업무 등의 내용으로, 제3권은 사법부, 지방행정, 구빈법, 위생, 교육, 조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편 제 1권은 지방 정치, 철도, 지방선거, 작위, 국가 조세 등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책의 중간중간에 영국의 상하원 등 정치와 관련된 그림이 삽입되어 있는데, 야스가와는 아모스가 그에게 실제 정치를 보려고 노력하라고 조언해서 귀국할 때 정치와 관련된 그림을 구입하여 돌아왔다고 한다. 그림 중 1646년 하원의 그림이 포함
되어 있었는데, 야스가와는 국회가 오래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삽입했다고 설명한다. 경성제대본은 상편만 소장되어 있다. 상편 3권 마지막 장의 경우 일본국회도서관본은 '森江佐七版'으로 되어 있으나, 경성제대본은 '版'자가 탈락되어 있고 대신 도장이 찍혀 있다.

서명	英政如何
편 · 저자	鈴木唯一 (스즈키 유이치)
발간 연도	1868 (慶應 4년)
발행 사항	九潛館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590 327)
비고	저자명이 '스즈키 유이치', 혹은 '다다이치' 인데 '스즈키 타다카즈' 로 오기되어 있음. 수정 필요. 전체 6권인데, 경성제대본은 3권만 소장되어 있음(확인 3권). 일본국회도서관과 4권이 연결되어 있음. 원서는 알바니 퐁블랑크(Albany Fonblanque)의 How We are Governed 이나 표지에 나오지 않고 1장 서론에서 설명됨.

『영정여하(英政如何)』는 영국의 저널리스트인 알바니 퐁블랑크(Albany William Fonblanque, 1793-1872)의 How We are governed or, the crown, the senate and the bench (London: G. Routledge & Co, 1858)을 번역한 책이다.

이 책의 특이한 점은 서신의 형태로 영국의 헌법에 대한 간략한 개요와 국가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통치되는지, 군대의 조직과 역사, 의회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는 것이다. 그는 사촌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태를 빌어 18개 장의로 나누어 영국의 정치를 설명한다. 원서가 편지의 형식을 띠기 때문에 스즈키의 번역본도 편지의 형식을 따른다. 전체 책은 활자본이 아니라 편지를 쓴 듯한 필기체로 인쇄되어 있다.

퐁블랑크는 총 18통의 편지의 형식을 빌어 책을 쓴 목적, 영국헌법의 기원, 여왕, 상원, 하원, 왕실고문, 의회의 절차, 국가부채, 지방정부, 교회, 군대, 해군, 법, 법원과 평등 그리고 절차, 범죄와 위법행위, 형사법원, 형사법의 적용, 증거의 원칙, 그리고 결론으로 책을 구성한다. 스즈키 유이치의 번역은 퐁블랑크의 원본과 다소 다른데, 예를 들어 1장의 목적이 생략되는 대신 영국제도를 소개하며, 2장 제목에서도 여왕이 빠지고 내용에서도 언급이 없다(国若之事). 의회를 번역하지 않고 팔리아먼트(パルレメント)로 음차를 한 부분, 교회를 사원(寺院)으로 표시한 것 등이 눈에 띄는 부분들이다. 『영정여하』가 번역된 시기가 메이지 초기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스즈키 유이치의 번역방식은 서양문물을 번역하던 초기에 어떤 방식으로 번역의 대상을 선택하고 의역하고 번역어를 고르는지를 잘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정여하』는 초기 메이지시대의 번역의 일면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퐁블랑크는 영국의 주간지인 「엑서마이저(The Examiner)」의 정치평론가이자 편집장으로,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존 포스터(John Forster), 윌리엄 메이크피스 태커리(William Makepeace Thackeray), 찰스 디킨스(Charles Dickens)를 발굴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How We are governed의 부제는 "A Handbook of the consitution, government, laws and power of Great Britain"이다. 스즈키 유이치(鈴木 雄一, 1845-1909)는 메이지 시대의 일본의 영문학자이

다. 막부의 서양학 연구교육기관인 개성소(開成所)의 교관 영문학자 미쓰쿠리 린쇼(箕作麟祥)에게 영문학을 배운 후 영자신문 번역사업에 참여, 『재팬 타임즈』 및 『재팬 헤럴드』 번역에 종사했다. 1871년 학술연구를 위해 1년 동안 영국으로 건너가 논리학을 연구했고, 1872년 7월 귀국 명령을 받고 일본으로 돌아와 번역국에서 일한 뒤 보통학무국에서 근무하며 교과서조사 및 중등교원 검정시험 등에 종사했다. 퇴직후 저술과 번역을 직업으로 삼았다.

서명	Prosperity and politics
편 · 저자	Benn, Ernest John Pickstone (어네스트 J. P. 벤)
발간 연도	1924
발행 사항	London: Jarrolds
청구기호	구장본 서양서 (M000 150)
비고	

Prosperity and politics는 어네스트 존 픽스톤 벤경(Sir Ernest John Pickstone Benn, 1875-1954)의 저술로 정치와 시장은 별개의 영역이고, 경제활동이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한 책이다. 저자인 어네스트 벤은 영국의 출판업자이자 작가, 정치평론가이다. 제 1차 세계대전 중에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벤은 국가의 경제개입을 옹호했으나 1920년대 중반 이후 고전적 자유주의자로 전향, 이를 지지하는 책과 팜플렛을 20권 이상 출판하였다. 제레미 벤덤(Jeremy Bentham),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 클로드 프레데릭 바스티아(Claude-Frédéric Bastiat)의 사상적 영향을 받았으며, 『자조론(Self-Help)』를 쓴 새뮤얼 스마일스를 존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책에서 벤은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달리 현재 정치 논쟁의 중심에 기업의 활동이 놓여 있는 현실을 비판한다. 그는 정치 논쟁의 주도권이 기업이나 시장에 대한 편견을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고, 이들에 의해 형성된 비판적 여론선거의 형태로 정치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정치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그는 사회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일반대중들도 경제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다고 본다. 첫째, 산업혁명은 사람들을 토지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슬럼과 같은 더 안 좋은 조건에서 살게 만들었고, 둘째, 생계비가 임금협상의 기초이며, 이윤은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추구되어서는 안 되고, 임금은 이익에서 나오거나 임금은 이익으로부터 나오며, 부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킨 결과이다. 또 생산비용이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중간업자는 무용하기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는 등이다. 저자는 이러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이 사실이 아니라고 비판한다. 이 책은 저자가 대중들의 편견이라고 보는 이 아홉 가지 문제에 대한 답변, 즉 산업혁명의 의미, 임금과 생계비의 실제 의미, 이윤, 부의 형성, 가격의 형성, 이익에 대한 인센티브, 중간업자의 필요성, 직업 보전의 권리 없음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그의 다른 저술인 The Return to Laisser Faire 에도 잘 드러나 있다.

서명	Problems of power: A Study of international politics from Sadowa to Kirk-Kiliss□
편 · 저자	Fullerton, William Morton (윌리엄 모튼 풀러턴)
발간 연도	1914
발행 사항	London: Constable & Co.
청구기호	구장본 서양서 (M000 153)
비고	도서관 링크는 1920년본임. 이 판본은 최종본(the definitive edition)이며, 경성제대 소장본과 달리 최종본에 대한 노트가 포함되어 있음. 다른 사이트에서 확인되는 판본은 초판본인 1913년본이나 1915년본이 대부분임.

Problems of power: A Study of international politics from Sadowa to Kirk-Kilisséㄴ 윌리엄 모튼 풀러턴(William Morton Fullerton, 1865-1952)이 1914년에 출판한 국제정치에 대한 정치평론이다. 1911년에 발발한 이탈리아-튀르크 전쟁 이후 열강들, 특히 프랑스, 독일의 국내외 정책을 분석한 책으로 총 4부로 되어 있다. 부제에서 확인되듯이 풀러턴은 1910년대 발생한 쾨니히그레츠 전투(Battle of Königgrätz), 커크 킬리스 전투(Battle of Kirk Kilisse) 등의 사건에서
유럽의 강대국 및 미국의 정치적 판단과 외교적 결정을 사건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기보다는 언론인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1부는 당대의 경제적 상황과 미국 및 유럽의 정치발전을 위주로 논의하며,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이 유럽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설명한다. 2부는 유럽국가들의 국내 정치의 위기 및 강대국들의 외교정책을 큰 주제로 삼고, 세부적으로 프랑스와 영국의 국내정책, 독일의 외교정책을 논의한다. 3부는 근대국가의 정치적 입장에 미친 경제적 요인들에 대해 서술한다. 노동계급의 이민, 노동의 보호, 산업의 국제화, 독일의 산업발달과 상업적 확장, 사회적·재정적·정책적 문제들을 다룬다. 4부는 독일의 외교적 대응, 삼국동맹, 삼국협상 등에 대한 글들로 구성되어 있다.

윌리엄 모튼 풀러턴은 미국의 언론기자, 작가이자 『뉴욕 타임즈』의 외신 특파원이었다. 그는 하버드대 재학 시 『하버드 먼슬리(The Harvard Monthly)』를 창간했고, 1894년부터 1910년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외신 특파원으로 활동했다. 그 이후 「르 피가로지(Le Figaro)」의 편집진에 합류하여 프랑스에서 언론인으로 평론과 저술을 이어간다. 이 책은 1913년에 처음 발간되었고, 1914년, 1915년, 그리고 1920년에 마지막으로 출판되었다. 서울대학교 도서관의 링크는 1920년본인데, 이 판본은 최종본이다. 경성제대 판본은 1914년 본으로, 현재 다른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판본들은 대체로 초판본이거나 1915년 본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서명	A treatise on the methods of observation and reasoning in politics
편 · 저자	Lewis, George Cornewall (조지 코넬 루이스)
발간 연도	1852
발행 사항	London: John W. Parker and Son
청구기호	구장본 서양서 (M000 89)
비고	총 2권. 발행사항이 'London: Parker' 로 되어 있으나 'London: John W. Parker and Son' 으로 수정 필요.

A treatise on the methods of observation and reasoning in politics는 영국의 정치가이자 문필가인 조지 코넬 루이스 경(Sir George Cornewall Lewis, 1806-1863)이 저술한 정치의 관찰과 추론 방법에 대한 책. 서론을 포함하여 모두 12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치"라는 용어의 범주, 정부의 기원, 정치적 동물로서의 인간의 특징, 사회, 국가의 조건, 정치의 세부 영역, 정치와 연관된 용어를 먼저 설명하고, 이러한 기초 위에서 정치를 관찰하고 추론하는 방법, 정치실험, 정치사, 정치의 조건, 정치에서의 잘못된 명분과 좋은 명분 등에 대해 설명한다. 그는 정치의 실패가 잘못된 정치 방법론의 적용에 있다고 보고, 정치방법론은 정치의 여러 영역에서 관찰자와 추론가들을 안내하는 일련의 규칙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루이스에 따르면 정치방법론은 국가와 법의 본성을 정의하는 것도 아니고 입법의 문제나 국가에 가장 좋은 제도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일 필요도 없다. 마키아벨리처럼 정치의 특정 상황과 불확실성을 위한 실용적인 교훈을 제시하는 것도 국내정치제도를 확립하는 것도 그 목적이 아니다. 그는 다만 방법론을 보여주기 위해 선택된 예들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보여주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이 책은 19세기 중반 영국의 정치 용어 및 정치에 대한 이해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자료이다.

조지 코넬 루이스경은 다양한 정부조사위원회에서 활동했고, 1839년 빈민법 위원으로 1847년까지 활동했다. 그 이후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으나 1852년에 자리를 잃었다. 1852년부터 그는 『에딘버러 리뷰(The Edinburgh Review)』의 편집자가 되었다. 그 이후 정치에 복귀하여 재무장관, 내무장관 및 국방장관을 거쳤다. 이 책은 그가 국회의원의 자리를 상실했던 1852년에 작성되었다. 루이스는 정부의 다양한 형태, 정치적 권위, 영국의 행정, 정치 용어, 외국인 범죄자의 재판과 인도 등에 대한 에세이를 발표했고, 고대 그리스 역사에도 조예가 깊어서 그리스의 정치, 경제 등에 대한 책도 저술했다.

서명	Essays: social and political
편 · 저자	Smith, Sydney (시드니 스미스)
발간 연도	
발행 사항	London and New York: Ward, Lock & Co., Warwick House
청구기호	구장본 서양서 (M040 16)
비고	출판지가 'London' 으로만 나오는데 'London and New York: Ward Lock and Co.' 로 수정되어야 함. 이 책은 다른 아카이브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으므로 촬영해도 좋다고 판단됨.

Essays: social and political는 예술가, 작가, 영국 국교회 신부이자, 『에딘버러 리뷰(the Edinburgh Review)』를 창시한 시드니 스미스(Sydney Smith, 1771-1845)의 정치와 사회문제에 관련된 에세이 모음집이다. 이 책에 실려 있는 대부분의 글들은 1802년부터 1818년까지 『에딘버러 리뷰』에 쓴 글들이다. 정치와 사회에 대한 다양한 글들을 다루고 있다. 제레미 벤담, 제임스 해밀턴, 윌레엄 파넬, 찰스 제임스 폭스 등 정치가 및 학자들의 글, 정치행동에 대한 정치평론, 당대 유명한 출판 서적에 대한 평론, 법, 교육, 사회 정책 등에 대한 평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의 제일 앞에 「시드니 스미스에 대한 짧은 회고록」이 나온다. 스미스가 정치사회평론가로 활동한 19세기 초반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정치적 문제가 발생하던 시기이다. 나폴레옹으로 인한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전투, 영국과 미국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전쟁이 발발하는 등 정치, 사회적으로 격변하는 시기였다는 점도 그의 정치사회평론을 주목하게 하는 부분이다.

시드니 스미스는 대륙의 자유주의와 결을 달리하는 영국식 자유주의를 완벽하게 표현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스미스의 평론에 접근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는 그가 영국 국교회 신부라는 데 있다. 대륙의 자유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교회에 반대하며 공화주의적인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영국 국교회 신부인 시드니 스미스와 같은 인물이 사회개혁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영국의 자유주의자들은 대륙의 자유주의자들과는 달리 왕이나 상원의 폐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수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영국 자유주의자들의 특징은 그들이 프랑스 혁명과는 다른 종류의 혁명을 상상한다고 생각하는 데 있다. 이러한 시각은 시드니 스미스의 저술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그는 대체로 인간은 이기적이고 어리석지만 극단적인 악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정치와 사회를 바라본다. 그는 Essays: Social and Political이 영국 자유주의자들의 정서를 훌륭하게 대변한 사례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서명	Œuvres complètes d'Alexis de Tocqueville
편 · 저자	Tocqueville, Alexis de (알렉시스 드 토크빌)
발간 연도	1864-1867
발행 사항	Paris: Michel Lev́ y frères
청구기호	구장본 서양서 (M040 2)
비고	총 9권 전집인데 4권이 없음. 1, 2, 3권의 첫 번째 속표지는 1865년으로, 두번째 속표지는 1864년으로 되어 있음. 5권은 모두 1866년으로 표시됨.

Œuvres complet̀ es d'Alexis de Tocqueville는 알렉시스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 1805-1859)의 전집이다. 저자인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프랑스의 법관, 외교관, 사회학자, 정치학자, 정치철학자, 역사가이다. 그는 영국의 자유주의자들과 교류했고, 존 스튜어트 밀에게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토크빌은 1831년 미국의 형무소 체제 연구를 위해 미국에 사절로 보내졌고, 일년 가까이 미국에 체류하면서 민주정의 효용, 위험성, 역학 등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미국의 구체적인 예를 담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저술했다.

토크빌의 전집은 1권부터 3권까지는 『미국의 민주주의(De la Démocratie en Amérique)』, 4권은 『앙시앙 레짐과 프랑스혁명(L'Ancien Régime et la Révolution)』, 5권은 『서한 및 사후 발견된 작품들(Correspondance et œuvres posthumes)』, 6권은 『서한집(Correspondance)』, 7권은 『미공개 서한집(Nouvelle correspondance entièrement inédite)』, 8권은 『잡문 및 역사 단편과 고전, 혁명, 제국에 대한 주석 및 여행, 생각에 대한 미발표 원고(Mélanges, fragments historiques et notes sur l'ancien régime, la révolution et l'empire ; voyages, pensées, entièrement inédits)』, 9권은 『경제, 정치 및 문학에 대한 연구(Études économiques, politiques et littéraires)』로 되어 있다. 이 중 『미국의 민주주의』(제 1권 1835년, 제 2권 1840년 출판)와 『앙시앙 레짐과 프랑스혁명』(1856)이 학문적으로도 가장 많이 연구되었고 대중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토크빌은 민주주의를 정치와 사회의 관점에서 관찰하고 미국의 민주주의가 청교도주의와 공화주의적 정치이론에 기초해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그는 프랑스가 미국과 비교해 행정적 중앙집권국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결과적으로 공공정신의 고갈, 사적 세계로의 매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경성제대본에서 빠져 있는 4권 『앙시앙 레짐과 프랑스혁명』은 프랑스혁명의 원인으로 군주정 하에서 행정의 중앙집권화와 행정권의 확장의 위험성을 문제삼은 중요한 저술이다. 토크빌에 따르면 군주정의 중앙집권화 속에서 왕권의 견제세력인 귀족층이 몰락했으며, 관료체제가 강화되면서 역설적으로 민주적 전제국가가 등장한다. 이런 사회에서 사람들은 물질적 이익만 추구하고 공공정신은 약화되며 정치적 무관심이 만연

해지고 권력에 묵종하는 현상이 일반화된다는 것에 대해 토크빌은 비판한다. 이 전집은 토크빌의 주요 저술뿐만 아니라 미출간 원고 및 미공개 서한까지 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서명	The complete works in philosophy, politics, and morals, of the late Dr. Benjamin Franklin, now first collected and arranged: with memories of his early life
편 · 저자	Franklin, Benjamin (벤자민 프랭클린)
발간 연도	
발행 사항	London: Printed for FOR J. JOHNSON, & CO. ST. Paul' s Church-Yard; And Longman, Hurst, Rees, Orme, and Brown, Paternoster-Row
청구기호	구장본 서양서 (M040 30) vol.1-3
비고	총 3권. 경성제대본의 연대가 확실하지 않음. 도서관 사이트에 발행사항을 'London : J. Johnson' 으로만 기재했는데 수정되어야 함.

이 책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Founding Fathers of the United States) 중 한 명인 벤저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 1706-1790)의 논문, 에세이, 편지 등을 총망라한 3권으로 이루어진 전집으로, 그가 영국의 런던 왕립학회(The Royal Society of London) 피터 콜린슨(Peter Collinson, 1694~1768)과 주고받은 전기(electricity)에 대한 편지, 철학적 주제의 편지와 논문, 정치와 철학에 관한 논문, 회고록과 에세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미국의 정치가이자 과학자로 잘 알려져 있다. 과학자로서 프랭클린은 다양한 과학실험을 했던 것으로 유명하며 피뢰침, 복초점 렌즈 등을 발명했고, 1753년 영국 왕립학회 회원으로 선정되었다. 정치가로서 그는 독립선언서(1776), 프랑스와의 동맹조약(1778), 영국과의 평화조약(1782), 미국 헌법(1787)의 작성에 참여하고 서명한 인물이다.

이 전집은 정치가이자 과학자인 그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 먼저 구성을 보면 제1권은 「소개의 글(Advertisement)」, 「프랭클린 박사의 일생」, 「전기에 대한 서신과 논문」, 「부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2권은 「물리, 기상학에 대한 관찰, 추론, 가정에 대한 서신 및 논문」, 「일반 정치의 주제들에 대한 논문」으로, 제 3권은 「혁명 이전 미국의 문제」, 「혁명 중 미국의 문제」, 「미국에 대해 기술한 논문들 혹은 혁명 이후 작성된 미국과 관련된 논문들」, 「도덕적 주제들과 삶에서의 경제문제에 대한 논문들」, 「부록 1」, 「부록 2」로 구성되어 있다.

프랭클린 전집의 초판본은 1806년이며, 현재 확인되는 판본은 1806년본과 1811년본이 있다. 경성제대 소장본은 연대 추정이 어려운데, 제1권은 1806년본이나 1811년본과 편집에 차이가 있고 제2, 3권은 다른 판본, 특히 1806년본과 속표지의 활자가 다르며 출판년도도 빠져 있다. 경성제대본은 출판사항에 1, 2, 3권 모두 'PRINTED FOR J. JOHNSON, & CO. ST. PAUL'S CHURCH-YARD; AND LONGMAN, HURST, REES, ORME, AND BROWN, PATERNOSTER-ROW'로 되어 있다. 1806년본은 출판사항은 경성제대본과 동일하지만 경성제대본과 달리 연도가 기재되어 있다. 1811년본은 연도기재는 없는 대신 'PRINTED FOR LONGMAN, HURST, REES, ORME, AND BROWN, PATERNOSTER-ROW; AND J. JOHNSON & CO. ST. PAUL's CHURCH-YARD'로 되어 있다.

서명	Speeches in Parliament, of the Right Honourable William Windham: to which is prefixed, some account of his life
편 · 저자	윌리엄 윈덤 (William Windham)
발간 연도	1812
발행 사항	London: Longman, Hurst, Rees, Orme and Brown, Paternoster-row; and James Ridgeway, Piccadilly.
청구기호	구장본 서양서 (M040 38)
비고	총 3권. 발행사항 수정 필요.

Speeches in Parliament, of the Right Honourable William Windham: to which is prefixed, some account of his life는 윌리엄 윈덤(William Windham, 1750-1810)의 연설집으로, 윈덤의 대리인이자 비서였던 토마스 에미옷(Thomas Amyot)이 편집하여 출판하였다. 이 책은 윈덤에 대한 긴 회고록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 3권으로 나뉘어 출판되었다. 이 연설집 이전에도 윈덤에 대한 출판물은 에드먼드 말론(Edmund Malone)이 1810년에 출판한 회고록뿐만 아니라, 1785년부터 1810년까지 그가 쓴 일기 중 일부가 1866년에 출판되기도 하였다.

이 저작의 서문에는 토마스 에미옷이 피츠윌리엄 백작(Earl Fitzwilliam)에게 전송한 서신이 포함되어 있으며, 더불어 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Advertisement)가 수록되어 있다. 제1권은 1785년 2월 9일의 연설에서부터 1801년 10월 29일의 연설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제2권은 1801년 11월 4일의 연설에서부터 1806년 7월 2일의 연설까지를 다루고 있으며, 제3권에는 1806년 12월 22일부터 1810년 5월 11일까지의 연설이 수록되어 있다. 이에 더불어 앞서 누락된 1802년 5월 3일과 1802년 5월 13일의 연설 또한 제3권에 포함되어 있다. 윈덤의 연설 주제는 전쟁, 조세법, 법안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는데, 특히 1800년 이후에는 법안과 관련된 연설이 두드러지며 1806년 이후에는 주로 외교에 관한 연설이 많다. 형식은 윈덤의 연설을 이탤릭체로 먼저 소개하고 그 뒤에 연설의 배경 및 해설을 추가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윌리엄 윈덤은 영국에서 명성 높은 정치가로, 명쾌한 연설과 예리한 토론으로 평가받았다. 그는 에드먼드 버크에게 큰 영향을 받았으며, 프랑스 혁명 초기에는 혁명을 지지했지만, 이후에는 버크와 함께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1784년에 노리치(Norwich)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 1794년부터 1801년까지는 피트(Pitt) 정부에서 국무장관이자 내각의원으로 재직했다. 뿐만 아니라, 1806년부터 1807년까지는 전쟁 및 식민지를 담당하는 장관으로 재직하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헨리 브라움(Henry Lord Brougham, 1778-1868)이 영국 정치인들에 대한 역사적 스케치에서 언급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다.

서명	Selections from Cobbett's political works: being a complete abridgment of the 100 volumes which comprise the writings of "Porcupine" and the "Weekly political register"
편 · 저자	윌리엄 코벳 (William Cobbett), 1763-1835
발간 연도	1835-1837
발행 사항	London: Ann Cobbett
청구기호	구장본 서양서 (M040 8)
비고	총 6권.

Selections from Cobbett's political works: being a complete abridgment of the 100 volumes which comprise the writings of "Porcupine" and the "Weekly political register"은 윌리엄 코벳(William Cobbett, 1763-1835)의 정치저술을 묶은 모음집으로, 보수주의자로 비난받았던 윌리엄 코벳이 사실 보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연방주의자(Federalist), 귀족주의자, 토리당에 대한 비판자였으며, 그들과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반연방주의자이자 민주주의자, 그리고 휘그적인 인물이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판되었다. 이 책은 윌리엄 코벳의 아들인 존 코벳(John M. Cobbett)과 손자인 제임스 코벳(James P. Cobbett)이 편집했으며, 책을 출판한 앤 코벳(Ann Cobbett) 역시 윌리엄 코벳의 손녀이다. 존 코벳과 제임스 코벳은 윌리엄 코벳이 조지 워싱턴, 알렉산더 해밀턴, 존 아담스 등의 적으로, 제퍼슨, 매디슨, 먼로 등과 같은 편이었다고 주장하며, 이 책에 포함된 코벳의 글 역시 그런 목적에 부합되게 선정되었다.

윌리엄 코벳의 글은 내용은 크게 1794년부터 1800년까지 필라델피아에서 월간지나 신문에 쓴 기사와 팜플렛, 1802년부터 주간지에 쓴 정치에 대한 기사 중 가장 흥미로운 주제들로 선별하
여 연대순으로 구성한 것이다. 윌리엄 코벳의 정치적 저술들을 출판하기로 했을 당시 코벳은 “토리당”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1권은 윌리엄 코벳이 1794년부터 1800년까지 미국에 있을 때 썼던 팜플렛이나 기사, 1권 후반부에서 6권까지는 1801년부터 영국에서 쓴 팜플렛, 기사, 그리고 서한으로 구성되어 있다. 코벳의 글은 보수적이고 때로는 반동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상당한 반향을 얻었는데, 산업혁명과 프랑스와의 전쟁이 영국인들에게 불안감을 준 시기에 과거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저자인 윌리엄 코벳은 영국의 급진적인 팸플릿 작가, 대중 언론인, 정치가로, 산업혁명을 비판한 보수적인 인물이다. 코벳은 세금 인하, 저축, 공유지 폐지, 금본위제의 복귀를 지지했고, 맬서스주의에 반대하였는데, 그의 이상이 정당, 국가부채, 산업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계급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영국이었기 때문이다. 코벳의 저술은 당시 영국과 미국의 정치적 환경, 경제적 변화, 사회적 불안에 대한 비판과 제언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18세기 말 19세기 초 영국과 미국의 정치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서명	Physics and Politics
편 · 저자	Bagehot, Walter (월터 배젓)
발간 연도	
발행 사항	Essex, England: The Anchor Press LTD.
청구기호	구장본 서양서 (M000 105)
비고	출판연도가 확인되지 않음. 다른 판본들과 비교해 볼 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음. 촬영 필요.

Physics and Politics는 월터 배젓(Walter Bagehot, 1826-1877)이 출판한 정치평론집으로, 1872년에 최초로 발간되었다. 저자인 월터 배젓은 빅토리아 시대에 활약한 언론인이자 문필가이다. 그는 『이코노미스트』의 편집자이자 『스펙테이터』의 공동 편집자이며, 『물리와 정치(Physics and Politics)』 외에도 『영국 헌법(The English Constitution)』(1867)을 저술했고, 정치가들에 대한 평론으로도 유명하다. 『물리와 정치』에서 배젓은 자연과학연구에서 성공적으로 입증된 과학적 방법을 인간사회와 정치제도 연구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종의 자연적 진화와 정치제도의 진화 사이의 유사점을 살펴보고 자연의 법칙과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법칙을 비교한다. 그는 생물학, 인류학, 심리학이 정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며, 정치조직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학문의 상호연관성을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모두 6장으로, 1장은 「예비의 시대(The Preliminary Age)」, 2장 「투쟁의 필요(The Use of Conflict)」, 3, 4장 「민족 형성(Nation-making)」, 5장은 「토론의 시대(The Age of Discussion)」, 6장 「정치적 숙고를 통한 검증가능한 발전(Verifiable Prgress Politically Considered)」이다.

경성제대본의 출판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이 책의 초판본은 1872년본이며, 그 외 1875년본, 1881년본(6판), 1894년본이 확인된다. 1875년본은 목차에서 5장의 시작되며 페이지수가 165이며, 1881년본, 1894년본은 156이다. 경성제대 소장본은 1881년본, 1894년본과 페이지수가 일치하고 본문 내용 역시 1894년본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1881년본은 발행사항이 London: C. Kegan Paul & co., Paternoster Square로, 1894년본은 출판지가 Spottiswoode and Co.,New Street Square, London으로 표시되어 있다. 1881년본, 1894년본 모두 본문의 앞뒤로 해당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의 광고가 들어가 있다. 경성제대본은 광고가 없는 대신 인덱스가 포함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다른 판본들과 비교해 볼때 경성제대본은 다른 곳에는 없는 판본일 가능성이 크다.

서명	Essays in political and moral philosophy
편 · 저자	Leslie, Thomas Edward Cliffe (토마스 레슬리)
발간 연도	1879
발행 사항	Dublin: Hodges Foster & Figgis/ London: Longman, Green, & Co., Paternoster-row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M050 28)
비고	

1879년에 더블린 대학의 트리니티 칼리지의 학장과 선임 연구원들에 의해 편집되어 출간된 Essays in Political and Moral Philosophy는 토마스 에드워드 클리프 레슬리(Thomas Edward Cliffe Leslie, 1825-1882)의 글을 모은 책이다. 클리프 레슬리는 아이리쉬 법학자이자 경제학자로, 벨파스트의 퀸즈 칼리지에서 법학 및 정치경제 교수로 활동하며, 리카르도 경제학을 비판하고 소비자 주권 개념을 발전시켰다. 또한, 수요분석이 역사적이고 비교적인 연구에 기반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클리프 레슬리의 작업은 응용정치경제학과 과학의 철학적 방법론에 대한 논의로 나눠진다. 그는 도덕경제 및 정치경제에 대한 연구가 역사적 방법론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며, 도덕과 경제이론은 역사적 과정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통계학이 중요하다고 보지만,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키며 연속성과 변화를 보여주는 주된 방법으로 간주한다.

본서에 포함된 에세이들은 그가 더블린 대학의 정기간행물인 『헤르마테나(Hermathena)』에 실은 글들로, 트리니티 칼리지의 동료들이 그의 에세이를 모아 출판한 것이다. 주제는 돈에 대한 인간의 욕망부터 시작해서 국가의 부, 국내법과 국제법, 법과 제도인 군사체계, 정치경제이론에 대한 논평, 영국과 독일의 정치경제사,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배젓(Bagehot), 케언스(Cairnes)와 같은 당대의 사상가들에 대한 평가, 등 철학, 이론, 역사를 광범위하게 다룬다. 이 에세이들 중 일부는 이후 레슬리가 저술한 『토지제도(Land Systems)』의 기초 아이디어를 형성했다. 부록으로 1878년 5월 18일에 발표한 「국제법에 관한 두 책(Two Books on International Law)」에서 그로티우스(Grotius)의 『전쟁과 평화의 법(De jure belli ac pacis)』와 헨리 휘튼(Henry Whaeton)의 『만국공법(Elements of International Law)』를 비교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글들은 동일한 시기에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제와 관점이 산발적으로 보이나, 레슬리는 방법론이나 핵심 사상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저술했다고 주장한다. 당대의 문제에 대한 학자의 관점과 분석적 비평이 담겨 있는 책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책이다.

서명	Burke's speech on conciliation with America
편 · 저자	Burke, Edmund (에드먼드 버크)/ LaMont, Hammond (하몽 라몽)
발간 연도	c.1897
발행 사항	Boston · New York · Chicago · London: Ginn & Company
청구기호	구장본 서양서 (M090 2)
비고	

Burke's thoughts on the cause of the present discontents는 아일랜드 더블린 출신의 영국의 정치인이자 정치철학자, 연설가인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 1729-1797)가 렉싱턴 콩코드 전투(Battles of Lexington and Concord, 1775년 4월 19일)가 발생하기 한 달 전 에드먼드 버크가 하원에서 했던 연설을 담은 것이다. 렉싱턴 콩코드 전투는 미국 독립 전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영미 간의 전투이다. 영국군이 보스턴 북서쪽에 위치한 콩코드에 있던 미국 식민지 민병대 무기고 접수 작전을 실시하자 이에 반발하여 움직였던 식민지 민병대와 무력으로 충돌한 사건이며, 식민지군이 영국군을 격파하였다. 작은 규모지만 미국 독립 전쟁에서 의미 있는 전투이다. 버크가 연설할 당시인 1775년 3월 22일은 이 전투가 일어나기 전이었고, 버크와 청중 모두 영국 정부의 힘을 성공적으로 보여주어야만 국회에서 식민지에 대한 추가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버크는 내전보다 평화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미국의 증가하는 인구, 산업, 그리고 부의 중요성을 하원에 상기시켰다. 또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영국인들이라는 점도 강조한다.

버크의 연설은 역사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수사의 훌륭한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받았다. 영어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정치적 논증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정치철학의 실천적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그의 연설은 통계, 역사적 비유, 법을 자세하게 인용하여 상대를 설득하면서도 전쟁이라는 상황 하에서 정의의 정신, 정의로운 인간 행동의 움직일 수 없는 원칙을 일시적으로 벗어나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철학자의 고민을 포기하지 않은 연설이고 평가받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버크의 연설은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게 언어의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학생들이 배워야 할 필수 텍스트로 이해되었다.

이 책은 브라운 대학의 수사학 교수였던 하몽 라몽(Hammond LaMont, 1864-1909)이 버크에 대해 소개한 긴 서문과 버크의 연설, 연설에 대한 미주, 그리고 인덱스로 구성되어 있다. 경성제대본과 동일한 판본을 google books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서명	History of the life and times of Edmund Burk
편 · 저자	Macknight, Thomas (토마스 맥나이트)
발간 연도	1858
발행 사항	London: Chapman and Hall
청구기호	구장본 서양서 (M060 1)
비고	총 3권이나 경성제대본은 2권만 있음. google books에 동일한 판본의 디지털 버전이 있음.

History of the life and times of Edmund Burk는 영국계 아일랜드인 신문 편집인이자 전기 작가였던 토마스 맥나이트(Thomas Macknight, 1829-1899)가 저술한 총 3권에 달하는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 1729-1797)의 삶에 대한 학술적 전기이다. 에드먼드 버크는 아일랜드 더블린 출신의 19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자 정치철학자, 연설가로 휘그당의 일원이자 온건 보수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맥나이트는 1851년 Fraser's Magazine 11월과 12월호에 버크의 정치적 경력에 대한 에세이를 투고했는데, 그 작업을 하면서 버크에 대한 기존의 전기가 그의 삶과 정치사상 및 도덕적 원칙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한다고 판단, 버크의 생애에 대한 서술을 주의 깊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느끼고 전기 작업을 시작했다. 전기작가로서 맥나이트는 버크 외에도 정치인 및 정치철학자의 삶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설명하는 전기를 출판해 왔고, 그런 측면에서 버크의 전기에 대해서도 자신의 작업이 이전에 출판된 전기들과 결을 달리한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 자부한다. 그는 버크의 정치가로서 위대함을 이해하려면 버크를 둘러싼 세계가 어떠했고 그 시대적 문제의식은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그는 버크의 사생활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수집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전 작업들이 상당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맥나이트는 선입견 없이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구성하여 역사적 인물의 삶을 재현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기는 비평가의 시선을 상실하고 찬양만 하게 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맥나이트는 버크가 영국에서 천주교 해방을 지지했던 것, 아일랜드의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계획했던 것, 연설자 및 정치인으로서 빠른 성공, 자유무역 이념의 선포, 그가 직면했던 모든 비난과 어려움, 국회에서 귀족과 대립하는 버크의 투쟁, 언론 자유를 지지하기 위한 노력, 1773년에 인도 개혁에 대한 그의 생각, 조약법에 따라 임명된 지사로 워렌 헤이스팅스에 대한 그의 최초로 표명된 혐오 등은 버크의 정치적 성향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것들임에도 기존 연구자들이나 전기작가들이 주목하지 않았다며 비판한다.

본서는 맥나이트의 주장처럼 그의 삶을 매우 촘촘하게 조망한다. 버크의 가정환경부터 가족, 친구, 학창 시절부터 시작해서 그가 정치가로 성공하고 유명해지는 그 모든 과정의 과정을 거의 연별로 정리하고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연결시키고자 노력한다. 이 책은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권은 버크의 출생부터 1773년까지를, 제2권은 1773년부터 1782년까지, 제3권은 1782년부터 1797년까지 서술한다. 결론에서 맥나이트는 버크의 정치철학, 사상가로서의 면모, 정치가다

움, 공적 삶에서 버크의 태도, 친척들에 대한 사랑, 프랑스혁명, 미국전쟁에 대한 그의 입장 등을 정리한다. 이 책은 에드먼드 버크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학술전기라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이다.

서명	Studies in The Politics of Aristotle and The Republic of Plato
편 · 저자	Loos, Isaac Althaus (아이작 알트하우스 루스)
발간 연도	1899
발행 사항	Iowa City: The University Press
청구기호	구장본 서양서 (M060 86)
비고	

Studies in The Politics of Aristotle and The Republic of Plato는 미국 시카고 대학의 정치
학 교수였던 아이작 알트하우스 루스(Isaac Althaus Loos) 가 정치학 교재로 만든 책으로, 크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The Politics)』에 대한 연구와 플라톤 『국가(The Republic)』 연구로 나뉘어 있다. 『정치학』에서는 국가의 본성과 정치경제의 요소, 정치학의 역사, 정체이론, 행정이론, 행정의 조직, 행정 실패의 원인, 행정의 원칙, 도시국가와 교육 등을 다룬다. 형식적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문장을 인용한 뒤 이에 대한 해설을 다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는 먼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의 좋은 주해를 포함하고 있는 번역서들을 소개하고 당시 『정치학』을 8권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한다. 이때 권은 장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1권은 국가의 본성과 정치경제의 요소에 대하여, 2권은 문헌과 역사상의 정치체제에 대한 검토, 3권은 체제이론, 4권은 정부의 형태, 5권 정치혁명, 6권 민주정과 과두정, 행정, 7권 국가의 생에 대한 이론, 8권 교육으로 나누어진다. 루스는 번역자 및 학자에 따라 구분은 좀더 구
체적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학생들이 국가와 관련된 전체적인 지식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의무로 삼아야 하며, 분석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역사가와 철학자의 정신으로 『정치학』을 읽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가론』에서는 국가의 구조와 기초교육, 정의의 본성에 대한 검토, 국가의 기원과 본성, 기초교육, 행정의 원칙과 정의의 규정, 철학자들의 정부, 고등교육, 철학자의 통치, 기존 국가에 대한 비판 등을 논한다. 『국가론』을 읽을 때 유의할 점으로 루스는 지나치게 디테일에 집중하기 보다는 법의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을 조언하고 『국가론』의 좋은 번역, 그리고 플라톤의 다른 저작들을 함께 소개한다.

Studies in The Politics of Aristotle and The Republic of Plato 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의 대학생들의 고전 정치학 교재로 고안된 책이라는 점, 그리고 당시 대학에서 원전을 공부하기 전 단계에서 자국어로 번역된 텍스트 강독을 하는 방법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책이다.

서명	The right Honourable Benjamin Disraeli, M.P.: a literary and political biography: addressed to the new generation
편 · 저자	Macknight, Thomas (토마스 맥나이트)
발간 연도	1854
발행 사항	London: Richard Bentley
청구기호	구장본 서양서 (M060 17)
비고	

The right Honourable Benjamin Disraeli, M.P.: a literary and political biography: addressed to the new generation는 영국계 아일랜드인 신문 편집인이자 전기작가, 정치평론가인 토마스 맥나이트(Thomas Macknight, 1829-1899)가 영국의 정치가이자 작가인 벤저민 디즈레일리(1804-1881)에 대해 쓴 정치적 전기이다. 유대인이었던 디즈레일리는 1837년 토리당 소속 하원으로 선출된 후 1868년 총리가 되었다. 1880년 선거에서 패배, 사임 후 죽기 전까지 보수 야당의 대표로 있었다. 그는 자유무역주의를 대표하는 로버트 필의 곡물법 폐지에 반대하고 보호무역주의의 지도자였고, 1867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농민과 노동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개혁을 주도했다.

이 전기는 사실 디즈레일리를 영국 정치를 타락시키는 기회주의자로 공격하고 조롱한 것으로, 익명으로 출판되었다. 맥나이트는 이 전기에서 디즈레일리의 소설에서 문제적인 구절을 인용하고 자신을 에드먼드 버크의 제자라고 주장하는 디즈레일리를 비웃는 등 그를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글이다. 디즈레일리는 이 전기에 대한 비판적 리뷰를 익명으로 써서 대응했다고 알려져 있다. 맥나이트는 디즈레일리를 영국의 정치를 타락하는 기회주의자라고 공격한다. 이 책은 이후 디즈레일리의 비판자였던 토마스 파워 오코너(Thomas Power O'Connor)의 글에 적극적으로 인용되기도 하고 윌리엄 에워트 글래스톤(William Ewart Gladstone)에 의해 글래스토니안 자유주의를 깊이 있고 진지하게 받아들여 저술한 책이라는 평을 받기도 했다. 전부 16권과 부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전기는 19세기 중반 영국의 휘그당과 토리당이 정치적으로 대립한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상대 당을 공격하고 비판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 입장 차가 어느 지점에서 드러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 그리고 휘그당의 다른 정치가들, 자유주의자들에게 지지를 받았다는 점에서 당시 정치사상적 지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서명	Thoughts on the cause of the present discontents together with Observations on a Late publication intituled ‘The present state of the nation’
편 · 저자	Burke, Edmund (에드먼드 버크)
발간 연도	1913
발행 사항	London: George Routledge & Sons
청구기호	구장본 서양서 (M050 25)
비고	1770년에 에드먼드 버크가 출판한 Thoughts on the cause of the present discontents 와 1769년 출판한 Observations on a Late publication intituled ‘The present state of the nation 가 합본으로 되어 있으므로 제목의 대소문자를 바꿀 필요가 있음. 촬영 필요.

Thoughts on the Cause of the Present Discontents together with Observations on a Late publication intituled ‘The present state of the nation’은 아일랜드 정치인이자 철학자인 에드먼드 버크가 1770년 4월 23일에 출판한 팸플릿인 “Thoughts on the cause of the present discontents”와 1769년에 출판한 “Observations on a Late publication intituled ‘The present state of the nation’”를 한 권으로 합쳐서 출판한 책이다. 이 책이 출판된 시기는 조지 3세가 관료들의 통제에서 벗어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때이다. 조지 3세는 왕실이 휘그당에 의해 휘둘린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즉위하면서 윌리엄 피트를 국무장관직에서 해임했다. 그리고 관료들은 정당의 구성원이 아니라 국왕의 지명에 의해 임명되는 것으로 전환시켰다. 버크의 이 책은 영국의 왕 조지 3세의 족벌주의와 궁정이 영국의 하원에 미치는 영향을 그 주제로 삼고 있으며, 정부 내에서 정당과 그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중요한 논의를 전개한다. “Thoughts on the cause of the present discontents”는 연설가로서 버크가 가진 기술을 잘 보여주는 글로 평가받는다.

“Observations on a Late publication intituled ‘The present state of the nation’”은 버크가 정치문제에 대해 논쟁을 일으킨 첫 번째 출판물이다. 이 팸플릿은 당시 미국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조지 그렌빌(George Grenville) 행정부의 결정이 전쟁으로 인한 비용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옹호한 익명의 팸플릿에 대한 답변이었다. 버크는 이 팸플릿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경제 상황을 검토하고 “정치는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며, “사람들은 그들의 성질과 성향에 맞는 방식으로 통치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로킹엄 내각의 인지법 폐지를 옹호하였다.

“Thoughts on the cause of the present discontents”는 다른 출판사에서 출판한 다양한 판본이 존재하지만 “Observations on a Late publication intituled ‘The present state of the nation’”의 경우는 대체로 전집이나 선집에 묶여서 출판되었다. 경성제대본은 1913년 George Routledge & Sons 출판사에서 출판된 것이다.

서명	Political Essays
편 · 저자	Cairnes, John Elliot (존 엘리엇 케언스)
발간 연도	1873
발행 사항	London: MacMillan and co.
청구기호	구장본 서양서 (M050 38)
비고	

The Political Essays는 아일랜드의 정치 경제학자인 존 엘리어트 케언스(John Elliott Cairnes, 1823-1875)가 쓴 에세이이다. 케언스는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의 제자이자 친구로, 마지막 고전경제학자라고 평가된다. 케언스는 첫 저서인 『정치경제학의 성격과 논리적 방법(The Character and Logical Method of Political Economy』(1857)에서 고전적 정치경제학의 추상적 연역성을 강조하며 정치 정책과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고전적 접근법이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 문제에 관한 에세이(Essays on the Gold Question)』(1873)는 19세기 통화 이론에 관한 가장 중요한 저작 중 하나로 꼽힌다. 그는 노동 제도로서의 노예제도의 비효율성을 설명하며 노예제를 비판한 것으로도 유명했다. 케언스는 프랑스 경제학자이자 프리메이슨, 프랑스 왕립협회의 회원이었던 클로드 프레데리크 바스티아(Claude-Frédéric Bastiat)와 허버트 스펜서(Hebert Spencer)와 같은 자유주의자들을 정치경제를 혼란스러운 신학으로 변화시켰다고 비판한 바 있다.

본서는 경제학자로서 케언스의 입장이 반영되었다기 보다는 당시 정치, 교육, 아일랜드 등에 대한 글을 묶어서 출판한 책이다. 이 책은 모두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은 제1장 「식민화와 식민지 정부」, 제2장 「미국 혁명」, 제3장 「국제법」, 제4장 「아일랜드의 파편화」, 제5장 「우리의 방어: 국민군인가, 상비군인가?」, 제6장 「1865, 6년 아일랜드 교육 사태에 관한 대학 개혁에 대한 생각」, 제7장 「현재 아일랜드 대학의 위치에 대한 의문-1873년」이다. 이 중
경제학자로서의 평론이 담긴 글은 제4장으로, 농업혁명 이후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서명	Political Essays
편 · 저자	Bradlaugh, Charles (찰스 브래들로)
발간 연도	1882
발행 사항	London: Freethought Publishing Company
청구기호	구장본 서양서 (M050 50)
비고	Political Essays 는 1882년본과 1887년본이 확인되는 데, 1882년본은 거의 찾기 어려움. 촬영 필요.

Political Essays는 1833년에서 1891년까지 활동한 영국의 정치활동가이자 국회의원이었던 찰스 브래들로(Charles Bradlaugh)의 에세이 모음집이다. 브래들로는 무신론자로, 1866년에 영국 세속주의 협회(National Secular Society)를 창설하였다. 이 단체는 1851년에 영국의 세속주의자이자 언론인이었던 조지 홀리오크(George Holyoake)가 “세속주의"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지 15년 후에 설립되었다. 브래들로는 자신의 무신론적 신념으로 인해 일부 기간 동안 구속되기도 했다. 그는 노동 조합주의, 공화주의, 보편적 선거권을 옹호했지만, 사회주의에는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서는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에는 「하노버왕가의 탄핵」, 「인민의 진정한 대표」, 「말보로의 공작 존 처칠」, 「글래스톤씨 혹은 솔즈베리 경: 어느 쪽인가?」, 「내가 알고 있던 다섯 명의 죽은 사람들」, 「크롬웰과 워싱턴」, 「토지, 인민, 그리고 앞으로 올 투쟁」의 주제가 다루어져 있다. 이 중 예를 들면, 「하노버왕가의 탄핵」은 현 군주의 퇴위나 사망 시 왕위계승법을 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인민의 진정한 대표」는 1793년부터 1798년까지 국회 토론 및 1832년 개혁법안 통과 직전의 토론문을 읽어보면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정치적 압력에 의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양보했는지를 알 수 있으며, 정치의 부활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개입, 선거권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페이지가 연속되어 있지 않고 각 장마다 새로 페이지 수를 달고 있다. 「말보로의 공작 존 처칠」은 랜드로프 처칠(Randolph Churchill)이 브래들로와 그 집안에 대해 정치적 공격과 비난을 하자 그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쓴 글이다. 이처럼 Political Essays 는 19세기 영국의 정치가인 브래들로가 정치적 토론과 논쟁의 한 가운데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고 설득하기 위한 생생한 현장감 넘치는 글들을 모았다는 점에서 영국의 정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⑸ 사회학

서명	朝鮮と簡易學校
편 · 저자	池田林儀 (이케다 시게노리)
발간 연도	1935
발행 사항	京城: 活文社
청구기호	DDC (370.951 Ik3c)
비고	

우가키 가츠시게(宇垣一成)가 조선총독으로 부임했던 시기, 핵심적인 교육 정책 중 하나였던 간이학교 설립정책이 어떤 것이었으며 그것의 실제 성과는 무엇이었는지를 홍보하기 위해 간행한 책자다. 저자 이케다 린지는 도쿄외국어학교 출신의 언론인으로 1926년에는 일본우생운동협회의 설립을 주도한 바 있으며 1933년에는 경성일보에 초빙되어 1939년까지 논설부장과 부사장을 역임했다. 그가 경성일보에 재직하던 시기 총독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전국 각지의 간이학교를 방문했고 그 성과를 묶은 것이 이 책이다. 이 책의 서문을 당시 정무총감 이마이다 키요노리(今井田淸德)와 학무국장 와타나베 토요히코(渡邊豊日子)가 쓰고 있는 것에서도 조선총독부와의 강한 교감을 확인할 수 있다.

본문은 23개의 짧고 간략한 글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로는 간이학교의 설립목적 및 특징, 간이학교 교원각오 등과 더불어 조선농촌을 순방했던 저자의 간략한 감상을 수록하고 있는 부분이고, 둘째로는 당시 간이학교 정책과 관련된 주요 실무 담당자들 및 교사들이 간이학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며, 마지막으로 총독부 학무국이 작성한 간이학교 증설방침, 경영지침, 경영안, 지도안 등을 수록하고 있는 부분이다. 비록 홍보용 책자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감안해야겠지만, 당시 조선총독부의 간이학교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실제 교육현장에서 이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는 데는 일차 자료로서 중요하다.

참고로 이 간이학교는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식민지교육방침을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정책 중 하나였다. 1920년대 이래 조선총독부는 보통학교의 설립에 역점을 두어, 1930년대 초반이 되면 보통학교가 대략 1면(面)에 1교(校)가 설치되기에 이르렀지만, 일본어의 보급은 여전히 미미했다. 우가키가 조선총독에 부임한 것을 계기로, 식민지교육의 방침은 양적인 교육 팽창에서 질적인 교육 내실화로 전환되었고, 이 과정에서 나온 것이 2년 과정의 간이학교 설립이었다. 간이
학교의 설립목적이 ①한 사람 몫을 하는 일본국민의 형성, ②일본어의 읽기, 쓰기, 말하기를 가능하게 할 것, ③직업에 대한 이해와 능력을 갖춘 사람의 형성인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총독부는 간이학교의 설립을 통해서 한편으로 일본어 교육을 통해 농촌의 조선인들에게 일본 신민의 정신을 파급하고 다른 한편으로 직업교육을 통해 경제 파탄상태에 빠진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것이다. 간이학교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책과 실태를 보여주고 있는 이 책은 우가키 총독의 부임 이후 1930년대 식민지 통치방침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서명	國史の研究: 總說の部, 各說の部
편 · 저자	黑坂勝美 (구로이타 가쓰미)
발간 연도	1913 (總說の部)/ 1918 (各說の部)
발행 사항	東京: 文会堂書店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4100 5)
비고	삼판: (改正)國史の研究, 총3권 (4100 5A)/ 國史の研究: 總說/ 國史の研究: 各說 下

도쿄제대 국사과 교수 구로이타 가쓰미(黑坂勝美)의 주저로, 일본의 아카데미즘 역사학을 대표하는 기본적인 문헌으로 평가된다. 특히 일본의 국사학이 새롭게 발굴되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실증'에 바탕을 두면서도, 이것이 만세일계(万世一系)로 이어지는 일본 황실 특유의 국체의 역사와 이런 천황가에 충성을 다해왔던 국민의 역사를 어떻게 정당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모범적' 사례로서, 일본 국사학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정전(正典)적 텍스트라고 할 만하다. 저자 구로이타 가쓰미는 오랜 기간에 걸쳐 도쿄제국대학 국사과 교수를 역임하면서 일본의 중세사, 고문서학, 그리고 문화재보호 등의 기틀을 닦은 인물로 평가된다. 특히 식민지 조선과 관련해서도 반도사편찬위원회, 조선사편수회에 깊이 관여하면서 식민지의 역사편찬 및 제도화 과정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 바 있다. 조선사편수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일본인 역사학자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 스에마쓰 야스카즈(中村榮孝), 나카무라 히데타카(中村榮孝) 등은 모두 그의 제자들이었다.

이 저작은 구로이타의 대표작으로 초판은 1908년에 발표되었는데, 이후 핵심적인 내용을 수정, 변용해가며 두 번의 개정판을 출간했다. 재판은 현 천황가의 전통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었던 이른바 남북조정윤론(南北朝正閏論) 논란 이후 대폭 보완하여 두 책으로 나누어 출간하였는데, 『총설부분(總說の部)』은 1913년, 『각설부분(各說の部)』은 1918년, 각각 발행되었다. 그리고 삼판은 1920년대 들어 문화사, 마르크스주의 역사학, 민속학 등 기존 아카데미즘 역사학에 대한 지적 도전이 본격화되고 있던 상황에서 착수된 것으로 『총설』은 1931년, 『각설』은 다시 상하편으로 늘어 1936년 간행되었다. 체계적인 통사서술을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관학 아카데미즘에서 자기 사회의 역사를 어떻게 통사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대별로 어떤 변화를 겪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할 때 대단히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일본 국사의 통사체제에 식민지의 역사는 어떻게 포함되고 있었는지를 따져보는 작업 또한 요청된다.

서울대 고문헌 자료실에는 재판 및 삼판을 소장하고 있다. '구장서 동양서'에서 재판의 표제는 "國史の研究: 總說の部, 各說の部"(총2권)이며, 이와나미쇼텐(岩波書店)에서 출간된 삼판은 『(改正)國史の研究』(총3권)이다. 특히 삼판은 1941년 인쇄된 『總說』과 『各說 下』가 별도로 소장되어 있다.

서명	滿洲發達史
편 · 저자	稻葉君山 (이나바 이와키치)
발간 연도	1915
발행 사항	東京: 大阪屋號出版部
청구기호	구장본동양서 (4391 1)/ DDC (952.8 Inlh)/ 개인문고 (남창 952.8 Inlh)/ 농학도서관 (953.8 In1m)
비고	(增訂)滿洲發達史: (4391 1A); 952.8 In1m2/ (漢譯)滿洲發達史: (4391 40)

훗날 '만선사(滿鮮史)' 연구로 알려진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의 두 번째 저작. '군잔'(君山)은 그의 호이다. '만주'라는 지역을 역사적으로 중국과는 구분되는 역사적 실체로 상정하고 이에 대한 통사서술을 본격적으로 시도한 첫 사례가 이 책이다. 저자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는 러일전쟁에서 육군의 통역을 맡은 이래로 만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1909년 만철조사부에 입사했으며, 이를 계기로 나이토 코난(內藤湖南)에 사사(師事)하면서 역사학자로 경력을 쌓았다. 당시 만철조사부에서는 시라토리 쿠라키치(白鳥庫吉)가 주도하여 만선 역사지리조사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는데, 이나바는 그중에서도 명,청대 만주를 담당했으며, 만철을 퇴사한 이후에는 나이토의 추천으로 조선사편수회의 간사로 참여하면서 만주와 조선의 불가분론, 이른바 '만선사의 체계화'에 진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1932년 교토제국대학에서 「광해군 시기 만선관계」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바나는 1938년 만주국에 신설된 만주건국대학 교수로 부임해서 1940년 사망시까지 활동하기도 했다.

1915년 간행된 이 책은 전년도 출간한 『淸朝全史』와 더불어 만철조사부 시절 이나바 자신의 작업을 정리하는 한편으로, 만철조사부의 『만주역사지리』에서 충분치 못했던 역사적 경과에 대한 서술을 대폭 보완하려는 시도로, 이후 그의 작업의 특징적인 측면이 잘 드러나고 있는 저작이다. 서론은 그의 지적 후원자였던 나이토 코난(토라지로)가 쓰고 있으며, 명대와 청대의 만주의 역사가 책의 중심이긴 하지만, 명대 이전에 만주에서 활동했던 민족들, 만주 주변의 몽고, 조선, 일본과의 역사적 관계 등 만주를 역사적 실체로 폭넓게 다루고 있었다. 실제로 이나바는 이 책을 통해 중국사에 가려져 있었던 아시아 북방대륙의 역사, 그리고 주변 민족들과의 불가분의 역사적 연계를 가진 만주의 양상을 드러내면서, 하나의 역사적 실체로 만주를 구성해내려는 의욕을 드러내고 있다.

이 책은 이나바의 저서 중에서도 특히 일본 학계 안팎에서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는데, 만주에 관한 최초의 체계적 통사라고 평가받는 가운데 1935년에는 만주사변, 만주국 건국 등 일본 내에서도 만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명대 이전의 만주 및 근현대 만주 부분을 대대적으로 보완하여 1935년 日本評論社에서 증정판을 간행하기도 했다. 이 책은 양청능(楊成能)에 의해 1935년 중국어로 번역되기도 했는데, 만주국에서는 증정판에 맞춰 번역을 보완해서 —추가 번역은 김구경이 맡았다— 1940년 奉天萃文齋書店에서 간행되었다. 이 판본은 고문헌 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다.

증정판은 '군국주의 사관'으로 비판받고 있지만, 1915년의 초판은 1945년 이후에도 간행되어 영향을 미친 바 있다.

서명	朝鮮史/ 滿州史
편 · 저자	稻葉岩吉 (이나바 이와키치)/ 矢野仁一 (야노 진이치)
발간 연도	1935
발행 사항	東京: 平凡社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4030 20)/ DDC (909 Se47h)/ 개인문고 (남창 909 S347h)
비고	

1934년부터 1936년까지 일본의 출판사 헤이본샤(平凡社)가 총 25권의 시리즈로 출간한 『世界歷史大系』 중 제11권으로 기획된 조선 및 만주의 통사. 한 책으로 묶여져 있지만 조선사와 만주사는 별도로 집필되었으며 조선사는 당시 조선사편수회의 위원 및 간사로 있었던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가, 만주사는 당시 '중국통'으로 알려져 있었던 교토제국대학 명예교수 야노 진이치(矢野仁一)가 각각 집필했다. 이나바는 조선사편수회 간사로 활동하기 이전에는 『淸朝全史』, 『滿洲發達史』 등을 저술하여 만주사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었으며, 당시에는 만주와 조선의 불가분성을 주장하는 '만선사의 체계화'를 주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나바가 만주사를 같이 집필하지 않고 조선사만을 담당했던 상황은 다소 의아할 수 있었던 구성이었다. 하지만, 동양사학자 야노는 중국 근현대사가 전공으로, 만주국이 건국될 당시에는 '중국비국론(中國非國論)'을 주장하면서 만주국 건국의 역사적인 의의를 적극적으로 옹호했었다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명청시대의 만주가 아니라 당시 만주의 현황에 더 관심을 가졌을 대중들의 이해를 반영한 결과로도 볼 수 있을 듯하다. 그리고 그가 조선사의 필자를 맡게 된 데에는, 조선사편수회의 오랜 활동으로 당시 본토 학계에서는 비교적 연구자가 드물었던 조선시대사에 관해서도, 당시로서는 누구보다도 사료를 많이 접했던 전문가였다는 사정에서도 기인하는 바가 컸을 것이다.

이 책의 목차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실제로 그는 일본인들이 간행했던 기존의 조선사 통사들이 대체로 일본사와 연관이 많았던 고대사와 한일관계사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에 비해, 조선시대사의 여러 쟁점들을 대폭 강화했으며, 평소의 지론이었던 "만선일가론(滿鮮一家論)"에 입각해서 주변 북방민족과의 관계들도 대폭 강화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 책 중에서 특히 조선사 통사서술과 관련해서는, 이나바 이외에도 조선사편수회에서 같이 활동했던 나카무라 히데다카(中村榮孝)와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에 의해서도 비슷한 시도가 동시기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나카무라의 『朝鮮史-國史と海外史との交關』(東京: 四海書房, 1935)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스에마쓰의 지상강의 「朝鮮史」는 잡지 『朝鮮行政』에 1937년부터 1939년까지 22회에 걸쳐 연재되었는데 서울대 중앙도서관을 통해 참고할 수 있다.

서명	社會學講義
편 · 저자	浮田和民 (우키타 가즈타미) 저, 帝國教育會 (제국교육회) 편
발간 연도	1906 (4版)
발행 사항	東京: 開發社
청구기호	개인문고 (심악 301 Uk5s)
비고	

초기 일본 사회과학계를 대표하는 정치학자 중 한 사람이었던 우키타 가즈타미(浮田和民)가 1900년 8월 제국교육회의 하계강습회에서 대중들을 대상으로 행한 사회학 강의를 정리해서 1901년 간행한 것이다. 5년 사이에 4판이 나올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강의의 속기는 나야 나오지로(納谷直次郎)가 맡았다. 구마모토현 하급 무사의 아들인 우키타는 구마모토양학교(洋學校)에서의 배움을 통해 기독교를 믿었고, 양학교가 폐교되자 도시샤(同志社)로 옮겨 배움을 이어갔다. 졸업 이후에는 도지사에서 정치학, 국가학, 헌법 등을 가르쳤으며 1892년에서 96년까지는 미국 예일대학에서 정치학과 역사학을 배웠다. 1897년 도시샤 내부 분규로 학교를 떠나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가 설립한 도쿄전문학교, 훗날 와세다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와세다에서 서양사와 정치학을 주로 가르쳤지만, 사회학 강의를 맡기도 했는데, 대학과 전문학교에서 사회학을 강의하고 있던 곳이 많지 않았던 당시 상황에서 그의 강의록은 '사회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에 대한 대중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10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개론적인 차원에서 사회학의 개념, 사회의 진성(眞性), 사회물리, 사회심리, 사회조직, 사회진화, 가족 및 국가, 사회의 목적 등을 설명하고 있는데, 속기된 강의록인 만큼, 이 강의의 기반이 되는 구체적인 전거가 명시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그가 사회학을 법률학, 경제학, 정치학과는 독립적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 "사회란 개인의 심경(心境)을 도외시해서는 존재할 수 없으며, 사회적 작용은 심리적 작용에 다름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학은 심리학을 기초로 한다"(68쪽)고 해서 심리학주의를 분명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회학은 "외계(外界)의 물질적 세력과 내계(內界)의 정신적 작용, 그 사이의 상호관계를 명백하게 설명할 필요"(123쪽)가 있으며 그 해석의 방법으로 전자를 사회물리, 후자를 사회심리라고 이름 붙이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플랭크린 기딩스(Franklin H. Giddings)와 같은 미국 사회학자들의 영향이 현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은 당시 독일의 학문적 영향 아래에서 제도주의, 국가주의적 성향이 강해져 갔던 제국대학 중심의 학문 풍토와는 대비되는, 사학(私學)을 중심으로 하는 영미 자유주의적인 학문 풍토를 잘 드러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특유의 기독교적이고도 유교적인 윤리주의와 결합하여 "윤리적 제국주의"라는 독특한 사유로 발전해갔던 우키타 가즈타미 특유의 사유를 이해하는 배경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서명	普通社會學
편 · 저자	建部遯吾 (하세베 돈고)
발간 연도	1918-21 (初至六版)
발행 사항	東京: 開發社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6510 30)
비고	

1901년부터 1922년까지 동경제국대학 사회학강좌를 담당하면서 초창기 일본 사회학의 형성과 제도화에 큰 영향을 미친 하세베 돈고(建部遯吾)의 4부작 주저이다. “칸트, 콩트, 그리고 돈고가 3대 사상가다,” “사회학은 콩트가 만들었고 돈고에 의해 대성한다,” 등 호언(豪言)을 서슴지 않았던 개성적인 인물이었던 하세베는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도쿄제대 유일의 사회학 교수였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영향력을 막대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처음부터 유학사상과 사회학의 결합을 모색하는 등 과도하게 독창적인 경향이 강했고,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서 제국주의적, 국가주의적 지향 또한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에 정계 진출을 위해 대학에서 스스로 물러난 이후, 자신의 동료, 제자들에게조차 “과학적인 엄밀성이 떨어지고 종종 과학적 사변에 치우쳤”다든가, “사회학적으로 사회학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적”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사회학의 전반적인 기초연구”를 표방하며 자기 나름의 사회학 체계를 전개했던 이 책은 하세베 사회학의 특색과 한계를 잘 드러내고 있는 대표 저서다.

총 네 권으로 구성된 이 책의 1권(1904년 초간)은 『社會學序說』이라는 부제가 달렸는데, 사회 및 사회학이 무엇이며 어떤 문제를 제기하며 어떻게 연구할 것인지를 다루는 총론과 사회학의 원류와 형성과정을 다루는 사론(史論)으로 구성된다. 2권은 『社會理學』(1905년 초간)은 ‘social logics’, 다시 말해 사회는 어떻게 해서 실재하게 되는가를 묻는다. 우주로부터 출발하여 사람과 이법(理法)을 다루는 ‘보편원리’, 존재와 진화를 다루는 ‘보편원칙’, 사회의 요소, 규정, 동인(動因)을 다루는 ‘특수원리’, 그리고 사회의 성립과 발달을 다루는 ‘특수원칙’이 여기서 다루어진다. 제3권은 『社會靜學』(1907년 초간)으로 사회발생론, 사회체제론, 사회운영론을 검토하며, 마지막으로 출간된 제4권 『社會動學』(1918년 초간)은 사회진화론, 사회이상론, 문명론」을 다룬다.

마치 콩트나 스펜서를 연상시키는 그의 사회학 체계는 인간과 사회를 둘러싼 모든 논의를 통합하여 체계화하는 종합과학을 지향하고 있지만, ‘혼일체(渾一體)’라고 해서 사회를 기본적으로 유기체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가 및 국체를 주축으로 하는 국가유기체의 논의로 수렴되고 마는 한계를 가진다. 그럼에도 그의 저서와 사유는 당시 일본 사회가 새로운 학문인 사회학에 어떤 기대를 걸고 있었는지, 특히 제국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관학 아카데미즘의 차원에서 사회학에 대해 어떤 가능성을 보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흥미로운 저서이다.

서명	社會學之原理. 第一卷
편 · 저자	Spencer, H. (허버트 스펜서) 저, 乘竹孝太郎 (노리타케 고타로) 역
발간 연도	1885 (明治 18년)
발행 사항	東京: 經濟講習會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6510 18)
비고	원저는 Works / by Herbert Spencer; 구장본 서양서 (B360 4)

영국의 사회학자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의 주저 중 하나인 『사회학원리(Principles of Sociology)』 제1권(1874-75)을 일본어로 번역한 책이다. 오이시 마사미(大石正已)가 번역한 『社會學』 즉 『사회학연구(The Study of Sociology)』가 사회학의 연구방법에 관한 것이라면, 『사회학원리』는 이 사회학의 연구방법을 당시 인류사회의 다양한 문화 현상에 적용해 본 것으로, 특히 1권은 전체적으로는 종교와 인류학의 관점에서 미개사회에서 신앙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번역서는 총 3부로 구성된 원저의 체제를 그대로 따르고 있지만, 원저에는 'part'로 표기된 각 부(部)의 제목은 각 장의 내용에 맞춰서 다소 변화를 준 것이 특징적이다. 가령, 제1부의 원저는 'The Data of Sociology'인데 이 책에는 '社會學之根本'으로 번역되어 있으며, 제2부의 'The Inductions of Sociology'은 '事実上ヨリ社会学ノ理ヲ概括ス', 제3부의 'Domestic Institutions'는 '家族ノ関係'로 풀어 번역했다. 실제로도 제1부는 사회 및 이에 대한 사상이 가진 특징을 최초의 인류가 등장하는 경위, 그리고 이들이 가진 종교적인 체험과 사상 등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으며 제2부는 그렇게 등장한 사회가 가지는 유기체적 특징을, 제3부는 종족 및 혼인, 가족의 탄생을 주목하고 있다.

번역자인 노리타케 고타로(乘竹孝太郎)는 게이오의숙 출신으로 창간 당시부터 『東京經濟雜誌』의 편집을 맡았던 당대 대표적인 평론가 중 한 사람이다. 이미 니시 아마네(西周)의 1877년 도쿄대학 강연에서 콩트와 더불어 소개된 바 있는 스펜서는 1904년까지 일본 지성계의 열렬한 관심 속에서 주요 저작 및 글들이 소개되고 있었다. 이 책은 애초에는 1882년 도쿄대학 교수로 사회학을 가르쳤던 도야마 마사카즈(外山正一)의 감수를 받아 甲,乙 2책으로 출판한 바 있는데, 1885년 도야마의 이름은 뺀 채 다시 출간하였다. 참고로 고문헌 자료실 '구장본 서양서'에는 1914년에 출간된 스펜서의 저작집(Works)이 소장되어 있는데 그중 6-8권이 『사회학원리』이다. 스펜서는 이 저서를 두 차례(1876, 1885)에 걸쳐 증보(增補)했지만, 번역 시점으로 보았을 때 증보 이전의 1874년 저서를 번역의 대본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크다.

고문헌 자료실에 소장된 번역본은 3권으로 분책이 되어 있는데, 1권이 제1편의 16장까지, 2권이 1편의 나머지 부분, 그리고 3권은 제2편과 제3편을 수록하고 있다.

서명	社會學
편 · 저자	Spencer, H. (허버트 스펜서) 저, 大石正已 (오이시 마사미) 역
발간 연도	1883 (明治 16년)
발행 사항	東京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6510 22)
비고	원저는 Works by Herbert Spencer; 구장본 서양서 (B360 4)

영국 사회학자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가 1873년에 간행했던 『사회학연구(The Study of Sociology)』를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다. 실증적인 연구로서 사회학의 연구방법을 주로 다룬 저작으로, 스펜서의 저작 중에서 가장 폭넓게 읽혔으며, 특히 미국에서 사회학이 융성할 수 있게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번역자 오이시 마사미(大石正已)는 자유민권 운동에 종사한 이력이 있으며 1892년부터 93년까지는 주한일본공사로서 방곡령사건의 교섭을 벌였던 장본인이기도 했다. 이후 입헌당과 헌정당의 결성에 관여했으며 제1차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 내각에서는 농상무대신을 역임하기도 했다(1898).

오이시는 『사회학』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스펜서의 또 다른 저서인 『政體原論』을 번역하기도 했는데 이 책의 원본은 『사회학원리(Principles of Sociology)』 제2권, 그 중에서도 1882년 발간된 5부 『정치기관(Political Institutions)』이다. 『사회학원리』는 『사회학연구』에서 제기된 연구방법을 현실의 현상에 적용한 것인데, 특히 이 책은 추장이나 왕과 같은 정치수장, 협의체와 군부, 사법부 등 정치기관들의 속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독자들의 주목을 끌었으며, 실제로 스펜서는 이 책을 출간한 직후 있었던 미국 방문에서 영국 이상으로 열광적인 환영을 받기도 했다. 당시 미국에서 스펜서의 열기는 절정에 도달하고 있었는데, 일본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발간된 지 채 일 년도 되지 않아 이 책이 일본에서 번역되어, 나카에 초민이나 도쿠토미 소호와 같이 당시 자유민권의 기치를 내걸고 있었던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번역자가 주한일본공사로 활동할 당시 그의 한국 인식과 관련해서는 기존 연구에서는 '한반도 발칸설', '한국독립 불가론'을 견지하면서 일본의 안보라는 관점에서 한국침략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이 자유민권론자로서 그의 관점, 특히 스펜서의 수용과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향후 고찰이 필요하다.

참고로 고문헌 자료실 '구장본 서양서'에는 1914년에 출간된 스펜서의 저작집(Works)이 소장되어 있는데 그 중 이 책의 원본은 15권에 포함되어 있다.

서명	社會統計學
편 · 저자	Mayo-Smith, Richmond (리치몬드 메이요-스미스) 저, 吳文聰 (구레 아야토시) 역
발간 연도	1900 (明治 33년)
발행 사항	東京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6510 28)
비고	저자 표기 오류

미국의 경제학자 리치몬드 메이요-스미스(Richmond Mayo-Smith, 1854-1901)가 1895년 발간한 저서 『통계학과 사회학(Statistics and economics)』을 일본어로 번역한 책이다. 메이요-스미스는 미국 오하이오 출신으로 암허스트 칼리지를 졸업한 후 베를린과 하이델베르크에서 유학했으며 컬럼비아대학에서 경제학과 사회과학을 가르쳤다. 특히 통계학과 관련해서 당시 미국학계에서는 최고 권위자 중 한 사람이었으며, 번역된 책은 그의 대표작 중 하나였다. 당시 이 책에 대한 서평에 따르면, 영어권의 논의 중에서 이 책만큼 사회통계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검토한 것은 없으며, 이제 영어권 학생들은 게오르그 폰 마이어(Georg von Mayr)의 책 영어 번역본에 더 이상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격찬하고 있었다.*

원저는 3권(book) 1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구학적 차원에서는 출생, 성별, 연령, 결혼, 질병, 사망 등이 다루어지며 사회학적 차원에서는 가족, 거주, 교유, 종교, 직업 등 사회적 조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불편하거나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the infirm and dependent), 자살과 범죄 등이 검토된다. 또한, 인류학적 차원에서는 인종, 국적, 이주의 문제를, 환경적 차원에서는 인구와 땅과 같은 물리적 환경과 식민화, 도시화, 커뮤니티 내부의 차별 등 사회적 환경을 다루고 있다. 번역서 또한 원저의 편제와 내용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데, 'Demographic'을 '民志學'으로, 'Environment'을 '四圍'로 번역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앞서 언급된 'the infirm and dependent'은 이 책에서는 '不具及癈民'으로 번역되어 있다.

번역자는 구레 아야토시(吳文聰)로 일본에 사회통계학을 최초로 도입했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내무성 관료 생활을 통해 사회통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통계자료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학회—製表社, 훗날의 동경통계협회—의 창설한 바 있으며, 내무성위생국, 驛遞局, 농상무성 등을 거치면서 위생통계, 산업통계의 기초를 닦는데 기여했다. 관료생활을 퇴직한 이후에는 와세다대학, 전수학교, 도쿄고등상업학교, 게이오기주쿠 등의 학교에서 통계학을 가르치면서 사회통계에 관한 연구서, 논문, 번역서를 다수 발표했다. 특히 게오르그 폰 마이어로 대표되는 독일 사회통계학파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폰 마이어의 논문 및 메이요-스미스의 저작을 번역하여 일본에 소개했다. 메이요-스미스의 또 하나의 주저인 『통계학과 경제학(Statistics and Economics)』(1899 간행)도 『經濟統計學 上下』이라는 제목으로 1902년 그가 번역하여 출간했다. 참고로
번역의 저본이 된 『통계학과 사회학(Statistics and economics)』은 컬럼비아대학 출판부가 1910년 간행한 것이 고문헌 자료실에 소장되어 있어서 대조해 볼 수 있다.

서명	歷史と教育/ 現代哲學の主潮/ 朝鮮文化史上より見たる忠南
편 · 저자	忠淸南道敎育會 (충청남도교육회) 편
발간 연도	1933 (昭和 8년)
발행 사항	[S.l.]: 忠淸南道敎育會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2000 174)
비고	일반사항: 夏季講習會速記錄

1932년 여름 충청남도교육회가 대전과 온양에서 개최했던 하계강습회의 강연내용을 기록한 속기록으로 1933년에 발간한 것이다. 지방의 도교육회는 총독부 학무국 산하의 관변단체로서 교원연수단체의 성격이 강했던 조선교육회의 충청남도 지부인데, 해당 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 및 연수지원, 우수교원의 표창, 강습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1932년 여름 충청남도교육회가 개최한 하계강습회도 그 중 하나인데, 강사가 저명한 학자일 경우 강연내용을 속기하여 조선교육회의 기관지인 『문교의 조선(文敎の朝鮮)』에 게재하거나 별도의 책으로 출간하는 일도 있었다. 이 자료는 1923년 여름에 개최되었던 두 차례 강연회 중 특히 주목을 받았던 3명의 학자의 강연내용과 강습회 후기를 책으로 출간한 형태이다.

여기에 수록된 강의는 모두 3개인데, 모두 조선뿐 아니라 일본에도 알려진 저명한 학자들이다. 「역사와 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니시 신이치로(西晋一郎)는 당시 히로시마 문리과대학의 교수였는데, 윤리학이 전공으로 당시에는 교토제국대학의 니시다 키타로(西田幾多郎)와 더불어 '양서(兩西)'라고 불릴 만큼 저명한 인물이었다. 주로 충효의 유교적 논리를 서양의 도덕철학과 접목시켜 천황제에 근간한 국민 도덕론으로 발전시키는데 주력했는데, 이런 관점을 군부가 높이 평가해서 만주국에 건국대학이 설립될 당시 창설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 책에 수록된 강연에서는 역사와 교육의 관계 및 의미를 국민 도덕론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 「현대철학의 주조(主潮)」는 당시 철학계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던 생철학 및 현상학의 흐름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있는 글인데, 강연자인 카츠베 겐조(勝部謙造)는 니시와 마찬가지로 당시 히로시마 문과대학 교수였다. 그는 1930년 독일 괴팅겐대학에서의 유학을 계기로 빌헬름 딜타이(Wilhelm Dilthey)와 신칸트학파의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 이 강연에서는 이러한 그의 입장이 잘 드러나고 있다. 「조선문화사 상의 관점에서 본 충남」은 1931년 경성제대 교수를 정년퇴임했던 조선사학계의 거두 오다 쇼고(小田省吾)가 강사였다. 1908년 대한제국정부의 초빙으로 한국으로 건너온 이래, 그는 1910년대 조선총독부 학무국의 편집과장을 맡으면서 역사교과서 편찬을 실질적으로 관장했으며 1920년대 들어 경성제대 설립을 주도했고 신설대학의 초대 조선사 교수를 역임했다. 이 강연에서 그는 송시열 등 충남지역의 성리학 전통을 매개로 주자학이 한반도에 도입된 과정, 당쟁의 전개과정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 자료에서 특히 흥미로운 것은 총독부 시학관으로 충남의 학사(學事)를 감독했던 다카다

쿠니히코(高田邦彦)가 쓴 서문이다. 여기에서 강연회를 개최하게 된 동기와 강연회의 상황뿐만 아니라 강사소개 발언, 강연 이후의 질의, 응답 및 강연회 소감 등을 수록하고 있어서, 전문적인 학술강연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개최된 것이며, 청강자들이 이런 강연을 어떤 맥락으로 받아들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흥미로운 문헌이다.

서명	水原高等農林學校一覽
편 · 저자	水原高等農林學校 (수원고등농림학교) 편
발간 연도	1930 (昭和 5년)
발행 사항	水原: 水原高等農林學校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Y21 100)
비고	동일 청구기호(Y21 100)에 昭和 9년(1934)판 소장/ DDD (378.512 Su37ic)에 昭和 6년(1931)판도 소장

식민지 조선의 관립 고등교육기관 중 하나였던 수원고등농림학교의 1930년도 일람이다. 서울대 고문헌 자료실에는 1930년도 이외에 1931년 및 1934년의 일람도 소장하고 있다. 참고로 총독부도서관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에는 1923년, 1931년 일람이 소장되어 있으며,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에 1929년 일람이, 일본 국회도서관에 1931년 및 1934년 일람이 소장되어 있다.

수원고등농림학교는 1906년 9월에 발족한 농림학교를 모태로 한 것이다. 농림학교는 1904년에 설립된 농상공학교의 농과학생 및 경성학당의 농업속성과 학생을 수용하여 설립한 농무국 산하의 교육기관이었는데, 1907년 교사를 수원으로 이전하고 본과 3년, 속성과 1년으로 개편하였다. 농림학교의 학과는 농과, 임업과 이외에 수의과가 개설되었다. 한일합방 이후 농업과 임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과과정이 개편된 농림학교는 1917년 전문학교 수준의 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과를 설치하였고, 1918년 전문과를 확장하여 수원농림전문학교로 승격되었다. 1922년에는 수원고등농림학교로 개칭되었다. 농림업에 대한 전문교육의 실시를 통해 조선농림의 개발, 진보에 필요한 기술자 및 경영자를 양성한다는 교육강령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원고등농림학교는 당시 가장 수준 높은 농업, 임업기술을 교육하는 학교였고, 식민지시기 조선의 농업교육을 주도했던 기관이었다. 수원고등농업학교는 해방 후 1946년 「국립종합대학안」이 확정됨에 따라 서울대학교에 흡수되어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으로 개편되었다.

일람은 1930년 현재의 수원고등농림학교의 연혁과 운영상황을 알 수 있는 기본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의 구체적인 연혁과 학사일정, 전문학교로서의 위상과 관련된 각종 규정 등을 수록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통해 교직원의 구성 및 재학생, 졸업생의 현황을 확인할 수도 있다. 일제시기 전문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은 매년 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일람을 출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수원고등농림학교의 일람은 경성법학전문학교 등 다른 전문학교의 일람에 비해 비교적 상세하기 때문에 졸업생의 사회진출 현황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가령, 1910년 이래 이 학교의 졸업생 747명 중 299명이 관리, 121명이 학교교원, 73명이 회사원, 은행원으로 취업했음을 이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910년 이래 조선총독부는 실업교육 중에서도 특히 농업교육이 역점을 두고 농업학교를 중점적으로 육성해 왔는데, 수원고등농립학교는 이들 농업학교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기관이었다. 때문에 수원고등농림학교의 교육실상은 일제시기 농업교육의 실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초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일람자료는 이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의의를 가진다.

서명	京城法學專門學校一覽
편 · 저자	京城法學專門學校 (경성법학전문학교) 편
발간 연도	1920s-
발행 사항	京城: 京城法學專門學校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Y21 42)
비고	

식민지 조선의 관립 고등교육기관 중 하나였던 경성법학전문학교의 일람이다. 매년 발행되는데 서울대 고문헌 자료실 '구장본 동양서'에서는 1926년부터 1929년도까지의 일람, 그리고 1931년부터 1936년까지의 일람과 1938년 일람을 소장하고 있다. 경성제대 도서관이 설립되어 일람을 소장하기 이전 시기의 것은 조선총독부 장서를 보유한 국립중앙도서관이 1923년 및 1925년 일람을 소장하고 있고, 일본 국회도서관은 서울대 고문헌 자료실이 소장하고 있지 않은 1941년 일람을 소장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물론이고 국립중앙도서관, 일본 국회도서관도 온라인으로 자료 열람이 가능하다.

경성법학전문학교는 1895년 대한제국의 법부가 설치한 법관양성소를 모태로 한 것이다. 근대적 법체계를 몸에 익힌 법관을 속성으로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관양성소는 1909년 관제개정으로 학부(學部)로 이관되어 3년 과정의 법학교가 되었고, 한일합방을 계기로 1911년 경성전수학교(京城專修學校)로 바뀌었다. 이 경성전수학교는 1916년 총독부가 전문학교규칙을 마련하자 전문학교 수준의 교육기관으로 승격되었다. 경성전수학교는 관제(官制)에서 "조선인 남자에게 법률 및 경제에 대한 지식을 주는 곳"이라고 밝히고 있듯이, 조선총독부는 이 학교의 운영을 통해 식민통치를 보조하는 하급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그런데, 3.1운동을 계기로 조선총독부가 종전까지의 무단통치 대신에 이른바 문화정치를 표방하게 되자, 식민지의 교육기관 또한 형식적이나마 일본 본토와 유사한 형식으로 개편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경성전수학교도 1922년 전문적인 법률 지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경성법학전문학교로 개편되었다. 하지만 경성법학전문학교가 국헌(國憲)존중과 국법복종, 질서의 유지와 봉공(奉公)의 정신을 교육목표로 강조하고 있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학교는 자칫 과격해지기 쉬운 법률, 경제의 이론을 최소화하고 일제통치에 기술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실용적인 인력으로 양성한다는 점에서 철저한 식민지 교육기관이었다.

일람은 각 연도의 경성법학전문학교의 연혁과 운영상황을 알 수 있는 기본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의 구체적인 연혁과 학사일정, 전문학교로서의 위상과 관련된 각종 규정 등을 수록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통해 교직원의 구성 및 재학생, 졸업생의 현황을 확인할 수도 있다. 경성법학전문학교를 포함한 전문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은 매년 그해의 일람을 출간하고 있는데, 이런 일람 자료들은 각 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연도별 일람의 비교를 통해 구체적인 학교의 변모 과정을 이해하는 데도 유용하다.

조선총독부의 교육방침이 농업, 공업, 상업 등 실용적인 실업교육에 역점을 두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성법학전문학교는 실업교육 중심의 총독부의 전문학교 중에서도 이채로운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법학 교육은 기존의 식민지 법질서를 옹호하는 지배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법질서의 허점을 파헤치는 비판의 도구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자료는 이런 식민지 법학 교육의 이중적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일차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서명	京城醫學專門學校一覽
편 · 저자	京城醫學專門學校 (경성의학전문학교) 편
발간 연도	1900s-
발행 사항	京城: 京城醫學專門學校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Y21 41)
비고	

식민지 조선의 관립 고등교육기관 중 하나였던 경성의학전문학교의 일람이다. 매년 발행되는데 서울대 고문헌 자료실 '구장본 동양서' 에서는 1927년부터 1933년도까지의 일람, 그리고 1935년부터 1940년까지의 일람을 소장하고 있다. 경성제대 도서관이 설립되어 일람을 소장하기 이전 시기의 것은 조선총독부 장서를 보유한 국립중앙도서관이 1924년부터 1926년까지의 일람을 소장하고 있고, 일본 국회도서관은 1926년부터 1934년까지의 일람과 1940년 일람을 소장하여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가 소장하고 있지 않은 연도의 일람은 국립중앙도서관 및 일본 국회도서관을 통해 자료를 볼 수 있다.

경성의학전문학교는 1899년에 설립된 경성의학교를 모태로 한 것이다. 왕립 제중원에서 연원하는 이 경성의학교는 1907년 대한의원의 부속 의육(醫育)기관이 되었는데, 1910년 일제의 강점 이후 대학의원이 조선총독부의원이 됨에 따라 동(同) 부속 의학강습소가 되었고, 1916년에는 총독부가 식민지에 고등교육을 허용함으로써 경성의학전문학교로 개편되었다. 의학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질병진료의 지식과 기능을 갖춘 의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경성의학전문학교는 설립의도에서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을 구별하지 않고 높고 먼 학리(學理)에만 치우치지 않으며 간명함을 본지(本旨)로 유용한 일신(日新)의 지식, 기능을 교수'한다고 밝히고 있듯이, 의사로서 의학에 관한 학문적 탐구를 장려하는 대신, 국가에 부응하는 의사의 품격과 지식의 기능을 강조하는 식민지 교육기관이었다. 더욱이 이 학교는 1924년 당시까지 일본인과 조선인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교육하고 있었는데, 1918년에 설치된 특별의학과는 일본인 학생만을 위한 것으로 수업시수에서도 4년 총 318시간으로, 조선인 학생의 300시간과 차이가 있었다.

일람은 각 연도의 경성의학전문학교의 연혁과 운영상황을 알 수 있는 기본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의 구체적인 연혁과 학사일정, 의학전문학교로서의 위상을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정과 구체적인 학사운영방식을 규정한 학칙들, 교직원의 현황과 재학생, 졸업생의 상황 등이 일람을 통해 확인된다. 경성의학전문학교를 포함한 전문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은 매년 그해의 일람을 출간하고 있는데, 이런 일람자료들은 각 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연도별 일람의 비교를 통해 구체적인 학교의 변모 과정을 이해하는 데도 유용하다.

경성의학전문학교는 사립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와 더불어 식민지사회에서 전문적인 의료인을 양성하는 유이한 의학교육 기관이었고,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및 각종 의학전문학교가 설립된 이후
에도 여전히 일제시기 보건, 의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료는 한국
사회에서 근대 의료가 형성되는 과정을 추적하기 위한 가장 일차적, 기본적인 자료로서 유효하다.

서명	京城高等商業學校一覽
편 · 저자	京城高等商業學校 (경성고등상업학교) 편
발간 연도	1920s-1940s
발행 사항	京城: 京城高等商業學校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Y21 43)
비고	

식민지 조선의 관립 고등교육기관 중 하나였던 경성고등상업학교의 일람이다. 매년 발행되는데 서울대 고문헌 자료실 '구장본 동양서' 에서는 1926년부터 1936년도까지의 일람, 그리고 1938-39년 일람, 1941년 일람을 소장하고 있다. 경성제대 도서관이 설립되어 일람을 소장하기 이전 시기의 것은 조선총독부 장서를 보유한 국립중앙도서관에 1923, 1924, 1926년 일람이 있으며, 일본 국회도서관은 1934년 일람과 1938-39년, 1941년 일람을 소장하고 있어서 디지털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다.

식민지 조선의 다른 관립 고등교육기관과는 달리, 경성고등상업학교는 애초에 사립학교에서 기원했다. 모태가 된 것은 1918년 설립된 사립동양협회경성전문학교였다. 일본에서는 1895년 대만 식민화를 계기로 이른바 '대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식민주의 단체들이 속속 결속되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유력한 단체 중 하나가 유력 번벌 정치인 가쓰라 타로(桂太郎)가 이끄는 대만협회였다. 이 대만협회는 제국팽창의 임무를 수행할 인재를 육성할 목적으로 도쿄에 대만협회학교를 설립하였는데, 1910년 일제의 식민지 판도가 조선에까지 확장되자 협회 이름을 개칭하게 되는데 그것이 동양협회였다. 이렇게 협회의 성격이 확장됨에 따라 기존의 대만협회학교 또한 동양협회식민전문학교(현재 일본척식대학)로 확장, 개편하였고, 급기야는 식민지가 된 조선의 경성에 분교를 설치했다. 이 분교가 도쿄의 본교와 완전히 독립하여 사립학교법인으로 개편된 것이 사립동양협회경성전문학교였다. 수업연한 3년에 행정과와 고등상업과를 두었던 이 학교는 1920년에 행정과를 폐지하고 사립경성고등상업학교가 되었고, 1922년에는 조선총독부로 이관되어 관립실업전문학교인 경성고등상업학교가 되었다. 이 학교는 일제강점기 동안 존속하다가 해방 후 1946년 「국립종합대학안」이 확정됨에 따라 서울대학교에 흡수, 개편되었다.

일람은 각 해당 연도의 경성고등상업학교의 운영상황 및 연혁을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의 구체적인 연혁과 학사일정, 전문학교로서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규정 및 학교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학칙, 규정, 교직원 및 재학생, 졸업생 등의 명단 등이 일람을 통해 확인된다. 경성고등상업학교를 포함한 전문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은 매년 일람을 출간하고 있는데 이런 일람류의 자료는 각 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기초자료로서 유용하다. 경성고등상업학교는 "조선 및 동양의 개발에 적절한 전문교육을 시켜 공사의 업무를 감당할 유용한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로, 총독부로 이관된 이후에도 동양경제사정, 상업지리 등의 교과목과 조선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의 외
국어 수의과목이 포함되어 있는 등 일제의 제국주의적 영향권 확장을 목표로 했음을 알 수 있다.

서명	京城高等工業學校一覽
편 · 저자	京城高等工業學校 (경성고등공업학교) 편
발간 연도	1910s-1940s
발행 사항	京城: 京城高等工業學校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Y21 117)
비고	

식민지 조선의 관립 고등교육기관 중 하나였던 경성고등공업학교의 일람이다. 다른 관립전문학교와는 달리 2개 연도를 묶어서 일람을 발간했는데 서울대 고문헌 자료실 '구장본 동양서' 에서

는 1933년부터 1940년까지의 학교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일람 4권, 그리고 1940년 일람을 소장하고 있다. 총독부도서관이었던 국립중앙도서관은 1924/25년의 일람 1권을 소장하고 있으며, 일본 국회도서관은 1930/31년, 1933/34년, 1937/38년 일람을 소장하여 디지털 라이브러리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

경성고등공업학교는 1904년 대한제국시기 발족한 농상공학교를 모태로 한 것이다. 이 학교의 일부는 1906년 경성공업전습소로 분리되고 여기에 전공과가 설치되었는데, 이 전습소의 전공과가 1916년 총독부 관립의 경성공업전문학교로 개편되었다. 일제의 식민통치에 순응하는 하급의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는 목적을 가진 경성공업전문학교는 처음에는 염직, 응용화학, 요업, 토목, 건축, 광산 등 6과로 출발하였는데, 1922년에는 경성고등공업학교로 명칭을 바꾸며 실업전문학교로 개편되었으며, 학과편성도 방직, 응용화학, 토목, 건축, 광산 등 5과 체제로 바뀌었다. 이후 경성고등공업학교는 1930년대 후반 병참기지화 정책에 따른 조선 북부의 공업화에 부응해서 1938년 기계과와 전기과를 증설했으며 식민당국의 적극적인 후원 속에서 학교 규모도 키워나갔다. 가령 1930년대 130명 안팎의 졸업생 수는 1940년이 되면 340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1941년 경성제국대학에 이공학부를 설치하기 이전까지 식민지 조선에서 사실상 유일한 전문학교 수준의 공업교육기관이었던 이 학교는 해방 후 1946년 「국립종합대학안」이 확정됨에 따라 서울대학교에 흡수, 개편되었다.

일람은 당시의 경성고등공업학교의 실태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의 구체적인 연혁과 학사일정, 학교의 위상에 대한 각종 규정 및 학사규정, 입학규정, 교직원 및 재학생, 졸업생 명단 등을 일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제 식민당국은 식민통치 초기부터 조선인들의 '민도(民度)'를 고려해서 간이(簡易)하고 실용(實用)적인 교육을 지향한다는 방침을 내세워 조선인들에 대한 고등교육을 사실상 억압하였다. 총독부는 대학의 경우, 1924년 경성제국대학의 설립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불허하였고, 전문학교의 경우에도 1915년 이후에야 실업교육을 위주로 관립전문학교를 설립하였다. 경성고등공업학교의 설립과 운영 또한 이러한 총독부의 고등교육정책의 일환이었고, 조선인 교육이 아니라 일제의 조선자원 개척의 필요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다. 1924년 입학자 중 조선인 학생이 39%(33명 중 13명)밖에 안 되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성고등공업학교는 조선의 산업기술 개발을 위

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의 유지와 확장에 일조하는 일본인 중심의 전문기술인력 양성기관이었음을 일람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서명	京城帝國大學豫科一覽
편 · 저자	京城帝國大學豫科 (경성제국대학예과) 편
발간 연도	[19--]-
발행 사항	京城: 京城帝國大學豫科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Y21 40)
비고	

식민지 조선의 최고 학부(學府)인 경성제국대학의 예비 교육기관이었던 대학예과의 일람이다. 매년 발행되는데 서울대 고문헌 자료실 '구장본 동양서'에는 1926년부터 1943년까지의 일람이 소장되어 있는데, 1927년과 1928년 일람, 1932년 일람, 1942년 일람 등의 결호가 있다.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이 설립되기 이전인 1924년과 1925년 일람, 그리고 고문헌 자료실 결호 중 1928년 일람 등은 국립중앙도서관과 일본 국회도서관이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통해 원문 서비스를 하고 있다. 참고로 국립중앙도서관은 1924년과 1926년, 1930년 일람을 소장하고 있으며, 일본 국회도서관은 1925년, 1926년, 1928년 일람을 소장하고 있다.

경성제국대학은 1924년 천황의 칙령으로 설립을 확정지었는데, 각 분과학문의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학부교육과는 별개로, 제국대학은 이런 전문교육을 위한 토대가 되는 기초 예비교육을 필요로 했다. 일본의 교육시스템에서는 3년 과정의 (구제)고등학교가 이런 예비 교육을 담당했는데, 식민지 조선에서는 이 고등학교를 대신해서 경성제국대학의 부속기관인 대학예과가 이를 맡았다. 대학예과의 교과과정이나 교육수준은 대체로 고등학교와 동일했는데, 고등학교의 졸업자가 원칙적으로는 일본 내 모든 제국대학에 입학자격을 부여받는 반면—물론 지원자가 입학정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경쟁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 경성제국대학의 예과 졸업자는 경성제국대학만 입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처음에는 중등학교 5년 졸업자를 대상으로 2년제 교육과정으로 출발했지만, 대학교육을 준비하는데 부족하다는 내부 비판도 만만치 않았고, 식민지에 대한 차별이라는 문제제기도 있어서 1934년부터는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중등학교 4년 수료자를 대상으로 3년제 교육과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 일람은 경성제국대학 예과가 어떤 학교였는지 그 운영상황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매년 출간되었기 때문에 그 변화를 추적하는데도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대학예과의 입학과 동시에 예과 수료 이후에 진학할 학부(법문학부 중 법학계열과 인문계열, 의학부, 이공학부)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 대학예과와 학부교육을 엄밀하게 구분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겠지만, 교육체제의 측면에서 본다면 대학예과는 학부교육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교육기관이었다. 애초에 식민지의 엘리트 학생들이 제국 본토로 진학하여 '급진적이고 불온한 사상'에 접하는 것을 막을 의도로 설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학예과는 일제시기 식민지고등교육의 특징을 탐색하는데 유용한 연구대상이며, 일람은 이를 파악하는 기본 자료 중 하나이다.

서명	朝鮮教育大觀
편 · 저자	西村綠也 (니시무라 로쿠야) 저/ 指愼三 편
발간 연도	1930 (昭和 5년)
발행 사항	京城: 朝鮮教育大觀社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2280 6)
비고	

1930년의 시점에서 식민지 조선사회의 전반적인 교육상황 및 조선 전역에 산재한 각 학교의 연혁 및 운영 실태를 조감하고 있는 자료다. 광고에서 "미증유의 위업"이라는 축하 광고를 받았을 만큼, 1700페이지 가까운 분량으로 당시 식민지교육 및 행정과 관련해서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편자 니시무라(西村綠也)가 발행인으로 있었던 조선교육대관사(朝鮮教育大觀社)가 총독부 및 각도의 학무당국의 전면적인 지지를 얻어 실시했던 학교조사의 결과물로, 당시 정무총감이었던 고다마 히데오(兒玉秀雄), 조선총독부 시학관이었던 다카하시 하마키치(高橋濱吉), 소학교 교사 출신으로 당시 조선교육신문사 사장으로 있었던 가타오카(片岡喜三郎)가 서문을 쓰고 있다. 편자는 간행의 취지에서 조선교육의 과거 및 현재를 널리 소개하고, 안팎의 일반식자들에게 참고를 제공하며, 실제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타산지석, 경영상의 반려물이 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실제로도 이 자료는 특히 당시 전국 각지의 학교들의 구체적인 실상, 즉 연혁 및 운영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어 당시 식민지사회의 교육실상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된다.

내용적으로는 크게 5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1편은 총론으로 조선교육의 연혁과 조선교육령의 연혁을 개괄하고 있는데, 통감부 시기부터 제2차 조선교육령까지 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 및 그 효과를 정리하고 있다. 2편은 각설인데, 초등교육, 사범교육, 실업교육, 전문교육, 대학교육, 사립각종교육 및 서당교육, 사회교육 등을 나누어 구체적인 운영상황과 연혁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2편 7장은 지역별로 개별학교의 시설과 연혁을 요약하고 있는데, 1600여 개에 가까운 학교가 여기서 소개되고 있으며, 각 학교의 정보는 대체로 해당 학교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적인 가치도 있다고 하겠다. 3편은 조선교육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록하고 있으며, 4편은 교육행정으로 교육제도 및 재정, 교과서 등을 개관하고 있다. 5편은 부록이다. 여기서 전문가의 교육견해란 대체로 조선에서 활동하는 일본인 교육종사자들의 의견들이 대부분이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 자료는 당시 2900여 개에 이르는 조선 전역의 학교들 중 1600여 개의 가까운 일선 학교에 대한 구체적이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그 밖의 정보는 다소 산만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구성으로 다른 자료들과 교차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그럼에서 2차 조선교육령의 공포 이후의 식민지 교육의 실태, 재조일본인의 교육에 관한 관점들을 파악하는 참고자료로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명	朝鮮の群衆
편 · 저자	朝鮮總督府官房文書課 (조선총독부관방조사과) 편
발간 연도	1926 (大正 15년)
발행 사항	京城: 朝鮮總督府
청구기호	DDC (301.15 C458j)
비고	

조선총독부의 관방조사과에서 조선사회에 관한 포괄적인 조사 시리즈로 기획한 조선총독부조사자료(朝鮮總督府調査資料)' 중 제16집이다. 관방조사과는 1922년 설치되었다가 1924년 관방문서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문서과의 이름으로 발간되었지만, 실제 저자는 본문 맨 끝에 밝혀져 있듯이 당시 조사과 촉탁으로 있었던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이었다.

무라야마 지준은 1891년 일본 니이가타(新潟)현 출생으로, 1919년 7월 도쿄제국대학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조선에 건너와서 1940년대까지 조선총독부 중추원, 총독관방 조사과, 문서과 등 사회조사 전담부서의 촉탁(囑託)으로 근무했다. 세브란스의전, 경성법전 등의 강사를 맡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민속학자, 사회학자로서의 관점보다는 총독부의 관료라는 입장에서 통치대상으로서 식민지사회에 대한 자료수집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는 조선의 민속과 유사종교에 관련해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출간했으며 오늘날까지도 해당 분야의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러한 관점의 편향성과 평면성은 그의 작업이 가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적 측면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작업이 이 책이다. 책의 첫머리에서 조사자는 민족운동이나 사회주의운동은 비교적 영속적이고 조직적인 '단체'를 결성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데 반해, 군중은 일정한 규약이 없이 무질서하고 일시적인 모임으로 의외의 행동을 하기 쉽고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것이어서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쓰고 있다. 3.1운동 이후 조선인 군중을 포착할 필요성에서 출발한 것이 명백한 이 조사 작업에서는 식민지 조선에서 경찰이 가졌던 관점이 잘 드러난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민족운동이나 사회주의운동 단체를 계속 감시하는 일도 문제였지만, 각종 사건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경우에는 사건 당사자들뿐 아니라 구경꾼들을 처리하는 것도 큰 문제였던 것이다. 특히, 경찰이 누구를 검속하거나 연행할 때면 호기심에서 삽시간에 구경꾼들이 몰려들어 경찰관과 피검속자를 수십 겹으로 둘러싸고 소란을 피운다든가, 그런 와중에 피검속자를 탈취하거나 각종 방법으로 경찰을 방해한다든가 하는 실례에서는 식민지 경찰에 대한 민중의 적대감과 당시 시대상이 잘 느껴진다. 책의 내용은 소작쟁의, 노동쟁의, 학교의 동맹휴학(盟休), 계급쟁의(형평운동)에 나타난 군중, 그 밖의 군중으로 구분해서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조선의 군중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마찬가지로 통제하는 당국의 관점에 이 분류에 많이 투영되어 있다. 마지막 장인 '그 밖의 군중'에서, 음식점과 파출소(交番所) 앞의 군중, 화재나 교통사고 현장에 모인 군중, 사적 복수를 위한 문중(同族) 모임, 줄당기기(網引), 관청이전반대운동, 교회자치운동, 학교기부금 갈등과 관련된 군중 등의 잡다한 부류를 묶어놓은 것이 흥미롭다.

서명	朝鮮民政資料: 牧民編
편 · 저자	內藤吉之助 (나이토 키치노스케) 편
발간 연도	1942 (昭和 17년)
발행 사항	京城: 內藤吉之助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120 2)
비고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교수 나이토 키치노스케(內藤吉之助, 법제사)와 시카타 히로시(四方博, 경제학)가 목민(牧民)·민호(民戶)·전제(田制)·세부(稅負)의 4편의 시리즈로 기획한 『조선민정자료』 가운데, 실제로 간행된 유일한 책이다. 편자인 나이토 키치노스케는 1919년 도쿄제대 법학부를 졸업한 후 같은 대학 조수를 거쳐서 1928년 경성제대 법문학부 교수로 부임했다. 경성제대에서는 법제사강좌를 맡으면서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촉탁을 맡아 경국대전 및 속대전 등 법전과 관련된 교감 및 주해 작업을 진행해고 출간한 바 있다. 일본 학계에서는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가족, 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의 번역자로서도 잘 알려져 있었다.

편자에 따르면 이 책 목민편은 원래는 민정에 직접 관여하는 지방 수령, 이들 밑에서 민정의 실권을 쥐고 있는 향리, 그리고 왕의 대리로써 이들을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임시로 파견되는 어사(御史), 이 삼자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할 예정이었지만, 필자들의 역부족으로 일단은 지방 수령의 집무지도서 종류를 수집하여 발췌, 교열하여 출간하게 되었다고 한다. 경성제대의 규장각장서, 시카타 히로시 개인 소장, 한성 禮信文庫가 소장한 목민서 17종— 중복된 것을 제외하면, 治郡要訣, 分憂要訣, 政要, 牧民攷, 居官大要, 三到, 牧民大方, 先覺錄 七事問答, 居官要覽, 吏治精覽, 麾事摠要 등이 있다.— 중에서 중복되는 것을 생략하고 모두 7종의 목민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록하였다. 권두에 40쪽에 가까운 해설을 붙여 각 자료의 서지사항, 구성,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있어, 당시 목민서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참고문헌으로서도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이 책은 수록된 목민서들을 통해 당시 조선 후기 수령의 업무와 지방통치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조신시대의 수령은 왕을 대신해서 지방에서 행정은 물론 사법·조세·군사 등 일체의 통치업무를 담당했던 존재였지만,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토착사족이나 서리들이 장악한 지방에 유일하게 중앙에서 파견된 임기제 관리로서 지방사회에 대한 장악력이 약한 존재이기도 했다. 따라서 수령에게는 선정(善政) 못지않게 현명한 처신과 좁은 의미의 정치적 능력이 요구될 수밖에 없었으며, 조선시대 목민서들 역시 그런 수령에 대한 충고를 담고 있었다. 그 상당 부분은 필자의 실제 목민의 경험에서 우러난 것이므로, 중앙정부의 법전이나 『실록』 등의 연대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지방의 실상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에 수록된 대부분의 목민서들은 편자와 편찬연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18-19세기 지방관들이 실제로 업무에 활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서명	朝鮮の司法制度
편 · 저자	朝鮮總督府法務局法務課 (조선총독부법무국법무과) 편
발간 연도	1936 (昭和 11년)
발행 사항	京城: 朝鮮總督府法務局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5360 13)
비고	

조선총독부의 시정 25주년을 기념하여 식민지 조선의 사법제도를 소개한 자료다. 애초의 원고는 『시정25년사(施政二十五年史)』의 편찬 자료로 총독부 문서과에 제출된 것인데, 실제로 간행된 부분은 제외하고 원고를 대폭 수정, 가필해서 별도로 간행한 것이 이 책이다. 크게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통감부 이래 식민지의 재판 및 검찰제도의 연혁, 변천을 소개하고 있으며, 제2장은 법무국을 비롯하여 친족·상속에 관한 법규조사회, 판례조사회, 사법협회 등의 부속기관에 대한 설명, 제3장은 등기, 호적, 공탁, 민사소송 및 조정, 1933년부터 실시된 소작조정, 변호사, 공증, (강제)집행, 사법서사 등 각종 사법제도에 대한 설명을 담과 있다. 제4장에서는 민사, 형사 등 주요 사법 관련의 법규를 소개하고 있으며, 제5장은 민형사 소송사건의 개황, 제6장은 사법직원의 임용방식을 정리하고 있다. 부록으로 사법부의 핵심 인물에 대한 정보까지 담고 있으니까, 이 책은 1936년 시점까지 식민지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이 책에서는 25주년을 맞은 조선총독부의 최대 성과 중 하나로 사법제도 개혁을 들고 있는데 실제로 제1장은 통감부 이전의 한국 사법제도를 염두에 두면서 그 '문란'의 해소라는 관점에서 식민지 사법제도의 의의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다. 사법권의 독립, 심급(審級), 민사·형사의 분리 등을 특징으로 하는 서구 근대 사법제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조선(대한제국)의 사법은 미분화된 상태로 남아있었다. 갑오개혁정부는 1895년 「재판소구성법」으로 행정과 사법을 분리하고, 지방재판소와 고등재판소의 2심제를 도입했고, 1899년 대한제국정부는 이 법을 개정, 고등재판소를 '평리원(平理院)'으로 개칭했으나, 실제로는 한성부 외에는 지방 및 개항장 재판소가 제대로 설치되지도 않았고 사법의 독립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한국 사법제도의 '문란'은, 통감부시기 일제가 '시정개선(施政改善)' 명목으로 시도한 내정간섭의 주요 대상 중 하나였다. 1910년 '일한병합' 이후로 통감부재판소는 '조선총독부재판소'로 개칭되었지만, 제도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대심원'이 '고등법원'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1912년 3월에 가서 '공소원'이 '복심법원(覆審法院)'으로 개칭된 정도였다. 1910년대 일제는 태형(笞刑) 같은 전근대적이고 차별적인 형벌제도를 잔존시켰고, 「범죄즉결례(犯罪卽決例)」나 「경찰범처벌규칙」 등을 통해 사법적 판단과 처벌 기능을 상당 부분 헌병경찰에게 맡겼을 뿐 아니라, 호적사무, 민사소송의 조정, 강제집행 등도 경찰의 소관으로 돌렸다. 그러나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자면 한국의 근대적 사법제도는 통감부 시기 이래 일제의 식민지지배 아래에서 형성되었고, 조선총독부는 사법제도 개혁을 '시정'의 중요한 성과로 꼽았던 것이다.

서명	朝鮮史要略
편 · 저자	小田省吾 (오다 쇼고)
발간 연도	1915 (大正 4년)
발행 사항	朝鮮敎育會
청구기호	개인문고 (상백 951.01 Od1c)
비고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집과장이었던 오다 쇼고(小田省吾)가 1913년 조선총독부가 소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원산에서 개최했던 하기강습회의 강연 및 같은 해 12월에 경성에서 소학교 교원 유지들을 대상으로 했던 강연의 원고를 가필하여 조선교육회잡지에 게재한 적이 있는데, 이를 다시 단행본으로 출간한 것이다. 오다 쇼고는 1899년 도쿄제대 사학과를 졸업한 후 교육계에 투신하여 교육과 학교행정을 담당하다가 1908년 대한제국 정부의 초빙으로 한국으로 건너와서 학부 서기관이 되었다. 그리고 일제강점으로 조선총독부가 들어서자, 그는 1910년 학무국의 초대 편집과장으로 취임했다. 학무국 편집과의 업무는 일선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를 편집, 반포, 검정, 인가를 담당하는 것으로, 오다 쇼고는 1924년 경성제국대학 예과부장으로 자리를 옮길 때까지 14년 가까이 일제의 통치 원리 및 이념이 일선의 교육현장에서 관철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최고위의 자리에 있었던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1915년 발간된 이 책은 식민지의 교과서를 관할하는 최고 책임자가 식민지 조선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으며, 식민지 교육의 관점에서 조선사의 시대구별 및 그 핵심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었는지를 이해하는데 요긴한 사료가 된다.

이 책은 '요약(要約)'이라는 제목도 그렇고, 서언(緖言)에서 필자가 스스로 밝히고도 있지만, 실증적 연구의 결과가 아니라 각 시대의 '윤곽(輪郭)'을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는, 일종의 조선사 교과요목과 같은 책이다. 당시, 만철 만선역사지리조사부에서 『滿洲歷史地理』(2권, 1914)와 『朝鮮歷史地理』(2권, 1914)가 발간되는 등 일본인 역사학자들에 의해 조선사에 대한 이른바 '실증적인'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었던 것도 이런 '요약'이 출간되는 배경이 되었는데, 실제로 필자는 이 책들이 조선인 역사학자들이 보여주었던 '종래의 결함을 메우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오다에 따르면, 자신의 책은 이런 연구들을 참고해 기사를 뽑고 그 밖에 다른 연구를 교차해 보는 등 평소 자신이 조사하고 있던 바에 입각해서 가능한 시대의 특징과 국가의 변천을 간명하게 서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문은 6편으로 된 조선사 통사서술과 더불어 오다 쇼고가 경성일보에 투고했던 바가 있었던 "조선과 산동(朝鮮と山東)"이 같이 묶여있는 형태인데, 통사의 서사구조를 보면 1편은 종족을 다루
고, 2편은 "신공황후가 신라를 정벌하기 이전의 조선", 3편은 "일본이 반도에 속령을 가지던 시기
의 조선"라고 해서 철저하게 일본의 전통적인 역사적 통념에 입각해서 한국의 고대사를 꿰어맞추는
모습을 보여준다. 통일 신라시대를 다루는 4편, 그리고 고려시대의 5편, 조선시대의 6편을 철저하게 주변 민족, 국가와의 대외관계의 측면만 다루고 있다. 특히 6편의 '이조시대'는 3개의 챕터로 구
성되어 있는데, "두만강 하류지방의 경영(6진)", "압록강 상류지방의 경영(4군)", "두만강 상류지

방
의 정계(定界)”로 사회 내부의 변화는 물론이고 조선 후기의 역사상은 거의 손을 대지 못했다.

서명	朝鮮史大系
편 · 저자	朝鮮史學會 (조선사학회) 편
발간 연도	1927 (昭和 2년)
발행 사항	京城: 朝鮮史學會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4220 3)
비고	

조선사학회가 1927년 출간한 일본어로 기술된 조선사 통사 개설서이다. 총 5권으로 구성되었는데 제1권 『조선상세사』는 당시 경성제대 교수로 있었던 오다 쇼고(小田省吾), 제2권 『조선중세사』와 제3권 『조선근세사』는 만철역사조사부 출신으로 조선총독부 중추원 및 조선사편수회 촉탁을 역임했던 세노 우마쿠마(瀨野馬熊)가 집필했으며, 개항 이후를 다루는 제4권 『조선최근세사』는 중추원 촉탁 출신의 스기모토 쇼스케(杉本正介)가 집필 도중에 사망해서 오다 쇼고가 남은 부분을 맡았다. 제5권은 연표로 마찬가지로 중추원 조사과 촉탁 출신인 오하라 토시타케(大原利武)가 집필했다.

제1권 서두에 있는 「총서(總序)」에 따르면, 이 조선사대계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들은 항상 秉公持平의 마음을 가지고 신진학자의 새로운 연구를 씨줄로 엮고 새로운 자료를 날줄로 묶어서 집필을 함과 동시에 종래 朝鮮史家의 의견은 가급적 존중할 생각이다. 또 本書는 가급적 平易簡明하게 說述하고 번잡한 논증은 피하여 一般의 이해를 바꾸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 심원한 연구를 발표하여 그 是非를 學界에 묻는 것과 같은 것은 결코 본서가 목표하는 바가 아니다." 다시 말해, 이 대계는 이른바 '통속역사(通俗歷史)'의 형식으로 이른바 식민사관의 보급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대계의 취지는 역사 교과서를 포함해서 오랜 기간 식민지의 교과서 편찬을 책임졌던 오다 쇼고가 1923년 5월 결성했던 조선사학회의 문제의식과 맞물려 있었다. 1915년 공명정확한 사서의 편찬을 표방하며 식민지에 대한 정사(正史) 서술을 지향했던 반도사(半島史)편찬사업이 계속되는 부진 속에서 사실상 실패한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고, 오다의 조선사학회는 "深遠한 硏究를 발표하여 그 是非를 學界에 묻는 대신" 지상강의의 형태로 올바르지만 통속적인 조선역사를 보급하는데 집중할 것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선사학회는 명칭은 '학회'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조선사 강의록을 집필하여 기관 및 개인 회원들에게 유료로 배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 15회에 걸쳐 다양한 주제의 "조선사강좌"를 발행하여 회원들에게 배포되었다. 그리고 이 강의록 중에서 통사부분을 다듬어서 책의 형태로 출간한 것이 이 5권의 『조선사대계』였다. 다만, 강사의 사정에 따라 예고된 강의가 취소되거나 다

른 주제로 대체되는 등 우여곡절도 적지 않았다. 시대사 부분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스기모토 쇼스케의 사망 말고도, 중세사를 맡았던 아키야마 히데오(荻山秀雄)가 신설되는 총독부도서관의 관장으로 부임하게 되면서 중간에 집필을 사실상 포기했던 사건도 있었다. 근세사의 집필을 담당했

던 세노가 이어서 중세사를 집필했으며, 대계를 출판할 당시에는 아키야마의 집필부분을 아예 빼고 단독 집필로 체제를 바꾸었다. 강의록이 책으로 바뀌는 과정에서도 다소의 변화는 있었다. 『조선상세사』는 지상강좌 내용 그대로였지만, 세노가 맡았던 2권과 3권은 학술문화부분이 대폭 보완했고, 4권의 「총독부정치」 부분은 오다가 집필하여 부록의 형태로 수록하였다. 이 책은 당시의 연구 성과를 포괄하는 조선사 개설서가 전무한 상황에서 조선사회 내부의 역사적 변동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일본인 사회에서는 물론 조선인 지식인들 사이에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올바른 역사의 보급을 표방하면서도 정작 일본어 저술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은 식민통치 쪽의 입장에서도 식민사관의 보급은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었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서명	朝鮮史の栞
편 · 저자	今西龍 (이마니시 류)
발간 연도	1935 (昭和 10년)
발행 사항	京城: 近澤書店
청구기호	DDC (951.01 Im3s)
비고	

‘조선사 길라잡이’ 정도로 해석되는 이 책은 경성제대 조선사 제2강좌를 담임했던 이마니시 류(今西龍)의 사후, 동료 및 제자가 그의 유고를 묶어서 출판한 책 중 세 번째다. 1932년 교토에서 뇌일혈로 급서한 이마니시는 1903년 도쿄제국대학 사학과를 졸업할 당시부터 동양사나 ‘국사’의 일환이 아니라 ‘조선사’를 자신의 전문 분야로 표방했던, 대표적 연구자 중 한 사람이었다. 따라서 그는 일찍부터 조선총독부가 지원하는 각종 유물조사, 고고학조사에 ‘촉탁’으로 참여했으며, 문헌자료에 대한 분석과 관련해서도, 인류학, 고고학, 금석학 등 다양한 방법론을 폭넓게 활용하여 주목할 만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다만, 이러한 그의 연구 이력은 조선사라는 인기 없는 주제, 주류 역사학계가 선호하지 않는 고고학 방법론의 채용 등 학계의 유행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으며, 1913년이 되어서야 교토제대에서 강사 자리를 얻었을 정도였다. 이랬던 그에게 전기가 되었던 사건이 1926년 경성제대의 설립이었으며 이를 계기로 그는 경성제대와 교토제대에서 교수로 취임했다. 그는 방대한 책과 사료의 섭렵과 끊임없는 원고의 수정으로 유명했는데, 그래서 생전에는 단행본을 남기지 못했다.

이마니시나 남긴 유고는 그의 동료였던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 스에마스 야스카즈(末松保和), 그리고 그의 경성제대 제자 다가와 고조(田川孝三)이 수습해서 1933년부터 1944년까지 다섯
권의 책으로 출간했는데, 이 책은 유고집 중에서도 이마니시의 사관, 방법론, 조선사 전반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가장 잘 드러나는 저서이다. 책은 세 개의 글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책 전체의 제목이기도 하나 ‘조선사의 길라잡이’는 1916년부터 1917년까지 6번에 걸쳐 교토제대 사학과의 잡지 『史林』에 실렸던 글을 이마니시 자신이 보완했던 원고로, 삼국유사, 삼국사기를 위시하며 조선사 연구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사서들과 지지(地誌)들을 사료적 특징과 가치의 차원에서 상세하게 해설하고 있다. 다음으로 수록된 ‘조선사개론’은 1919년 8월 교토제대 하기 강습회에서 6일 동안 2시간씩 진행된, 도합 12시간짜리 강의록으로 통사적인 관점에서 그가 조선사 전체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글이다. 특유의 한족(韓族) 중심의 역사관, 문화적 역할로서 한사군의 강조 등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록된 ‘조선의 문화’는 1920년 4월 13회에 걸쳐 재단법인 가이도쿠도(懐徳堂)기념회의 공개강연에 사용했던 원고인데, 일본과는 다른 조선 문화 특유의 입장을 종속적인 ‘왕국주의’로 규정하면서 독립국이며 ‘제국주의’인 일본과의 역사적인 교차를 설명하는 대목과 관련해서는 비판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서명	高麗史硏究
편 · 저자	今西龍 (이마니시 류)
발간 연도	1944 (昭和 19년)
발행 사항	京城: 近澤書店
청구기호	DDC (951.04 Im3k)
비고	

고려사와 관련된 강연록 및 논문을 묶은 것으로, 경성제대 조선사 제2강좌를 담임했던 이마니시 류(今西龍)의 사후, 그의 경성제대 동료들이 유고를 편집하여 출판한 책 중 다섯 번째다.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 연구자 중에서 대표적인 조선사 연구자로, 일찍부터 조선총독부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각종 조사 작업에 참여해서 두각을 드러내었다. 그는 1916년에는 조선반도사 편찬사업에 참여하여 고대사 부분을 담당하여 원고를 쓰는 등 고대사로부터 연구를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신라사, 백제사, 고려사 등의 강의를 통해 각 시대에 대한 통사적 서술과 관점도 만들어갔다. 1916년 교토제대 사학과 조교수가 되어 동양사 및 국사학 전공 학생들에게 시대별 조선사를 가르쳤고, 1926년 경성제대가 설립되자 조선사강좌의 주임 교수로 취임했다. 더불어 교토제대에서도 교수를 겸직했다. 당시 세간의 평가에서 "朝鮮史學의 今西氏인가. 아니면 今西氏의 朝鮮史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권위가 높았으며, 엄청난 책과 자료의 수집, 끊임없이 수정하는 집필의 업정함으로도 유명했다. 그랬기 때문에 살아생전에는 그의 저서가 없었는데, 사후 그의 동료들을 중심으로 5권의 유고집이 출간될 수 있었다.

이번 책의 편집은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 스에마스 야스카즈(末松保和)이 맡았는데, 책의 첫머리에 있는 「고려사개설」은 이마니시가 1918년 교토제대에서 행했던 강의안의 서론에 해당한다. 편집자들에 따르면, 이나미시는 1916년부터 18년까지 3년에 걸쳐 교토제대에서 고려시대 강의를 했고, 그 강의안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다른 날 기회를 빌어 출간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미완으로 끝난 첫 글 이외에는 12편의 작은 논문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玉龍寺先覺大師碑銘」을 해제하고 있는 네 번째 글(1930, 미발표)과 正德刊本 「三國遺事」에 관한 열한 번째 글(1927, 典籍之硏究 5(6)), 그리고 尊經閣叢刊의 「拙藁千百」에 대한 마지막 글(1931, 朝鮮 188)을 제외하고 대체로 1908년부터 1919년 사이에 『東洋學報』나 『藝文』, 『考古學雜誌』, 『史林』 등에 실린 소품으로 이마니시의 연구경력으로 본다면 초기 저작에 해당된다. 이들 글의 원 출처는 다음과 같다. '고려태조 訓要十條에 대해서'(1918, 東洋學報 8), '신라승려 도승에 대해서'(1912, 東洋學報 2(2)), '고려보각국존 일연에 대해서'(1919, 藝文 9(7·8)), '王氏 高麗朝에서 修史에 대해서'(1915, 藝文 6(7)), '正豐峻豐等의 연호'(1911, 東洋學報 1(1)), '壽隆의 연호에 대해서'(1911, 東洋學報 1(10)), '고려의 연호, 光德의 시대'(1912, 考古學雜誌 3(1)), '光德年代考補'(1912, 考古學雜誌 3(3)), '해동고승전에 대해서'(1918, 史林 3(3)).

서명	植民地統治論
편 · 저자	泉哲 (이즈미 아키라)
발간 연도	1921 (大正 10년)
발행 사항	東京: 有斐閣
청구기호	DDC (325.31 Iz8t)
비고	

당시 메이지대학 교수였던 이즈미 아키라(泉哲)가 수업의 참고 교재로 출간한 일종의 강의록이다. 삿포로 출신의 이즈미 아키라는 삿포로농학교를 중퇴하고 16년간 미국에 유학하여 로스엔젤레스대학, 스탠퍼드대학, 컬럼비아대학에서 농업경제학과 국제법을 배웠으며, 일본에 귀국해서는 도쿄외국어학교와 메이지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리고 식민지에 제국대학이 설립되자 1927년 국제공법강좌 교수로 부임해서 1935년 정년을 맞았다. 식민지에 부임하기 이전에 그는 이미 다이쇼 시기 일본을 대표하는 식민정책학자 중 한 사람으로 저명했다. 이 저서는 식민정책학자로서 그의 면모를 가장 잘 보여주는 저작 중 하나로, 실제 영향력도 컸다.

이 책에서 그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히 변해가는 국제정세 속에서 식민지통치에 관한 관점이나 방식도 변해가고 있는 것에 주목하여, 일본도 이런 자유주의적인 변화의 흐름에 합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의 강의는 원칙적으로 조선과 대만은 식민지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일본의 '외지(外地)' 통치도 식민지통치의 일종으로, 그것도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는 낙후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비판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문제를 의식했던 것인지, 필자는 「例言」에서 이 책은 학생들의 강의를 위해 편찬한 것일 뿐, 일반 공중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고 강변했지만, 그의 식민정책학 강의가 미친 영향은 상당해서 1923년부터 제기된 대만의회 설립 청원운동의 이론적 지주로 간주되기도 했다.

필자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이 강의록은 이즈미 자신의 독창적인 주장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위스콘신대학 교수 폴 라인슈(Paul Reinsch)의 저서와 강의를 요령껏 정리한 것에 가까웠다. 라인슈에 따르면, '오늘날의 세계'는 전통적인 제국주의가 현격하게 퇴조하고, 경제적 팽창을 염두에 두고 다자간의 국제협력을 추구하는 '국민 제국주의(national imperialism)'의 시대다. 그리고 이러한 라인슈의 입장을 따른다면, 일본이 식민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는 동화주의는 도리어 시대의 뒤쳐짐을 드러낼 뿐이다. 그렇기에 이즈미는 향후의 식민정책에 대해서 비동화주의에 입각해서 식민지의 내부통치를 피식민자 자신들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었다. 나아가 그는 강의를 빌어 국제주의와 이상주의에 입각해서 일본의 국내정치 및 식민지통치의 문제를 맹렬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물론 그렇다고 이즈미 스스로가 식민통치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은 아니었다. 게다가 그의 식민통치 비판은 세계정치의 필연적 추세라는 관점에서만 이루어졌을 뿐, 식민지 자치라는 것이 식민지인들에게 어떤 의미와 가능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피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러

한 한계는 그가 대만의회설립청원운동이 탄압의 대상이 되었을 때 무력하게 대응했던 것에서, 또 경성제대에 부임한 이후 조선총독부에 의해 자기 자신이 탄압의 대상으로 떠올랐을 때 침묵했던 것에서 이미 일정하게 드러나고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서명	東洋倫理綱要
편 · 저자	服部宇之吉 (핫토리 우노키치)
발간 연도	1926 (大正 15년)
발행 사항	東京: 京文社
청구기호	구장본 동양서 (1100 50)
비고	개정판이지만 원판과 내용은 동일.

일본의 관학 아카데미즘에서 동양철학을 대변하는 존재였던 핫토리 우노키치(服部宇之吉)의 주요 저작 중 하나다. 핫토리는 제국대학 철학과를 졸업한 후 중국과 독일을 유학했고, 1902년부터 1928년까지 도쿄제국대학에서 지나(支那)철학 강좌를 담임했다. 1924년에는 도쿄제대 문학부장, 1926년에는 경성제대의 초대 총장을 겸임했으며, 퇴임한 이후에도 국학원대학 총장, 동방문화학원 이사장 등 요직에서 활동했다. 그는 전통적인 漢學의 흐름과 서양 동양학의 연구전통을 결합하여 근대적인 의미에서 중국철학을 개척했던 사람 중 하나로도 평가받는데, 이 책의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유교로부터 공자의 가르침을 분리하고 이를 국가주의적인 윤리관으로 접목시킨다는 점에서 '국가에 봉사하는 학술'이라는 관학 아카데미즘의 관점에 충실했던 인물이었다.

책의 초판은 1916년 '大日本漢文学会'에서 발행되었는데, 개정판에 따르면 관동대지진의 여파로 모든 게 잿더미가 되어 버린 상황에서 이 책을 다시 내어 달라는 요구가 여러 방면에서 있었기에 '京文社'에서 발행하게 되었으며, 유교윤리에 관한 연구는 그사이 몇 편이 있지만 일단은 옛 원고를 그대로 낸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개정판이라고는 하지만, 1916년의 초판과 비교해보면 「내편(內篇)」, 「외편(外篇)」, 「부록」이 각각 「제1편」, 「제2편」, 「제3편」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내용적으로 제1편은 필자가 1911년 문부성의 촉탁에 의해 집필된 것으로 '공자가 세운 가르침'의 핵심을 '天', '性', '道', '敎'로 풀어낸 후, 중국인들이 전개한 유교가 민족적 색체가 강하고 종교사상을 다분히 함유하고 있는데 반해서 공자의 가르침 그 자체는 윤리적인 의미의 '敎'이며 '家'와 '社會'와 '國家'에 대한 의무를 핵심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1편 8장의 제목, "유교와 공자교는 별개"가 단적으로 드러내듯이 필자는 공자의 가르침 자체는 유학과 분리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인 특유의 민족종교인 유학과 달리, 공자교는 개인을 가족, 사회, 국가와 연결하여 한편으로는 개인의 인격을 중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더 큰 결합의 도구로서 '道'를 '設'하여 양자를 완전 조화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도리어 일본인들 특유의 윤리관과 닮아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제2편은 같은 해 오사카부(府)의 의뢰로 중등교원을 대상으로 했던 강연의 대본으로, 내용적으로는 제1편과 다소 겹치는데 앞서 제기했던 유교와 공자교의 구분을 더욱 밀고 나가서 공자의 가르침 자체와 별개로 중국 특유의 종교사상으로 유교가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이와 구별되는 공자의 가르침은 현재 일본의 상황에서 왜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필자에 따르

면, 공자교는 천황을 중심으로 정치와 교화의 일치를 추구하는 당시 일본의 사상에서 일본국민의 엷어진 신념을 보완하여 국가주의를 강화하는데 중요할 뿐 아니라, 개인주의, 권리사상, 실리주의, 민주주의 등 근대 유럽에서 들어온 새로운 신념들을 극복하는 자원이 되어 세계 윤리사상의 대세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다. 제3편에는 3편의 글이 수록되었는데 필자가 다른 잡지에 실었던 것들로 내용적으로 제1편과 제2편을 보완하고 있다.

4. 목록

연번	서명	편・저자	발간연도	발행사항	청구기호	비고
(1) 근대 한국사/ 한일관계사						
1	朝鮮通交大紀	松浦允任 (마쓰우라 마사타다)	1725년 서문	필사본	구장본 동양서 (4280 16)	저자 및 발간연도 누락
2	新論	會澤安 (아이자와 야스시)	1857	京都	구장본 동양서 (5110 3)	촬영 필요
3	朝鮮聞見錄	佐田白茅 (사다 하쿠보)	1875	東京	단행본 자료실 (915.1 Sa15c)	저자명이 '사다 시로메'로 잘못되어 있음.
4	征韓評論	佐田白茅 (사다 하쿠보)	1875	東京: 忠芬義芳樓蔵版	구장본 동양서 (4170 10)	촬영 필요
5	朝鮮事情	榎本武揚 (에노모토 다케아키)	1876	東京: 東洋社	개인문고 (상백 915.1 C456j)	메이지 9년은 1874년이 아니라 1876년임. 수정 필요.
6	朝鮮交際始末	奥義制 (오쿠 기세이)	1877	東京: 外務省	구장본 동양서 (4280 20)	
7	富國策	汪鳳藻 역	1880	北京: 同文館	구장본 동양서 (6010 150)	역자가 '丁韙良'으로 잘못 표기돼 있음.
8	近世朝鮮政鑑 (上卷)	朴齋炯	1887	東京: 中央堂	동장본 (小 951.05 B148j)	
9	(朝鮮問題) 出師事情	北村宗助 (기타무라 소스케)	1894	大阪: 岡島寶文館	개인문고 (경 951.05 K646s)	
10	朝鮮革新策: 一名 日清開戰論	川崎三郎 (가와카미 사부로)	1894	東京: 博文館	구장본 동양서 (5710 225)	
11	支那朝鮮形勢錄	秋山四郎 (아키야마 시로)	1894	東京 : 共益商社書店	개인문고 (경 952 Ak53s)	아키야마 시로의 沒年이 1931년으로 되어 있는데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12	朝鮮通商事情	鹽川一太郎 (시오카와 이치타로)	1895	東京: 八尾書店	개인문고 (경 382.0951 Sh63c)	원문보기 링크가 있지만, 실제로는 연결돼 있지 않음.
13	蹇蹇錄	陸奥宗光 (무쓰 무네미쓰)	1895	東京: 外務省	구장본 동양서 (5710 16)	
14	日清戰役國際法論	有賀長雄 (아리가 나가오)	1896	東京 : 陸軍大學校	구장본 동양서 (5370 41)	

15	岡本柳之助論策	井田錦太郎 (이다 긴타로)	1898	東京 : 田中三七	개인문고 (경 320.4 Ok1o)	
16	國際法	中村進午 (나카무라 신고)	1900	東京: 東京專門學校出版部	구장본 동양서 (5370 12)	
17	韓半島	信夫淳平 (시노부 준페이)	1901	東京 : 東京堂書店	구장본 동양서 (4790 54)/ 개인문고 (경 915.1 Sh.63k)/ 개인문고 (남창 915.1 Sh.63k)	
18	岩倉公實記	多田好問 (다다 고몬) 편	1906	東京 : 皇后宮職	구장본 동양서 (4617 22)	
19	保護國論	有賀長雄 (아리가 나가오)	1906	東京: 早稻田大學出版部	DDC (325.31 Ar42h)	촬영 필요
20	征韓論實相	煙山專太郎 (게무야마 센타로)	1907	東京: 早稻田大学出版部	구장본 동양서 (4280 86)	
21	故紙羊存	井上角五郎 (이노우에 가쿠고로) 저, 山口四郎 (야마구치 시로) 편	1907	東京 (비매품)	개인문고 (경 049.56 Y143k)	도서관 사이트에는 발행사항을 '東京: 小具庸吉'로 표시했으나, 본서는 비매품이며 小具庸吉은 발행인의 성명임.
22	La guerre russo-japonaise au point de vue continental et le droit international d'apr è s les documents officiels du Grand État-major japonais	有賀長雄 (아리가 나가오)	1908	Paris : A. Pedone	구장본 서양서 (L620 176)	- 서명에 오기가 있음: contienetal → continental - 'section historique de la guerre de 1904-1905'는 괄호로 구분해서 표기할 것
23	韓國 ニ 於 ケル 第一銀行	第一銀行	1908	東京 : 第一銀行	구장본 동양서 (6044 53)	
24	韓國條約類纂	統監府 편	1908	東京 : 統監府	개인문고 (상백 341.251 H193h)	

25	(朝鮮ニ關スル)東亞經濟調査局報告	朝鮮總督府	1913	京城 (비매품)	구장본 동양서 (6090 70)	
26	朝鮮併合之裏面	小松綠 (고마쓰 미도리)	1920	東京 : 中外新論社	개인문고 (남창 951.06 K835c)	
27	李王宮秘史	權藤四郎介 (곤도 시로스케)	1926	京城 : 朝鮮新聞社	구장본 동양서 (4260 4)	저자의 이름이 '權藤西郎介'로 잘못 표기돼 있음.
28	明治十五年朝鮮事變と花房公使	武田勝藏 (다케다 가쓰조)	1929	東京 (비매품)	구장본 동양서 (4280 17)	
29	朝鮮關係考證彙輯	미상	1930	필사본	구장본 동양서 (5710 30)	서울대 유일본. 촬영 필요
30	朝鮮開國交涉始末	奧平武彦 (오쿠다이라 다케히코)	1935	東京 : 刀江書院	구장본 동양서 (5710 75)	
31	近代日鮮關係 の 研究	田保橋潔 (다보하시 기요시)	1940	京城: 朝鮮總督府中樞院	(디지털 콘텐츠)/ 개인문고 (小澤 327.51053 T114k 1963)	
32	太陽	博文館 編	1895-1928	東京: 博文館	구장본 동양서 (Y00 33)	
33	外交時報	外交時報社	1898-1998	東京: 外交時報社	구장본 동양서 (Y55 15)/ 연속간행물 보존서고 2 (P327 G124j)	촬영 필요
34	國際法雜誌/ 國際法外交雜誌	日本 國際法學會	1902-현재	東京: 國際法學會	구장본 동양서 (Y50 13)/ (Y50 13)	『國際法雜誌』와 『國際法外交雜誌』는 같은 저널.
35	國憲編纂起原	宮島誠一郎 (미야모토 세이치로)	1905(정책)/ 1907(부록)	東京 (비매품)	구장본 동양서 (5210 124)	- 발간연도, 발행사항 수정 - 촬영 필요
36	日鮮通交史 (附釜山史)	釜山甲寅會	1915/ 1916	釜山: 釜山甲寅會	개인문고 (남창 951.53 N636)/ 구장본 동양서 (4280 49)/ 개인문고 (경 951.53 N636)/ DDC (951.53 N636)	
37	日本開化小史	田口卯吉 (다구치 우키치)	1929/ 1939	東京: 改造社/ 東京: 岩波書店	구장본 동양서 (4110 97)/ (0210 90)	촬영 필요

38	秘書類贊	平塚篤・金子堅太郎・尾佐竹孟	1933-36	東京: 秘書類纂刊行會	帝國議會資料 (5100 15)/ 臺灣資料 (5100 15 10)/ 外交編 (5100 15)/ 雜纂 (5100 15)/ 日淸事件 (5100 15A)/ 財政資料 (5100 15)/ 帝室制度資料 (5100 15)/ 官制關係資料 (5100 15)/ 兵政關係資料 (5100 17)/ 法制關係資料 (5100 15)/ 實業・工業資料 (5100 15)	주제별로 달리 분류되어 있는데, 같은 문서집이므로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음.
39	東亞先覺志士記傳	葛生能久 (구즈우 요시히사)	1933-36	東京: 黑龍會出版部	구장본 동양서 (4616 57)/ 개인문고 (경 920.053.K156t)	- 발행 연도 잘못 표기되어 있음. - 원문 링크되어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사이트에선 1권만 열람 가능. - 촬영 필요.
40	出島蘭館日誌 (3책)	村上直次郎 (무라카미 나오지로) 역	1938-39	東京: 文明協會	구장본 동양서 (5710 92)	- '고문헌(디지털콘텐츠)'로 1938년 6월 13일자 『東京朝日新聞』의 기사가 링크되어 있는데, 이 기사는 高坂正顯의 『歷史的世界』라는 책에 대한 서평으로서 『出島蘭館日誌』와 관계가 없음. - 한글로 '출도난관일지' 검색어를 입력하는 경우 농학도서관 자료만, '출도란관일지'로는 고문헌자료실 소장 자료만 검색됨.
(2) 동아시아 국제법/ 외교사						
41	公法便覽	Woolsey, Theodore Dwight (드와이트 울지, 吳爾璽) 저, Martin, William Alexander Parsons (윌리엄 마틴, 丁韙良) 역	1877 (光緒 3)	廣東: 羊城十八甫森寶閣	구장본 동양서 (5370 102)	

42	聯合國憲章及國祭法院規約(中文)	國際聯合 (국제연합)	1946	New York: 비매품	구장본 동양서 (5370 106)	
43	各國交涉公法論	Phillimore, Robert (로버트 필리모어, 費利摩, Fei-li-ma)	1894 (光緒 20)	虹口 : 江南製造局翻譯館	구장본 동양서 (5370 42) v.1-16	‘Fei-li-ma(費利摩)’ 는 중국식 발음으로 본명은 Robert Phillimore이다. 傅蘭雅는 존 프라이어(John Fryer).
44	批准說	Martens, Fedor Fedorvich (페도르 마르텐스) 저, 有賀長雄 (아리가 나가오) 역	1889	東京 : 비매품	구장본 동양서 (5370 48)	출판년도 ‘1889’가 설명에 누락.
45	萬國公法	Wheaton, Henry (헨리 휘튼, 惠頓) 저, Martin, William Alexander Parsons (윌리엄 마틴, 丁韙良) 역	1864 (同治 3)	北京: 崇實館	법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古 341 W56mCm)/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자료실 (341 W56mCmf)	
46	Studies in international law	Holland, Thomas Erskine (토마스 홀란드)	1898	Oxford, Clarendon press	구장본 서양서 (L220 1)	
47	Diplomatic documents relating to the outbreak of the European war	Scott, James Brown (제임스 스콧)	1916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구장본 서양서 (L220 123)	
48	公法會通	Bluntschli, Johann Caspar (요한 블룬칠리, 步倫) 저, Martin, William A. P. (윌리엄 마틴, 丁韙良) 역	1896 (建陽 1)	서울: 學部編輯局	동장본 (古 341 B628mKm)	
49	中國封建社會	瞿同祖 (취통주) 저, 田島泰平 (다지마 타이헤이), 小竹武夫 (고무라 다케오) 등역	1942	東京 : 生活社	구장본 동양서 (5740 184)	

50	滿洲憂患史	梅公任 (메이꽁런)	1930	東京 : 外務省情報部	DDC (952.8 H856mJm)	Yü, Chüeh-min(予覺民)은 필명으로 실제 저자는 메이꽁런
51	籌辦夷務始末	杜受田 (두수조), 賈楨 (가정), 寶鋆 (보균) 등	1930	北平	구장본 동양서 (5710 66) v.1-130	1930년 판본은 고문헌 자료실에서만 소장하고 있는 판본.
52	六十年來中國與日本	王芸生 (왕윈셩)	1932	天津: 大公報社	구장본 동양서 (5710 69)	
53	中華民國外交史	張忠紱 (장쫑푸)	1936	北平: 北京大學出版處	구장본 동양서 (5710 87)	
54	中葡外交史	周景濂 (저우징리엔)	1936	北平: 商務印書館	구장본 동양서 (5710 88)	
55	外交思痛錄	莊禹梅 (좡위메이)	1918	上海: 交通圖書館	구장본 동양서 (5710 226)	
56	中外通商始末記	王之春 (왕지춘)	1895 (光緒 21)	北京: 寶善書局	구장본 동양서 (5710 256)	
57	光緒條約	許同莘 (허동신)	1914	北京: 中華民國外交部圖書處	구장본 동양서 (5720 11)	
58	同治條約	許同莘 (허동신)	1915	北京: 中華民國外交部圖書處	구장본 동양서 (5720 13)	
59	約章成案匯覽	北洋大臣衙門洋務局 (북양대신아문 양무국)	1905	上海 : 點石齊	구장본 동양서 (5720 15)	
60	通商各國條約	中華民國 外交部 (중화민국 외교부)	1929	北京: 中華民國外交部	구장본 동양서 (5720 16)	
61	通商約章類纂	徐宗亮 (서종량)	1892	廣州 : 廣東善後局	구장본 동양서 (5720 17)	
62	通商條約章程成案彙編	李鴻章 (이홍장)	1886	邵武 : 鐵城廣百宋齊	구장본 동양서 (5720 18)	
63	各國約章纂要	勞乃宣 (노내선)	1891	上海: 圖書集成印書局鉛印	구장본 동양서 (5720 19)	
64	亞墨利加國條約竝稅則		1859	비매품	구장본 동양서 (5720 37)	
65	英吉利國條約竝稅則		1859	비매품	구장본 동양서 (5720 38)	
66	佛蘭西國條約竝稅則		1859	비매품	구장본 동양서 (5720 39)	
67	阿蘭陀國條約竝稅則		1859	비매품	구장본 동양서) (5720 40)	
68	魯西亞國條約竝稅則		1859	비매품	구장본 동양서 (5720 41)	

69	美國續修條約		1880	비매품	구장본 동양서 (5720 70)	
70	德國續修條約		1880	비매품	구장본 동양서 (5720 71)	
71	機會均等主義關係資料	南滿洲鉄道株式会社 經濟調査会 (남만주철도주식회사 경제조사회)	1935	大連: 南滿洲鉄道株式会社 經濟調査会	구장본 동양서 (5730 71)	
72	歐洲東方交涉記	麥高爾 (맥고이) 저, Young, John Allen (영 앨런, 林樂如) 역, 瞿昂來 (구앙래) 필사	1880	上海 : 江南製造局	구장본 동양서 (9910 36)	
73	日淸修好通商條約草案		1871	비매품	구장본 동양서 (5720 47)	
74	改訂日英同盟條約各國 新聞論評一班	外務省臨時報告委員 (외무성 임시보고위원)	1906	東京: 外務省臨時報告委 會	구장본 동양서 (5720 42)	
75	極東 の 危機	Stimson, Henry Lewis (헨리 스팀슨) 저, 鈴木東民 (스즈키 토민) 역	1936	東京 : 福田書房	구장본 동양서 (5740 107)	
76	近代支那外交史論	王正廷 (왕정정) 저, 竹內克己 (다케우치 카츠코) 역	1929	東京 : 中日文化協會	구장본 동양서 (5710 28)	
77	善隣國寶記	瑞溪周鳳 (즈이케이 슈보)	1466	비매품	구장본 동양서 (5710 4)	
78	四夷館考	羅振玉 (라진옥) 편	1924	上海: 東方學會	구장본 동양서 (5710 61)	
79	外交文牘	中華民國 外交部 (중화민국 외교부) 편	1921-1927	北京: 中華民國 外交部	구장본 동양서 (5700 42)	
80	下關春帆樓に於ける兩 雄の會見	明治史籍研究會 (명치사적연구회) 편	1925	福岡: 明治史籍研究會	구장본 동양서 (5710 218)	
(3) 서구 한국학						

81	Korean speech: with grammar and vocabulary	Ross, John (존 로스)	1882	Shanghai: Kelly & Walsh	구장본 서양서 (G160 2)	
82	On the Corean, Aïno and Fusang writings	Lacouperie, Albert Terrien de (알버트 라쿠페리에)	1892	경성: 경성제국대학교 (비매품)	구장본 서양서 (G160 3)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발행 사항이 '[n.p.]: [n.p.]'로 표기되어 있음. 그러나 학술지 『통보』에 수록된 논문을 발췌 · 제본한 것이므로 발행 사항은 경성제국대학교로 표기함
83	A Corean manual or phrase book	Scott, James (제임스 스콧)	1893	Seoul: English Church Mission Press	구장본 서양서 (G160 5)	
84	Remarks on the Korean language	Ramstedt, Gustaf John (구스타브 람스테트)	1928	경성: 경성제국대학교 (비매품)	구장본 서양서 (G160 6)	발행 사항이 'Helsinki: [n.p.]'로 표기 되어 있음. 그러나 Mémories de la Société Finno-Ougrienne 제58호에 수록된 논문을 발췌 · 제본한 책자이므로 '경성제국대학교'로 표기.
85	Translation of a comparative vocabulary of the Chinese, Corean, and Japanese languages: to which is added The thousand character classic, in Chinese and Corean	Medhurst, Walter H. (월터 메드허스트) 저, Gütalaff, Karl F. (칼 귀출라프) 편	1835	Batavia: Parapattan Press	구장본 서양서 (貴 G162 2)	현재 서지사항에는 저자가 'Philo Sinensis'라고 표기되어 있음.
86	韓英大字典 = The unabridged Korean-English dictionary	Gale, James S. (제임스 게일)	1931	京城: 朝鮮耶蘇教書會	구장본 서양서 (G162 3)	촬영 추천

87	韓英字典 = 한영자뎐: A Concise 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 in two parts: Korean-English & English-Korean	Underwood, Horace G. (호레이스 언더우드), Hulbert, Holmer B. (호머 헐버트), Gale, James S. (제임스 게일)	1890	Yokohama: Kelly & Walsh	구장본 서양서 (G162 9a)	
88	English-Corean dictionary: being a vocabulary of Corean colloquial words in common use	Scott, James (제임스 스콧)	1891	Corea: Church of England Mission Press	구장본 서양서 (G162 10)	촬영 추천
89	A comparative grammar of the Korean language and the Dravidian Dialects of India	Hulbert, Holmer B. (호머 헐버트)	1905	Seoul: Methodist Publishing House	구장본 서양서 (G163 4)	
90	Every-day Korean = 日用朝鮮語	Underwood, Horace H. (호레이스 언더우드)	1921	Seoul: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구장본 서양서 (G167 1)	
91	Corea: the hermit nation	Griffis, William E. (윌리엄 그리피스)	1882/ 1902	New York: Charles Scriber's Sons	구장본 서양서 (H220 2)/ (H220 2e)	
92	The passing of Korea	Hulbert, Holmer B. (호머 헐버트)	1906	London: William Heinemann	구장본 서양서 (H220 4)	
93	Corea and the powers: a review of the Far Eastern question	Duncan, Chesney (체스니 던컨)	1889	Shanghai: Shanghai Mercury	구장본 서양서 (H220 7)	

94	On race struggles in Corea (Read 16th April, 1890)	Parker, Edward H. (에드워드 파커)	1890	경성: 경성제국대학교(비매품)	구장본 서양서 (H220 15)	발행 사항에는 ‘Yokohama: Asiatic Society of Japan, 1890.’ 라고 표기되어 있음. 그러나 Transactions of the Asiatic Society of Japan 제18호에 수록된 논문을 발췌·제본한 책자이므로 ‘경성제국대학교’로 표기함.
95	In Korea with Marquis Ito	Ladd, George T. (조지 래드)	1907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구장본 서양서 (K120 2)	
96	Korea	Hamilton, Angus (앵거스 해밀턴)	1904	London: William Heinemann	구장본 서양서 (K120 4)	
97	The call of Korea: political, social, religious	Underwood, Horace G. (호레이스 언더우드)	1908	New York: Fleming H. Revell	구장본 서양서 (K120 6)	
98	With Tommy Tompkins in Korea	Underwood, Lillias H. (릴리아스 언더우드)	1905	New York: Fleming H. Revell	구장본 서양서 (K120 7)	
99	Account of a voyage of discovery to the west coast of Corea, and the great Loo-Choo Island: with an appendix, containing charts, and various hydrographical and scientific notices	Hall, Basil (바실 홀)	1818	London: John Murray	구장본 서양서 (K120 9)	

100	Narrative of a voyage in His Majesty’s late ship Alceste to the Yellow Sea, along the coast of Corea, and through its numerous hitherto undiscovered islands, to the island of Lewchew: with an account of her shipwreck in the straits of Gaspar	M’leod, John (존 맥레오드)	1817	London: John Murray	구장본 서양서 (K120 10)	
101	Things Korean: a collection of sketches and anecdotes, missionary and diplomatic	Allen, Horace N. (호레이스 뉴턴 알렌)	1908	New York: Fleming H. Revell	구장본 서양서 (K120 12)	
102	Korea	Coulson, Constance J. D. (콘스탄스 쿨슨)	1910	London: Adam and Charles Black	구장본 서양서 (K120 15)	
103	In the uttermost East: being an account of investigations among the natives and Russian convicts of the Island of Sakhalin, with notes of travel in Korea, Siberia, and Manchuria	Hawes, Charles Henry (찰스 하웨스)	1904	London: Harper & Brothers	구장본 서양서 (K120 30)	

104	A catalogue of the romanized geographical names of Korea= 羅馬字策引朝鮮地名字彙	小藤文次郎 (고토 분지로), 金澤庄三郎 (가나자와 쇼부로)	1903	Tokyo: University of Tokyo	구장본 서양서 (K120 31)	
105	Pictorial Chosen and Manchuria	Bank of Chosen	1919	京城 : 朝鮮銀行	구장본 서양서 (K120 36)	
106	Korea and the ten lost tribes of Israel with Korean, Japanese and Israelitish illustrations	McLeod, Nicholas/Norman (니콜라스/노먼 맥레오드)	1879	Yokohama: C. Levy and the Sei Shi Bunsha cohsen	구장본 서양서 (K120 42)	
107	Report by Mr. Carles on a journey in two of the central provinces of Corea, in October 1883	Carles, William Richard (윌리엄 칼스)	1884	London: Printed by Harrison and Sons	구장본 서양서 (K120 44)	
108	Report by Vice-Consul Carles of a journey from Söul to the Phyöng Kang Gold-washings, dated May 12, 1885	Carles, William Richard (윌리엄 칼스)	1885	London: Printed by Harrison and Sons	구장본 서양서 (K120 45)	
109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or, Life in Korea	Underwood, Lillias H. (릴리아스 언더우드)	1904	Boston: American Tract Society	구장본 서양서 (K120 51)	

110	Korea and her neighbours: a narrative of travel, with an account of the vicissitudes and position of the country	Bishop, Isabella Bird (이사벨라 비숍)	1905	London: John Murray	구장본 서양서 (K120 58 1)/ (K120 58 2)	
111	Korea: terrain appreciation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19--]	Washington: U.S. Army Corps of Engineers, Office of the Chief of Engineers	구장본 서양서 (大 K120 59)	서지사항에 저자를 ‘United States Army, Office of the Chief of Engineer’로 표기되어 있음. 그러나 이는 발행 주체이며, 문서를 작성한 것은 내무성 산하의 지질조사국임. 촬영 추천.
112	The Cloud dream of the nine, a Korean novel: a story of the times of the Tangs of China about 840A.D.	Kim Man-Choong, translated by Gale, James S.	1922	London: Daniel O’Connor	구장본 서양서 (F118 2)	
113	Uncle Mac the missionary, or, More news from Korea	Perry, Jean (진 페리)	1908	London: Partridge	구장본 서양서 (F118 3)	서지사항에 발행연도가 ‘[19--]’로 표기되어 있음. 촬영을 추천함.
114	Korean fairy tales	Griffis, William Elliot (윌리엄 그리피스)	1922	New York: Tomas Y. Crowell Company	구장본 서양서 (F118 4)	현재 발행사항이 ‘London: George G. Harrap’으로 표기되어 있음. 그러나 이는 동 저자가 1911년에 출간한 Fairy Tales of Old Korea 를 발행한 출판사이므로 오기임.
115	The Fragrance of spring	Urquhart, Edward J. (에드워드 우르크하트)	1929	Seoul: 時兆社	구장본 서양서 (F118 6)	
116	The rebirth of Korea: the rewakening of the people, its causes and the outlook	Cynn, Hugh Heung-wo (신흥우)	1920	New York: Abingdon Press	구장본 서양서 (M250 9)	

117	The New Korea	Ireland, Alleyne	1926	New York: E. P. Dutton	구장본 서양서 (M250 13)	
118	The Korean conspiracy trial: full report of the proceedings	special cerrespondent of the Japan Chronicle	1912	Kobe: Office of the “Japan Chronicle“	구장본 서양서 (M250 274)	관련 도서로 조선총독부 외사국에서 외신 보도를 모은 자료집이 현재 고문헌 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다. [(貴M250 42 1-5)/ (M250 43 1-9)] 이들 자료집에 대한 촬영과 해제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추천함.
119	Thriving Chosen: a survey of twenty-five years’ administration	Government-General of Chosen (조선총독부)	1935	Keijo: Taisho Shashin Kogeisho	구장본 서양서 (M450 161)	Edited by Foreign affairs section
120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Rhee, Syngman (이승만)	1912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구장본 서양서 (M600 101)	
(4) 정치학						
121	分權論	福沢諭吉 (후쿠자와 유키치)	1877	東京 : 福沢諭吉	구장본 동양서 (5500 124)	일본국회도서관본과 출판년월이 동일하나 겉표지, 속표지, 판권지의 차이가 있어 같은 판본으로 보기 어려움. 촬영 필요.
122	自由略論	大井憲太郎 (오이 겐타로)	1889	大阪 : 中村芳松	구장본 동양서 (5500 125)	경성제대본은 일본국회도서관본과 다른 판본임.
123	民約論覆義	Rousseau, Jean-Jacques (장 자크 루소) 저, 原田潛 (하라다 센) 역	1883	東京 : 春陽堂	구장본 동양서 (5500 129)	일본국회도서관 등 다른 아카이브에 소장되어 있으나, 공개되어 있지 않음. 촬영 필요.
124	時事小言	福沢諭吉 (후쿠자와 유키치)	1881	東京 : 福沢諭吉	구장본 동양서 (5500 136)	속표지에 ‘저자장판(著者藏版)’으로 되어 있음.
125	混同秘策	佐藤信淵 (사토 노부치) 저, 織田完之 (오다 칸시) 편	1888	東京 : 穴山篤太郎	구장본 동양서 (5500 34)	

126	自由之理	Mill, John Stuart (존 스튜어트 밀) 저, 中村正直 (나카무라 마사나오) 역	1877	東京 : 木平謙一郎	구장본 동양서 (5500 51)	전 2책. 번역자의 본명은 '나카무라 마사나오'로, 책 표지에 이름이 '中村敬太郎'라고 나오지만 사이트에는 ' 中村正直 '를 병기할 필요가 있다. 나카무라 마사나오는 그의 호인 게이우(敬宇)로 잘 알려져 있지만, 본명 역시 같이 표시해야 한다.
127	宰相責任論	Rebecque, Benjamin Constant de (뱅자맹 뢰벡) 저, 大塚成吉 (오오츠카 나리요시) 역	1883	東京 : 潜心堂	구장본 동양서 (5500 64)	
128	經世新論	杉田定一 (스기타 데이이치)	1880	大板 : 杉田定一	구장본 동양서 (5500 95)	도서관 사이트의 발행사항에 출판지가 누락되어 있음. '오사카'로 수정되어야 함. 책의 내용에 대한 부기 및 낙서가 있음. '스기타 테이이치' 인데 '사다이치'로 오기. 수정 필요.
129	日本政体史 (政治学経済学法律学講習全)	秦政治郎 (하타 세이지로)	1890	東京 : 博文館	구장본 동양서 (5510 105)	저자 하타 세이지로의 이름이 '마사지로'로 표기되어 있음. 수정 필요.
130	共和原理	Naquet, Alfred Joseph (알프레드 조셉 나케) 저, 奥宮健之 (오쿠노미야 겐시) 역	1882	東京 : 自由出版會社	구장본 동양서 (5510 106)	상하 2권으로 되어 있음. 도서관에서 검색이 안됨. 일본국회도서관본은 상하 2권을 합쳐서 파일로 만들어서 판권지 등이 빠져 있음. 촬영 필요.
131	政治學	Rathgen, Karl (칼 라트겐) 저, 山崎哲蔵 (야마자키 데쓰조), 李家隆介 (리노이에 류스케) 역	1894	東京 : 明法堂	구장본 동양서 (5510 130)	도서관 링크는 일본국회도서관본과 연결되어 있는데, 경성제대본과 다른 판본임.
132	眞政大意	加藤弘之 (가토 히로유키)	1870	東京 : 谷山樓	구장본 동양서 (5510 153)	발행사항에 출판지 정보가 빠져 있음. '東京'으로 수정. 『진정대의』의 일본국회도서관 디지털 파일은 해상도가 너무 떨어져서 원본의 서지적 특징이나 형태를 알기 어려움. 높은 해상도로 촬영 필요.

133	政治眞論: 一名主權辯妄	Benthan, Jeremy (제레미 벤담) 저, 藤田四郎 (후지타 시로) 역	1882	東京 : 自由出版會社	구장본 동양서 (5510 164)	
134	(斯邊撒氏) 代議政體論	Spencer, Herbert (허버트 스펜서) 저, 스즈키 요시무네 (鈴木義宗) 역	1878	東京 : 鈴木義宗	구장본 동양서 (5510 165)	일본국회도서관본의 경우 9쪽에서 12쪽까지 결락. 역자의 이름이 ‘스즈키 요시무네’인데 ‘스즈키 기소’로 오기.
135	通俗國權論	福澤諭吉 (후쿠자와 유키치)	1878	東京 : 福澤諭吉	구장본 동양서 (5510 166)	
136	日本民權眞論	丹羽純一郎 (니와 준이치로)	1879	東京 : 高橋源五郎	구장본 동양서 (5510 175)	
137	東京土産	元田直 (모토다 나오시)	1871	東京 : 鈴木喜右衛門	구장본 동양서 (5510 239)	‘모토다 나오시’인데 ‘하라다 타다시’로 오기. 수정 필요.
138	民權自由論	植木枝盛 (우에키 에모리)	1879	大阪 : 小池仙次	구장본 동양서 (5510 256)	
139	政學提綱	林正明 (하야시 마사아키) 역	1873	東京 : 求知堂	구장본 동양서 (5510 79)	촬영 필요.
140	公議所日誌		1869 (明治 2년)	本町(江戶): 上州屋惣七	구장본 동양서 (5520 30)	상하 2책 16권. 발행사항이 미상으로 나옴. 발행사항 수정 필요. 총 19권이나, 경성제대본은 16권만 있음. 와세다대본은 총 4책으로 편집되었고, 경성제대본은 2책(상권 1-9권, 하권 10-16권)으로 편집함.
141	萬國政表	博文局	1886	서울: 博文局	구장본 동양서 (5590 108)	서울대 디지털 버전 존재. 총 4권
142	英國政事概論	Amos, Sheldon (셸던 아모스) 저, 安川繁成 (야스가와 시게나리) 역	1875	東京 : 詩香堂	구장본 동양서 (5590 326)	상편 3권 하편 3권 총 6권이나, 경성제대본은 상편만 소장되어 있다. 일본국회도서관본은 내표지가 검게 나와 있음. 상편 3권 마지막 장의 경우 일본국회도서관본은 ‘森江佐七版’으로 되어 있으나, 경성제대본은 ‘版’자가 탈락되어 있고 대신 도장이 찍혀 있음.

143	英政如何	鈴木唯一 (스즈키 유이치)	1868 (慶應 4년)	九潛館	구장본 동양서 (5590 327)	저자명이 ‘스즈키 유이치’, 혹은 ‘다다이치’ 인데 ‘스즈키 타다카즈’ 로 오기되어 있음. 수정 필요. 전체 6권인데, 경성제대본은 3권만 소장되어 있음(확인 3권). 일본국회도서관과 4권이 연결되어 있음. 원서는 알바니 퐁블랑크(Albany Fonblanque)의 How We are Governed 이나 표지에 나오지 않고 1장 서론에서 설명됨.
144	Prosperity and politics	Benn, Ernest John Pickstone (어네스트 J. P. 벤)	1924	London: Jarrolds	구장본 서양서 (M000 150)	
145	Problems of power: A Study of international politics from Sadowa to Kirk-Kilissé	Fullerton, William Morton (윌리엄 모튼 풀러턴)	1914	London: Constable & Co.	구장본 서양서 (M000 153)	도서관 링크는 1920년본임. 이 판본은 최종본(the definitive edition)이며, 경성제대 소장본과 달리 최종본에 대한 노트가 포함되어 있음. 다른 사이트에서 확인되는 판본은 초판본인 1913년본이나 1915년본이 대부분임.
146	A treatise on the methods of observation and reasoning in politics	Lewis, George Cornewall (조지 코넬 루이스)	1852	London: John W. Parker and Son	구장본 서양서 (M000 89)	총 2권. 발행사항이 ‘London: Parker’ 로 되어 있으나 ‘London: John W. Parker and Son’ 으로 수정 필요.
147	Essays: social and political	Smith, Sydney (시드니 스미스)		London and New York: Ward Lock and Co., Warwick House	구장본 서양서 (M040 16)	출판지가 ‘London’ 으로만 나오는데 ‘London and New York: Ward Lock and Co.’ 로 수정되어야 함. 이 책은 다른 아카이브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으므로 촬영해도 좋다고 판단됨.
148	Œuvres complet̀ es d’Alexis de Tocqueville	Tocqueville, Alexis de (알렉시스 드 토크빌)	1864-1867	Paris: Michel Le´ vy fre` res	구장본 서양서 (M040 2)	총 9권 전집인데 4권이 없음. 1, 2, 3권의 첫번째 속표지는 1865년으로, 두번째 속표지는 1864년으로 되어 있음. 5권은 모두 1866년으로 표시됨.

149	The complete works in philosophy, politics, and morals, of the late Dr. Benjamin Franklin, now first collected and arranged: with memories of his early life	Franklin, Benjamin (벤자민 프랭클린)		London: Printed for FOR J. JOHNSON, & CO. ST. Paul' s Church-Yard; And Longman, Hurst, Rees, Orme, and Brown, Paternoster-Row	구장본 서양서 (M040 30) v.1-3	총 3권. 경성제대본의 연대가 확실하지 않음. 도서관 사이트에 발행사항을 'London : J. Johnson' 으로만 기재했는데 수정되어야 함.
150	Speeches in Parliament, of the Right Honourable William Windham : to which is prefixed, some account of his life	윌리엄 윈덤 (William Windham)	1812	London: Longman, Hurst, Rees, Orme and Brown, Paternoster-row; and James Ridgeway, Piccadilly	구장본 서양서 (M040 38)	총 3권. 발행사항 수정 필요.
151	Selections from Cobbett's political works: being a complete abridgment of the 100 volumes which comprise the writings of "Porcupine" and the "Weekly political register"	윌리엄 코벳 (William Cobbett), 1763-1835	1835-1837	London: Ann Cobbett	구장본 서양서 (M040 8)	총 6권.

152	Physics and Politics	Bagehot, Walter (월터 배젓)		Essex, England: The Anchor Press LTD.	구장본 서양서 (M000 105)	출판연도가 확인되지 않음. 다른 판본들과 비교해 볼 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음. 촬영 필요.
153	Essays in political and moral philosophy	Leslie, Thomas Edward Cliffe (토마스 레슬리)	1879	Dublin: Hodges Foster & Figgis/ London: Longman, Green, & Co., Paternoster-row	구장본 서양서 (M050 28)	
154	Burke's speech on conciliation with America	Burke, Edmund (에드먼드 버크)/ LaMont, Hammond (하몽 라몽)	c.1897	Boston・New York・Chicago・London: Ginn & Company	구장본 서양서 (M090 2)	google books에 동일한 판본의 디지털 버전이 있음.
155	History of the life and times of Edmund Burk	Macknight, Thomas (토마스 맥나이트)	1858	London: Chapman and Hall	구장본 서양서 (M060 1)	총 3권이나 경성제대본은 2권만 있음. google books에 동일한 판본의 디지털 버전이 있음.
156	Studies in the Politics of Aristotle and the Republic of Plato	Loos, Isaac Althaus (아이작 알트하우스 루스)	1899	Iowa City: The University Press	구장본 서양서 (M060 86)	
157	The right Honourable Benjamin Disraeli, M.P.: a literary and political biography: addressed to the new generation	Macknight, Thomas (토마스 맥나이트)	1854	London: Richard Bentley	구장본 서양서 (M060 17)	

158	Thoughts on the cause of the present discontents together with Observations on a Late publication intituled ‘The present state of the nation’	Burke, Edmund (에드먼드 버크)	1913	London: George Routledge & Sons	구장본 서양서 (M050 25)	1770년에 에드먼드 버크가 출판한 Thoughts on the cause of the present discontents 와 1769년 출판한 Observations on a Late publication intituled ‘The present state of the nation’ 가 합본으로 되어 있으므로 제목의 대소문자를 바꿀 필요가 있음. 촬영 필요.
159	Political essays	Cairnes, John Elliot (존 엘리엇 케언스)	1873	London: MacMillan and co.	구장본 서양서 (M050 38)	
160	Political essays	Bradlaugh, Charles (찰스 브래들로)	1882	London: Freethought Publishing Company	구장본 서양서 (M050 50)	Political Essays 는 1882년본과 1887년본이 확인되는데, 1882년본은 거의 찾기 어려움. 촬영 필요.
(5) 사회학						
161	朝鮮 と 簡易學校	池田林儀 (이케다 시게노리)	1935	京城 : 活文社	DDC (370.951 Ik3c)	
162	國史の研究: 總說の部, 各說の部	黑坂勝美 (구로이타 가쓰미)	1913 (總說の部) / 1918 (各說の部)	東京: 文会堂書店	구장본 동양서 (4100 5)	
163	滿洲發達史	稻葉君山 (이나바 이와키치)	1915	東京: 大阪屋號出版部	구장본동양서 (4391 1)/ DDC (952.8 Inlh)/ 개인문고 (남창 952.8 Inlh)/ 농학도서관 (953.8 In1m)	(增訂)滿洲發達史: (4391 1A); 952.8 In1m2/ (漢譯)滿洲發達史: (4391 40)
164	朝鮮史 / 滿州史	稻葉岩吉 (이나바 이와키치)/ 矢野仁一 (야노 진이치)	1935	東京 : 平凡社	구장본 동양서 (4030 20)/ DDC (909 Se47h)/ 개인문고 (남창 909 S347h)	

165	社會學講義	浮田和民 (우키타 가즈타미) 저, 帝國教育會 (제국교육회) 편	1906 (4 版)	東京 : 開發社	개인문고 (심악 301 Uk5s)	
166	普通社會學	建部遯吾 (하세베 돈고)	1918-21 (初至六版)	東京: 開發社	구장본 동양서 (6510 30)	
167	社會學之原理 . 第一卷	Spencer, H. (허버트 스펜서) 저, 乘竹孝太郎 (노리타케 고타로) 역	1885	東京 : 經濟講習會	구장본 동양서 (6510 18)	원저는 Works / by Herbert Spencer; 구장본 서양서 (B360 4)
168	社會學	Spencer, H. (허버트 스펜서) 저, 大石正巳 (오이시 마사미) 역	1883	東京	구장본 동양서 (6510 22)	원저는 Works / by Herbert Spencer; 구장본 서양서 (B360 4)
169	社會統計學	Mayo-Smith, Richmond (리치몬드 메이요-스미스) 저, 吳文聰 (구레 아야토시) 역	1900	東京	구장본 동양서 (6510 28)	저자 표기 오류
170	歷史と教育/ 現代哲學の主潮/ 朝鮮文化史上 より 見 たる 忠南	忠淸南道教育會 (충청남도교육회) 편	1933	[S.l.]: 忠淸南道教育會	구장본 동양서 (2000 174)	일반사항: 夏季講習會速記錄
171	水原高等農林學校一覽	水原高等農林學校 (수원고등농림학교) 편	1930	水原: 水原高等農林學校	구장본 동양서 (Y21 100)	동일 청구기호(Y21 100)에 昭和 9년(1934)판 소장/ DDD (378.512 Su37ic)에 昭和 6년(1931)판도 소장
172	京城法學專門學校一覽	京城法學專門學校 (경성법학전문학교) 편	1920s-	京城: 京城法學專門學校	구장본 동양서 (Y21 42)	
173	京城醫學專門學校一覽	京城醫學專門學校 (경성의학전문학교) 편	1900s-	京城: 京城醫學專門學校	구장본 동양서 (Y21 41)	
174	京城高等商業學校一覽	京城高等商業學校 (경성고등상업학교) 편	1920s- 1940s	京城: 京城高等商業學校	구장본 동양서 (Y21 43)	
175	京城高等工業學校一覽	京城高等工業學校 (경성고등공업학교) 편	1910s- 1940s	京城: 京城高等工業學校	구장본 동양서 (Y21 117)	

176	京城帝國大學豫科一覽	京城帝國大學豫科 (경성제국대학예과) 편	[19--]-	京城: 京城帝國大學豫科	구장본 동양서 (Y21 40)	
177	朝鮮敎育大觀	西村綠也 (니시무라 로쿠야) 저, 指愼三 편	1930	京城: 朝鮮敎育大觀社	구장본 동양서 (2280 6)	
178	朝鮮 の 群衆	朝鮮總督府官房文書課 (조선총독부관방조사과)	1926	京城 : 朝鮮總督府	DDC (301.15 C458j)	
179	朝鮮民政資料 : 牧民編	內藤吉之助 (나이토 키치노스케) 편	1942	京城 : 內藤吉之助	구장본 동양서 (5120 2)	
180	朝鮮 の 司法制度	朝鮮總督府法務局法務課 (조선총독부법무국법무과) 편	1936	京城: 朝鮮總督府法務局	구장본 동양서 (5360 13)	
181	朝鮮史要略	小田省吾 (오다 쇼고)	1915	朝鮮敎育會	개인문고 (상백 951.01 Od1c)	
182	朝鮮史大系	朝鮮史學會 (조선사학회)	1927	京城 : 朝鮮史學會	구장본 동양서 (4220 3)	
183	朝鮮史 の 栞	今西龍 (이마니시 류)	1935	京城 : 近澤書店	DDC (951.01 Im3s)	
184	高麗史硏究	今西龍 (이마니시 류)	1944	京城 : 近澤書店	DDC (951.04 Im3k)	
185	植民地統治論	泉哲 (이즈미 아키라)	1921	東京 : 有斐閣	DDC (325.31 Iz8t)	
186	東洋倫理綱要	服部宇之吉 (핫토리 우노키치)	1926	東京 : 京文社	구장본 동양서 (1100 50)	개정판이지만 원판과 내용은 동일하다.